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KEI

사업보고서
2023-07-06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

KEI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2023

강택구 | 김진환 | 이영표 | 신소은 | 이준호

K O R E A
E N V I R O N M E N T
I N S T I T U T E



■ 저 자 강택구, 김진환, 이영표, 신소은, 이준호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진환 (EC21R&C 선임연구원)
	이영표 (EC21R&C 선임연구원)
	신소은 (EC21R&C 선임연구원)
	이준호 (EC21R&C 주임연구원)

© 2023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3년 12월 26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928-6 94530 979-11-5980-907-1 (전6권 세트)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택구 외(2023),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 한국환경연구원.

값 16,000원

이 보고서는 2023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전 6권 세트)의 제6권입니다.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3-07-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 협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론 2. 2023년 연구사업 요약 3. 성과와 한계
(제2권) 사업보고서 2023-07-02	북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II (전동준)	1. 서론 2. 북한 생태환경 현황 및 정보 구축 3. 북한 개발계획 현황 및 생태환경 영향 분석 4.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3-07-03	환경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남북 협력 연구: 협력 주체를 중심으로 (명수정)	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이행 3.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주제 4.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환경협력과 추진 전략 5.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3-07-04	조선시대 문헌 분석을 통한 포유 동물 분포 복원과 남북협력 방향 (구경아)	1. 서론 2. 조선시대 포유동물 공물 및 DB 구축 3. 조선시대 시대별 포유동물 분포 분석 4. 조선시대 멸종위기 포유동물 분포 특성· 변화 분석 및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5. 결론 및 정책 제언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계속)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3-07-05	유라시아 주요 국가간 환경협력과 갈등 분석 및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필수)	1. 서론 2. 러시아와 중국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환경정책 공조 3. 몽골·중국·러시아 사이의 환경 이슈와 정책 공조 4.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수자원 관련 이슈와 정책 공조 5. 소련 핵실험의 유산: 세미팔라틴스크 핵 실험장과 카자흐스탄 내 방사성 물질 피해에 대한 인식 6. 한반도 환경공동체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제6권) 사업보고서 2023-07-06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 구성

「KEI 북한환경동향」은 북한 환경 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발간하지 못한 해도 있었다. 2017년부터는 매년 1차례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북한과 국내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북한의 환경 관련 자료를 환경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북한의 경우 중앙통신, 중앙방송, 『로동신문』, 『민주조선』이다. 북한의 기사는 자료 제공 목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원문의 표현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요약하였다. 한편, 국내의 경우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대상은 중앙지 11개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다. 경제지는 8개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이고, 방송사는 5개로 KBS, MBC, OBS, SBS, YTN이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은 북한과 국내 환경 뉴스를 각각 1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각 세부 분야는 기상과 대기, 기후변화와 재난, 농업과 축산, 보건과 환경오염,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수자원, 식량, 자원순환과 에너지, 정치경제, 지질과 지형, 토양, 한반도와 국토환경, 해양, 환경 정보화 및 과학기술이다.

| 차례 |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1. 기상과 대기	1
2. 기후변화와 재난	12
3. 농업과 축산	38
4. 보건과 환경오염	142
5. 산림	145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181
7. 수자원	192
8. 식량	214
9. 자원순환과 에너지	239
10. 정치경제	268
11. 지질과 지형	289
12. 토양	301
13. 한반도와 국토환경	316
14. 해양	350
15. 환경 정보화 및 과학기술	369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388
1. 기상과 대기	388
2. 기후변화와 재난	397
3. 농업과 축산	413
4. 보건과 환경오염	432
5. 산림	440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446

7. 수자원	450
8. 식량	457
9. 자원순환과 에너지	497
10. 정치경제	512
11. 지질과 지형	530
12. 토양	533
13. 한반도와 국토환경	537
14. 해양	547
15. 환경 정보화 및 과학기술	555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기상과 대기

■ 기상예보의 과학성 보장에 더 큰 박차를(『로동신문』, 2023.3.17)

- 기상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상수문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예보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예보대에서는 단기예보의 맞춤률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과 수치예보 모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재해성기상현상에 대한 검색체계와 합리적인 강수예보체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임

■ 기상수문 부문이 척후조의 임무를 다하자(『로동신문』, 2023.3.21)

- 기상수문국의 역할은 올해 농사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농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침
- 최근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의 증가로 기상수문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기상관측과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농업 부문에서 자연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농사문제와 식량문제는 기상예보의 정확성과 연결되어 있음

■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그 후과(『로동신문』, 2023.3.22)

- 지난해 세계의 대기오염상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얼마 전에 공표되었음

- 미세먼지는 공기속에 들어있는 매우 작은 입자상태의 오염물질로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함
- 연구사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결핵과 에이즈에 의한 피해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면서 세계각국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상예보의 과학성 보장에 더 큰 박차를(『조선신보』, 2023.3.17)

- 기상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 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상수문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예보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예보대에서는 단기예보의 맞춤률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과 수치예보 모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음
- 예보대의 일군들과 예보원들은 농사의 운명을 걸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헌신함
- 재해성기상현상에 대한 검색체계와 합리적인 강수예보체계 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임

■ 농업기상통보사업개선에 주력(『로동신문』, 2023.5.18.)

- 기상수문국 기상수문연구원 기후연구소는 농업기상통보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기상통보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영농과정, 작물, 생육시기에 따른 기상조건들을 자료로 구축하고, 연구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자료기지 구축사업의 진행으로 알곡고지 점령에 기여하며 농업기상통보의 과학성을 강화하는 데 성과를 얻었음

■ 농작물생육예보의 과학성 제고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5.18)

- 농작물생육예보사업은 농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여 농작물보호대책과 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기상수문국과 농업과학연구 부문의 일원들은 현실적인 농업기술대책을 개발하고 농작물생육예보의 과학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함

■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로동신문』, 2023.6.14)

-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평균강수량도 많아지겠지만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기후 변동이 불확실해지며, 과거 엘니뇨 발생해에서는 여름철에 가물, 폭염, 고온, 극단적인 폭우 등의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함
- 1997년과 2002년에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폭염과 고온이 서해안과 북부지역에서 나타났음
- 2018년에는 동서해안과 중부내륙에서 7월 25일부터 기온이 매우 높아져 평년보다 5.9~13℃ 높았으며, 8월 28일~29일에는 황해남북도에서 특대형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비가 내렸음
- 불확실한 기후 변화와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와 지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재해성 기후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조선의 전반적 지역에서 보리장마(『조선신보』, 2023.6.19)

- 6월 8일부터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보리장마가 시작되었으며, 굵은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멈추었다 하며 비가 일정한 패턴으로 내림

- 북부내륙과 동해안에서는 계속된 비가 예상되고, 서해안에서는 소낙비가 나타났으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예상되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보리장마는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으로는 물기 보장, 부정적으로는 밀보리 작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 대실장은 보리장마와 관련하여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해야 할 대책을 강조하였음

■ 전반적 지역에서 많은 비 예견(『로동신문』, 2023.6.21)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따르면 평양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1일에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 3,050mm의 강수량,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2,040mm의 강수량이, 그 외 지역에서는 5~20mm의 강수량이 예상됨
- 특히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인 리원과 문천 등에서는 70~100mm의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음
-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지역은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비하여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당적으로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자(『로동신문』, 2023.6.22)

- 올해 재해성기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다양한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당의 결정을 실천하는 중요하고 책임 있는 사업

- 재해성기상에 대한 대응이 올해의 목표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단위와 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중의 정신력을 동원하고 인식을 높여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주도적이고 결사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이끌어야 함

■ 올해 장마시작의 특징과 예견되는 날씨(『로동신문』, 2023.6.28)

- 2월 26일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 보름정도 일찍 시작되었음
-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북서태평양아열대고기압이 강화되어 장마전선이 북위 35°까지 이동하며,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조선서해남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 합쳐져 장마전선이 형성됨
- 이번 장마는 지난 시기처럼 여러 날에 걸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북위 35°까지 올라온 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며 비 내리는 기간이 짧고 소낙비가 자주 내림
- 장마기간 중 농업부문에서는 밀, 보리, 감자 등 앞그루작물 수확 및 농작물 비배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장마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재해성 기상현상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동신문』, 2023.6.29)

- 김정은 위원장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는 장마로 인한 큰물과 폭우,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급선무임

-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생육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수문 및 물빼기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물피해를 방지하고,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찰과 농약 처리가 필요함
- 지방 농업지도기관과 일군들은 현장지도에 열정을 기울이며 농업 대책을 미리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함

■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로동신문』, 2023.7.4)

- 4일부터 10일 사이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비침률이 낮고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
-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남부, 개성시,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평안남도 청천강류역에서 100,150mm, 함경북도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70,100mm, 량강도에서 1,030mm, 기타 지역에서 4,080mm의 강수량 예상됨
- 4일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s 이상의 센바람이 예상됨

■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 발령(『로동신문』, 2023.7.12)

- 13일 오후부터 14일 밤까지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예상되어 경보가 발령되었음
- 해당 지역에서 8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배천군, 금천군, 이천군 등 국부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를 동반한 15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되었음
- 해당 지역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폭우와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작물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로동신문』, 2023.8.1)

- 폭우로 인한 비 주의경보 발령에 증산군 만풍농장은 긴장하였으나, 이미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물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음
- 논물관리공들은 물높이를 항시 감시하고 시간별로 보고하여 안전한 농작물 생육을 보장함
- 작업은 힘들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올해 농사를 잘 지을 결심이 빛나며, 농작물의 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었음

■ 태풍 6호의 이동경로와 우리 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로동신문』, 2023.8.8)

- 7월 28일 발생한 태풍 6호가 현재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서서히 북동으로 이동 중이며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28m/s로 나타났음
- 태풍 6호는 앞으로 일본 규슈 서쪽해상을 거쳐 북쪽으로 이동할 전망
- 이에 따라, 10일에는 룡연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지역과 동해안에서 센바람이 10~15m/s로 불며, 특히 강원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지역에서는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
- 폭우도 예견되어, 강원도와 함경남도남부 바닷가에서 250,350mm의 아주 많은 비가 예상되며, 내륙지역과 라선시에서는 100,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
- 또한, 조선동해안에서는 10일 오전부터 11일 오전까지 70~100cm의 해일이 예견되며, 바다에서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모든 지역과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함

■ 여러 지역에 센바람, 폭우, 많은 비, 해일, 해상경보 발령(『로동신문』, 2023.8.9)

-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태풍 6호로 센바람, 폭우, 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10일부터 11일까지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센바람주의경보가 내려졌으며, 특히 고성, 리원, 명간군 등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몇몇 지역에서는 15m/s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바닷가에서는 250,350mm의 아주 많은 비가 예상되며, 내륙 지역과 황해북도 동부지역, 개성시, 라선시에서는 100,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
- 해안지역에서는 70~100cm의 해일이 예상되어 해일주의경보가 내려졌으며, 조선동해와 조선서해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물결중급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됨

■ 여러 지역에 폭우, 많은 비 예견(『로동신문』, 2023.8.21)

-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21일 밤부터 22일까지 평안남북도 내륙과 자강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황해남북도 동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폭우와 많은 비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되었음
- 21일 밤부터 22일 오전에는 평안남북도 내륙과 자강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80mm의 강한 폭우를 동반한 100,150mm,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음
- 22일 아침부터 23일 새벽까지는 황해남북도 동부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시간당 3,05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

■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로동신문』, 2023.8.23)

- 채취공업 부문에서는 큰물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시경영성에서는 위험개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

■ 기상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조선신보』, 2023.8.25)

- 기상수문국은 최근의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기상예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정보의 맞춤형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각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를 통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봉사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자료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기온변화, 대기습도, 재해경보 등을 포함한 날씨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자연재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 기상수문국의 일군들과 연구사, 예보원들은 과학적인 기상기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상수문국은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의 개선을 위해 집체적인 지혜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 지역에 센바람, 폭우, 많은 비 경보 발령(『로동신문』, 2023.8.27)

- 중국에서 시작된 저기압이 조선서해중부 및 동서해안에 영향을 미치며, 10~15m/s의 센바람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황해남도 지역에서 28일부터 29일까지 센바람과 강한 비가 예상되며, 해주시, 룡연군, 웅진군, 강령군, 벽성군에서는 29일 동안 15m/s의 센바람이 예상됨
-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28일부터 29일까지 비가 예상되며,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100~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됨
- 국부 지역에서는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어 대비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 농작물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함

■ 최근 태풍활동의 특징과 예견되는 상황(『로동신문』, 2023.9.6)

- 북서태평양상에서 태풍 활동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의 태풍이 발생하였음
- 이 중에서 태풍 9호와 태풍 11호는 서쪽에서 활동하였고, 태풍 10호와 태풍 12호는 동쪽에서 활동하였음
- 태풍들은 초기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호상작용하여 이동경로와 세기변화가 나타났음
- 태풍 10호는 8월 29일, 태풍 9호와 태풍 12호는 9월 3일, 태풍 11호는 9월 5일에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음
- 9월에도 북서태평양상에서 태풍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하여 태풍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10월의 절기와 민속(『로동신문』, 2023.9.30)

- 한로와 상강은 10월의 두 중요한 절기로, 한로는 찬 이슬의 시작을, 상강은 서리의 시작을 나타냄
- 10월에는 농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벼가을, 가을밀, 보리씨불임 그리고 김장 배추 묶어주기와 같은 작물의 수확이 진행됨
- 10월은 다양한 음식이 소비되는 시기로, 콩음식과 추어탕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즐겨 먹음
- 이 시기에는 민속놀이가 열리며, 지역마다 다양한 생활풍습과 전통적인 행사가 이어져왔음
- 한로는 10월 8일에, 상강은 10월 24일에 발생하며, 이러한 절기는 한국의 계절 변화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가을철원림식물가꾸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로동신문』, 2023.10.1)

- 원림록화사업은 나무숲의 우거짐과 꽃의 만발로 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며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
- 나라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계절에 맞게 원림식물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를 수림화하고 원림화하는 핵심 과제임
- 가을철에는 대기온도 하락과 낮과 밤의 온도차 확대로 인해 식물의 성장이 둔화되므로, 이에 대한 원림식물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물주기를 날씨와 성장조건에 맞게 조절하고, 겨울나이를 준비하기 위해 11월 초까지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식물의 겨울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 나무전정과 잔디깎기를 특별한 경우에만 약하게 진행하고, 병든 가지나 잎은 제거하여 병해충 발생을 예방해야 함

■ 포전에서 만난 기상관측원들(『로동신문』, 2023.11.18)

- 황해남도 연안군 읍농장에서 기상관측원들이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상자료를 관측하고 농업기상관측포전을 운영하며, 과학기술적으로 안전한 농사를 실현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 읍농장의 농업기상관측포전에서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하여 봄부터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예보하는데 기여하며, 당이 제시한 농업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농사의 추진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벼, 밀, 보리 등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적시적인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장원들의 반응도 좋아 농업과학기술의 적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농업기상관측포전에서는 평당씨뿌림량 및 농작물의 잎수, 생육기일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농업연구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분석과 노력을 통해 많은 자료와 경험을 쌓고 있음

2. 기후변화와 재난

■ 커다란 재난을 몰아오는 지구온난화(『로동신문』, 2022.12.7)

-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망라된 기후연구단체는 이와 같은 폭염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기인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지적
-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비가 덜 내리는 지역의 수분이 더 많이 증발되어 가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증발된 수분이 비로 내릴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를 내리면서 극단한 이상기후현상이 증가한다고 주장
-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발생확률이 보다 높아져 예견하지 못했던 지역들에서의 파국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우려를 자아내는 바다물면 상승위기(『로동신문』, 2022.12.14)

-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면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음
- 북극의 바다얼음과 남극의 대륙빙하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
- 남극대륙에서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63만km² 이상의 빙하가 녹아내렸으며, 그린란드에서는 해마다 2,340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음
- 인류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해발고도와 위도가 높은 지역의 빙하를 더욱 빨리 녹이는 원인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의 바다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으로 해마다 2,670억 톤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면 상승에 기여한 비중은 21%임

■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문제(『로동신문』, 2022.12.31)

-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가 진행되었음

- 최근 몇 년간 증대되는 국제적 압력 속에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이 마지못해 발전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실행에 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과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저들에 의해 산생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을 돕겠다고 하였지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려 하지 않았음

■ 인류에게 심각한 교훈을 준 지난해의 자연재해_기록적인 큰물로 늘어난 인명피해(『로동신문』, 2023.1.11)

- 기후변화로 인한 큰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큰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음
- 특히, 파키스탄은 건조한 아열대성기후에 속해있지만, 작년에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 국토의 1/3가 침수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큰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인류에게 심각한 교훈을 준 지난해의 자연재해_폭우와 큰물에 의해 못쓰게 된 농경지(『로동신문』, 2023.1.16)

- 폭우와 큰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농경지를 파괴하고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교훈을 알려 주었음
- 치산치수사업과 산림조성은 농경지 보호에 필수적이며, 물 관리도 중요한 사업임
- 큰물은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경지 보호는 식량안전 보장에 중요

■ 인류에게 심각한 교훈을 준 지난해의 자연재해_물위기를 몰아온 극심한 가물(『로동신문』, 2023.1.22)

- 지난해 세계를 휩쓴 자연재해 중에는 많은 나라들에 심각한 물위기를 몰아온 가물도 있음
- 극심한 가물현상은 농업생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여 여러 나라에서 식량위기를 초래
- 가물에 의한 피해가 큰물에 못지 않게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후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각한 교훈도 새겨주고 있음

■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빈틈없이(『로동신문』, 2023.1.25)

- 현시기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처하는 것
-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파괴되고 농작물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식량위기의 악화를 초래
- 재해성기후가 불가피하고 급증한 만큼 여기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농업부문 앞에 놓인 사활적인 문제임

■ 엘니뇨가 몰아오는 이상기상현상(『로동신문』, 2023.2.1)

- 얼마전 과학자들이 올해에 발생하게 될 엘니뇨의 영향으로 다음 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엘니뇨가 발생하여 바닷물온도가 변하면 대규모의 바람과 구름이 생기기 쉬운 장소가 다른 곳으로 바뀌고 그 영향이 대기흐름을 통하여 세계에 전파되며 이것은 이상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전제가 됨
-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대양의 열함량이 높아지면서 엘니뇨현상이 지난 시기보다 자주 발생하고 그 세기와 영향도 강해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함

■ 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바다물면 상승(『로동신문』, 2023.2.8)

- 그린란드의 평균기온이 21세기에 가장 높아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음
- 인류활동이 그린란드의 중부와 북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빙하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전문가들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에 기인된 빙하변화과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와 방파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바닷물면이 연간 평균 4.5mm 상승하여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 바다물면 상승이 초래할 후과에 대한 경종(『로동신문』, 2023.3.1)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이 1.5℃로 제한되더라도 바닷물면은 여전히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바닷물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나라들에 사형선고와 같은 것임
-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1.5℃로 제한된 기온상승이라도 2000년 후에는 세계평균 바닷물면이 약 2~3m 상승하며, 기온이 2℃ 오르면 바닷물면은 6m, 5℃ 오르면 22m까지 상승할 수 있음
- 실제로 2020년대에는 바닷물면 상승속도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많은 나라들과 대도시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고, 해발고도가 낮은 해안지대에 사는 약 9억명의 사람들이 큰 위협에 직면할 것임
- 작은 섬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대도시들이 바닷물면 상승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민족 이동과 같은 대규모 이주민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과 물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것임

- 바닷물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함

■ 백배로 분발하여 밀, 보리농사에서 결정적인 개선을_가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로동신문』, 2023.3.11)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밀과 보리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해 분발하고 있으며, 밀과 보리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가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봄철에 가물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명심해야 함
-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해성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특히 중요하며, 재령군 삼지강농장의 밀농사경험을 참고하여 관수대책을 일반화해야 함

■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물에 예견성 있게 대처하자_재해성기후를 기정사실화하여야 한다(『로동신문』, 2023.3.13)

- 지금 사회주의 전 분야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양양된 투쟁열의로 하여 봄철영농작업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음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5월에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가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함
- 가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정보당수확고가 떨어진다면 그 후과는 무엇으로써도 보상할 수 없음

■ 봄철산불방지를 위한 사업 활발히 전개(『로동신문』, 2023.3.29)

-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남극 등 지난 시기 산불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음

-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산불 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각급 산불방지분과에서는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위험 요소들을 장악하고 산불 막이선들의 보수, 설치정형을 매주 총화 대책하는 한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높이_방역선전을 실효성있게(『로동신문』, 2023.3.29)

- 여러 나라 기상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올해 8~11월에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66%이며 그 영향으로 전례없는 무더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함
- 한 기상학자는 대규모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다음 해에 전례없는 무더위를 겪을 수 있다고 함
- 현실은 재해성이상기후현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올해에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우심해질것으로 예견(『로동신문』, 2023.5.12)

- 엘니뇨현상은 적도태평양 동부의 넓은 수역에서 발생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현상을 초래함
-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개선하고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음
- 기상수문국에서는 엘니뇨현상에 대한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보 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때 이르게 세계를 휩쓰는 혹심한 무더위(『로동신문』, 2023.5.17.)

- 세계 각지에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각국에서 산불 발생과 대피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열파와 고온현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기상기구와 기상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더 강력하고 빈번한 폭염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며,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5.20)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농업부문과 근로자들의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재해성 이상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결정함
- 기상수문 부문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기상예보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이에 따른 영농 공정과 방법을 적용하여 과학농사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함
- 내각지시문에 따라 농업지도기관들은 폭염과 폭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방조제, 저수지, 관개물길, 강하천 등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임
- 농업기술적 대책을 통해 태풍과 가물에 대처하고 작물 수확시기에 맞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영농지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기와 중기 예보, 태풍 및 큰물 예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지휘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전개(『로동신문』, 2023.5.24)

- 비상재해 위기대응 지휘조는 전일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성, 중앙기관, 지방 단위를 포함한 일군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상태 변화에 주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강화하고 있음

- 지휘조는 위기의식을 갖고 재해방지대책을 세우고,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물관리체계와 비상통보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구조대와 의료대를 파견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개구조물 보수와 배수체계를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년간 엘니뇨가 우리 나라에 준 영향(『로동신문』, 2023.5.28)

-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를 비롯한 재해성기상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 엘니뇨가 나타난 해에는 폭염, 가물, 폭우 등의 재해성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고온이나 많은 눈이 내리는 등의 기록적인 기후 현상이 관측됨
- 기상수문국 부국장 리성민은 인민들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 재해성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빈틈없는 대책을(『로동신문』, 2023.6.2)

- 김정은 위원장은 일군들에게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함
- 최근 농촌은 불리한 기상조건에 대처하며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교훈으로 이어짐
- 지역의 농사를 담당하는 립장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천군 일군들이 중소하천정리와 물길정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높은 책임감을 보이고 있는 예시를 언급하였음
- 올바른 위기대응의식을 가지고 고온 및 재해성기상에 대비하는 안전 대책과 농업기술적 대책을 중요시하며, 농작물보호와 알곡생산계획수행에 책임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세계 여러 나라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물(『로동신문』, 2023.6.4)

- 태풍과 폭우, 큰물에 의한 가물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여 인류와 농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 가물로 인해 농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악화된 기상조건으로 농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물 부족으로 식량 생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가물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올해는 엘니뇨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폭우와 고온 등의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물은 전력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력자원 부족으로 전력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제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경계해야 할 《이쯤 하면》(『로동신문』, 2023.6.14)

- 장마철에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세우기에서 누구나 경계해야 할 문제가 있음
- 예상치 못한 폭우에 대비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대처하고 있지 않던 곳이 침수되고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음
-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재해성기후 대처를 연기하는 태도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농경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장마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다(『로동신문』, 2023.6.25)

- 김정은 동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해성기상현상의 우심성을 경고하며 올해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음
-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큰물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신속한 재해대처를 위한 지휘조 강화 및 경보체계, 대피체계, 비상동원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음

-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사일 진행 중에도 대비를 강조하며 봉상강 정리공사와 난알건조로, 난알창고들의 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올곡식 수확 및 저장에 신경을 쓰고 있음
- 큰물피해로부터 주요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장 내부 구조를 강화하고, 전력계통 및 설비의 사고요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비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신의주시에서는 하수도망과 우수망 보수정비를 통해 물빼기 대책을 강구하고, 수문 보수, 우수망 퇴적물 제거, 오수펌프 가동 등을 통해 도시하부시설의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뚜렷이 나타나는 엘니뇨현상의 부정적 후과(『로동신문』, 2023.7.2)

- 6월부터 태평양적도부근에서 엘니뇨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기가 중급 이상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지난 6월 중국에서는 가물로 약 300만ha의 농경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내몽골자치구, 료녕성 등에서 20만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렸음
- 엘니뇨현상의 세기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급변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재해성기후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과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

■ 피해를 최소화,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처(『조선신보』, 2023.7.5)

- 6월 26일부터 조선에서 엘니뇨로 인한 재해성기후가 심각해지는 조건에서, 장마철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농업생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음
- 엘니뇨의 영향으로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져 6월 26일에 첫 장맛비가 내린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지역별 비내림량 차이 및 폭염과 고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제와 인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책은 귀중한 농경지 침수 방지, 안전한 농작물 생육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며, 습해와 병충해 예방 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알곡 생산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양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령군에서는 해수양수기 운영을 보장하고 물길가시기와 배수로뚝의 풀 베기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강하천 제방보수, 사방야계공사 등을 포함하여 국토환경보호와 건설, 석탄공업, 철도 운수 부문에서도 큰물과 폭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전개되고 있음

■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샘에서 메탄가스 대량방출(『로동신문』, 2023.7.13)

-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하수 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지하수 샘들에서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한 배출량을 보이고 있음
- 앞으로 노출될 경우 메탄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빙하가 녹음으로써 지하수 샘의 메탄가스 배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열사병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강구(『조선신보』, 2023.7.31)

- 세계적으로 고온현상과 폭염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조선에서도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며, 폭염에 따른 다양한 병들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강조되고 있음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의 시기와 영향을 교육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 건설부문과 농업부문을 포함한 야외 작업 부문은 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이상기후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도시경영부문은 수원지, 상수도관로망, 옥내상수도관 등의 인프라 개소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만단의 위기대응태세를(『로동신문』, 2023.8.1)

- 현재 강화되는 북서태평양아열대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폭염이 나타나고 있음
- 폭염 기간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 이상으로 높아지고 상대습도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며, 특히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37℃로 높아져 강한 폭염이 예상됨
- 폭염 이후 태풍과 폭우를 포함한 재해성 기후가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적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보건부문에서는 구급환자들에 대비한 치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생명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폭염과 태풍에 대비하여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고, 병해충에 대한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며 전력공업과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는 전력 보장과 도로, 다리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전당, 전민이 떨쳐나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처해나가자(『로동신문』, 2023.8.9)

- 김정은 위원장은 방대하고 무거운 투쟁과업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이는 중대하고 선차적인 사업이며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각급 당조직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은 태풍과 큰물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올해의 목표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태풍과 큰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당조직은 비상한 각오로 나서

고 있으며,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저수지와 비내림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배수갑문 및 배수문을 보수하고 있음

-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가로수와 화초를 보호하고 폭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도망과 우수망의 정비보수를 강화하여 빗물처리능력을 높이고 있음
- 수산부문에서는 태풍으로부터 원림록지와 나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동서해안의 각 수산단위에서 고깃배들을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시키고 구조물들을 감시하여 불비한 요소를 제거하고 있음

■ 농경지침수방지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한다(『로동신문』, 2023.8.10)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올해의 알곡 생산목표는 인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고지점령으로, 알곡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혼심을 기울여왔음
- 현재 농장에서는 논벼의 이삭이 패고 수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경지침수를 방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는 농장의 일군들이 많은 비가 내려도 논이 침수되지 않도록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배수로, 승수로, 물도랑을 점검하고 미비한 요소를 찾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 도, 시, 군들에서는 미비한 강하천제방 보수를 진행하고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가설도로, 구조물, 설비 등을 정리함으로써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의 태풍피해 현장을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23.8.14)

-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를 방문하여 태풍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복구사업을 지도함
-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해일로 인해 강하천제방이 터지고 농경지 200여 정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피해 초기에 당과 정부 간부들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피해상황을 요해하고, 강원도 주둔부대에 역량을 긴급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김정은 위원장은 농경지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였으며, 자연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조함

■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로동신문』, 2023.8.17)

- 김정은 위원장은 태풍피해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피해복구를 지도하였으며, 농작물의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함
- 현재까지 농업부문에서는 가물, 폭우, 폭염,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날씨 탓이 아닌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농작물 생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해성 기후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부문 일군들은 지역과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미비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
- 농업근로자들은 언제든지 폭우와 비가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이에게 자연피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재해성 기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었다(『로동신문』, 2023.8.18)

-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방문하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 복구를 지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피해 복구를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을 동원하여 농약 살포 작업을 지휘하고, 침수포전들의 농작물 생육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도록 조치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피해 방지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 재해성기후는 계속된다, 만단의 대책을(『로동신문』, 2023.8.19)

-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의 뜻을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의 생육후반기 비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재해성기후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야 함
- 든 지역과 농업생산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정형을 따져보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 적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분발력을 배가하여 재해성기후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 올해 알곡고지 점령의 담보를 마련해야 함

■ 재해성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8.20)

- 각급 당조직들은 재해성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해당 부문과 단위 사업의 성과는 당조직들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당의 지도 역할을 강조함
- 각 지역의 농촌당조직들은 재해성기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형적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들은 지역 안전과 농사결속을 책임지며 피해 방지 작전과 지휘를 진행하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재해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행동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각급 당조직들은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을 활용하여 태풍과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사결속의 중요성을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정치사업을 벌이고 있음

■ 농작물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각방으로 실시(『로동신문』, 2023.8.23)

- 농업부문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노력임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각 지역에서는 저수지, 관개물길, 강하천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방의 견고성을 보장하며, 낮은 지대의 논에서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현지를 직접 밟아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고, 양수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수지 수위와 비내림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원도 농장들의 태풍피해복구를 지도(『조선신보』, 2023.8.23)

-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방문하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복구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음
- 군대는 직승기와 경수송기를 동원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의 농작물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농약살포작업을 진행함
-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에 대비하여 자연재해방지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 부문이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고도의 긴장성을 유지하며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해나간다(『로동신문』, 2023.8.25)

-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함
- 지역별로 자연재해 방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대응능력을 재점검하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각 지역에서는 농촌 활동을 통해 농작물의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사를 성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화하고 저수지, 관개물길, 강하천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농지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바다와 연결된 지역에서는 해일과 큰물에 대비하여 제방을 견고하게 만들고,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실속있게 전개(『로동신문』, 2023.8.26)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며, 농업부문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막는데 중심을 두고 예방대책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라고 강조함
- 농업위원회에서는 안변군과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를 교훈

삼아 모든 일군들이 최대로 각성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정치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화되는 기상상태를 주시하며 농업근로자들을 각성 분발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 시, 군에서는 폭우, 큰물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경상적인 동원준비상태를 갖추며 농작물보호와 비배관리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음
- 각 지역에서는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방조제, 제방, 관개구조물 보수와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 배수체계의 정비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애써 가꾼 곡식을 지켜내기 위해 떨쳐나섰다(『로동신문』, 2023.8.29)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는 센바람과 폭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긴장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정치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은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위험개소 감시근무를 조직하고 즉각적인 복구용 자재 동원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저수지들의 수위조절과 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논두렁을 높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위험개소를 찾아 수리하고, 필요한 자재 등을 제때 보급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 재해성기후에 대처하여 당개를 계속 조이자(『로동신문』, 2023.9.1)

- 현재 사회주의전야마다 논벼가 무르익어가며, 차제로 강냉이가을걷이가 진행 중임

- 최근 태평양상에서 지속적인 태풍 발생으로 곡식의 여물과 벼가을걷이 시기에 태풍이 자주 발생하면서 재해성기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서 농사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를 다 지어놓은 것처럼 재해성기후에 대비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며 비배관리를 진행하여 풍년가을을 기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
- 농업부문에서는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저수지 수위와 비내림량을 감시하고 물길상태를 재확인하여 농경지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작물을 정성껏 가꾸고 비배관리를 진행하여 수확의 담보를 마련해야 하며, 김정은 동지의 지도력과 지지에 힘입어 진짜배기 실농군이 될 수 있음

■ 청년들과의 사업이자 농촌진지의 강화이다(『로동신문』, 2023.9.1)

- 농촌진흥은 중요한 혁명 과제이며, 이를 이끌어낼 핵심은 청년들임
- 청년들에게 대담한 임무를 맡기고, 혁신적으로 농장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을 설명함
- 농촌당조직이 청년동맹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을 중요하게 여김

■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은 과학기술(『로동신문』, 2023.9.3)

-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생산을 자연 기후보다는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언급함
- 농업부문 일군과 과학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알곡생산과 관개건설 과정에서 얻은 기술경험들이 발표되고 해당 경험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루어짐

- 농사를 짓는 지역들 중 일부는 과학농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품의 품질과 양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지역별로 발견된 기술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더 많은 지역에 전파시킬 필요성을 느낌

■ 빠짐없이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신속히(『로동신문』, 2023.9.6)

- 구장군은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천 정리를 중요한 안전성 문제로 보고 있음
- 군일군들은 현지를 조사하고 하천의 위험한 곳을 찾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하천바닥을 깊이 파내는 작업도 진행 중임
- 사동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양수장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빗물로 인한 흙이나 돌이 강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닥을 씻어내는 작업과 필요한 기계설비 및 전기 장비의 보강 작업이 진행 중임
- 구장군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부족점을 찾아 바로 잡는 조직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는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모든 것이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로동신문』, 2023.9.6)

- 최근 몇 년 동안 재해성이상기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자연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강조

- 형식주의를 피하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취해야 하며, 자연재해 방지는 인민 사수전과 당정책 옹위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함
- 형식주의를 피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재해방지 대책을 강화하여 재해성기상현상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됨

■ 가을걷이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로동신문』, 2023.9.12)

- 봄과 여름에 수확되는 곡식인 알곡의 생산에 대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올해의 알곡 생산성고가 좌우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전선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초선이라고 강조하며, 올해의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농업 부문 일군, 근로자,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이 가을걷이에서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며, 농사문제는 누군가에게도 중요하며 외면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함
- 농업 부문의 성과적인 가을걷이를 위해 작업조직,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기계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며, 탈곡기 및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여 보내야 함

■ 벼바다 설레이는 풍요한 포전을 바라볼 때면(『로동신문』, 2023.9.24)

- 가을걷이 계절이 현재 진행 중이며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
- 농업생산에 미치는 날씨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다루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역할과 농업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 알곡고지 설정 그리고 실무적인 지침을 언급함

■ 기후변화가 몰아온 혹심한 자연재해(『로동신문』, 2023.10.4)

- 9월에 발생한 리비아의 큰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데르나 항구도시가 대재난에 휩싸여 1만 1,300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음
- 9월에 르완다에서는 폭우로 인해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거의 절반이 벼락에 의한 사망이었음
-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는 가물로 약 27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식량난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
- 스리랑카에서는 남부와 서북부지역에서 가물로 3만 7,000 에이커의 논밭이 피해를 입었음
-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고온과 열파로 인한 피해가 나타났으며, 기상당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

■ 날로 증대되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로동신문』, 2023.10.9)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많은 비상사태가 60일간 연장되었으며, 이는 엘니뇨로 인한 극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를 계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임
- 미국의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르완다 등 여러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큰물과 폭우로 인한 피해는 도시 일부 침수, 지하철과 거리 침수, 산사태 등으로 수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빈도와 규모가 커진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산림조성사업에 힘을 넣고 있으며, 산림은 이산화탄소 저장과 큰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큰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내에 공원을 많이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은 폭풍우 시에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인류를 위협하는 바다물면상승(『로동신문』, 2023.10.11)

- 바다물면상승으로 인해 2050년경에는 큰물피해 위험을 항시 받는 지역의 인구가 2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해발고가 낮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약 9억명은 큰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작은 섬나라들은 바다물면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쉽게 입을 뿐만 아니라 적응 능력도 가장 취약하며, 이로 인해 거리, 마을, 국가가 사라지고 대규모 이주민사태와 물과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음
- 기후위기로 인한 바다물면상승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방지와 관련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호소가 나와 있음
- 바다물면상승 예방을 위해 산림조성사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강조되고 있음

■ 올해 치수사업정형을 엄정히 따지고 교훈과 극복방도를 찾자(『로동신문』, 2023.10.15)

- 김정은 위원장은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중앙위원회의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편향은 치수사업이 형식적이고 요령주의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야 함

- 일군들의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로 치수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교훈과 극복방도를 찾고 책임적으로 진행돼야 함
-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고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치수사업을 주도적, 예견성 있게 추진해야 함
- 치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자연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엄중한 후과(『로동신문』, 2023.10.19)

-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이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뇌졸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음
-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특히 도시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수명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음
- PM2.5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어린이, 특히 1살 미만의 젖먹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영향을 주게 됨
- 400개 도시의 대기 상태 조사에서 주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이 수명을 10~12년 줄이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국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산림확장, 도시 녹화, 친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우박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2)(『로동신문』, 2023.11.3)

- 우박 예보에 대비하여 보온덮개와 해가림그물을 미리 준비해놓고, 우박이 내리기 전에 제때에 이를 씌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해가림그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우박이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쳐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우박피해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우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크기만한 벌레막이그물이나 해가림그물을 쳐주고,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온실 내 바람 통풍과 농작물의 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우박이 내린 후에는 손상된 농작물과 잎, 그리고 병든 식물을 깨끗이 걷어내고 파괴된 농업시설은 수리 및 교체 작업이 필요함
- 폭우나 우박이 내린 후에는 즉시 논밭에서 우박과 떨어진 잎, 시들거나 누렇게 된 잎, 병든 식물을 정리하여 생리적인 물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시들음을 방지해야 함

■ 농업생산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로동신문』, 2023.11.4)

- 유엔식량및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은 기상, 지질, 환경, 생물위험 및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받아 세계적으로 재해 발생 건수가 70년대의 약 100건에서 최근 20년 동안 400건으로 증가함
-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세계 농업 총 생산액의 5%에 해당하는 양이 재해로 인해 손실되었으며, 이는 연간 약 3억 톤의 농산물 손실을 의미함
- 재해로 인한 농산물 손실 중에서 알곡은 연평균 6,900만 톤, 과일 및 채소는 각각 4,000만 톤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재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유엔식량및농업기구는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우박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3)(『로동신문』, 2023.11.6)

- 과일나무의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생장조절제와 린산이수소칼리움 등을 분무하여 과일나무의 자체 회복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과일나무에 영양분을 신속히 보충하고 세포분열을 촉진하기 위해 800배로 희석한 린산이수소칼리움을 분무하는 것이 중요함
- 기베렐린산 등을 이용하여 세포분열을 개선하면 과수부문에서 우박으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신규 개발된 다기능보호그물은 우박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막 이전용그물, 다기능보호그물, 곤충막이그물 등이 다양한 종류로 활용됨
- 이러한 보호그물을 이용하면 앵두나무와 사과나무 등에서 발생하는 우박 피해를 줄이면서도 과일의 맛과 모양을 영향 없이 보존할 수 있음

3. 농업과 축산

■ 가정세대들의 축산경험_토끼 기르기에 중시한 수의방역_온성군 풍리농장 농장원 김연진 동무의 가정에서(『로동신문』, 2022.12.1)

- 온성군 풍리농장에서는 해마다 근 1,000마리나 되는 새끼토끼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새끼토끼를 키워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음
- 김연진 동무의 가정에서는 토끼 기르기를 잘하기 위해 수의방역사업을 중요시하고 있음
- 김연진 동무는 종자와 먹이보장뿐만 아니라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토끼 기르기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음

■ 과학기술로 담보해가는 흐뭇한 버섯작황(『로동신문』, 2022.12.3)

- 류경버섯공장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체계와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공장은 종업원들이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폐기질 재활용과 다양한 영양제 및 대용기질 활용을 실시하고 있음
-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체계를 통해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배운 지식을 생산실천에 활용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참여하고 있음
- 공장은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폐기질 재활용, 영양제 활용, 대용기질 보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충전하고 있음

■ 겨울철 축산물생산에 힘을 넣자(『로동신문』, 2022.12.3)

-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각지 농촌에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많은 농장들이 축산업 발전의 핵심을 내세우며 가축을 키우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축산물 생산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문덕군 룡중농장의 축산경험은 가축우리의 룬택과 원가 절약형으로 건설되어 겨울철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농장들은 온실식으로 운영되는 우리에서 닭, 오리, 거위를 길러 축산물 생산을 절약하면서도 계절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축산업발전의 생명선-과학기술(『로동신문』, 2022.12.7)

- 축산물생산 투쟁이 강하게 벌어져 좋은 경험과 교훈이 창조되었음
- 축산업발전을 위한 경험들은 당정책 관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일부 지역과 단위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부진한 상태이며 과학화가 필요함
- 평양시는 축산기지와 토끼종축기지를 현대화하여 실적을 올렸음
- 축산물생산을 늘리기 위해 먹이문제 해결과 알곡먹이 절약형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온실남새농사를 과학적으로(『로동신문』, 2022.12.8)

- 덕천시 남새온실에서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온실남새는 계단식으로 재배되어야 하므로 모생산의 질과 시기성을 보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초급일군들은 모판에서의 남새모 기르는 기간을 늘리고, 남은 시간에 다른 품종의 남새도 재배하기로 결정하였음
- 영양단지를 크게 만들어 남새모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영양액을 이용한 비료 주기와 모판 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생산량을 높였음

■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며 민족사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_부흥 강국의 웅지가 안아올린 자랑스런 변혁적실체_전변을 노래하는 농촌진흥의 새 모습(『민주조선』, 2022.12.11)

- 농촌진흥을 강조하고 새로운 농촌혁명을 시작하기 위한 농촌혁명강령으로, 농촌기계화와 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농기계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농촌살림집 건설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대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임

■ 유기농법도입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자(『로동신문』, 2022.12.29)

- 농촌에서 유기농법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과 단위들이 적극적인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음
- 함주군의 경우 우렁이유기농법 도입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알곡생산도 많이 증가하였으나, 유기농법 도입에는 여전히 지역과 단위 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관점의 일관성과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기농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농업 생산을 끊임없이 늘려야 함

■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한 농사작전 심화(『로동신문』, 2023.1.9)

- 농업부문 일군들은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수립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을 강화하고 있음
- 각 도농업지도기관은 작물과 품종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배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영농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토양특성 분석, 토지개량, 유기질복합비료 활용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지역별로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개체계 개선과 물절약형농법을 활용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음
- 재해성이상기후에도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연구하고 계획하여 알곡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먹이작물 재배면적을 철저히 보장하자(『로동신문』, 2023.1.14)

- 올해 축산부문에서는 먹이작물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하고 정보당 수확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음
- 먹이작물 재배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음
- 먹이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초지조성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생산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어, 지역과 단위마다 초지조성을 철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축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좋은 품종의 풀씨를 심고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인 역할을 해야 하며, 먹이작물배치, 비료와 농약 주기, 관수 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축산부문의 먹이문제 해결은 전문부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 도, 시, 군에서 중요시해야 할 사업으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에 힘을 합쳐 먹이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축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올해 목표점령을 위한 작전안 연구협의, 과학적인 대책 강구_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로동신문』, 2023.1.16)

- 농업지도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해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의 과제로는 재해성이상기후 대응 및 높은 수확고를 가진 우량품종의 종자생산을 늘리고,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토의되고 있음
- 먹이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종자확보, 씨뿌리기, 비료와 농약주기, 관개와 전력보장 등에 대한 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모기르기 방법, 초지조성, 냉습지 개량 등에 대한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고기와 알생산량 증가, 축산농장과 가금공장 개건 등의 방안들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과일, 남새, 버섯, 공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생산도 집중적으로 협의되고 있음

■ 남새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하자(『로동신문』, 2023.1.18)

-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과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위한 대책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남새품종을 늘리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선진적인 재배기술과 설비 도입, 인력의 기술수준 향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음
- 혁신적인 생산 방법과 품종 도입을 위해 일군들의 의식 변화와 앞선 기술 수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남새생산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맛과 영양가 높은 품종 육종 및 생산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함
- 모든 일군들,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높은 목표와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인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감자농사작전 심화_량강도에서(『로동신문』, 2023.1.20)

- 감자농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작전을 강화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우량품종 감자종자 생산을 늘리고 안전한 감자생산을 위한 영농방법 연구, 대용비료와 성장촉진제 도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상예보의 정확성 향상과 비탈밭에 적합한 농기계 도입 등 재해 대응과 과학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군들에 대한 과학기술 학습 열의를 고취시키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요구를 높이고 있음
- 량강도는 감자농사의 과학화와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_과학적인 밀농사방법을 확립하고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로동신문』, 2023.1.21)

- 밀농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과학적인 밀농사방법을 확립하고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과 단위에서 과학적인 밀농사방법 연구와 시범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안정한 밀생산을 실현하고 있음
- 종자 선택, 씨뿌리기 시기, 겨울나이율 관리 등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도입, 기상예보의 정확성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음

■ 각지에서 주체농법강습이 실속있게 진행된다(『로동신문』, 2023.1.21)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농법강습을 통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투쟁하고 있음

- 주체농법강습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주체농법으로 무장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각급 농업지도기관은 주체농법강습을 조직하고 지난해의 경험과 과학기술적 지침을 제공하여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주체농법강습은 지역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 관리, 알곡생산 증가, 불리한 기상조건 대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음
- 주체농법강습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농업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량종의 과일나무재배면적을 늘이자(『로동신문』, 2023.1.22)

-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수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심과 열정을 갖고 투쟁하고 있음
- 수확량이 많고 맛좋은 우량종의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이 과수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진행되고 있음
- 과일나무 재배에서는 우량종의 선택과 비배관리, 과학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중요함
-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앞장서며 실천함으로써 우량종의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분발력과 실천력이 과수업발전에 진일보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축산에서 나서는 문제를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로동신문』, 2023.1.22)

-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청년축산작업반은 먹이보장대책을 세우고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알곡먹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 가축우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벼짚 발효 처리와 온실효과를 활용하여 돼지우리의 온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음
- 예방접종과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들여 가축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음
-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반의 노력이 축산업 발전의 결정적 담보라고 강조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겨울철에도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었으며, 청년축산작업반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음

■ 농장기술일군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자(『로동신문』, 2023.1.23)

- 농장기술일군들은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농장의 자연기후조건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 농사일을 지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구장군의 경험을 통해 기술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고 알곡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장기술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알곡생산계획의 성과에 결실을 가져옴
- 농장기술일군들의 수준제고를 위한 사업은 농업생산의 발전과 관건적인 문제이며, 소홀히 할 경우 다수확의 길이 멀어짐
- 농장기술일군들은 선진농업과학과 기술을 학습하고 응용하여 과학농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알곡생산의 목표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에 힘을 넣자(『로동신문』, 2023.1.24)

-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농업부문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산과 축산의 발전은 당정책의 관철과 실천적인 변화에 의존하며, 대관군 대안농장을 포함한 성공 사례가 있음
-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세우기에는 알곡생산, 축산활성화, 농산과 축산의 결합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며, 단위들의 노력과 협력이 중요함
- 주저앉지 않고 당정책에 따라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축산물 생산단위와의 협력이 중요함
- 농산과 축산결합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해야 함

■ 밀농사의 과학화에서도 사상론이 기본이다_숙천군 약전농장의 2022년 밀농사 경험(『로동신문』, 2023.1.27)

- 숙천군 약전농장에서는 밀농사 성과를 거두었으며, 밀재배 면적을 늘리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였음
- 당정책의 정당성을 첫해부터 과시하고, 밀농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함
- 당정책에 대한 신념과 투지가 밀농사의 성공에 기여하였고, 밀농사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완강하게 실천해야 함
- 자기 힘과 집단주의의 힘을 발휘하여 거름원천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경쟁과 집단주의를 강화시켜야 함
- 대중의 양양된 정신력과 분발력이 과학적인 밀농사를 실현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함

■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각오밑에_좋은 농사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자(『로동신문』, 2023.1.29)

- 농업부문에서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좋은 농사경험의 일반화와 불리한 조건 극복이 중요함

- 농사경험을 공유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농업생산의 전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일군들은 다수확단위와 경험의 조직화를 통해 알곡생산에 기여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남의 경험이나 모방은 지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수용하여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함
-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의 수용에는 품이 들지만 노력과 성과는 커짐

■ 과수부문 2022년 사회주의경쟁총화 진행(『로동신문』, 2023.2.1)

- 과수부문 2022년 사회주의 경쟁총화가 1월 31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과수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사업과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내세워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었음
- 경쟁순위 발표에서는 북청군, 온천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이 표창을 받았음
- 토론에서는 과일생산목표 달성과 과수와 축산의 순환생산체계, 과일나무 영양관리 등이 강조되었음
- 대중운동을 통해 자력갱생과 과학과수의 생산을 더욱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

■ 과일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시해야 할 문제(『로동신문』, 2023.2.1)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수부문은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과수부문 일군들의 사고관점과 실천력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며, 과일 생산을 늘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우량종의 과일나무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과일나무 원종체계와 묘목생산을 개선하고 과수원구조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함
- 과일나무병해충구제사업과 과수밭의 지력강화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투쟁의 열매를 이루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함

- 근로자들이 문제를 잘 알고 분발력과 실천력을 발휘한다면 과일생산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높아가는 농장원들의 학습열의(『로동신문』, 2023.2.2)

- 정평군 호남농장의 농장원들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고 학습열의를 가지고 있음
- 농사조건이 불리하지만, 과학농사에 투쟁하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모든 농장원들은 지식과 기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농사일을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수만명이 주체농법강습과 집중학습에 참가_ 량강도에서 (『로동신문』, 2023.2.3)

- 량강도에서 과학농사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체농법강습과 집중학습에 수만명이 참가하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있음
- 주체농법에 대한 열정과 결의를 가진 참가자들은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원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과 기술기능을 향상시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대학,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을 편성하여 주체농법강습과 집중학습을 지도하고 있음
- 주체농법강습과 집중학습을 통해 종자선택, 재배방법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학습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와 방조 강화(『로동신문』, 2023.2.7)

- 련포온실농장은 온실농장의 새로운 표준이며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임
-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련포온실농장에서 최적화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농장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과학원은 지도와 방조를 통해 농장종업원들이 영농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당의 의도와 연결되어 계속됨

■ 밀, 보리씨뿌리기를 책임적으로 하자(『로동신문』, 2023.2.13)

- 밀과 보리농사에 있어서 적기 씨뿌리기는 중요한 요소로, 사전준비와 질적인 씨뿌리기가 성공적인 생산에 기여함
- 사전준비에는 유기질비료생산, 적지선정과 우량품종의 종자확보, 자급비료 준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씨뿌리기를 철저히 수행함
- 씨뿌리기는 적기보장이 필수적이며, 기후조건과 품종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시기를 정하고 일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씨뿌리기의 질보장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기술일군들은 작업 과정을 엄격히 지켜 평당 씨뿌림량과 씨앗의 깊이를 보장해야 함

■ 가을밀, 보리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로동신문』, 2023.2.27)

- 가을밀과 보리 비배관리는 밀과 보리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적기에 질적인 씨불임과 동시에 겨울을 난 가을작물의 비배관리가 필수임

- 비배관리의 과학화수준 제고와 가을밀, 보리 비배관리에 대한 사전준비를 신중히 하고 노력하는 농촌들이 많으며, 예를 들어 염주군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작전안을 세우고 관개용수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과 농업생산 단위에서도 가을밀, 보리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작물의 생육 상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소출을 낼 수 있음
- 인민의 식생활구조 개선을 위해 가을밀과 보리농사는 중요한 사업이며, 비배관리를 기술적 요구에 맞게 철저히 수행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농법과 당의 농업정책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을밀, 보리 비배관리를 실제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로동신문』, 2023.3.5)

- 올해 농사에서는 씨뿌리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중요한 영농 공정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농작물 생산 목표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씨뿌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씨뿌리기 작업에 전념해야 할 것임
- 씨뿌리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알곡증산의 담보를 확실히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농사 시작부터 믿음직한 작업과 담보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농사의 성패는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올해의 새로운 개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씨뿌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속있게 씨뿌리기를 수행해야 함
-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여 평당 씨뿌림량을 품종별 특성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농사를 주도해갈 탐구열의 고조(『로동신문』, 2023.3.12)

-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는 과학기술적 대책을 통해 지역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재령별과 연백별을 포함한 농작물 생육조사시험지점 선정 및 과학자 파견을 통해 농업기상조건에 대응하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다양한 연구 집단의 과학자들은 생육기일을 단축시키며 소출이 높은 농작물품종 및 봄밀, 봄보리 품종 등의 육종과 유전자원 조사, 생물학적 특성 연구 등 다양한 실험과 연구에 힘쓰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농작물품종을 실제 농경지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인 밀과 보리의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연구소는 지역 및 작물별로 구성된 강습제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작성하고, 능력 있는 과학자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선진 영농기술 도입과 관련한 실무강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러 시와 군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모든 영농 과정을 과학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소는 지역의 원료원천을 활용한 유기질 발효촉진제와 효능 높은 식물광포살충제를 생산 도입함으로써, 농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자_가정세대들의 축산경험_염소마리수를 늘린 비결_신원군 신창농장 축산작업반 리두수동무의 가정에서(『로동신문』, 2023.3.14)

- 당의 뜻에 따라 각 가정에서 축산에 힘을 쏟는 추세로, 신원군 신창농장 축산작업반 리두수 동무의 가정도 수십마리의 염소를 기르며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가정에서는 염소젖을 많이 생산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축산을 시작할 때 발생한 사양관리의 오류를 극복하고 축산기술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을 통해 개선하였음

■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자_가금생산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23.3.14)

- 안주시 운학농장 제3작업반은 가금을 많이 기르고 있으며, 그 비결은 자체의 힘으로 알깨우기와 새끼기르기를 잘하고 설비를 갖추었다는 점임
- 작업반은 과거에는 여러 단위와의 협력을 통해 병아리, 새끼오리 등을 가져와서 기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새끼생산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
- 알깨우기 설비를 사용하여 매년 봄철에 두 번의 알깨우기를 실시하며, 비육분조원들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였음
- 작업반은 새끼기르기에도 정성을 기울여 찔겨와 강냉이가루를 섞은 먹이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먹이량을 증가시키고 횟수를 줄이며 영양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였음

■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자_토끼기르기를 착실히(『로동신문』, 2023.3.14)

- 운학농장 제3작업반은 토끼기르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토끼기르기에 초급일군들이 큰 관심을 보였음
- 초급일군들은 먹이주기를 과학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요시하며, 앞선 단위의 경험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먹이주기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관리공들은 과학적인 먹이주기 방법을 도입하여 토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자_봄철 집짐승사양관리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로동신문』, 2023.3.14)

- 농사를 잘하여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
- 축산물 생산은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천을 통해 확인된 사실임

-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봄철 가축의 사양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음
- 봄철은 축산을 하는 단위와 가정에서 겨울 동안 가축의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며 증체율을 높이고 새끼를 잘 낳는데 중요한 시기임

■ 당의 축산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자_축산을 많이 하니 농사도 잘된다_력포구역 소신남새 농장을 돌아보고(『로동신문』, 2023.3.14)

- 축산물 생산은 농업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축산을 발전시키면 거름원천 문제와 농장의 실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농장원들에게 축산 관련 교육과 참관이 이뤄져야 함
- 축산물 생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축 우리의 실리를 따져가며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온실식 우리를 사용하여 겨울철에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온실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축산 활성화를 통해 생산되는 질 좋은 거름은 농장의 정보당 수확고와 거름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농사에 큰 도움이 됨
- 축산 활성화를 통해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는 것은 농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농장 교육과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우리당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생활력 과시_중평온실농장에서 갖가지 남새를 대대적으로 생산,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로동신문』, 2023.3.14)

-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중평온실농장에서 많은 양의 남새 생산이 이루어지고, 인민들의 식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음
- 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온실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에 주력하고, 남새모생산과 영농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에 맞게 진행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였음

- 함경북도의 온실농장에서는 많은 양의 남새를 생산하여 청진시민 및 도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온실농사와 경영관리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중평온실농장의 성과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사회주의 문화농촌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음

■ 농업문제해결에서 과학연구부문이 제몫을 하자(『로동신문』, 2023.3.16)

-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학연구부문이 농사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렬히 호소하였음
- 농업과학자들은 당의 부름에 응답하여 실질적인 연구성으로 화답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과학자들의 힘과 애국적 헌신을 농업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음
- 농업과학자들은 농사를 잘 지으며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업 문제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음

■ 농촌당조직들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정치사업 힘있게 전개(『로동신문』, 2023.3.16)

- 평양시 안의 농촌당조직들은 현장정치사업을 통해 대중의 열의와 기세를 돋우고 농장원들의 알곡증산투쟁을 격려하고 있음
- 농촌당조직들은 포전을 통해 실효적인 현장정치사업을 전개하여 대중을 당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 당일군들의 현장정치사업은 락랑구역, 강남군안, 청암구역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주시, 태천군, 염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농촌당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통해 당세포와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대중의 경쟁열을 유발하고 있음
- 다양한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주는 조직정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얻고 있음

■ 축산을 많이 하여 톡톡히 덕을 보는 단위_구장군농기계작업소를 돌아보고(『로동신문』, 2023.3.31)

- 축산 분야에서의 작업소의 성과와 혁신적인 사업기풍이 주목받고 있음
- 구장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돼지의 건강과 사양관리에 롤토링 및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생산에도 축사 배설물을 이용하여 농지를 비료로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군들은 당의 축산정책을 신경쓰며 실천하고 있으며, 작업소에서는 농기계수리와 부속품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소의 성과는 구내식당의 풍성한 식탁과 축산물의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작업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축산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 농사박사, 농업박사로 불리우는 일군만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로동신문』, 2023.4.5)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농업부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지도일군들의 실력은 당의 의도대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고리로서, 대중으로부터 농사박사, 농업박사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
-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학습과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며, 대중과의 소통과 대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임

■ 토끼기르기에서 중시한 수의방역(『로동신문』, 2023.4.5)

-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 및 전국적으로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시로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 군중적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함
- 수의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토끼기르기 중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한 조건을 갖춘 토끼우리를 새롭게 지어 수의방역사업에 강조를 두고 있음

■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시려(『민주조선』, 2023.4.12)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됨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관개체계의 완비는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임
-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아래, 금성 트랙토르공장의 개건현대화와 농기계 생산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의 문명화와 부유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과제로 간주되고 있음

■ 선진적인 온실남새재배기술을 도입하자(『로동신문』, 2023.4.12)

- 온실남새 생산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재배기술과 방법을 혁신하고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높이고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군들은 선진적인 온실남새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함
- 과학기술토론회를 통해 온실남새 생산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적인 연구성과를 보급하여 온실남새 생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함

■ 전국의 농장벌마다에서 경쟁 열풍(『조선신보』, 2023.4.12)

- 농촌지원을 위해 도, 시, 군 단위의 농근맹 조직들이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영양상태 개선, 가물 대비, 농기계 수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농촌지원을 위해 도시거름을 농촌에 여러 차례 보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작물의 생육조건을 개선하고 비배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연구기관의 일원들도 영농작업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성장촉진제를 제공하여 농업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있음

■ 강동온실농장건설장, 매일 모습을 일신(『조선신보』, 2023.4.12)

- 강동온실농장은 평양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과 함께 착공식이 진행되었음
- 군인건설자들은 온실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 치기 작업에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높은 실적을 남기고 있음
- 작업현장에는 직관선전물, 방송차, 군악대, 기동예술선동대 등이 배치되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음

■ 온실남새재배를 기술적요구대로(『로동신문』, 2023.4.20)

- 2호동에서는 종업원들이 구체적 실정에 맞게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도록 품종선택, 재배조직을 바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남새의 생육기일과 토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 다른 호동의 종업원들도 좋은 경험을 교환하면서 작물배치와 씨숙음, 잎땃비료주기, 농약치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온실의 온도와 습도, 통풍조건을 알맞게 조성
- 선진적인 재배기술과 방법, 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늘릴 수 있으며, 넓은 남새농사경험을 고집하면서 앞선 재배기술도입을 외면하지 말고 재배기술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사상적으로 발동되어야 함

■ 농업발전의 근본방향과 관련되는 문제(『로동신문』, 2023.04.21)

- 모든 지역과 농장에서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 전국의 농장들이 협력하여 온 나라 전체의 수확량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함
- 농촌혁명을 이루고 문명적이고 부유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농장과 포전이 함께 발전해야 하며,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농사에 임해야 알곡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음
- 시, 군의 임무는 모든 농장들을 함께 추켜세우는 것이며, 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농촌리들의 사업을 지도해야 전국의 농장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음

■ 농촌지원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당조직들의 역할(『로동신문』, 2023.4.29)

- 당조직들은 농촌지원사업에서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전을 세워 농촌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알곡고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작전을 세우고 집행해야 함
- 작전력, 지도력, 집행력은 농촌지원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해야 성공적인 농촌지원이 가능함
- 각 지역이나 농장의 특성과 잠재력을 초월하여 큰 작전을 세우고 농촌을 실질적으로 도와 작은 부분의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농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해나간다(『로동신문』, 2023.5.2)

-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로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기본임무이며,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
-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해당 단위의 구체적인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일군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과 통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신임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농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힘있게 견인하여 혁명적인 기풍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장들을 담당한 지도일군들의 사업정형을 분석하고 총화대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수천정보의 우량품종과일밭을 조성, 비배관리에 역량 집중(『로동신문』, 2023.5.2)

- 김정은 위원장은 과수업이 인민들에게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당이 중시하는 부문이라고 강조하였음
- 올해 봄에는 1,000여 정보의 키낮은 사과나무밭을 조성하고 4,500여 정보의 과일나무 그루바꿈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고산과수종합농장과 다른 지역의 농장에서는 새로운 우량품종으로 나무그루바꿈을 진행하여 열매맺는 기간을 단축하여 과수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과일군과 다른 농장에서는 비배관리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식물성 농약과 유기질비료를 자체 생산하여 대용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용농약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분무기를 도입하여 약뿌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밀, 보리생육개선에 힘을 넣는다(『로동신문』, 2023.5.5)

- 밀과 보리 비배관리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 식량문제 해결의 중요 과제로 강조되었고,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과학기술적으로 밀과 보리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음
- 도 조직사업을 통해 분무기편대 조직, 복합비료와 영양액 생산, 천연식물활성제 활용 등을 포함하여 밀과 보리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 농업부문 과학자, 연구사들은 포전별 및 필지별로 밀과 보리의 생육을 세밀히

관찰하며 농업근로자들을 지원하여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음

■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제품을 적극 도입(『로동신문』, 2023.5.8)

-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논물대기를 통한 비료주기방법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부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현장에서 기술강습과 보여주기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과학원의 나노공학분원에서는 알곡여물기촉진제를 개발하여 농작물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은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음
- 현재 나노공학분원에서는 알곡여물기촉진제의 생산을 지속하며, 농업부문에 제품을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학농사를 선도해가는 대학연구집단들(『로동신문』, 2023.5.8)

- 농업대학 연구집단은 현지 농장들에 맞는 농기계 개발과 도입, 영양강화제와 살초제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농작물의 품종육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더 좋은 종자를 생산하고 있음
- 연구집단들은 밀다수확재배기술, 영양강화제 개발, 비료 효율성 연구 등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개발한 기술을 현지 농장들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사지도와 기술지도를 통해 농장일군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치밀한 계획밑에 영농사업을 추진(『로동신문』, 2023.5.9)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영농공정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 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선 모기르기 방법과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벼모판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모내기 기계화와 농기계의 수리정비에 주력하고 앞그루작물의 정보

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물보장과 하천정리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농작업을 철저히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음

■ 농촌에 대한 로력적, 물질적지원 강화(『로동신문』, 2023.5.9)

- 교육위원회, 외무성, 정보산업성, 국가영화총국, 국가해사감독국 등 다양한 기관과 일군들이 협력하여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 성, 중앙기관, 혁명사적지도국 등에서는 트랙토르, 농기계부속품, 연유, 비닐 박막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모내기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농촌지원 열의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내기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버섯생산에서 성과 이룩(『로동신문』, 2023.5.14)

- 기술준비실의 종업원들은 여러 공정에 따르는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버섯의 개당 무게를 더욱 늘리고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음
- 원료작업반, 기질성형작업반과 재배작업반, 온실작업반을 비롯한 생산공정의 단위들에서 질 좋은 기질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고 생육단계별 특성에 부합되는 환경을 충분히 지어주면서 버섯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폐기질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버섯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산버섯공장은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기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여 버섯생산의 과학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조선각지 농촌들에서 벼모내기 시작(『조선신보』, 2023.5.19)

-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농장들의 모판관리, 논물잡이, 씨레질 등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날씨 조건에 따라 모내기 작전과 지도를 수립하여 벼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업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내기를 전개하고 있음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농장들은 모내기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평양시와 개성시 등에서는 도 논면적으로 높은 곳에서 모내기 작업을 진행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벼농사를 추진하고 있음
- 올해의 알곡생산 목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고지점으로, 벼모내기의 질적 완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총 집중하여 벼모내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강냉이심기 마감단계(『조선신보』, 2023.5.19)

- 황해남도에서는 적기에 맞추어 강냉이심기가 질적으로 결속되어 알곡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냉이심기 작업은 강원도, 남포시, 평양시에서도 제철에 맞추어 진행되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 함경북도에서는 시, 군, 농장별로 강냉이심기를 진행하여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함경남도과 자강도에서도 강냉이심기 작업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음
- 각지에서의 강냉이심기 작업은 알곡생산에 대한 담보로써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

■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힘있게 과시(『로동신문』, 2023.5.25)

- 총비서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련포온실농장에서 우리당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있음
-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부심을 안고 온실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음
- 온실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

히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 비상이 강화(『로동신문』, 2023.5.26)

- 과학농사추진조는 농사지도와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농업과학원은 재해성이상기후 대응과 농작물 안전성과 생육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제공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은 비료주기방법 개선과 물처리장치 제작을 통해 농촌의 과학농사열의를 고조시키고 있음
- 각 도의 과학농사추진조는 영농공정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실시하며 알곡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담보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음

■ 온실남새생산에 품을 들여(『로동신문』, 2023.5.27)

- 대동군 고산농장에서 온실남새생산에 품을 들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목되는 것은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온실의 토양개량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 농장에서는 여러가지 앞선 관수방법과 물절약형 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적은 양의 물로 온실남새를 재배하였음
- 일군들은 남새를 수확한 다음 새로 심기 전에는 무조건 토양개량제를 활용하도록 요구성을 높였으며, 여러가지 앞남새뿐 아니라 열매남새도 재배하면서 생산성을 높였음

■ 포기마다 정성을 기울여(『로동신문』, 2023.6.1)

- 신천군 새길농장과 농장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료사용 시기와 양을 결정하여 농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비료 주기를 확립하고 있음
- 강서구역 약수농장과 농장원들은 농작물 비배관리에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약 사용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며, 기술적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사동구역 덕동남새농장 일군들은 모내기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면서 논물관리에 과학적 접근을 적용하고, 물깊이 관찰을 위한 기구 설치로 농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농산제2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원들은 논물 관리에 대한 경험을 모범적으로 나누고, 다른 작업반들에도 농약치기와 관련된 기술과 책임성을 전파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농장에서는 총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농업 생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각지 농촌들에서 강냉이밭김매기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6.4)

-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지역에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통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증가시키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함
-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밭 김매기에 힘을 싣고, 비료와 농약의 적절한 사용 시기 및 양을 기술적으로 지도 받아 효율적인 농작물 생산을 추구하고 있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김매기가 진행되고 있는 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여 대중을 혁신창조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농산제2작업반, 신천군, 태탄군 등은 농물 생육에 맞는 논물 관리를 위해 기술적인 지도를 통해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논물깊이 관찰과 포기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음
- 강남군,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등 각 지역에서도 김매기를 내밀고 농업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울곡식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간다(『로동신문』, 2023.6.4)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부문에서 주체농법을 따르며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은 올곡식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밀과 보리 비배관리에 힘쓰고 있음
- 군일군들은 생육상태에 따른 밀과 보리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은천군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예측하고 대용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통해 당중앙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이해하며, 효율적인 알곡생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

■ 자기 단위의 잠재력을 초월하여 농촌을 돕는 기풍을 확립하자(『로동신문』, 2023.6.5)

- 온 나라에서 농촌을 사상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농업부문을 힘차게 발전시키는 열풍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의 중앙기관부터 각 도시, 군, 기관, 기업소, 공장까지 다양한 단위가 농촌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함으로써 농촌의 분위기는 양양되어 가고 있음
- 농업부문과 무관한 단위라도 농촌지원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풍은 중요하며, 올해 농사결과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단위들은 농촌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올해 농사결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에서 남새생산 대폭 장성(『조선신보』, 2023.6.5)

-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농장인 련포온실농장에서 매일 수십톤의 신선한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함경남도 시, 군에 공급하고 있음

- 함흥시는 온실남새 생산 및 경영을 과학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선진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잎남새, 뿌리남새, 열매남새를 적절히 배합하고 겹재배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은 다양한 온실남새를 함흥시의 노동계급과 과학자들, 도민들에게 공급하여 국가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은 지속적으로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함흥시의 발전과 현대적 농촌문명 창조에 기여하며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조선각지에서 벼모내기 마감단계에서 추진(『조선신보』, 2023.6.5)

- 농업부문 일군, 근로자, 지원자들은 알곡생산목표달성을 위해 가본면적의 모내기를 제때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천여개 농장이 참여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인민경제발전의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모내기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하루평균 모내기 실적은 110%에 달하여 인민들의 열정이 높음
- 평안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을 통해 모내기 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 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영양관리를 신중히 하여 모내기 속도와 질을 유지하고 있음
- 평양시, 남포시 등지에서는 벼의 씨뿌린 날짜, 생육상태,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와 개성시 등에서는 모종류별 영양관리와 물보장대책을 통해 모내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벼농사를 지원하고 있음

■ 농촌지원방식이 달라졌다(『로동신문』, 2023.6.6)

- 군당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개명과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구호와 표어, 선전화 등을 통해 군당위원회는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려는 열정을 고취시키고,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 군일군과 지원단위 당이 농장원들에게 설명과 담화를 제공하고 있음
- 예술선동대원들을 농장으로 보내 예술공연의 사상예술성과 문화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예술선동대와 합동하여 포전경제선동을 통해 수준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이고 있음
- 군당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군 안의 기관과 기업소 당, 행정책임 일군들이 농장 작업반에 나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행하며, 유기질복합비료와 소석회 등의 지원을 농장들에 제공하여 농촌지원을 혁신하고 있음

■ 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친다(『로동신문』, 2023.6.8)

- 농촌지원자들은 김매기에 진입하여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고, 평양시 주변 농촌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선동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에서 김매기를 내밀고 효율적인 소농기구 도입과 물도량치기, 후치질 등을 통해 농사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냉이밭을 알뜰히 가꾸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통해 김매기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김매기에 애국의 땀을 쏟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농촌 발전 지시에 따라 각 지역에서 김매기를 내밀며 농사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김매기 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매일매일을 과학농사의 연속과정으로(『로동신문』, 2023.6.8)

- 김정은 위원장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고 과학적 영농방법을 활용하여 알곡고지를 달성하라고 강조
- 기술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작물의 품종별 특성과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정확한 비료주기와 논물관리를 수행하여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알곡생산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야 함
- 기술일군들은 농작물의 품종별 특성과 기상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비배관리계획을 바로 세우고 수행하며, 농업부문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농작물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비배관리와 병충해 방지를 과학적으로 수행해야 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과학농사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을 향상시키고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여 국가의 식량자립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함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_사회주의농촌진흥에서 실제적인 변혁을 안아온 자랑찬 성과_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발관개공사를 비롯한 올해 관개건설목표 기본적으로 달성(『민주조선』, 2023.6.8)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중요한 과제로 20만여 정보의 관개체계 및 중소하천의 개발이 집중됨
- 가물피해를 받던 지역을 중심으로 6만여 정보에 달하는 밭들의 관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실현
-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수리화 실현과 함께 관개체계의 복구, 확장, 개선 등이 농촌진흥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추진됨
- 중앙위원회의 구상과 결심을 받아들이고 인민군과 노동자들이 뜻을 모아 관개공사와 농촌건설을 힘차게 추진함
- 짧은 기간에 수많은 관개물길 보수 및 지하수시설 건설,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여

관개체계 구축의 성과를 보이며, 농촌발전 전략과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관개건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대규모온실농장이 일떠서던 나날에(『로동신문』, 2023.6.9)

-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평온실농장과 양묘장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온실농장 건설의 시작을 확인함
- 김정은 위원장은 농장건설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며 지난해부터 뿌린 노고의 결실을 기뻐함
- 온실농장 건설의 성과는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암시함

■ 모내기과 새집들이(『조선신보』, 2023.6.9)

- 전국적으로 기본면적 모내기 완료, 알곡생산목표 달성함
- 농촌건설강령에 따른 농업근로자 사상의식 수준 제고, 농업생산력 발전,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의 방대한 목표 설정함
- 관개시설 개선 및 과학농법 도입으로 알곡생산구로의 발전과 농촌살림집 개선을 이룩함
- 약전농장에서 농촌건설강령에 따라 밀농사를 활성화시켜 알곡생산구로 전환하며 성공적인 결과 달성함
- 각지 농장에서 새집 건설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촌건설에 대한 열정과 향후 발전 방향 강조함

■ 올해 알곡생산목표점령에 떨쳐나선 온 나라에 신심을 북돋아준다(『로동신문』, 2023.6.12)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성과적 변화를 이루어냄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혁신적인 기술

과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공정마다에서 실수율을 높여 비료 생산을 향상시켰

-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농촌 발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며 사회주의경쟁을 강화하고 민족 경제발전에 기여함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양양된 기세를 이어가며 더 많은 비료생산을 위해 향후 노력할 예정임

■ 축산을 활성화하여 덕을 보기까지(『로동신문』, 2023.6.12)

- 지배인 김용남 동무를 포함한 일군들은 축산토대를 조성하여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사업소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전심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함
- 축산토대 조성과 돼지 기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먹이 처리 방법 등을 개발하였음
- 돼지, 거위, 닭 등 다양한 가축을 기르며 고기와 알을 공급하여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임
- 축산 활성화의 중요성을 깨달아 관리공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리공들의 실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종업원들의 애착심과 혁신을 촉진함

■ 벼모내기 최적기에 결속(『조선신보』, 2023.6.12)

-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알곡고지 목표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진일보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기본면적의 벼모내기가 결속된 소식을 전함
- 내각 농업위원회의 지휘하에 도시군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모내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임무분담이 구체화되어 과학기술적인 조치들을 통해 모기르기 과정의 편향을 극복하고 모내기의 효율을 높임
- 황해남도에서 모내기의 적기있나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기있나이시기를 맞추어 모 살이기간과 아지치는 시기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모내기를 추진하며 벼모판씨뿌림 시기를 조절하여 질적인 모작물을 얻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평안남도과 다른 지역의 농장들을 방문하여 모내기와 알곡생산계획수행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모들의 영양관리와 비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각 도, 시, 군의 농장업지도기관들은 재해성기상기후를 고려하여 농작물비배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육을 담보하고 농사지도를 강조함

■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진흥의 시대에 맞게 살며 일해나가자(『로동신문』, 2023.6.13)

-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옳은 이해와 정치의식수준을 높이고, 당정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함
- 농촌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근로자들이 혁명적 사상과 행동을 통해 모델이 되어 농촌진흥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주도적으로 기여함
- 농촌근로자들이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깨끗하고 깔끔한 삶을 실천하고, 자기집단과 사회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갖춤으로써 사회주의 농촌생활의 모범을 보여줌
- 농촌근로자들이 자기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협동정신을 실천하고 집단주의로 농촌혁명을 끊임없이 고조시키며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이어나감
- 농촌근로자들은 현대적 기술과 문명을 통해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상의식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체적 역할을 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투쟁함

■ 온실남새농사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23.6.14)

- 발산농장의 2개 호동에서 다양한 남새 작물을 생산하여 작황이 풍성함
- 리명숙, 곽정국, 리영녀 동무들의 노력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온실남새 생산을 늘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모습임
- 온실의 온도와 작물의 생육조건을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온실남새를 재배하고 생산성

을 높이는데 성공함

- 발산농장의 높은 생산성과 농장원들의 만족도를 통해 관리공들의 자부심과 노력의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당정책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생산확대에 힘쓰고 있는 현황임

■ 논벼생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로동신문』, 2023.6.17)

- 농장일군들이 유기광물질비료에 의한 깊은층 비료주기를 중시하여 논벼의 생육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음
- 깊은층 비료주기와 논김매기 등 논벼 관리 작업이 겹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알곡 증산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과 계획을 수립하였음
- 작업반에서 깊은층 비료주기 계획을 철저히 따르며 논김매기의 제때 처리를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올해 알곡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의로 농장원들이 논벼영양관리를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음
- 고원군 군내농장에서는 농업작업의 조화로운 진행을 통해 논벼 생산의 효율성과 수확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다수확경험과 기술을 부단히 공유하자(『로동신문』, 2023.6.17)

- 제8기 제7차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농사 혁신과 과학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작물 비배관리와 농사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논의하였음
- 농업근로자들은 선진농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실천에 활용하여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초급일군들의 역할과 농사혁신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본위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하에서 다양한 단위 간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며 알곡증산의 밑천을 확장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을 강조하였음

- 농업근로자들과 농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경험 공유를 통해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시사하는 바를 전하였음

■ 생물분해성박막(『로동신문』, 2023.6.18)

- 김정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현대는 과학농사 시대로, 농업생산은 기후조건보다는 농업과학기술에 의해 진행되며, 발작물재배에서 생물분해성박막을 개발하여 농사혁신을 실천하고 있음
- 지면피복재배방법은 생육기간을 조절하고 가물피해와 냉해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높은 소출을 달성하는 발전된 영농기술로, 지면피복재배방법에 사용된 올레핀계박막은 환경오염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대안이 필요함
- 생물분해성박막은 진균이나 세균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박막으로, 지면피복재배방법에 이를 적용하여 후치질이나 골짜기 등의 공정이 필요 없으며 땅다짐현상 없이 농작물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생물분해성박막을 사용한 지면피복재배방법은 록색농법으로 록색절약, 자원절약, 환경보호, 토지보호의 특징을 가지며, 폴리젯산에스테르 등 유기중합물을 이용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여러 과학연구단위에서 원료원천을 활용하여 생물분해성박막을 개발하는 연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생물분해성박막의 개발은 재해와 기후 영향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도모하는 담보로 이어질 것임

■ 강하게 내밀어야 할 풀판조성사업(『로동신문』, 2023.6.21)

-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육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제공하고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지조성사업을 강조하고 있음

- 초지조성사업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먹이풀을 재배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함
- 중요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품종의 풀씨를 선택하고 토지보호림과 숲을 조성하여 유익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며, 일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
- 초지조성과 관리를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먹이풀재배에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생산의 품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 올곡식을 최적기에 와닥닥 수확(『조선신보』, 2023.6.21)

- 현재 조선각지 농업에서는 앞그루밀과 보리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사작황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농작물 소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밀과 보리의 수확 시기가 중요하며 적기에 수확하지 않을 경우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조선에서는 밀과 보리의 수확 시기를 최적기에 맞추어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부문에서는 초지조성사업과 같은 과제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농촌혁명강령을 통해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고 밀가루음식과 흰쌀밥의 생산을 지향하며, 적기에 앞그루밀과 보리를 심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농업 생산을 강화하고 있음
- 농장들은 밀과 보리의 수확 시기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며, 기술지도와 비배 관리를 통해 높은 생산량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음

■ 현시기 농사지도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로동신문』, 2023.6.22)

-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에 따라, 농업 생산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올곡식 수확과 뒤그루작물 심기가 시기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농업 생산에서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비료주기의 정확한 시기와 양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비배관리를 실시해야 함
- 강우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농작물의 습해방지대책을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수시설과 논물관리 등으로 습해를 예방해야 함
-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 노력이 요구되며, 적기적인 농사작업과 비료 관리, 습해방지대책 등을 통해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강냉이재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전국콩재배기술강습 진행(『로동신문』, 2023.6.22)

- 농업부문에서 지속되는 재해성이상기후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가 개최됨. 고온과 다습조건에서의 강냉이수정률 및 뿌리활성 개선과 같은 핵심 문제들이 다뤄졌음
- 연구자들은 알곡소출을 증진하기 위해 고온과 다습조건에서의 강냉이수정률 증대와 천알질량 증가, 뿌리활성 강화와 같은 과학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토론하였음
- 전국콩재배기술강습에서는 재해성이상기후 피해 감소를 위한 콩농사의 농업기술적 방안과 뒤그루콩농사에서의 효과적인 재배기술, 과학적 비료주기 적용 방법 등이 강의되었음
- 이번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인민경제발전의 중요 고지 중 하나인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산기술협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농업과학원, 평양농업대학 등 20여개 단위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짐

■ 기동형배나무모확보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6.23)

- 강원도는 과일 맛과 정보당 수확고를 고려하여 맛 좋고 수확량 높은 기둥형배나무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기둥형배나무모 생산단위에서는 비배관리에 힘을 들이고, 과학기술적 접근으로 비배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 향상과 관련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와 강원도 내 다양한 단위들은 기둥형배나무모 생산과 관련하여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영양액 보장 및 비배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강원도는 비배관리정형을 수립하여 기둥형배나무모의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 논판양어를 적극 장려(『로동신문』, 2023.6.30)

- 김정은 위원장은 양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중도반단하여도 안 된다며 양어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함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논판양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양어 활성화의 목표를 높이고 조직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 도내 일군들은 논판양어를 통해 물고기 수확량 증가와 화학비료, 농약 절약의 이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내에서는 대대적인 논판양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경험 일반화와 조건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양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도에서는 방류한 치어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양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로동신문』, 2023.7.1)

- 선천군 석화농장은 잎덧비료주기를 중요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영양액과 성장촉진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고 있음
- 봉산군 토성농장에서는 논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협의회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은 농작물의 충하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습해 대책과 물빼기 방법을 통해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논물깊이와 물온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요소비료와 영양액을 조절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충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 농장들은 지속적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농작물 생산의 효율성과 수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량품종의 염소를 더 많이(『로동신문』, 2023.7.1)

- 량강도에서 우량품종의 염소종자를 구입하여 젖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염소종자를 활용하여 재래종 염소와 섞붙임하여 젖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음
- 염소의 성장에 따른 먹이단위와 사양관리방법을 정하고, 기술전습회와 강습을 통해 기술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음
- 영양관리와 수의방역사업을 통해 염소들의 증체율을 높이고, 방목지를 확대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

■ 밀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안아온 혁신적인 일본새(『로동신문』, 2023.7.3)

- 정주시 침향농장은 올해 앞그루 밀농사를 통해 높은 생산을 이뤄내며 많은 알곡을 생산함

- 해양성 기후의 영향과 재해성 기상현상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농장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밀농사를 진행하였음
- 우량품종의 밀종자와 점씨뿌리기 방법을 도입하여 밀농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함
- 농장은 당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며 우량품종의 종자 확보와 정보당 수확고를 통해 밀생산량을 늘렸음
- 당의 정책에 완강한 인내력과 혁신적인 노력을 발휘한 일군들이 밀농사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냄

■ 수의방역사업을 더 긴장하게(『로동신문』, 2023.7.4)

- 황주군수의방역소 일군들과 수의사들은 장마철 도래에 따른 병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임성을 높이고 있음
- 수의방역소에서는 물도랑 정리 및 먹이 보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가축의 병예방을 강화하고 있음

■ 젓제품생산토대강화에 계속 힘을 집중(『로동신문』, 2023.7.6)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젓제품 생산을 증진하고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함경북도와 기타 지역에서는 젓가공 시설 구축과 젓소, 염소목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젓제품 생산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있음
- 여러 과학연구단에서는 젓가공품 생산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당의 육아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각 지역에서는 젓가공 설비 구축과 초지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젓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젓가공 기술과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젓소, 염소 목장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음

■ 기름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로동신문』, 2023.7.7)

- 김정은은 기름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당정책을 강조함
- 지난 시험재배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기름작물재배를 위한 조직화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음
- 군민들에게 경제적 유익성과 기술적 요구를 설명하여 기름작물재배의 경쟁열을 고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동천농장의 기름작물재배를 본보기로 삼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열의를 촉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기름작물종자 확보와 비경지개간, 비배관리방법 도입 등을 통해 기름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 평양 도착(『로동신문』, 2023.7.7)

- 과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 관리에 애정을 기울이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함
- 이들의 노력으로 첫물복숭아가 풍성하게 수확되었고, 이를 수도 평양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대가 도착했음
- 시안의 당과 정권기관은 과일수송대를 활용하여 어린이들과 전쟁 노병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봉사 조직사업을 추진함

■ 남새증산을 위한 연대적혁신을(『조선신보』, 2023.7.7)

- 조선 북변, 함경북도에서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이 건설되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련포온실농장은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더 큰 규모와 생산능력을 가졌음

- 련포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은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남새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을 선포함

■ 앞그루밀, 보리가을 계획수행률 150%이상(『조선신보』, 2023.7.10)

-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최단 기간에 밀과 보리 수확을 질적으로 앞당겨 마무리하였으며, 평양시에서는 계획보다 5일 앞당겨 마무리한 사례도 있음
- 만경대구역, 사동구역 등의 농장들에서는 지난해보다 가을걷이와 탈곡 실적이 1.2배 이상으로 증가함
- 남포시의 구역과 군들은 불리한 날씨 조건과 앞당겨진 장마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확 적기를 조정하고 가을작업을 진행함
- 황해북도와 황주군 등에서는 록롤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밀과 보리 수확을 완료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수확을 마무리하고 있음

■ 새형의 능률높은 농기계를 연구개발(『민주조선』, 2023.7.11)

- 농업위원회 농기계연구소의 일군과 연구자들은 세계적 농기계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를 연구 및 설계함
- 시제품을 개발한 후 다양한 운영시험과정을 통해 농기계의 성능과 기술적 특성을 확인함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에서 농촌기계화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농촌 발전의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
-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농기계의 대량생산을 위해 농기계 생산단위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소는 더욱 노력하여 능률높은 농기계의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며, 농촌기계화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임

■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로동당원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자_혁명의 성지가 자리잡고 있는 량강도의 농촌건설을 전국이 지원, 중앙과 지방들에서 당원대대를 조직하여 파견(『민주조선』, 2023.7.11)

- 농촌개혁을 국가 발전과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혁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량강도의 농촌건설을 전국의 목표로 삼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량강도의 농촌건설은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중심 과제로서, 민생 개선과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 당원대대 지휘관과 대원들은 모임을 통해 미래에 향하는 결의와 애국의 의지를 나누며, 농촌건설의 중요성과 목표를 강조함

■ 밀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비결(『로동신문』, 2023.7.15)

- 밀농사에서 적기보장을 통한 수확 고지를 위해 농촌진흥 대책을 세우고 실천함
- 밀재배를 위해 밀재배지 선정을 최적화하고, 강냉이영양단지 짝기를 조기에 실시하여 수확을 빠르게 하고 생육단계별 영양 관리를 강화함
- 겨울철 밀의 재생률을 높이기 위해 땅 밟아주기, 포전에 다양한 비료와 영양액을 사용하여 밀생육 조건을 개선하고 밀포기의 건강한 자람을 도왔음
- 과학적인 밀비배 관리를 위해 생육조사를 5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관리위원회 일군 및 작업반 초급일군들의 참여로 생육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협의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함
- 초급일군들의 노력으로 밀비배 관리가 과학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생육조사를 통해 밀재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정보당 수확고를 실현함

■ 당의 축산정책관철에로 떠밀어준 의의있는 계기(『로동신문』, 2023.7.15)

- 김정은은 축산 발전이 인민의 식량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함

-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일군들은 각 지역의 축산단위에서 대용먹이생산기술과 첨가제 사용 등을 통해 축산물생산의 과학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먹이보장대책을 강화하여 현대화된 축산단위 발전에 노력함

■ 대중운동의 비약적발전은 옳은 방법론이 결정한다(『로동신문』, 2023.7.21)

- 삼봉농장은 3년간의 기간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달성하며 빠른 발전을 이룩함
- 성형알모재배방법과 린안비료 등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참대버드나무와 과수원 조성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었음
- 일군들의 기수적 역할을 높여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농장원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도록 유도함
- 주인의식의 강화와 혁신적인 발전 노력을 통해 농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농장원들의 참된 주인으로서 의식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음

■ 알곡증산의 비결은 과학농사(『조선신보』, 2023.7.21)

- 농업과학원과 황해북도체신관리국이 개발한 황금열매 프로그램은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를 지원하며, 농업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정보 기술제품임
- 수많은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황금열매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답을 얻고 있음
-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농사실천에 필요한 과학적 방법과 해결책을 제공하며 문답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연구하고 있음
- 연구소는 지식자료기자의 구축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며 문답봉사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갱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를 통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온실남새생산에서 진일보를 이룩할 열의(『로동신문』, 2023.7.22)

- 온실남새부문 일군들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강화를 위한 규모가 확대된 기술전습회 개최
- 온실뒤벽면 처리, 수경재배기술 등의 현장기술을 중심으로 소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진행
- 안주시남새온실에서의 생산량 기록 및 효과적인 빛과 영양공급 방법 소개, 작물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경험과 성과 공유
- 농업과학기술 관련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사철 인민의 생활에 신선한 남새 공급을 위한 노력 강조 및 자력갱생 투쟁의 중요성 강조

■ 2중, 3중으로 따져보며(『로동신문』, 2023.8.1)

- 농업 생산은 주로 자연기후의 영향을 받음
- 일부 농업생산단위에서는 과거에 폭우, 큰물, 고온, 폭풍, 다습, 병해충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해당 단위의 농업인들이 책임감 부족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됨
- 사전에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허점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식적이고 요령 주의적인 사업보다는 책임있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농업 부문의 노력과 각성이 요구되며, 농업인들은 올해 농사의 운명을 걸고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감을 발휘해야 함
-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함

■ 풀베기경쟁열의를 고조시켜(『로동신문』, 2023.8.2)

- 강동군 읍농장에서는 풀베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초급일군과 선동원들이 앞장서 나서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
- 일군들은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재해성 기후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대중의 정신력 발동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풀베기를 통해 농장원들의 경쟁 열의를 높이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풀베기 실적이 계속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작업반들에서는 풀이 많은 원천지들을 이용하여 승벽내기로 풀더미를 쌓아가며, 풀베기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음
- 농장원들은 풀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다음해 알곡 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줄기찬 투쟁 전개(『로동신문』, 2023.8.2)

- 각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재해성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진행하고 있음
- 각급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이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으로 다수확을 내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 있음
- 다른 지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하며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해 비배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에 힘을 넣자(『로동신문』, 2023.8.2)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물과 거름 생산을 늘리는 중요성을 강조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질 좋은 거름 생산과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축산활성화에 힘을 넣고 있음

- 일부 단위에서는 당정책을 수용하고 관철에서 실천력을 발휘한 경우에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요한 것은 당정책관철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임
- 일군들은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농산과 축산을 발전시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과 축산의 생산을 향상시키고 지력을 키우고 있음
- 다양한 단위에서의 경험과 방법을 활용하여 축산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농산과 축산의 협력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축산관계자들, 생산현장에서 사업경험을 교환(『조선신보』, 2023.8.2)

- 안주돼지공장에서 열린 축산부문 회의에서 조선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는 질서의 제도가 확립되고 있음을 확인함
- 회의에서는 안주돼지공장에서의 먹이 가공방법과 단백질 먹이생산기술의 채택으로 먹이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물 생산을 정상화하는 기반을 마련함
- 각 지역의 축산단위에서도 대용먹이생산기술을 받아들여 축산물 생산을 선도했으며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문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하기로 다짐함
- 일부 단위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빙자해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과 원인이 분석되었음

■ 황해남도에서 생산하는 소형벼수확기(『조선신보』, 2023.8.2)

- 해주농기계공장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수용하여 소형벼수확기의 생산을 촉진하고, 관련 지역인 황해남도의 알곡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장의 종업원들은 협력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단위의 경험을 활용하여 소형벼수확기의 시제품을 짧은 기간 내에 개발하였음. 또한, 동력전달장치

와 칼날 제작 등의 기술 개선을 통해 개량생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음

- 이러한 소형벼수확기는 변속장치와 조향장치를 도입하여 공정별 작업과 이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해주농기계공장은 농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알곡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국내 농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과학농사지도에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로동신문』, 2023.8.3)

- 과학농사추진조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력제고 사업이 진행되었음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장들에 필요한 과학농사 지도를 제공하였음
- 영농 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더 나은 작황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음
- 현지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을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제품을 시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함

■ 농사일에는 경중이 따로 없다(『로동신문』, 2023.8.6)

- 미래 농사에는 다양한 작업과제가 있으며, 이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함
- 시기별 영농 작업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농사일은 모두 중요하며, 단위들은 알곡 생산을 위해 진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아침과 저녁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날씨 조건에 따라 작업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자(『로동신문』, 2023.8.6)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생산이 자연 기후 조건이 아닌 농업과학기술에 의존한다고 강조함
- 농작물의 성장 후반기 비배관리는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상 현상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
- 영양액을 사용한 잎덧비료 주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면 농작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수확량을 최대화할 수 있음
- 과학기술 보급기지와 농업 지식에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함

■ 농사지도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자(『로동신문』, 2023.8.7)

- 농업근로자들은 기상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농작물 생육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인 농사지도가 필요함
- 농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백한 과학적인 담보를 찾는 것이 중요함
- 농업근로자들은 선진농업과학기술을 배움으로써 농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향상시켜야 함
-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을 지원하고 농사지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농사에 대한 창발성과 적극성을 존중해야 함
-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농사지도를 통해 올해의 농작물 생산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함

■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 안고(『로동신문』, 2023.8.7)

- 당면한 영농사업에 대한 농사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품종별 특성에 따라 비료주기를 정하고, 생육조건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장원들은 농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며, 논벼 비배관리를 더욱 알심 있게 진행하고 있음
- 기술일군들은 농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비료주기에서 편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병충해방지를 위한 과학연구활동 전개(『로동신문』, 2023.8.8)

-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는 고온과 폭염,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소는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고, 구제수단을 개발하며 손전화기병해충예보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병해충의 발생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농장원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음
- 연구소는 또한 식물성 농약 생산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감자역병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김덕훈 내각총리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8.8)

-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는 농작물의 병충해 대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고위간부의 지시에 따라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연구소는 새로 개발한 손전화기병해충예보봉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병해충 발생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사들은 병해충예찰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예찰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 식물성 농약생산공장에 나가 농약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벼선충 구제 농약을 생산하고 미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 토양소독제를 연구하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감자역병의 발생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효성비료생산기지 건설, 생산에 진입(『로동신문』, 2023.8.10)

- 함경남도에서는 홍원군에 원료매장량이 풍부한 지효성비료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농작물의 생육후반기 비배관리에 이용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부문에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 농업자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홍원군에 지효성비료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큰 작전을 펼쳤음
-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힘찬 투쟁을 벌였음.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트라스제작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함
- 건축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벨트컨베이어와 회전원통형분쇄기 등의 설비제작과 조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생산 준비를 완료했음. 이어서 지효성비료생산기지 건설을 마치고 성과적으로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함

■ 수십만개의 열매남새재배용 용기들을 생산하여 련포온실농장에 보내주었다(『로동신문』, 2023.8.10)

- 함경남도에서 련포온실농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 중임

- 도당위원회 아래 여러 단위에서 열매남새재배를 위한 용기를 생산하여 영양액비료를 절약하면서 안전한 수확을 보장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축산, 양어, 온실, 버섯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있음
- 열매남새재배용 용기를 사용하면 영양액비료를 30~40%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인 남새 생산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옴
-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열매남새재배용 용기를 생산하고 련 포온실농장에 도입하여 온실남새생산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중시해야 할 여름철 사양관리(『로동신문』, 2023.8.12)

- 김정은 위원장은 토끼기르기에서 과학기술적인 사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여름철에는 더위와 습도의 영향으로 토끼에게 병원체가 빨리 퍼질 수 있고, 온도차이도 크게 남
- 먹이보장이 토끼기르기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리 중 하나임
- 토끼의 영양관리를 잘 해야 하며, 특히 여름철과 장마철에는 물기가 많은 먹이를 줄이고 말린 풀을 섞어먹이는 것이 좋음
- 더위에 약한 토끼를 위해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기를 충분히 해주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농촌당조직들은 과학농사의 기치를 들고나가자(『로동신문』, 2023.8.13)

- 촌당조직은 농촌혁명을 주도하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짐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현대는 과학농사의 시대로, 자연기후가 아닌 기술에 의존함

- 과학농사로의 전환은 초기 단계이며 어려움이 많음
- 농촌당조직은 농업과학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

■ 백리청춘과원에 굶이치는 드높은 증산열의(『로동신문』, 2023.8.13)

- 올해 과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품질보장이며, 이는 경제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
- 군농업경영위원회와 협력하여 농약뿌리는 횟수를 늘리고, 수입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군농업경영위원회와 연구사들은 현장에서 과일나무의 생육상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과일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군농업경영위원회 송곡1 작업반은 과일증산에 힘쓰고 있으며, 작업반원들은 과일생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농작물생육개선을 위한 농업기술적대책 적극 강구(『로동신문』, 2023.8.16)

- 최근 폭풍우로 농작물의 생육이 어려워졌지만, 지역 농촌의 실태를 기반으로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정주시 일군들은 올해 농사를 책임지며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배관리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군에서는 물을 대주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농약 처리를 통해 논벼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음
- 여러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은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제품들 광범히 도입(『로동신문』, 2023.8.19)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생산이 자연 기후가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말함
- 과학농사추진조에서는 알곡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진적인 농업기술제품 생산을 강화하고, 생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자재보장대책을 수립해 나갔음
-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제품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휴대형 반도체 레이저식물포집장치와 전기임폴스물처리장치 등을 개발하여 농작물 소출을 높였음
-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에서는 천연생물활성제 생산량을 늘리고,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에서는 밀다수확재배기술을 도입하여 밀, 보리 농사에 기여했음
-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원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비료를 개발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식량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

■ 병해충피해막이에 생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로동신문』, 2023.8.24)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부문에서 농사를 잘 짓고 농업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 강조함
- 함경북도에서는 붉은눈알기생벌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고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식물방역소를 빠르게 개건하여 병해충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기반을 강화했음
- 도에서는 붉은눈알기생벌알을 생산하고 농장으로 보내기 위한 체계적인 예찰예보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시와 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배수체계의 완벽성보장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23.8.24)

- 황해남도에서는 재해성 기후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작물 생육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배수체계를 원활히 가동시켜 농경지 침수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일군들을 해당 지역으로 파견하여 배수체계의 완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는 배수문과 배수갑문 등의 배수체계를 검토하고 불리한 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고 있음
- 재령군에서는 폭우와 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감시와 통보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저수지와 물길의 물조절을 책임지고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지원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 다른 시, 군에서도 배수체계의 완벽성을 검토하고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배수로치기 정형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물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온실남새농사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가(『로동신문』, 2023.8.26)

- 안주시 남새온실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남새 품종을 도입하고 작물의 성장 환경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각종 미량원소 비료를 생산해 남새 생산에도 활용하고 있음
- 일군들은 물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둔 노력으로 물 보장 방안을 개선하였고, 새로운 품종 도입과 미량원소 비료 활용을 통해 남새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 방법 개선도 진행하고 있음
- 미량원소 비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종업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남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재배 방안이 도출되었음
- 경험과 노력을 통해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고, 기술 수준을

높이며 온실남새 재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 안고 펼쳐나(『로동신문』, 2023.8.27)

- 광산군 로하농장에서는 논벼의 여문율을 높이기 위해 앞뒤투비료주기를 강화하고, 아미노산미량원소 복합비료와 다원소광물질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작업 시간과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안주시 성흥농장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찰사업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합리적인 위치에 예찰초소를 내세워 병해충 발생동태를 감시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음
- 영광군 읍농장에서는 습해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탕개를 실시하고, 강냉이밭둘레의 물도랑치기를 통해 농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매일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농장원들을 부단히 각성시키고 있음
- 농장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또다시 최고수확을 낼 드높은 기세로(『로동신문』, 2023.8.30)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군 와도농장의 농장원들과 일군들은 농사 경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알곡생산목표 달성에 힘을 쏟아 고작성과를 높이고자 함
- 논벼의 생육을 추켜세우고 병피해를 막기 위해 살균제치기와 영양액주기가 진행되며, 비가 자주 내리는 환경에서도 불굴의 투쟁정신이 발휘됨
- 안변군 오계리일대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농장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음
-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물길가시기를 비롯하여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농촌진흥의 새로운 시대에 당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함

- 농장원들은 자체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농기계수리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량품종을 심어 가을걷이에 준비하고 있으며, 농사 일군의 신념과 결단력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뚫을 수 없는 난관은 없다고 믿고 있음

■ 큰물에 의한 알곡생산량감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로동신문』, 2023.8.30)

-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농작물 관리 방법 중 하나로, 논밭의 고인물을 빨리 뽑아내는 것이 중요함
- 넘어진 농작물을 제때에 세워주고 앞에 묻은 흙과 모래를 제거해 줌으로써 농작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논밭의 고인물이 전부 빠진 후 3일 이상이 지난 경우, 다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이는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살충제와 살균제를 제때에 사용하여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속효성 비료와 기능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알곡 생산량 감소를 줄이는 핵심 대책임
- 농작물이 물에 잠겼던 시간에 따라 비료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뿌리 부위에 올바른 비료를 제공함으로써 회복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작물의 영양분 보충과 회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 활발(『민주조선』, 2023.8.30)

- 올해 알곡목표 달성에 따른 농촌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위대한 수령과 장군의 지시 아래에서 사회주의적 대중운동을 이끌어가며 새로운 농촌혁명을 실현하고 있음
- 김일성과 김정일은 농촌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도를 제공하고 농촌건설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평가하였음
-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어 농촌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운동의 생동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

- 전국 각지의 많은 청년들이 농촌혁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농촌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논과 밭에 대한 작업을 앞당겨 진행하고 있음
- 농촌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운동은 농촌진흥과 사회주의농촌문명의 창조에 기여하며, 청년들의 참된 삶과 보람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표현하는 활동임

■ 온실바다에 넘쳐나는 보답의 열정(『로동신문』, 2023.9.2)

- 련포온실농장은 남새를 생산하고 함흥시의 인민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장은 남새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경온실과 연구실을 활용하여 남새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실현하려는 열정과 힘을 갖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장치 및 시설을 이용하여 남새 생산을 향상시키고 있음
- 농장은 다양한 재료를 확보하고 재생 이용을 통해 남새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물보장과 환경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음
- 농장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남새증산성으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무한한 열정과 충성의 마음으로 남새 생산을 이끌고 있음

■ 자강력의 정수(『로동신문』, 2023.9.2)

- 강한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결합이 자강력의 핵심이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공을 이룰 수 있음
- 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열의와 창조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과학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함
-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확립하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지원해야 함
- 당 조직은 대중의 정신력을 증대시키고 과학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 여러모로 좋은 논판양어(『로동신문』, 2023.9.3)

- 논판양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동물을 함께 기르는 농업 방식으로, 이를 통해 생산액을 늘리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 논판양어는 벼와 물고기를 함께 재배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질소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이 증가함
- 일부 국가에서는 논판양어를 발전시키고, 생태화, 규범화, 표준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 중요 농업 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기도 함
-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논판양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동물들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유기농법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음
- 논판양어 방식에는 벼-물고기, 벼-새우, 벼-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물 관리와 비료 사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농촌에 성능높은 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주자(『로동신문』, 2023.9.3)

-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통해 농업과 공업 간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
- 농업의 현대화와 선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기계를 다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기계 생산단위와 근로자들은 이를 정치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
- 농기계와 부속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부속품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농기계 생산단위와 근로자들은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함
- 트랙토르와 농기계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의 질은

단순히 미적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과 실용성을 고려해야 함

■ 탐스러운 열매를 가꾸어가는 보람(『로동신문』, 2023.9.5)

- 과일 농사에서 초급일군과 작업반원은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농장 관리 및 생산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작업반은 과일 생산 계획을 수행하여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고, 과일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업반원들은 농약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수확 시기에도 노력하여 과일 품질을 보장하고 있음

■ 남먼저 포전을 타고앉아(『로동신문』, 2023.9.6)

- 이른 아침 대동군 학수농장에서 농작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잎덧비료주기가 시작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농산물 생산 계획을 수행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언급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효과적인 비료치기 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로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위해 영양관리 개선과 천알질량 늘리기를 강조하고 있음
- 일군들이 농작물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일군들이 앞장서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천알질량을 늘리기로 결심하며 매일 노력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일군들의 열의에 동참하여 농작물비배관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음

■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 제작완성(『로동신문』, 2023.9.6)

-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생산 계획을 높이 채워나가기 위해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음

- 이 공장은 다양한 기술 혁신 및 합리화 안을 도입하여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기계의 부분품을 높은 품질로 조립하고 있음
- 소재준비직장에서 소재 가공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켜 농기계 제조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공무동력직장에서 부분품 가공과 조립을 병행하여 생산 일정을 앞당겼음
- 프레스형타를 새로 도입한 형타직장에서 선반공들의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켜 협동품 생산을 촉진하고, 도금종합작업반에서는 마감 공정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기계의 생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와 경험주의를 극복하자(『로동신문』, 2023.9.11)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적 농사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관주의와 경험주의를 극복하여 농사를 짓는 과학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와 경험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태도로 농사를 지도해야 함
- 과학농사는 농업생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며, 과학적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높여야 함
- 일군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지식 증진을 통해 과학농사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고, 혁신을 통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함
- 농사지도를 위한 물질과 기술적 기반을 다듬어야 하며, 과학농사의 지도와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상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새로운 가을밀품종 육종도입(『로동신문』, 2023.9.12)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에서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분야의 발전을 촉구했음
- 당은 가을밀품종을 육종하고 소출이 높고 품질이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 작업을 강조하였음

- 연구자들은 밀품종 육종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작업에 헌신했음
- 연구자들은 밀재배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씨뿌림량, 시기확정, 비료 주기 등을 포함한 기술적 요소를 찾아내며 현지 특성에 맞는 밀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음
- 연구자들은 새로운 가을밀품종을 개발하고 국가과학기술성성과도입증을 획득하여, 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도입에 기여하였음

■ 농장별을 꿰게 하는 위력한 선전선동공세(『로동신문』, 2023.9.12)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조직들에게 정치사업을 포전으로 옮기고 경제선동을 강화하여 농장원들의 열의와 기세를 돋우라고 지시했음
- 여러 지역의 도당위원회와 당조직들은 농장별들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선전선동을 진행하고, 방송선전차와 다양한 형식의 정치사업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농장별들이 알곡증산투쟁에 참여하고, 선전선동으로 그들의 애국열의를 높이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방송선전차, 직관선전, 예술선동, 구두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화선식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여러 지역의 도당위원회와 리당조직에서 정치사업의 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농업부문의 투쟁기세를 고조시키기 위한 활발한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음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로동신문』, 2023.9.13)

- 농업부문에서 가을밀과 보리의 씨뿌리기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치적 책임감과 본분을 다하는 농장원들에게 필요함
- 이전 농사기간에 씨뿌리기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씨뿌리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올해는 밀, 보리파종기 준비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씨뿌리기 적기보장을 위해 씨뿌리기 준비를 완만하게 하면 영농작업에 지장을 주고 소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씨뿌리기 준비를 서둘러야 함
- 씨뿌리기 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대적, 포전별 특성, 종자확보, 농기계 및 농기구 준비, 적지와 적기선정 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적시적인 대책 세우기가 중요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중소농기구를 충분히 갖추어 밭, 보리씨뿌리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씨뿌리기 준비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농사지도에서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로동신문』, 2023.9.13)

- 서흥군의 과학농사를 위한 중요한 과제는 농장과 포전별로 농작물의 생육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진행하여 생육을 개선하는 것임
- 농장과 포전마다 토양 조건이 다르며, 이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다르므로 과학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함
- 농장들은 농사의 과학적인 지도와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기술 전습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사의 과학적인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있음
-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개발하여 이상기후 현상을 극복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사 지도를 위한 기술 전습회는 과학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방법론적으로 발전하며 알곡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관개체계의 덕(『조선신보』, 2023.9.13)

- 올해 상반기의 경제성과 중 관개체계 개선이 돋보여, 농장들이 생명수 공급으로 풍부한 수확을 달성하고 있음

- 농촌의 수리화는 1960년대에 완성되었지만 최근 봄,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전격적인 관개시설 정비보강사업이 이루어져, 6만여 정보의 관개체계가 새롭게 일신되었으며, 2만 4천km의 관개물길이 보수되고 3천여개소의 양수장이 새로 건설되었음
- 이 대규모 관개공사는 자연의 광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평양시와 전국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이 이뤄지는 가운데 농업발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거창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농장들은 올해에는 평안북도 선천군 효자농장과 평안남도 증산군 발산농장을 포함한 여러 농장에서 생명수 공급으로 기대 이상의 올곡식과 벼농사 수확을 이루어내고 있음
- 이러한 관개체계 개선으로 인해 봄에 가뭄피해를 받던 지역들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리화된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하루에 수만명이 농촌을 지원(『로동신문』, 2023.9.16)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인민들의 식량문제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강국을 건설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음
- 황해북도의 농장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농사결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짐과 맹세가 각각의 가슴에서 끓어나오고 있음
- 도당위원회와 각급 당조직들은 가을걷이를 최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과 사상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장별들을 비롯한 많은 조직과 기관이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원자들이 농장별로 가서 가을걷이를 돕고 있음
-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은 협력하여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동과 혁신이 농장들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음

■ 다음해 밀, 보리농사를 위한 전국적인 기술전습회 진행(『로동신문』, 2023.9.17)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농업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전 밀과 보리 농사의 성과와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교훈이 전문가와 농장 및 근로자들과 공유되었음
- 농사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생육, 씨뿌리기, 비배관리 등의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문제가 강조되었음
- 농기계와 관수설비에 대한 논의와 농장의 기계화 작업반, 소석회생산 공정, 농약살포용 무인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가을남새 비배관리를 알심있게(『로동신문』, 2023.9.19)

- 김정은 위원장은 알곡생산을 늘리고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덕동남새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새포기들도 잘 자라고 있음
- 영양관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농작물 수확고를 높이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음
- 일군들은 영양관리의 방법론을 개선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남새농사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영양액분무와 비배관리를 기술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여 가을남새의 생육 상태를 향상시키고 있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_ 황해남도 과일군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로동신문』, 2023.9.19)

- 김일성 위원장의 30돌을 기념하기 위한 보고회가 황해남도의 여러 과일농장과 가공공

장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 위원장은 각 농장과 과일가공공장을 방문하면서 생산과 기계화, 영양관리를 개선하고 과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주었음
- 과일가공공장에서는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 생산량을 확대하였음
-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아래 당 정책을 지지하고 애국의 자욱을 더해 나가며 과일생산, 질 제고, 가공품 생산을 향상시키고자 힘을 모으고 있음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시작(『로동신문』, 2023.9.20)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부문의 중요한 과제로 농사를 잘 짓고 농업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을 강조하였음
- 농업부문의 노동자들은 밀과 보리의 가을씨뿌리기 작업에 참가하여 높은 수확을 위해 씨뿌리기 기술을 향상시키고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초기 생육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에서는 밀과 보리 농사와 관련한 기술 전습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유하여 더 효율적인 농사 생산 방법을 확립하고 있음
-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종자 확보와 밀 씨뿌리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물 대기와 소독, 영양제 처리를 고려하여 실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 근로자들은 기계화, 장비 수리 및 유기질 비료 사용과 같은 기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밀 씨뿌리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농장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밀과 보리 씨뿌리기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신심드높이 벼가을에 진입(『로동신문』, 2023.9.20)

- 사회주의 전야에서 벼가을이 시작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로 나라의 쌀 독을

책임지고 농사를 향상하기 위한 열정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각 지역의 농촌에서 농업 근로자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며 벼가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곡식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들은 기계화를 높이고 혁신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 근로자들은 논벼의 영양관리와 충실한 노력으로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들은 작업 계획을 세우고 논벼의 여문 포전별, 날자별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반을 통해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운반하고 있음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로동신문』, 2023.9.20)

- 농업부문 당조직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하고 있음
-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을 통해 농촌진지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단위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을 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장과 작업반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농업부문 당조직은 당의 영도업적을 빛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에서는 과학농사열풍을 중점으로 둔 투쟁을 전개하고 농사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 당조직들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루는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흐뭇한 과일작황이 펼쳐진 북청군에서 사과따기가 한창이다(『로동신문』, 2023.9.21)

- 북청군에서는 불리한 날씨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과 수확을 위해 농업근로자들이 알알이 잘 익은 사과를 정성들여 수확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과수업의 집약화와 과학화 수준 향상을 통해 과일 생산을 증가시키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강조함
- 농장에서는 사과 따기와 선별,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북청군 내의 다른 과수농장들도 사과 수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일을 보관고로 운반하고 있음

■ 새로운 계열의 순환비등충보이라 개발도입(『로동신문』, 2023.9.23)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와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45t/h 순환비등충보이라를 개발하였음
- 보일러는 석탄 미분 공정이 필요 없으며 안전하게 석탄을 태우고 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
- 연구자들은 미분탄보이라를 연구하여 무연탄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고 45t/h 순환비등충보이라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비료 생산 능력 향상과 환경 친화적인 석탄 연소를 가능하게 함
- 과학자들은 순환비등충보이라의 구조와 운영 방법을 과학화하여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로써 열효율과 연소효율을 향상시킴
- 45t/h 순환비등충보이라의 연구와 도입은 귀중한 기술의 발전을 나타내며 순환비등충보이라의 확대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도, 시,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에 올해 농사의 성과적결속이 달려있다(『로동신문』, 2023.9.23)

- 도, 시, 군당위원회는 농사결속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직력과 지도력을 활용하고 있음
- 혁명적인 영도 아래, 농사결속을 통해 농업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농사결속에 대한 당 중앙의 강력한 지지와 인민의 투쟁기세가 농업근로자와 도, 시, 군당위원회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음

■ 풍요한 가을은 무엇으로 담보되는가(『로동신문』, 2023.9.23)

- 농업과학기술봉사프로그램 《황금열매》 1.1은 농업 분야에서 인기를 끄며 농사 과학 기술 정보 제공 및 문답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향상시키며 농업과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농업 근로자들에게 제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근로자와 과학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 부문에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황해북도체신관리국과 농업과학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가의 농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만여대의 농기계 생산, 농장들에 집중수송(『로동신문』, 2023.9.24)

- 당은 새로운 농기계를 농촌에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군수 공업 및 기계 공업 분야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기계를 농장으로 집중 수송 중임
-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을 현대화하고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계급은 다양한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고 농장 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투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계획을 실행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농기계의 품질을 보장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군수 공업부문의 노력과 노동계급의 협력이 농기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이러한 농기계들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농사를 짓고 농업부문을 현대화하며 당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은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적극 채취, 리용해야 할 인회암(『로동신문』, 2023.9.26)

- 김정일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인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로부터 인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인회암을 인비료의 대체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할 것을 강조했음. 인회암은 인성분을 품고 있어 인비료로서 사용될 가치가 있으며 인회암을 사용하는 것은 일련의 이점을 제공함
- 인회암을 가루내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일련의 우점이 있음. 최근에는 나노화된 인회암을 사용하는 나노비료도 개발되고 있음
- 지역에서는 인회암 채취와 인비료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부문과 단위들은 인회암 관련 기술 및 실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회암 채취와 활용 프로젝트는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방대한 사업이며, 해당 부문과 단위들은 지식, 기술, 재능, 힘을 모아 성공을 이루어야 함. 연구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교훈을 찾아내며 협력해야 함

■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실현에서 진일보의 성과(『민주조선』, 2023.9.26)

- 당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공업 및 기계공업부문에서 1만여대의 농기계를 제작하고 농장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전선을 지원함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지원이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군수노동계급은 농기계 개발을 통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을 지원하며 농업 부문과 인민경제 부문을 지원하고 있음

- 제품의 질을 보장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도입하여 농기계의 효율을 높임
- 농기계들의 성능 향상과 농촌의 농업 생산에 기여하여 농업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년에 보기 드문 작황 마련(『로동신문』, 2023.9.27)

- 당중앙위원회가 농업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자원을 제공하여 농업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부문의 성장을 강조하며, 알곡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지침을 마련함
- 농장에서 근로자들은 농사를 혁신적으로 진행하고,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과 현대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유기질 비료와 영양제를 사용하여 농산물 생산량을 높이는데 노력함
- 당은 올해 알곡 고지를 달성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
- 농업근로자들은 작황 향상을 위해 농사를 진행하며, 농업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계획보다 더 많은 땅에 벼가을을 심어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

■ 축산물증산을 위해 틀어진 기본고리(『로동신문』, 2023.9.27)

- 광산닭종금장 일군과 종업원들은 당에서 제시한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강조하고 축산물 증산을 목표로 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먹이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모든 종업원은 먹이문제 해결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종업원은 먹이문제 해결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함
-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분담과 총화사업을 통해 생산과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의 주인의식을 강화함
- 종금장은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생산의 주인의식을 확립하는데 노력함

■ 조선각지 농총들에서 벼가을에 진입(『조선신보』, 2023.9.27)

- 각지의 농총들에서는 로동신문에 따르면 재령벌, 연백벌, 열두삼천리벌을 포함한 서해곡창과 동해지구의 농업근로자들이 훌륭한 작황을 이루어내어 벼가을에 속속 진입하고 있음
- 안악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작황과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며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지강농장에서는 여문을 개선과 작업조직 혁신으로 가을걷이 성과를 높이고 있음
- 김제원농장, 복지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기계화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평원군의 원화농장에서는 과학적으로 품종과 기후를 고려한 일정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집행을 통해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음
- 농총들은 계속해서 가을걷이를 제때에 완료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작업과제를 정확히 주고 철저히 집행하여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작황과 혁신적인 계획을 통해 벼가을에 속속 진입하며, 가을걷이에 대한 힘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다수확은 문제없다(『로동신문』, 2023.9.28)

- 기사에서는 당의 영도 아래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강조됨. 다양한 작물의 풍년

수확은 당의 현명한 영도와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결과로 나타남

- 당은 농장원들에게 새집을 제공하며, 농장원들은 이에 보답의 의무를 가지며 협력하여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사는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과 새로운 농업방법을 배우고 적용하여 수확고를 높이려는 작업반원들의 노력을 다룸
- 농장은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농기계의 도움으로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장원들 사이의 단합이 강화되며, 모든 농장원이 농사를 성과적으로 짓기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도우며 일하고 있음

■ 포전마다에 묻어가는 성실한 땀과 량심(『로동신문』, 2023.9.29)

- 작업반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가을밀씨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며, 이것이 새로운 농촌혁명과 당의 농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 농업근로자들은 가정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하며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헌신을 발휘하여 농사를 짓음
-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물질적인 조건보다 애국의 마음이 중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짐
- 가을밀씨뿌리기의 열정과 기세를 가지고 벼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도 집단적인 혁신을 이끌며 나라의 쌀독을 높이 채워가고 있음

■ 산열매따들이기를 군중적으로(『로동신문』, 2023.9.29)

- 창성군에서는 현재 산열매 따들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머루, 다래, 돌배, 찔광이 등 다양한 산열매를 수확하고 식료공장의 원료 창고에 보내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산열매로 식료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열매 채취 작업을 계절에 맞게 잘 수행해야 한다고 지도
- 군에서는 산과일과 산나물을 충분히 채취하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열매 따들기를 제철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창성식료공장에서는 따들인 산열매를 가공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품 질의 향상과 새 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다음해 관개공사준비를 철저히 갖추자(『로동신문』, 2023.9.30)

- 농업생산 안정을 위해 관개시설의 복구와 완비가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으며, 5년 계획 동안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음
- 물원천의 확보, 양수장건설 위치 선정, 관개기계공장의 활성화, 설비와 자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최단기간 내에 관개용설비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비 생산에서 질을 보장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 관개공사 준비는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예비와 잠재력을 활용하고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 사업에 기여해야 함

■ 《온 한해 끊임없이 베풀어진 그 은정이 풍년작황을 안아왔습니다》(『로동신문』, 2023.9.30)

- 동림농장에서는 이번 연도 농작물 생산이 이전 연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특히 벼 밭이 푸릇하게 자라고 있음
-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 당은 인안비료와 농기계 부품 등의 지원을 농장에 제공하고 있음

■ 농촌핵심력량을 키우는데 천공수, 만공수를 들여야 한다(『로동신문』, 2023.9.30)

- 초급당비서는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친부모의 정을 대신하며 제대군인들을 안착시켰음

- 초급당비서는 농장에서 제대군인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며, 청년염소분조장 등을 선발하여 성공적으로 지도함
-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농업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급당일군들을 농업대학과 농업교육기관으로 보냈고, 교육조건을 개선하였음
-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농사에 노력하고, 신통공예작물농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농촌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우리당 온실농장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로동신문』, 2023.9.30)

- 련포온실농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도로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건설되었으며, 남새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적 연구와 겹재배방법 도입을 통해 남새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의 공급사업은 맛 좋고 신선한 온실남새를 함경남도 인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걱정과 더 높은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신과 전진을 계속하며, 농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련포온실농장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품고 있음

■ 농촌지원사업은 당조직들을 평가하는 척도(『로동신문』, 2023.9.30)

- 2023년 농사결속 투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효과적으로 지어 인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당 중앙이 2023년 알곡생산 목표를 경제발전 중요 고지로 설정하였음
- 모든 당 조직은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사결속을 성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농촌지원사업은 당 조직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

■ **풍요한 작황이 펼쳐진 전야마다 알곡증산열의 드높다**(『로동신문』, 2023.10.1)

- 농장일군들은 시대별,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운 일정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노동자들은 분투하여 벼가을을 하며 땀 흘리며 농사에 전념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농사결속을 성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을걷이 실적은 부단히 상승하고 있음
- 관해농장에서는 당의 구상에 따라 올해 계획된 관개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은 농기계가동률을 제고하고 농업 조치를 혁신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음

■ **농촌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로동신문』, 2023.10.2)

- 농촌당조직은 초급일군대렬을 높여 대중을 당의 농업정책에 힘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리당위원회는 농장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청년작업반의 지도자를 교체하고, 진동무를 선임하여 더 나은 농업과학기술을 통해 농사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
- 농촌당조직은 애국작업반을 비롯하여 농장 내에서 농사를 잘 짓는 다양한 작업반들이 많아, 초급일군대렬을 통해 농장의 목표인 알곡생산을 성취하고 농촌진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 장송리당비서 김철진은 농촌당조직의 강화와 초급일군대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 농장 내에서 애국작업반 중심의 초급일군대렬을 강화함으로써 농업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농촌진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표현되어 있음

■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어간다(『로동신문』, 2023.10.3)

-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농촌에서는 풍요한 작황을 이룩한 농업근로자들이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 이를 통해 농장의 발전과 농촌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
- 과수농장에서는 기둥형배나무 등 양질의 과일나무를 심어 풍작을 이룩하며,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촌진흥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일꾼들이 학습열기를 가지며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이 일떠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농촌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효능높은 종자피복제(『로동신문』, 2023.10.3)

- 최근에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개발한 풍년모1이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었음
- 풍년모1은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모생육과 뿌리활성을 강화하여 불리한 기후에서도 튼튼한 벼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농업과학기술제품으로, 각종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효능이 뛰어남
- 실장 리정국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목표를 내세우고, 농업과학기술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긴밀한 협동을 통해 식물성장조절제를 합성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었음
- 현장기후와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시험과정을 반복하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제품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성, 제조, 처리방법을 확립하였음
- 농업과학원 일꾼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3월에는 수십t의 종자피복제를 생산하여 알곡 수확고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새로운 종자피복제는 많은 도입단위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 강동온실농장건설장에 보내줄 설비, 자재생산 결속(『로동신문』, 2023.10.4)

-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 강동온실농장건설장에 필요한 설비와 각종 자재생산을 결속하였으며,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혁명적인 경제기술적 지도로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높은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공장참모부의 일군들은 중요생산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발동하고, 단위별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히 벌이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일터에서 증산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여 뽐프생산량을 증가시켰음
- 문천발브공장에서는 주동적으로 생산조건을 마련하고, 강동온실농장건설장에 보내줄 발브생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군인건설자들과 협동하여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며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분투를 벌였음

■ 농사결속을 열흘이상 앞당길 목표를 내세웠다(『로동신문』, 2023.10.4)

- 구역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결속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손을 다지고, 정보당 논벼수확고가 향상되어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낱알털기와 벼단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작전과 지휘로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여러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은 각종 설비와 자재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있으며, 벼가을 결속과 낱알털기에 총매진하여 실적을 높이고 있음
- 구역일군들은 상호 도움과 집단주의 기풍을 높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사생산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평남의 전야마다에 차넘치는 알곡증산열의(『로동신문』, 2023.10.5)

- 평안남도의 농촌에서는 전례 없이 좋은 작황이 이뤄지면서 민중들은 풍요로운 가을에 기뻐하고 있음

- 봄철에는 린안비료와 고속모내는기계 등이 농촌에 지원되어 농사생산을 촉진하고, 중요당회의에서는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 도에서는 모든 영농공정을 열흘이상 앞당겨 농사를 진행하고, 농사차비 및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작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도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로 정하고,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보내주어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지원하고 있음

■ 강동온실농장건설장에서 들어온 혁신의 소식(『로동신문』, 2023.10.5)

- 충분기해 나선 혁명군대는 당의 높은 뜻을 사색과 실천의 지침으로 받들어 새로운 《농장도시》건설에 헌신하며 완강한 공격정신을 나타내고 있음
- 군인건설자들은 살림집 외부미장공사와 지붕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고 타일붙이기 등의 공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대규모 온실농장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지휘부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를 계기로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대상건설을 속도와 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지휘와 작전을 완강하게 전개하며 군인들에게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군인건설자들은 자재보장과 설계, 시공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단위들 간의 경험 공유와 구분대별 경쟁을 촉진하여 외부미장공사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있음
-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사상과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 현장에서 완벽한 실천을 통해 인민군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강동전역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음

■ 황해남도의 뒤떨어졌던 농장, 작업반들에서 높은 알곡수확고를 예견(『로동신문』, 2023.10.6)

- 도당위원회는 당의 농업발전관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온 나라의 농업 생산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 관개건설목표를 달성하며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
-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봄내여름내 다수확의 열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사작황이 뒤떨어졌던 지역에서도 봄내여름내 풍요한 작황을 달성하고 있음

■ 농장벌을 꿰게 하는 위력한 사상공세(『로동신문』, 2023.10.7)

- 농장포전에서 집중강연선전대들이 활발한 강연활동을 벌이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고조시키고 있음
-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강연선전대활동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사업자료를 제공하고 집중강연선전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마다 집중강연선전대를 구성하고 농장들에 나가 선전선동활동을 진행하여 가을 걷이실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음
-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지도로 함흥시, 금야군, 고원군, 함경남도 정평군, 함경남도 영광군, 함경남도 락원군 등에서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조직하여 대중을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음

■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로동신문』, 2023.10.8)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시에서는 국가알곡수매를 성공적으로 결속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음
- 김정은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며 당의 강령적과업 관철을 강조하였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고 농장포전에서의 혁신적 작황을 이룩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지원열의에 참여하며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시에서는 벼가을을 최단기간에 해제하고 수매를 앞당기며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 농업생산력이 미약하던 농장이 다수확의 성과 달성(『로동신문』, 2023.10.9)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기세가 고조되고, 서해곡창 황해남도에서 풍요한 작황 소식이 전해졌음
-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은 농업생산력이 미약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당의 지도에 따라 과학농사와 선진농업방법을 도입하여 풍년의 성과를 이룩함
- 농장원들은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1t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농장마을이 우리식 농촌문명으로 전변되었음
-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은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명하며 다수확작업반과 다수확농장원들을 배출하고, 풍작을 이룩한 기쁨을 분배식에서 나타냈음
- 분배를 받은 농업근로자들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을 체감하며 사회주의대지에 성실한 투쟁과 노력을 바쳐 풍요한 가을을 펼칠 열의에 충만해있었음

■ 풍요한 가을이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로동신문』, 2023.10.11)

-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풍요한 농사작황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으며, 여러 농장과 농업부문에서 다수확과 풍작을 이룩한 소식이 나오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농기계의 제작, 생산단위들의 혁신적인 생산투쟁, 기술지원과 농촌지원에 대한 국가 및 조직적 지원 등을 통해 다수확을 이룩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사이 사회주의경쟁 활발히 진행(『로동신문』, 2023.10.11)

- 련포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에서는 남새생산의 현대화와 집약화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능형 통합생산체제와 과학적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열의와 중평온실농장에서의 생산실적 향상에 주목하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량품종재배에 큰 힘을 쏟아내고 있음
- 지난해의 준공식에서 시작된 련포온실농장의 남새증산투쟁은 경쟁열의가 높아져 구 내에는 다양한 표어와 경쟁도표가 전개되고 있으며, 후방사업과 함께 대온실농장 전체가 남새증산에 참여하고 있음
- 두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집단주의의 원리를 따르며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음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적기에 결속(『로동신문』, 2023.10.16)

-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당정책에 따라, 황해남도는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 지력개선 및 씨뿌리기적기보장을 위한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장들에 씨뿌리기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기술전습과 영농조직사업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이 기술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일기조건과 영농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적기에 종자확보와 비료보장을 진행하고 있음
- 농업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1,000여 대의 파종기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지역마다 소석회와 발효퇴비를 활용하여 밀과 보리의 씨뿌리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중요한 예비인 두벌농사에 주목하여 땅 다루기, 종자처리 등의 선행작업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포전별 특성에 맞게 줄씨뿌리기와 점씨뿌리기 방법을 택하며 일정계획수행률을 향상시키고 있음
- 황해남도의 농장들은 씨뿌리기의 질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비하여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파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초기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 기술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며 힘차게 전진(『로동신문』, 2023.10.18)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당이 제시한 질소비료고지점령을 향해 혁신적인 투쟁을 펼치고, 올해의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에서 기술 및 설비 관리를 강화하여 고수익의 비료 생산을 추구하고 있음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역시 당의 부름에 부응하여 연간 비료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지도밑에 일군들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생산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음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암모니아직장과 1, 2압축기직장에서는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조절하면서 비료생산을 확대하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합성직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여 암모니아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 당이 제시한 비료생산목표에 도전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계속해서 증산투쟁을 고조시키며, 시간이 흐를수록 증산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음

■ 농사결속을 위한 사업에서 중시한 두 고리(『로동신문』, 2023.10.21)

- 황해북도 평산군에서는 올해 농사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력과 실천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작전력 강화를 위해 군당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군농업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이 작전에 적극 참여하며 책임의식을 키우도록 지원

하고 있음

- 실천력 향상을 위해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의 현장침투와 정형에 대한 료해장악을 강조하며, 농사결속을 위한 작전에서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일군들은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형식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농사결속 작전의 성과가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책임의식을 몸소 느끼게 되었음
-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농사결속을 위한 작전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군농업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

■ 더 많은 가을남새를 생산하기 위해(『로동신문』, 2023.10.24)

- 미림남새농장에서는 가을남새생산을 위해 근기있게 포전관수를 실시하고, 양수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관개건설로 농장 기세가 상승하고 있음
- 삼화남새농장에서는 영양관리에 힘쓰고, 농장원들에게 영양액 사용 방법을 지도하여 푸르게 자라는 남새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남새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영양액과 성장촉진제를 제공하고, 잎덧비료주기를 늘려 안전한 남새생육을 보장하고 있음
- 농장원들의 노력에 의해 비배기술이 향상되어 포전들에서는 좋은 남새작황이 펼쳐지고 있음
-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성실한 헌신으로 남새 증산성이 향상되어 농장에서는 성공적인 생산을 이룩하고 있음

■ 우리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동신문』, 2023.10.25)

- 황해남도 농장들은 농사일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안고 알곡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농촌의 흥성을 이끌어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혁신적인 일군들이 앞장서서 농업

기술의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당 평균 수확고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분배를 받아안으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황해남도가 언제나 농업생산에서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을 당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

■ 우리당 농업발전관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로동신문』, 2023.10.26)

- 당중앙전원회의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 빛나게 결속하는 투쟁에서 전국의 농장들이 다수확을 지어 국가적으로 농업부문이 들끓고 있음
- 각급 당조직과 농업부문 일군들은 농업발전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농장, 모든 경지면적에서 다같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도 소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양한 요인으로 농사를 시원히 짓지 못했던 농장들이 용을 쓰며 일어나 놀라운 알곡 생산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음
- 랭해와 해일피해를 받는 함경북도 김책시 룡도농장 등의 농장에서도 분발하여 혁신을 이루어내어 알곡생산에서 놀라운 성과를 창조

■ 올해 알곡생산계획 초과완수, 결산분배 진행(『로동신문』, 2023.10.28)

-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에서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초과하며 피해를 입은 농장들에서 천알질량을 늘이기 위한 농작물비배관리에 힘쓰면서 풍요한 가을과 안정된 생산을 이룩하였음
- 함경남도 영광군 상중농장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151%의 알곡 생산계획을 넘어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함흥시 부민농장의 농장원들도 풍기를 펼쳐주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안겨받으며 알곡고지점령에 궤기해나섰음
- 함경남도 락원군 사동농장에서는 염기피해를 극복하고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풍작을 이룩하였으며, 평안남도 평성시의 농장들도 높은 알곡생산실적과 결산분배를 달성하

였음

- 백송농장, 자산농장 등에서는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경험교환운동을 벌이고, 시안의 농장에서는 과학기술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농사일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고 있음

■ 관개체계의 덕으로 높은 알곡소출 기록(『로동신문』, 2023.10.28)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당의 뜻을 따라 지켜내기 위해 관개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양수장을 건설하는 등 노력하여 지난 시기에 뒤떨어졌던 농장들이 풍요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음
- 수천정보의 물부족지에서도 관개공사를 통해 물걱정 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 도적인 올곡식농사를 수행하여 국가알곡수매를 결속하였으며, 평안북도 염주군 등에서는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넘어선 성과를 이룩하였음
- 평안북도 염주군을 포함하여 현재 도내 10여개의 시와 군, 200여개의 농장에서 국가알곡수매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음
- 도안의 농장들은 앞으로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다음해 관개공사를 준비하고, 농업의 생명수인 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알곡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음

■ 집짐승의 겨울나이준비를 착실히(『로동신문』, 2023.10.28)

- 김정은위원장은 축산부문에서 집짐승종자와 먹이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수의방역대책을 세워 축산물 증산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김정은동지의 지시에 따라 염소의 겨울나이준비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 주변의 산에서 풀과 강냉이, 콩짚을 마련하여 겨울철 먹이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의 일군들은 염소의 겨울나이준비를 위해 계획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먹이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음

- 겨울철 먹이확보를 위해 농장에서는 오래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말린 풀과 풀절임을 많이 장만하고, 주변의 산지에서 풀과 강냉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축산물 생산에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과거 겨울철 염소사양 관리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분석하고 랭정하여 신심을 다해 일하고 있음

■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로동신문』, 2023.10.29)

- 흑교농장에서는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사용과 가을밀씨뿌리기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군들은 영양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음
- 영양관리의 소홀은 뿌리활성 저하와 빈포기, 충하 발생으로 이어져 정보당수확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장에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석교농장에서는 밀씨뿌리기 후 발생한 헛자라와 잎의 과잉 성장을 주시하고, 겨울나이에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온이 상승하기 전에 잎자르기를 시급히 진행하고 있음
- 영양관리와 잎자르기 작업에 농장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밀농사에서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비료주기 방법 개선과 영양액 보장 대책 등을 실시하며, 작업반 간의 협동과 지원 조치를 강화하여 밀농사에서의 다수확을 추구하고 있음

■ 일은 조직하기에 달려있다(『로동신문』, 2023.10.29)

- 황해남도 신천군의 일군들은 가을밀과 보리의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작전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
- 군은 밀, 보리농사가 중요하다는 당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농장원들에게 가을철 비배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일군들은 밀, 보리농사에서 성공을 위해 새로운 결심을 가져오고, 중요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가을밀, 보리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농장들은 밀, 보리농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일군들에게 가을밀, 보리비배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밀, 보리비배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대중의 열의를 받아들여 농장들에서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영양액보장대책을 실시하여 다수확을 추구하고 있음

■ 해마다 풍년로적거리 높이 쌀을 양양된 열의(『로동신문』, 2023.10.29)

- 남사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헌신적 노력과 성실한 땀으로 결산분배를 진행하며 나라 농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
-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능적인 모기르기방법을 도입하고, 봄갈이를 앞당겨 기계 모내기면적을 늘려 최적기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농업공정을 수행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작물비배관리에 뼈심을 들이며, 과학적인 물관리와 비료시비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고 있음

■ 평양시안의 녀맹원들 강동온실농장건설 힘있게 지원(『로동신문』, 2023.10.30)

-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녀맹예술선동대활동과 녀맹해설대활동을 통해 녀맹원들은 군인건설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현장에서의 리발 및 목달개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중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녀맹원들은 온실트라스와 유리설치공사, 지대정리 등 다양한 공사에 참여하며 군인건설자들에게 현장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수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대정리과제를 스스로 수행하며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녀맹원들은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소심하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양시 녀맹위원회는 강동온실농장 건설을 위한 녀맹원들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서 알곡생산계획을 초과완수, 결산분배 진행(『로동신문』, 2023.10.31)

- 열두삼천농장에서는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산분배 모임을 지난 29일에 진행하였음
- 농장에서는 당정책을 받들어 20여km 구간에 달하는 방대한 관개공사를 진행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였음
- 농장에서는 재해성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영농공정을 앞당기고, 부속품보장을 통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집단적인 혁신으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렸음

■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견인불발의 투쟁이 안아온 자랑스런 결실(『로동신문』, 2023.10.31)

- 도안의 농촌들은 당의 지도와 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올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의 보장과 관개건설의 강력한 추진을 비롯한 중대조치를 취하고, 지력개선, 과학적인 재배방법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농업생산 변화를 이루고 있음
- 도안에서는 농촌경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함께 땀흘려 가꾼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과학농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왔음
- 도안에서는 농장초급일군들부터 채령농장, 평안남도 성천군 재골농장 등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농사작업에 참여하고, 도에서는 알뜰히 농사일을 진행하여 례년에 드문 알곡생산실적을 달성하였음
- 도안에서는 당중앙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뜻대로 농사일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각지 농장들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조선신보』, 2023.11.1)

- 조선에서는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설정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음
- 봄에 실시된 관개시설정비보강사업으로 6만여 정보에 달하는 밭들의 관개체계가 개선되었고, 황해남도의 여러 농장들이 새 관개체계의 혜택을 누렸음
-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은 관개체계의 정비와 선진영농방법 도입으로 올해 국가 알곡생산을 130% 이상 증가시켰으며, 다른 농장들도 새로운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풍작이 들었음
- 황해남도 은천군 마두농장과 제도농장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개체계를 향상시키고 과학기술적인 농사일을 통해 흐뭇한 작황을 이끌어내었음
- 재령군 읍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정보당 평균 알곡 생산이 1.5배 증가하였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예견성있게(『로동신문』, 2023.11.3)

- 함경북도에서는 다음 해 농사 차비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 도에서는 가을갈이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을 농장에 파견하여 땅이 얼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사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준비를 위해, 도에서는 자급비료 생산을 강화하고, 알곡 생산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사 차비에 대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마다 논밭갈이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트랙토르의 가동률을 높여 지역별로

가을갈이를 정상화하고 있음

-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는 다기능화된 농기계를 도입하고, 농기계 생산단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한해 농사를 뒤흔어 총화한 기쁨 전야에 넘친다(『로동신문』, 2023.11.3)

-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이 실행되어 서해곡창지대의 농촌들에서 올해 농사가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곡생산목표를 세우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도, 시, 군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농사생산력이 미약한 단위들을 추켜세우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작전과 지휘를 진행하고 있음
- 공화국의 농업정책을 실천하는 동안,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의 농장들은 최근 몇 년간에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황해남도에서는 농업생산에서 선전을 하여 당의 믿음에 부응하고 있음
- 몇몇 농장에서는 봄내여름내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풍요한 결실을 얻었으며, 당산농장, 석하농장 등에서는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각종 유기질비료를 활용하여 농사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해 농사를 뒤흔어 총화한 기쁨 전야에 넘친다(『로동신문』, 2023.11.3)

-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실행으로 서해곡창지대의 농촌들이 올해 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산분배가 진행되고 있음
- 공화국은 알곡생산목표를 세우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의 농장들에서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기록함
- 도, 시, 군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

고, 특히 농업지도기관에서는 미약한 농업생산력을 가진 단위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음

- 지역의 농사에서 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백배로 분발하는 황해남도 벽성군 남룡농장, 황해남도 연안군 호남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로운 농기계와 선진영농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우량품종을 받아들여(『로동신문』, 2023.11.4)

- 평안북도 삭주군 읍남새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토끼기르기를 잘하기 위해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우량품종을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어미토끼를 가지고 새끼토끼 생산을 늘이는 등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
- 작업반은 지방에서 흔한 원료를 활용하여 고려수의약을 생산하여 토끼기르기를 안전하게 내밀 수 있는 수의방역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
-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토끼의 겨울나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으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해 토끼기르기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로동신문』, 2023.11.4)

- 황해남도 신천군 청산농장 축산작업반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토끼기르기를 근기있게 밀고나가고 있음
- 작업반은 여름철부터 겨울철까지 풀과 강냉이대, 콩깍지, 말린 풀을 이용하여 토끼마리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박기화 작업반장과 초급일군들은 겨울철에 새끼토끼 생산이 진행되는데 맞게 관리공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끼토끼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여 높은 사료률을 유지하고 있음
- 계절적 조건에 맞게 행해지는 새끼토끼 사양관리는 토끼기르기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

성과 생활력을 실천을 통해 체감하게 하고 있음

- 이곳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실천을 통해 풀과 고기를 바꾸며 토끼기르기에 힘을 실어가고 있음

■ 알곡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로동신문』, 2023.11.4)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벌여, 농촌들에서 훌륭한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투쟁목표의 성과적 점령을 위해 전체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를 강하게 내미고 2024년에 알곡생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배로 분발해야 하며, 과학농사와 기술개선에 힘을 쏟아 지속적인 풍요한 작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농촌지도기관 일군들은 올해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해 농사작전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영농물자와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농업부문의 종자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함
- 농촌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분조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실속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지원해야 함

■ 작전토의 심화, 예견성있는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11.4)

- 농업부문에서는 올해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다음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도기관들은 농사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수행하여 농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농촌경리위원회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물절약형농법과 지력개선을 통해 알곡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시, 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며 지력

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토양분석, 유기질복합비료 생산 등에 힘을 쏟고 있음

- 농촌정리위원회들은 물절약형농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농경지의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며, 농산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에서 련일 혁신 창조(『로동신문』, 2023.11.5)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다음해 농사준비와 알곡생산을 위해 현장에서의 투쟁과 혁신으로 농업부문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음
-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화된 조작과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비료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
- 비료생산자들은 예비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새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투쟁은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곡식은 인간의 노력의 열매(『조선신보』, 2023.11.6)

-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의 농업혁신은 농장에서 가을을 미소 짓게 만들었는데, 이전에는 뒷좌석에 있던 농장이 정보당 1t 이상의 알곡을 증산하며 풍성한 결산분배를 경험했음
-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잘되었고, 봄에는 관개체계의 개선과 농기계 도입으로 농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적대세력과 기후 영향에도 농업혁신의 성과를 이뤘음
- 당은 농장원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었다고 농장원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이제는 농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은 3년 내에 안전하게 농업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언론은 땅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곡식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며, 올해의 풍요로운

가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음

- 농장원들은 농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결과적으로 농사 혁신에 참여하며 활기찬 농악무를 선보였는데, 이로써 당의 지원과 농장원들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성공적인 결산분배가 이뤄졌음

■ 매일 많은 면적의 논밭갈이를 진행(『로동신문』, 2023.11.7)

- 도내 농업지도기관은 농사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논밭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선식정치사업을 전개하여 생산자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고 있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깊이깊이를 보장하고 논밭갈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전과 지휘를 패기 있게 수행하고 농장 내 종합토양관리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도내 여러 지역에서는 예비부속품확보와 경쟁열의 고조를 통해 트랙토르의 가동률을 높이고 논밭갈이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논밭갈이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경험 일반화와 농기계작업소의 부속품생산 확대를 통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논갈이속도를 높일 방도를 찾아(『로동신문』, 2023.11.8)

- 만경대구역 대평농장에서는 다음 해의 농사차비로 가을갈이를 중시하며 같이면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논갈이속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사업의욕을 가지고 가을갈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트랙토르운전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군들은 다음 해의 농사차비에 혁신적인 일본새를 더해 높은 알곡증산성과를 목표로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고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가을갈이목표를 점령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초급일군들의 분발 노력에 힘입어 제1작업반에서는 트랙토르의 만가동보장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다른 작업반들도 같이수단들을 동원하여 계획한 논갈이 면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알곡생산계획 초과완수, 결산분배 련이어 진행(『로동신문』, 2023.11.8)

- 운산군에서는 농업 생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농사에 투입하고 있음
- 군농업경영위원회는 우량종자확보, 재배기술확립, 관개체계 강화 등의 사업으로 농장들이 고르게 높은 알곡소출을 내도록 하고, 선진적인 영농방법 도입과 재해 대응을 위한 강하천정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난 시기와는 달리 군은 토지개량사업을 전개하고, 니탄원천지도를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농장에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알곡수확을 도모하고 있음
- 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품종배치를 조절하고 합리적인 관수방법 도입, 재해 대응을 위한 강하천정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높은 소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인 작황을 이루어내고 있음
- 결산분배에서는 군 전체에서 농사 생산계획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좌리농장과 풍양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한해 농사 결산분배가 이루어져 군 전체에서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음

■ 천삼리에 펼쳐진 흐뭇한 감풍경(『조선신보』, 2023.11.8)

- 강원도 안변군 천삼리에서 감풍년이 도래하며, 레년보다 훨씬 많은 감이 수확되었고, 어떤 나무들에서는 한 그루당 수백kg에 이르는 감을 따냈음
- 주민들은 감나무를 많이 심어 생황이 풍족해지고, 마을의 풍경이 아름답게 변하며, 사계절 내내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음

- 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작업반에서는 올해 감 생산 계획을 넘어서 수행되어 농장의 살림살이에 큰 기여를 했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산골농장에도 알곡증산의 기쁨 넘친다(『로동신문』, 2023.11.8)

- 고보농장은 정보당 5t 이상의 높은 수확을 달성하며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농장으로, 과학적인 농사작전과 협동 노력이 이룬 결과를 이루어냈음
- 농장일군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고, 토지개량사업, 비료 생산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정적인 소출을 추구하고 있음
- 농산제9작업반은 농사에서 뒤떨어졌던 단위로 앞장서 가을걷이와 탈곡을 결속하며 성과를 거두고, 결산분배장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고마움이 표현되었음
- 노래 풍년가가 울리며 농업근로자들은 김정은위원장에게 기쁨을 드리려는 열망을 안고 뛰고 놀며, 사회주의전야를 밝게 할 결의를 다졌음

■ 유기질복합비료생산 시작(『로동신문』, 2023.11.9)

- 전국적으로 농업지도기관들이 구체적인 작전과 협동 노력으로 유기질복합비료의 대규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을 혁신하고 있음
- 각 지방에서는 생산 현장에 나가서 원료확보정형을 실시하고, 지역에 흔한 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생산공장들은 기술 개발과 종업원 교육을 통해 생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여 유기질복합비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각 지방에서는 날씨 등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해 유기질복합비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

■ 온실남새재배를 기술적요구대로(『로동신문』, 2023.11.10)

- 공화국에서는 온실남새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확보하고, 남새의 영양가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남새온실에서는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원리를 습득하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며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음
- 호동 내의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상태를 개선하고 병충해 대책을 세우며, 다양한 남새를 계단식으로 재배하고 있음
-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호동관리공들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남새증산투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면서 황해북도 연탄군의 온실 남새생산은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음

■ 과일동네의 가을(『로동신문』, 2023.11.11)

- 어룡농장은 풍부한 과일나무로 유명한 농장으로, 농촌살림집 주변에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고 있음
- 매년 겨울에도 농장원들은 땀을 흘려 과일나무를 가꾸고, 풍요로운 작황을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라와 농촌에 보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음
- 농장에선 과일나무의 보존을 위해 찬바람에 얼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며, 거름무지들은 마을 각 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어룡농장의 주민들은 행복의 열매를 자신의 노력과 마을, 일터에 대한 사랑을 통해 얻는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고향의 래일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국가에 대한 보답의지로 이어지고 있음

■ 로동당의 은덕으로 원화벌에 차넘치는 풍년의 기쁨(『로동신문』, 2023.11.16)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농장에서는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따라 알곡생산 목표를 당의 뜻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가며, 교양사업과 조직정치사업을 통해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알곡증산에 힘쓰도록 지원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업발전을 위해 유기질거름 사용을 확대하고, 원그루큰모와 영양랭상모를 키우며,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선진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5대요소를 확고히 틀어쥐었음
- 농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비한 노력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지를 새롭게 개간하고 관개수와 양수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음

■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자(『로동신문』, 2023.11.18)

- 련포지구의 현대적인 농장은 당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는 중요한 실체로, 세계 선도적인 수준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의 크기, 재배방식, 기술적 토대, 생산량에서 세계를 앞서고 있음
-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온실남새생산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
- 일군들은 생산물이 나오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온실남새생산을 직접 담당한 근로자들을 선진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음
-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남새품종 혁신, 영양학적, 예방적 효과가 뚜렷한 남새종자 육종, 온실남새생산의 원가 절감 문제 등 다양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리당위원회의 역할과 농업생산의 장성(『로동신문』, 2023.11.19)

- 리당위원회들은 기층당조직을 강화하고 농촌운영을 위한 책임을 짊어지며, 농업근로자를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농촌에서는 과학농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농기술의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활용하여 당의 정책을 실천하며, 농업생산의 장성과 농촌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남새온실(『로동신문』, 2023.11.23)

- 송학농장은 표준화된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김정은위원장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에 따라 더 나은 생산성과 생산품질을 추구하고 있음
- 총비서동지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방문하여 기능성 3겹 온실박막 생산실태를 확인하고, 온 나라의 남새온실건설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수십만의 자급비료를 생산할 목표밑에(『로동신문』, 2023.11.23)

- 남포시의 시당위원회는 지능 향상 및 자급비료 생산을 강조하며 농사 생산을 개선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음
- 남포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높은 알곡 생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남포시는 이들의 힘을 기반으로 원료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여러 구역에서는 자급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지역의 거름원천을 활용하여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업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맛있는 과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리자(『로동신문』, 2023.11.24)

-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경쟁을

통해 혁신과 창조가 이뤄진다고 말함

- 경쟁은 모든 생산단위에 필요하며, 특히 맛있는 과일의 품질 향상과 근로자들의 창조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 과수업의 과학화와 집약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기술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과와 배 등의 맛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통해 집단주의의 힘을 발휘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쟁의 실무적인 중요성을 강조함

■ 원천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거름생산에 박차를(『로동신문』, 2023.11.27)

- 다양한 지역에서는 농사차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유기질비료와 거름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발효퇴비를 적극 생산하며 대중을 동원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지역마다 유기질비료와 거름의 생산 목표를 세우고, 발효퇴비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농사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
- 시기성을 고려한 발효퇴비 생산을 위해 일군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각종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에서는 농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발효퇴비 생산이 진행되고 있음

■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23.11.29)

-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중 열의 고조를 위해 근로자들과 당 조직에서 직관선전, 방송선전 등 다양한 형식의 교양사업을 심화하고 있음
- 송곡과수농장, 북창과수농장, 신대과수농장 등에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참관

■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에서 련일 혁신(『로동신문』, 2023.11.29)

- 남흥과 흥남의 로동계급은 올해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을 초과하여 수백t의 비료를 추가로 생산하며 농업근로자들의 알곡증산투쟁을 지지하고 있음
- 련합기업소당조직은 설비 및 기술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가동률을 높이고, 직장 및 작업반에서는 생산 정상화를 위해 순회점검과 엽간점검을 강화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추가 비료 생산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당, 행정일군들은 생산현장에서 열의를 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유기농법도입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자(『로동신문』, 2023.11.29)

- 현재 농업부문에서는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기농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알곡 산출량을 높이는 당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농법 도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유기농법 도입에서 실패한 단위들은 당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면서도 실패를 극복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모범을 보이는 단위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실패 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함
- 농업부문에서는 유기농법 도입에 대한 당의 지시를 일관되게 따르고,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며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나라의 알곡생산과 농업생태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다음해 감자농사준비를 강력히 추진(『로동신문』, 2023.11.30)

- 도에서는 올해 감자농사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고, 다음해 감자농사준비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이 사업은 과거에는 특정 농장에만 집중되던 방법을 벗어나, 농업생산력이 미약한 단위들을 세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감자종자 확보와 지력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음

- 도안의 감자 산지에서는 자급비료 생산을 통해 올해 농사에서 뒤떨어진 농장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힘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도당위원회와 도급기관이 뒤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사차비를 도와주고 있음
- 도에서는 농기계 수리 정비와 토지 개량 등의 영농준비를 앞당기는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농준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앞당겨지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에 축산농장 새로 건설(『민주조선』, 2023.11.30)

- 평양시 강동군에 새로이 선보인 송금축산농장은 품치수려한 산기슭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교육시설, 보건시설, 종합편의봉사망, 문화주택 등이 조성되어 근대적이고 다양성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새 축산농장은 염소, 젖소우리, 젖제품생산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 및 생활건물이 솟아나면서 종합적인 축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의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질 높은 젖가공품을 제공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4. 보건과 환경오염

■ 부각되는 수지오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로동신문』, 2022.12.24)

- 수지오물에 의한 바다오염 문제에 대한 제1차 정부 간 교섭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2050년까지 바다오염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음
- 조약은 수지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수지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목표임
- 수지오물은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과 바다에서 축적되고 있는 양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인 조사에 따르면 합성수지오물과 폐기물은 2040년에 현재의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 파괴와 동물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세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합성수지 사용을 줄여야 하며, 조약이 수지오물에 의한 환경파괴 방지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법과 우리 생활_문화적인 생활을 담보해주는 환경보호법(『로동신문』, 2023.1.12)

- 환경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성되며, 보호 관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등을 엄격하게 규제 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민들은 환경보호법의 요구를 자각하고 지켜야 하며,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무병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

■ 늘어나는 합성수지소비량, 우려되는 오염문제(『로동신문』, 2023.3.13)

-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합성수지로 된 각종 상품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합성수지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폐기되는 수지오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며, 그렇지 않아도 수지오물로 인한 환경파괴현상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합성수지가 생물체의 몸 안에 들어가면 먹이사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합성수지가 오늘날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촉진하고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원인임

■ 우려를 자아내며 급속히 전파되는 조류독감(『로동신문』, 2023.5.28)

- 조류독감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있음
- 조류독감 발생으로 수많은 칠면조가 처리되었고,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가 발생함
- 조류독감은 야생조류와 가금류를 통해 전파되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

■ 폭염, 고온현상과 건강보호(『로동신문』, 2023.7.7)

- 폭염은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재해성 기상 현상을 의미하며,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식을 알고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김정은 동지의 지시가 강조됨
- 폭염 및 고온환경으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 장애로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 발생하며, 뇌까지 침투된 센 온열 자극은 뇌혈관 충혈을 일으켜 열사병을 유발함
-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며, 밖으로 나갈 때 양산이나 모자 착용 및 옷차림에 신경써야 함

-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수분섭취가 필요하며,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장혈관 질환 등 환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함
-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며, 음식물 보관에도 신경써야 함. 폭염과 고온환경에서 병원성 세균 번식 가능성 역시 유의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건강관리 상식을 잘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의료봉사의 지능화, 정보화(『로동신문』, 2023.7.16)

- 김정은 위원장은 의료봉사의 질 개선을 강조하며, 의료봉사 활동을 지능화하고 정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언급
- 의료봉사의 지능화와 정보화는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설비와 병원정보체계를 현대화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병원정보화는 핵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병원경영정보체계, 임상정보체계, 건물환경정보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 운영 및 환자관리를 정보화 및 지능화함
- 지능의료봉사체계의 도입으로 진단, 처방, 치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환자접수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을 지능화하여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임
- 해당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의료일군들과 협력하여 지능의료봉사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며, 정보기술의 도입과 현대화에 힘써 나가고 있음

■ 효능높은 미생물살충제를 연구도입(『로동신문』, 2023.8.3)

- 미생물 살충제 비티살충액은 환경 오염이 없으며 제조 및 사용이 편리하며, 나비목해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음
- 이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에서는 비티살충액을 개발하는데 성공함
- 김정은 위원장은 효능높은 살충제를 연구개발하여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5. 산림

■ 원림록화의 발전추세(『로동신문』, 2022.12.4)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림록화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원림록화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원림록화의 세계적인 추세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태환경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녹지구조를 갖춘 자연수림과 같은 원림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종합성과 조형예술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음
- 원림록화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요구를 지키고 생태원림록화를 발전시키며 조형예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나무들의 배합과 식물 종류에 따라 신중한 선택과 배치가 필요함
- 원림록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림설계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다양한 나무의 심기와 배치, 키의 차이를 고려하여 풍치형성과 관상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 산림복구사업을 적극 내밀어(『로동신문』, 2022.12.8)

- 만경대구역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종자의 싹트는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왔고, 나무모의 영양상태도 좋아졌음
- 활착률 보장에 주목한 곡산군에서는 작업과정에서 세심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책임지고 나무를 심어 살려내도록 담당제를 엄격히 시행하였음
- 운산군에서는 산불막이사업을 전개하면서 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강화하여 산불감시조직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감독원과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음

■ 산림조성사업에서 실적을 올린 비결_문덕군일군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22.12.20)

- 문덕군은 산림조성에 밀려있던 상황에서 150여 정보의 산열매나무림을 조성하고, 군 90개 단위에서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수여받았음
- 산림복구를 위한 온실건설과 과학적인 전망계획, 자재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문덕군에서는 산림조성 열정을 보여주고 있음

■ 더 많은 나무모를(『로동신문』, 2022.12.25)

- 정평군 산림경영소 일군들은 다음해 산림복구사업에 필요한 나무모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겨울철 조건에 맞는 온실에서 나무모 비배관리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음
- 모든 종업원들은 나무모 비배관리, 거름생산, 실어내기 등을 세심하게 수행하며, 추운 날씨에도 나무모가 얼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산림복구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해 군 안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 위해 나무모 생산을 증대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땃나무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로동신문』, 2023.1.23)

- 근로자들은 땃나무림조성사업을 통해 땃감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땃나무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 땃나무림조성사업의 성패는 계획과 관리에 달려 있으며, 면밀한 계획 수립과 병든 나무 제거, 신속한 심기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조성과 관리를 진행해야 함
- 땃나무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을 적극적으로 앞세워야 하며, 땃나무림조성사업을 통해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을 만들어야 함
- 근로자들은 땃나무림조성사업이 단순히 땃감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산림

보호와 푸른 숲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함

■ 농촌마을들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자(『로동신문』, 2023.1.29)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농촌마을의 집집마다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농촌마을의 풍경을 돋우고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농촌마을들에서는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마을의 풍치를 돋우고 생활에 기여하며, 실제로 살구동네, 감나무동네 등에서는 많은 나무를 심어 빨감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
- 녹지조성사업에는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적합한 장소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상적가치가 큰 나무를 생산보장하고 관상용나무 양묘장을 잘 꾸려야 함

■ 적지적수의 원칙을 지키도록(『로동신문』, 2023.1.31)

- 숙천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산림조성작전을 통해 산림개조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을 준수하여 나무모생산을 늘리고 열매생산성이 높은 수종을 심는 계획을 진행하였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계획부터 실천까지 과학성과 정확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산림조성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

■ 주인답게 참가해야 할 원림록화사업(『로동신문』, 2023.2.4)

- 보통강수산물상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림록화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공원에 특색있는 원림경관을 조성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림록화사업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아름

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일군들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원의 원림설계를 완성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을 심어 공원에 특색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였음

■ 혼성림조성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로동신문』, 2023.2.12)

- 혼성림은 여러 수종의 나무로 이루어진 산림을 의미하며, 산림자원의 지속적 발전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혼성림은 단순림과 비교하여 영양물질 이용, 토양보호, 다양성 유지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다양성과 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장함
- 혼성림을 조성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와 공생관계, 기상조건,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망성 있게 계획하고 알맞은 주수종을 선택해야 함

■ 지난해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 진행(『로동신문』, 2023.2.15)

- 지난해의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분석되었음
- 회의에서는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에서의 산림복구 및 국토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소개되었음
- 회의에서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결함과 교훈들이 분석되었음

■ 봄철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로동신문』, 2023.2.26)

- 봄철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모 준비와 운반, 심기에 주의해야 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을 준수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야 함
- 과학기술적 요구를 충족시켜 구멍이 크기와 뿌리 처리를 정확히 하고 봄철에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물을 충분히 주거나 비닐박막으로 보호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농촌마을의 녹화사업을 잘하자(『로동신문』, 2023.3.1)

- 농촌마을의 문화적 변화와 녹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전해졌음
- 농촌마을의 개발과 함께 녹화사업을 전개하여 농촌문명과 환경을 개선해야 함
- 살림집건설과 과일나무 심기를 통해 농촌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리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함
- 농촌마을의 녹화사업은 농업근로자들의 역할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적이고 이상적인 농촌문화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농촌마을들에 수많은 느티나무를 심었다(『로동신문』, 2023.3.4)

- 평양시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농촌살림집 건설과 원림녹화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문화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느티나무를 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적인 사업으로서 농촌살림집 건설과 원림녹화사업은 농촌마을의 문명적인 변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 농촌건설 평양시지휘부와 구역, 군에서는 느티나무 심기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무원천확보와 기술지도서 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많은 나무모를 확보_황해북도에 서”(『로동신문』, 2023.3.9)

- 황해북도는 봄철에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조성과 나무모 생산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하기 위해서는 나무모 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음

- 도에서는 산림부문 일군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성 있는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나무모 생산을 늘리는 사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전국산림부문 경험교환회 진행(『로동신문』, 2023.3.11)

- 전국산림부문 경험교환회가 산림조성의 과학화를 주제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
- 경험교환회에서는 산림복구사업, 산림개조, 혼성림조성, 임농복합경영, 산림보호관리 등의 주제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었음

■ 전 군중적으로 전개해야 할 산림보호사업(『로동신문』, 2023.3.12)

-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산림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봄철은 산림보호의 핵심 시기로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특히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등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철저히 막는 데 주목해야 하며, 일군들은 산림보호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 산림감독원들은 예찰 강화와 이동차단띠 설치 등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함

■ 오늘은 식수절이다, 나무와 함께 당정책을 심고 애국심을 심고 량심을 심자(『로동신문』, 2023.3.14)

- 식수절을 맞이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무심기에 참여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선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애국주의는 조국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무를 심어 키우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를 자신의 손으로 심고 키울 때에 생겨남
- 식수사업은 나라의 자연자원을 확대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 높은 리상과 완강한 실천력이 황금산, 보물산을 펼쳐놓는다_지난해의 전국적인 산림복구사업정형을 놓고(『로동신문』, 2023.3.18)

- 식수절을 맞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를 심고 국토의 면모를 개선하는 산림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음
- 산림복구사업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가의 애국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요소와 미숙한 사업태도로 인해 산림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해당 지역의 일군들은 책임을 느끼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언급되었음

■ 봄철나무심기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로동신문』, 2023.4.4)

- 민족적인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각지 산림부문 일군들은 지역별,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 평양시, 은정구역, 사동구역, 황해남도, 장연군, 웅진군, 벽성군, 삼천군, 송화군, 태탄군, 개성시, 남포시 등에서는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무를 심어 활착률을 높였음
- 봄철나무심기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으며, 당의 지침을 받들고 국토 각지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 일관하게 내밀어야 할 원림록화사업(『로동신문』, 2023.4.5)

- 원림록화사업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대동강주사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림록화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일군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양묘장과 화초사업소, 산림경영소를 방문하고 종업원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기술을 배우며 재배율을 높이고 있음
- 원림록화사업은 일관된 계획과 실행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 수백만그루의 산열매나무모 확보(『로동신문』, 2023.4.6)

- 각지의 산림부문에서는 산림분포정형과 특성에 맞게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생산을 과학화하고 집약화시키는 작전과 임무분담을 구체화하였음
- 갑산군은 경공업 제품원료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충분한 나무종자를 확보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산열매나무모를 성공적으로 생산하였음
- 백암군 산림경영소의 근로자들은 선진적인 나무모재배방법과 병해충 대책을 도입하여 다양한 종류의 산열매나무모를 효과적으로 재배하였음
- 김정숙군에서는 종자확보와 유기질비료 사용을 강조하며 양묘공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예상보다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대흥단군은 자체 생산한 생물농약을 활용하여 산열매나무모의 활착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로동신문』, 2023.4.9)

-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사업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산림복구사업은 과학적인 전망성과 계획적인 조직진행이 필요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전망성 있는 산림복구사업을 위해 산사태 예방, 혼성림 조성, 사방야계공사의 철저한 계획과 시행이 중요하며, 일군들의 역할과 사상관점이 성과에 영향을 미침
- 산림복구사업은 숫자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방법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땀감문제의 해결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땀나무림 조성, 주민용 연료 보장 등이 중요함

■ 4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로동신문』, 2023.4.26)

- 임업부문에서는 동발나무 생산을 앞당기고, 석탄공업을 위한 생산조직을 치밀하게 구성하였음
-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4월 동발나무 생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 자강도림업관리국과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여러 임산과 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4월 동발나무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평안북도림업관리국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동발나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혁신을 이루었음

■ 금잎수삼나무모들이 새 잎새를 펼치었다(『로동신문』, 2023.5.11)

- 산림연구원의 경제림연구소에서 금잎수삼나무모의 성장과 생존력을 연구하고 있음
- 금잎수삼나무는 봄, 여름, 가을에도 아름다운 금빛 잎을 유지하며 빠른 성장과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음
- 경제림연구소는 금잎수삼나무의 원림경관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품토순화와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과 산림연구원의 일군들은 연구사업에 관심을 갖고 방조를 주고 있음

■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자(『로동신문』, 2023.5.11)

- 온 나라의 수림화와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해 비배관리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심은 나무들을 성장시켜야 함

- 어린 나무를 심은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하면 자라는 모습이 불규칙해지고 볼모양도 없는 잡관목처럼 되므로, 적절한 물과 비료를 제공하고 적시에 거름과 버팀대를 제공해야 함
- 비배관리는 산림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갖고 비배관리를 수행해야 함
- 나무를 심은 후에는 병든 나무나 쓸모 없이 자라는 나무를 제때에 제거하고, 나무를 다시 심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함
- 근로자들은 과학기술 학습을 통해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에 힘을 쏟아 활착률을 높이고, 원림기술 향상에 노력해야 함

■ 시, 군양묘장들에 잣접나무모생산토대 구축(『로동신문』, 2023.5.12)

- 시, 군 양묘장들에서 잣접나무모 생산토대를 구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따라 산림은 귀중한 자원이며 잣접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하였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활발한 사업 참여와 헌신을 통해 나라의 부강번영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고 있음
- 도에서는 잣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재배 방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로동신문』, 2023.5.21)

- 김정은 위원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과 인간 생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음
- 지구 생태환경 파괴와 생물자원 감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어 매년 5월 22일을 국제생물다양성의 날로 기념하고 사회적인 인식개

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의 주제는 “협약으로부터 행동으로: 생물다양성을 복원하자”이며, 국토와 환경의 보호, 산림복구사업, 원림경관 조성, 물관리의 과학화 등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호는 나라와 민족, 후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의 자연보호정책을 받들어 이 사업에 적극 참여

■ 약초밭, 뽕밭조성을 장려(『로동신문』, 2023.5.21)

- 갑산군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약초밭과 뽕밭 조성사업을 중요시하며,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음
- 군에서는 약초밭과 뽕밭 조성을 군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약초재배를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에는 약초재배와 뽕밭 조성을 확대하여 심는 나무의 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켰고, 뽕밭 면적도 더욱 확대했음
- 군 여맹위원회의 일군들과 여맹원들이 뽕밭조성사업에 앞장섰으며, 많은 면적에 품질 좋은 뽕나무를 심었음
- 갑산군에서는 약초밭과 뽕밭 조성을 적극 장려하며, 비배관리를 신중히 진행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둥형배나무를 많이 재배하자(『로동신문』, 2023.5.27)

- 과수업 발전의 중요한 과제는 수확성이 높고 맛있는 과일나무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임
- 기둥형배나무는 수확량이 많고, 과수작업이 편리하며, 비배관리와 병저항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재 많은 단위에서 기둥형배나무의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과수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기둥형배나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혁신적인 사고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10여개 단위가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로동신문』, 2023.5.28)

- 증산투쟁과 중요 목표달성에 따라 임업부문의 산지통나무생산이 성과를 거두었음
- 다양한 임업관리국 및 사업소에서 산지통나무생산을 집단적으로 혁신하고 연간 계획을 수행하는 노력을 보였음
- 각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설비 및 자재보장에 힘을 넣어 산지통나무생산을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혁신의 불길을 일으킴
- 여러 단위에서 산지통나무생산을 위해 혁신과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도입하고 증산투쟁을 전개하여 성과를 이루었음

■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원림록화법(『로동신문』, 2023.6.7)

- 모든 부문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통해 도시와 마을을 보다 문명적이고 청신한 환경으로 꾸미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림록화는 대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함
- 원림록화사업을 통해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며 위생문화적인 환경과 원림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문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므로, 원림록화법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원림록화사업에서는 원림설계를 통해 지대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건물의 품위와 자연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보호림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등 원림록화의 조형예술적 측면과 환경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음
- 유치원, 학교, 병원 등 교육 및 문화 시설 주변에 나무와 화초를 심어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거리와 도로 주변의 원림록화도 보행자의 편의와 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

- 원림록화법의 요구를 지키며 문명적이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원림록화법을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 전국적으로 봄철 나무심기 기간 10여만 정보에 나무를 심었다(『로동신문』, 2023.6.12)

- 당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림조성 추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으로 모든 산을 푸른 숲으로 만들며 국토 수림화, 원림화 목표를 강조함
- 다양한 지역에서 나무심기 작업 추구, 경제 효과, 나무 종류와 그루수를 정하여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나무 조성, 환경 보호를 실천함
- 지역 기후, 토양 고려, 적절한 나무심기 방법 도입, 선진 기술 활용하여 환경 조화 조성함
- 봄철나무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여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 나무심기 진행, 다양한 나무를 성공적으로 조성함
- 산림조성 중요 애국사업 강조, 노력과 협력으로 아름다운 환경 조성, 국토 수림화, 원림화 지속 노력이 필요함

■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원림록화사업(『로동신문』, 2023.6.14)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원림록화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추진됨
- 도시경영성 원림관리국과 해당 부문 일군들이 원림록화사업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구역 등에서는 도시 내 도로, 공원, 유원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적극적으로 심는 작업이 진행됨

- 강원도의 시와 군들도 원림환경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와 강하천 주변, 공원, 유원지 등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활발히 심고 있으며 지피식물 심기도 진행 중임
- 조형예술성과 관상적 효과를 고려하여 거리와 공원에 화단을 조성하고 화초들을 심어 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나무모생산을 늘인다(『로동신문』, 2023.6.16)

- 나무모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의 뜻을 받들여 나무모생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나무모생산을 전망성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함
- 군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산림조성사업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수지경판온실에서의 노력을 강조함
- 군산림경영소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비배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북부 고산지대에서도 과일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함
- 나무모생산의 경험을 확대하고 일반화하여 다양한 단위에서 나무모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 내에서도 나무모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전달함

■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약제들 개발_ 김일성종합대학 산림과학부에서(『민주조선』, 2023.6.21)

- 김일성종합대학 산림과학부 연구팀은 나무 생장 기술과 산림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 나무 영양액과 잎 보호제 등을 활용하여 나무 성장을 개선함

- 약재 부산물을 이용한 뿌리마름방지제 개발로 효과를 입증함
- 연구팀의 노력으로 나무 성장기술이 발전함
- 나무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혼합적용방법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함

■ 산사태방지체계 개발, 도입사업 적극화(『로동신문』, 2023.6.30)

- 우리 식의 산사태방지체계 개발을 위한 산림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분석함
- 김정은 위원장의 강조에 따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의 과학기술적 중요성을 강조
- 산사태방지체계의 중요성과 구성요소, 경제적 효과성 평가, 경제적 장성 담보에 대해 설명함
-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산사태방지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였음
- 산림연구원의 연구진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아래, 산사태방지체계를 완벽하게 개발하여 국가적인 산림보호의 기반이 마련됨

■ 잠업발전에 큰 힘을 넣자(『로동신문』, 2023.7.2)

- 누에고치 생산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조에 따라 산림과 농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중시와 우량품종 도입,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조됨
- 고치 생산단위의 생산성 향상과 뽕나무 우량품종 교체, 누에치기 방법 개선을 통해 누에고치 생산 품질 향상이 강조됨
- 과학기술 중시와 실천, 누에고치 종자 생산, 품종 전환, 고치 생산과 관련된 과학적 사업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누에고치 생산단위의 현실적 조건에 맞춘 과학기술 도입, 누에고치 품질 유지를 위한 건조로 꾸미기와 보여주기사업 등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됨

- 농업부문의 노력과 과학기술의 지원을 통해 누에고치 생산 확대와 인민생활 개선이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며, 잠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타남

■ 과일나무 우거진 일터에서(『로동신문』, 2023.7.21)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자체 특성을 유지하며 사회주의선경을 구축하고, 원림록화를 통해 애착심을 키우고 인민생활 개선에 주력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강조
- 원림록화가 잘된 단위들에서 일터의 아름다움과 생산성 향상으로 느끼는 보람을 통해 애착심을 표현하고 있음
- 공장 내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심어져 봄철의 화사한 풍경과 과일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원림록화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원림록화에 의한 과일나무 우거질 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유지를 통해, 애착심을 가지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남
- 원림록화사업은 단순히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애착심을 심어주고 조국애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장 내 숲과 일터의 변화를 통해 이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상반기 산림복구사업과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 진행(『로동신문』, 2023.7.26)

- 상반기 동안 산림복구와 국토관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부와 당·정 부 간부, 중앙기관 등이 협력하여 성과를 이룩하였음
- 산림복구사업에서는 황해북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등에서 나무모 식재와 관리, 산림 보호사업 등을 통해 환경 보호 및 나무 심기 작업이 이루어졌음
- 국토관리사업에서는 환경보호와 도시경영 사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일부 도시 및 지역에서는 제방보수, 도로관리, 다리보수 등을 통해 국토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 졌음

- 회의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 있어서 어려움과 결함이 나타났으며, 당과 정부 간부들은 시대와 혁명의 책임과 사명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투쟁에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음

■ 원림설계를 잘하자면(『로동신문』, 2023.7.30)

- 원림설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원림록화와 유사하며 도시의 풍경과 면모 형성에 중요함
- 주제는 대상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게 선정되어야 함
- 원림조성 요소는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며, 건축물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야 함
- 원림설계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환경을 제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여름철 산림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로동신문』, 2023.7.30)

-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방대한 사업이 필요하며, 산림보호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
- 대기온도와 습도의 상승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을 활용하고, 지역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함
- 산불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봄과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산불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산불막이선의 유지 정비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상기후 조건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군중적으로 사방야계공사를 통해 산사태 위험을 줄여야 함
- 감독사업을 강화하고, 담당임을 명확히 정해 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정치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산림파괴를 막아야 함

■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생산성과 연일 확대(『로동신문』, 2023.8.2)

- 로동당과 사회주의를 지원하는 중앙 및 지방 당원 대대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은 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주도하며 생산 조직과 지휘를 강화하여 대중의 열의를 고취시키고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음
- 량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내부 예비를 활용하고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채택하여 통나무 생산을 촉진하고 도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반 속도를 달성하고 있음
- 갑산림산사업소, 유평림산사업소, 연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촌 살림집건설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산지통나무생산과 운반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음
- 갑산림산사업소의 작업소에서는 나무베기방법을 개선하고 노력,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음
- 유평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줄, 소공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활용하여 하루 작업 과제를 완수하고 있으며, 연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역나무터에 통나무를 쌓아놓고 있음

■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8.8)

-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산림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성과를 고려하여 폭염 피해 방지 작전과 지휘를 강화하고 있음
-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효과적인 분무기, 화학농약, 생물농약을 확보하고 산림 구역에 살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고온과 건조한 조건에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시 인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림감독원과 산림순시원은 산의 순찰을 통해 입산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각 지역의 양묘장에서는 나무모들과 어린 나무들이 수분 부족으로 활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하고 해가림발과 뿌리성장촉진제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림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산림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여름철 원림식물관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로동신문』, 2023.8.17)

- 김정은 위원장은 원림록화사업이 나무숲을 우거지게 하고 도시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며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
- 여름에 원림식물은 다양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고온, 과습, 병해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주기 관리와 물빼기 대책을 시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잔디와 화초는 물주기와 물빼기를 조절하여야 하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고, 잔디깎는 시간을 조절하여야 함
- 무더운 여름에는 일부 잔디가 생리적잠자기에 들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고 관상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영양관리를 신경써야 함
- 도시경영성 원림관리국 원림기술준비소 소장은 원림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 경사지 보호에 좋은 생태옹벽(『로동신문』, 2023.8.17)

- 전통적인 석축옹벽 및 콘크리트옹벽은 물질교환을 차단하고 생태적 이동성을 제한하므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음
- 생태옹벽은 주위 환경과 물질교환이 가능하며, 물질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여 생태환경 보호와 녹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생태옹벽은 전통적인 옹벽에 비해 건설속도가 빠르며, 생태옹벽 블록조립식, 쇠그

물주머니식, 마대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공됨 또한, 건설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음

- 블록조립식 생태옹벽은 고강도 블록을 조립하여 건설하며, 시공 속도가 빠르고 녹화를 지원함
- 쇠그물주머니식 생태옹벽은 돌을 채워넣은 쇠그물주머니를 사용하여 물질교환이 용이하고 생물체의 생육을 지원하는 구조임

■ 당적지도의 실효보장에서 중시한 두 고리(『로동신문』, 2023.8.17)

- 김정은 위원장은 해당 부문과 단위 사업의 성과는 당직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있으며, 높은 생산계획 수행은 당위원회의 지도와 요해장악에 의존함
- 임업부문에서 생산단위들이 분산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당위원회는 실태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부 요강을 작성하여 장악사업을 구체화함
- 경제실무수준 향상은 경제사업 지도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하며, 당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경제부문의 열의를 고취시킴
- 주별, 월별로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경제부문의 일군을 활용하여 경제실무수준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당위원회의 경제사업 지도를 개선함
- 당위원회는 장악사업과 경제실무수준 향상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를 통해 당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을 원활하게 지원함

■ 일관하게 힘을 넣어야 할 땔나무림조성(『로동신문』, 2023.8.18)

- 김정은 위원장은 지역마다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주민용석탄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땔나무림 조성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함
- 동림군 솔나무농장은 아카시아나무를 키우며 땔나무림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작전과 지휘를 실시하고 담당제를 도입하여 땔나무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음

- 지방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세대별 땔감 소요량을 기반으로 수종을 선발하여 땔나무림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병든 나무 제거와 땔나무림 관리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함
- 농업근로자들에게 땔나무림조성의 중요성과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해설선전사업이 중요하며, 땔나무림 조성을 위해 나무모 생산을 우선 진행해야 함
- 땔나무림조성은 농촌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때 현실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거리의 풍치를 돋구는 느티나무(『로동신문』, 2023.8.20)

- 수도의 거리에 느티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8월의 더운 날씨도 상쾌해지고, 그늘을 통해 거리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줌
-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며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과 경치 좋은 장소에 정각으로 심어져 왔으며, 그 크기와 생명력 때문에 “장수나무”로 불림
- 느티나무는 모양을 다듬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며, 대기 오염을 줄이는 능력이 있어 환경 보호에 기여함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자각적으로 지키자(『로동신문』, 2023.8.21)

- 기사는 사회주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함
-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인용하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법이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국가의 문화생활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환경보호가 강조되며, 국가는 이러한 자연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동식물을 보호하며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함
-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나무 베기, 산림 개간, 생산시설물 건설 및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주민들 또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은 전체 인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노력해야 성과를 거두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시민들은 사회주의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나무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배관리(『로동신문』, 2023.8.23)

- 나무를 심는 것과 비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무를 심어도 비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설명함
-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인용하여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나무심기와 비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심을 발휘하고 나무를 심고 관리함으로써 조국을 풍치수려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금수강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함
-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위한 정확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평방당책임제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애국심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데 반영되며, 민족 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푸른 숲 설레일 래일을 그려보며(『로동신문』, 2023.8.26)

-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을 귀중한 자원이자 후대에 물려줄 재부로 강조하며 애국심을 표현했음

- 대관군산림경영소의 일군과 종업원들이 산림을 키우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무를 심는 과정을 묘사하며 애국적인 노력을 강조함
- 나무 심기와 관리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들은 피로를 감수하며 나무를 심고 키우는 과정을 기술하며 애국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산림을 키우는 노력은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희망으로 푸른 숲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다루며 애국의 마음을 나타냄
- 애국적인 사람들의 힘으로 산림이 발전하고 조국의 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강조함

■ 농촌마을들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자(『로동신문』, 2023.8.27)

- 김정일 위원장이 느티나무를 많이 심도록 지시하며, 느티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고급목재로 사용되며,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농촌 및 도로 주변에 많이 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느티나무를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는 씨앗 확보와 나무모 생산 등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룸
- 일군들은 느티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사업은 농촌의 문명화와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함
- 느티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키워나갈 때, 농촌은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발전하고 일하기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모범산림군청호쟁취운동 활발히 전개(『로동신문』, 2023.8.31)

- 연탄군에서 올해 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서 90여 개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림 칭호를 쟁취하여 쟁취 수가 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애국립운동과 모범산림군청호쟁취운동을 더욱 세차게 진행하도록 지시
- 군에서는 각 단위에서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중의 열의를 높이고 경쟁열의를 부추기며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소개선전하여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쟁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군에서는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쟁취한 단위들이 모범단위로서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관성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군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일터에 대한 애착을 안고(『로동신문』, 2023.9.5)

-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일터를 수림화하고 원림화하기 위해 힘쓰며, 수많은 과일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이 구내에 자람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터의 모습은 현재와는 다르게 보였으나, 지금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땅을 가꾸는 노력으로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음
- 종업원들은 원림룩화가 잘된 단위들을 찾아 배우는 노력을 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구해오며 일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
- 일터는 나날이 변모되면서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함흥철도국의 나무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종업원들의 애착과 노력으로 일터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

■ 나무모생산을 늘이고 사름률을 높이자(『로동신문』, 2023.9.6)

- 나무심기는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으로, 양묘장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와 공업화를 통해 다양한 수종의 나무모를 대규모로 생산해야 함

-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양묘장에서 적합한 나무모를 생산하고, 이를 일정하게 자라게 한 다음 산에 심어야 활착률을 높일 수 있음
- 나무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대를 살렸는가보다는 적지적수와 적기적수의 원칙을 지키며 나무를 질적으로 심는 것임
- 나무심기만으로는 무성한 숲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배관리 역시 중요하며, 병해충 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도입해야 함
- 나무모생산과 활착률 높이는 산림조성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진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집안팎을 알뜰히(『로동신문』, 2023.9.6)

-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마을의 풍경을 더욱 돋우기 위해 마을과 도로의 정상적인 관리, 살림집과 마을에 과일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 꽃과 식물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동림군 보성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자신의 집과 마을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제3, 6작업반은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하여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일군들은 농장원들이 집안팎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교양을 향상시키고 요구성을 높이는 등 낡은 생활습성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고향과 마을을 더욱 훌륭하게 꾸미기 위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등 다양한 과일나무를 정성껏 심고 화단도 만들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음
- 모두의 노력 덕분에 마을의 모습이 환해지고 농업분야에서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장원들은 더 큰 사랑으로 당에 보답하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있음

■ 화초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2023.9.13)

- 만경대구역화초사업소의 일군들은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꽃 생산량을 늘려 문화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함
- 김정은 위원장은 원림록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무숲과 꽃이 풍성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
- 과학기술에 의거한 화초재배를 통해 화초 생산량을 늘리는데 성과를 거둔 지배인 김정임 동무와 일군들의 노력이 돋보였음
-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화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비료의 효과적인 생산과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과학적인 화초재배를 가능하게 함
- 만경대구역화초사업소의 일군들은 마을과 거리에 아름다운 꽃을 만발시켜 평양을 더욱 문명적으로 꾸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푸른 숲에 늘어나는 새둥지(『로동신문』, 2023.9.14)

- 김정은 위원장은 애국주의와 나무 키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평양 담배종이 공장의 산림담당 구역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이뤄져 있음
- 공장 일군들은 나무모 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나무모를 보호하고 키움
- 산림조성사업으로 인해 숲이 푸르러가며 일군들의 애착심이 깊어짐
- 공장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영예와 상을 받았으며, 나무모들을 더 많이 심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로동신문』, 2023.9.15)

- 김일성 위원장의 교시를 인용하여 금강산을 조선의 명산이자 세계적인 명산으로 소개

- 금강산의 계절마다 다르게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명칭을 소개함
-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 암반, 계곡, 폭포 등이 조화를 이루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함
- 금강산의 특별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과 다양한 동식물을 다룸
-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금강산이 특색있게 꾸며지고, 인민을 위한 명산으로 자랑된다는 내용을 소개함

■ 산림과학자의 금지(『로동신문』, 2023.9.19)

- 경제림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아름다운 금잎수삼나무모를 자라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구자들은 나무모의 성장과 영양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원림 화사업을 통해 전국에 좋은 수종의 나무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들은 당의 지시를 받들어 산림과학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금잎수삼 나무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기울이고 있음
- 나무모를 옮겨 심을 때의 과정과 나무모들의 자라는 속도에 대해 언급함
- 이 연구들이 나라의 수림화와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조함

■ 발전지향적인 목표는 이런 관점과 실천력을 요구한다(『로동신문』, 2023.9.22)

- 임산사업소에서는 임업부문적으로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술적인 개선과 공무기지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애국림 사업을 통해 애국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내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마다 특색있는 경관을(『로동신문』, 2023.9.22)

- 최근 당에서는 원림록화사업을 강조하며 도시들의 특색있는 경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부문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고, 도시를 더 문명하게 꾸미고 정상유지와 정상관리를 강조함
- 원림경관조성계획을 연차별로 세우고, 식물과 도시문화 사이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어 지역적인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림설계는 도시의 풍치와 면모를 달라지게 하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얼마만큼 심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함
- 원림경관조성사업을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현황식물을 이용한 식물장식조각을 만들어 도시의 면모를 더욱 빛내도록 노력해야 함

■ 동해명승 칠보산(『로동신문』, 2023.9.23)

- 김정일 위원장은 칠보산을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명승지로 교시하였음
- 칠보산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웅장한 산악미와 계곡미, 아름다운 수림미와 바다 경치를 통해 아름다운 명산으로 손꼽힘
-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누어지며, 각각이 특별한 경치와 이야기를 담고 있음
- 칠보산은 다양한 동식물과 아름다운 산봉우리, 폭포, 해안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더함

■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로동신문』, 2023.9.27)

- 가을철에는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산림보호관리사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 산불 발생 시 국가 자산인 귀중한 산림자원이 피해를 입고, 인민생활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큼
- 산불방지는 당과 근로단체조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누구나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함
- 일군들은 산불방지를 전군적인 사업으로 펼쳐야 하며,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여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산림부문에서는 산림감독원, 산림순시원, 산불감시원 등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가을철에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감독통제가 엄격히 이뤄져야 함

■ 천연산림자원이 집중되어있는 지역들(『로동신문』, 2023.10.8)

- 산림은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여 공기를 정화하며 물을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로씨야의 씨비리 지역은 눈으로 덮여 있으며, 산림이 주요 자원으로 집중되어 있음. 카나다는 령토면적에서 인디아보다 큰 산림을 보유하고 있음
- 브라질은 령토의 56%가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아마조나스 열대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우림 중 하나임. 그러나 도시화와 채벌로 인해 산림 자원이 위협 받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는 령토의 19%가 산림으로, 특이한 진화발전의 야생식물을 보유하고 있음. 민주콩고에는 열대강우림이 펼쳐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면적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는 기후조건이 적합하고 강우량이 풍부하여 산림이 발달했지만, 자원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강우림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나무종자채취를 책임적으로 하자(『로동신문』, 2023.10.11)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무종자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나무종자채취는 시기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하여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산림조성사업은 조국과 후대를 위한 애국사업이자 개인의 일이라고 강조하며 일군과 근로자들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무종자채취에 힘쓰어야 함
- 누구나 산림복구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주인다운 태도로 적극 참여할 때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임

■ 사연깊은 잣접림의 면적이 늘어난다(『로동신문』, 2023.10.11)

-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조림공들은 잣접림 관리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기술기능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군 내 여러 기관과 근로자들도 잣접림면적 확대를 위해 동참하고 있음
- 조림공들은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잣접작업시기를 앞당기고 사름률을 높이는 등 혁신을 이뤄내고 있어 산림조성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잣접림 면적의 확대로 잣송이 수확량이 증가하며, 이는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농장마을의 양묘장(『로동신문』, 2023.10.12)

-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농장의 양묘장은 몇 년 전에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마을의 풍경을 돋우며 땀감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산림복구 호소를 받아들인 농장원들은 농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심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양묘장을 열정적으로 꾸러가며 나무모들을 가꾸고 있음

-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농장원들은 일군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에 힘쓰고 나무모들을 가꾸기 위해 스스로 양묘장에 노력하며 사름을 기우고 있음
- 나무모들의 성장에 따라 농장원들은 고향을 아름답게 꾸러갈 다짐을 하며 양묘장은 당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열의를 전해주고 있음

■ 산림복구는 판정이나 평가를 받기 위해 하는것이 아니다(『로동신문』, 2023.10.15)

- 올해 산림복구사업에서 라선시는 판정이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사태 예방과 생태환경 개선을 목표로 과학적이고 전망적인 방법으로 산림복구를 실천하며 양호한 성과를 내었음
- 산림복구사업에는 과학적, 전망적인 방법을 통해 산사태 예방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안전한 3~4년생 나무모생산을 늘리고 위험 개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 평안남도 문덕군은 산림복구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는 립장에서 진취적인 태도를 발휘하며 분발하고 있음
- 각지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역 산에 나무를 심고 사방야계공사를 강화하는 등 산림복구를 위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조국의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꾸러나가야 함

■ 중요한것은 사름률보장(『로동신문』, 2023.10.21)

- 가을철에는 보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무심기를 전개하여 계획된 면적에 대한 산림조성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비배관리기간이 짧은 가을철에도 책임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높은 사름률을 유지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기상기후조건, 토양상태, 나무들의 공생관계를 고려하여 조성목적에 따른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계획한 나무심기과제를 열기 전에 완료해야 함

- 잣 심은 나무들이 센바람에 의해 넘어지거나 뿌리가 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원들은 나무심기가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애국심과 량심을 바쳐야 함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을철나무심기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공민적 자각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산림조성사업에서 실제적인 전진을 이루어내야 함

■ 산림복구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강구(『로동신문』, 2023.10.26)

- 함경북도와 강원도양묘장에서는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종과 량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을 기반으로 생산을 혁신적으로 진행하였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래일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산림조성을 실시하며 산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나무모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다양한 지역에서는 나무종자채취와 산림복구를 위한 예견성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문에서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무모와 나무종자를 확보하고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겨울철에도 나무모온실의 온도를 보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파악된 실질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육을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마을길에는 느티나무, 살림집뜨락에는 과일나무(『로동신문』, 2023.10.27)

- 룡원농장마을에는 느티나무로 아름답게 꾸며진 새로운 농촌 살림집들이 들어섰음
- 당의 뜻을 받들어 마을 주민들은 느티나무 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
- 농장 일군들은 농촌살림집 주변뿐만 아니라 집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마을 주변에는 수백 그루의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가 자라며,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도 추진되어 농촌을 미화하고 있음

■ 전국각지에서 나무심기에 진입(『로동신문』, 2023.11.2)

- 가을철에 돌입함에 따라, 김정은동지의 지시에 따라 당의 높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함경북도 등에서 나무심기가 착실히 시작되고 있으며, 산림조성사업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하는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산림부문 일군들은 동원된 성원들이 겨울 조건에 맞게 나무를 심도록 지침하며, 산림 복구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산림부문에서는 나무심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지역마다의 토양상태, 기후, 공생관계를 고려하여 나무심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산림조성면적을 확대해가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무모보장을 실시하고 있음
- 계속된 노력과 계획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하고, 나무심기를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조성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상태, 나무들의 공생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나무심기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느티나무모확보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11.9)

- 대안구역에서는 김정은위원장의 나무심기 지시에 따라 농촌과 길가에 대대적으로 느티나무를 심기 위한 나무모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나무모생산은 양묘장에서 과학화되고 집약화되어 나무모를 튼튼하게 키우고, 날씨에 맞게 나무모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각 지역에서 느티나무들이 우거지게 자라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고 있음
- 국내외에 나무심기운동을 알리기 위해 특파기자 주령봉은 김정은동지의 지시와 지역 내의 활동을 보도하며, 나무심기운동의 홍보 및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산열매나무모생산을 늘일 목표밑에(『로동신문』, 2023.11.10)

- 평안남도 문덕군 산림경영소 일군과 종업원들은 잣나무, 밤나무, 단나무 등의 산열매 림을 조성하기로 결심하고 나무모생산을 철저히 이끌며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업하고 있음
- 일군들은 각 나무모의 생물학적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맞추어 공정별 작업을 수행하고,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유기질 복합비료와 부식토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나무모 생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산림경영소는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일정하게 자라게 하고, 이를 통해 산에 심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지역의 모든 산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며, 산림경영소에서는 산열매나무모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힘을 보내고 있음
- 산림경영소는 물보장 대책과 물 절약 방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나무모를 키우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열매나무모생산에 전념할 계획임

■ 전국적으로 많은 느티나무를 심었다(『로동신문』, 2023.11.10)

- 각 시, 군은 느티나무종자 확보와 나무모생산 확장에 힘을 기울이며, 평안북도 동림군과 평안북도 철산군 사이 도로구간에서의 보여주기사업을 통해 나무심는 방법과 기술 문제를 교육하고 있음
- 평안북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등에서는 수많은 느티나무모를 확보하고 도로 및 농촌 마을,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지역에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심어 풍경을 돋우고 있음
- 황해남도, 남포시 등의 주요도로뿐만 아니라 당의 농촌문명 정책에 따라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농장마을, 함경남도 금야군 룡원리 등에도 느티나무들이 심어져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14만 33,320여 그루의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으며, 나무를 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임

■ 산은 가꿀수록 보물을 낳는다(『로동신문』, 2023.11.12)

- 현지 일군은 김정일의 유훈을 따라, 평안북도 창성군의 산들을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을 잘 활용하여 경제림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
- 황금산의 산림에서는 잣, 도토리, 두릅 등 다양한 산열매와 약초, 산나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숲의 생태계가 잘 보호되어 유용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음
- 숲에서는 여름에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이 돌아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원들이 생산되어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숲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하고 있음
- 황금산과 산림은 바친만큼 행복과 보람을 주며,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노력들이 푸른 숲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음

■ 양묘공의 기쁨(『로동신문』, 2023.11.12)

- 황해북도 연탄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양묘공들은 성실한 나무모 키우기로 미소를 지으며, 봄에 싹을 심고 여름에는 두벌, 세벌김을 매우며 온갖 정성을 기울여 나무모를 키워왔음
- 양묘공 리금혁의 안내 아래 나무모 저장고를 방문하면서, 잣나무, 이깔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모들이 깎진 일숨씨로 정돈되어 있고, 이들을 지역의 가로수로 심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나누고 있음
- 양묘공들은 나무모 키우는 데 10년이 넘게 공을 들인 데 대한 힘들었지만,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나무모가 정성스러움을 떠올리게 하며 마음을 울리게 함
- 양묘공들은 자신들의 노고와 땀이 공화국의 귀중한 자원을 키워가는 데에서 나오는 진정한 애국의 행복과 자랑을 맞볼 수 있다고 느끼며, 공화국의 귀중한 재부를 키우는 데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애국자의 길이라고 자부함

■ 통나무생산에서 혁신 창조(『로동신문』, 2023.11.15)

- 동창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연간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힘차게 내달려 어려운 모퉁이와 문제에 대처하고 생산실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음
- 사업소 조직에서는 통나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화선식 정치 사업을 통해 대중의 열의를 고취시켜 통나무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
- 작업소에서는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겨울철에 조직사업을 펼쳐,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통해 통나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룬전기재들의 원활한 가동을 통해 마감나르기 실적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음
-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나무베기와 부림소 등의 작업을 통해 통나무 생산성을 확대하고, 룬전기재들에 대한 점검과 부속품보장, 설비수리 등을 통해 사업소의 통나무 생산 계획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나무심기를 질적으로(『로동신문』, 2023.11.15)

- 황해남도 태탄군산림경영소 옥암리산림감독원 리명성과 산리용반원들은 나무심기를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맞추어 푸른 숲을 조성하고, 사름률보장을 우선시하여 나무를 심고 있음
- 기상기후조건, 토양상태, 나무들의 공생관계 등을 철저히 고려하며 올봄과 가을에 나무를 책임적으로 심고, 산림조성사업에 자신들의 뼈심을 들이며 나무의 보식을 진행하고 있음
- 숲사이양묘장에서는 나무모를 정성들여 뜨는 작업을 통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 생태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기술공정 확립(『로동신문』, 2022.12.16)

- 도시경영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평천정화장관리소의 일군들이 협력하여 침사지의 침전물 제거 공정을 개선하였음
- 새로운 자동화된 기술 공정은 오수정화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가 쉬워 전반적인 오수정화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켰음
- 연구자들은 침전물 제거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포펌프 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이러한 기술 개발로 대동강물의 오염을 막고 수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가 마련되었음

■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회복(『로동신문』, 2023.1.8)

- 자연생태계와 인공생태계는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포함하는데, 생태계의 회복은 파괴된 생태계와 지역의 생태환경을 원래의 다양성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함
-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어 보호가 필요한 주요 대상임
- 산림 보호를 위해 보호관리와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을 조성해야 함
-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류부터 유역관리를 개선하고, 물과 토양의 유실, 산사태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함
- 습지생태계와 연안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은 물론 멸종위기종과 동식물 서식지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용동물보호사업 활발히 진행(『로동신문』, 2023.3.28)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은 도마다 유용동물보호구와 사육기지를 구축하고 이미 선택된 임시유용동물보호구들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음
- 유용동물들의 서식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평 서식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음
- 동물 보호구들의 생태통로 조사와 함께 유용동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해 동물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애국심과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로동신문』, 2023.4.27)

- 세계적으로 수지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나라에서 생태환경보호를 중요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바다를 오염시키는 합성수지오물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
- 캄보디아, 케냐, 우간다 등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화되고 있는 생태환경보호사업(『로동신문』, 2023.5.18)

- 생태환경보호는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오염으로 인해 세계 산호무지가 감소하고, 화물선 침몰로 인한 고래와 어류의 대량 사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지오물인 백색오염물질 바다에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수지오물 조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호흡기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수지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1회용 비닐제품의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건축의 녹색화와 지붕녹화, 공중화원 등의 사업이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력이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로동신문』, 2023.5.21)

- 김정은 위원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
- 세계적으로 생태환경 파괴와 생물자원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음
- 국토와 환경 보호, 산림복구 사업, 물관리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힘을 쏟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호는 나라와 민족, 후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사회의 성원이 필요함

■ 환경위생사업과 문명(『로동신문』, 2023.5.27)

- 김정은 위원장은 환경보호와 자연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환경위생사업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을 막고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함
- 위생월간과 위생문화사업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문명이 발전되어 새로운 거리와 문화시설이 생김
- 환경위생사업에서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좋은 식물을 심어 환경을 개선하며, 해로운 조건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기본 요구사항임
- 모든 지역과 단위의 일군들은 깨끗하고 문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활과 일터를 주인답게 관리하여 사회주의선경을 형성해야 함

■ 인류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파괴(『로동신문』, 2023.6.1)

- 습지는 물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물 저장, 환경 안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습지는 산림채벌, 기후변화, 화학농약 등의 영향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습지 보호는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인류와 생태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무차별적인 산림채벌과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습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습지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전문가들의 호소가 필요하며,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에 노력해야 함

■ 도시생태환경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동신문』, 2023.6.4)

- 환경보호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태환경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함
- 습지 보호는 환경보호의 핵심 요소로서, 습지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습지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먼지에 의한 대기오염과 강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의 폐수 처리와 자원 절약, 생활오수 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생태환경보호는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서, 애국사업으로 여겨져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원림록화사업의 개선, 습지 보전, 대기오염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자원 절약과 재자원화를 추진하며, 국민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함

■ 심각하게 제기되는 야생동물보호문제(『로동신문』, 2023.6.12)

- 재해성 이상기후 및 밀렵 등으로 야생동물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약 1,700종의 동물이 멸종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대규모 농장건설과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어 앞으로 50년 내에 30~50%의 동물 종이 서식지를 잃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멸종 위기에 처한 보르네오코끼리 중 수컷의 상아 없는 진화 현상이 관찰되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밀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탄자니아는 밀렵 행위를 억제하고 야생동물을 증식하여 사자와 기린 등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
- 생물다양성 보호는 경제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우려를 자아내는 새로운 전염병들의 발생위험성(『로동신문』, 2023.7.5)

- 원숭이천연두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들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음
- 전염병은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며, 특히 병원체 대부분이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음
- 포유동물과 조류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함
- 동물과 인간의 접촉,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로 인해 동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확산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대형수차날개를 제작하여 태천발전소에 보내주었다(『로동신문』, 2023.6.3)

-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보낼 수차날개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여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혁신을 이루고 있음
- 김정은 동지의 지시에 따라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교체하고 송전계통에서 전력 손실을 줄여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유사한 전력예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노동계급과 공장 일군들은 대형수차날개 생산을 위해 자체적인 힘으로 수차날개 제작 공정을 혁신하여 높은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생산 조직을 통해 대규모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술자들은 수차날개의 기술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소모형가공, 도료 바르기, 진동조형, 연마, 열처리 등 생산 과정에서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형수차날개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음

■ 개발창조의 길에 새겨가는 탐구의 자욱(『로동신문』, 2023.6.5)

- 과학기술 혁신으로 발전소 전력 생산능력 향상 및 현대화함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력공업연구소에서 혁신적 조속기 개발을 진행함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노동계급과 현장기술자의 노력으로 혁신적 수력터빈조속기 개발 및 전력공업의 성과와 자립성을 강화함
- 새형 수력터빈조속기 개발과 성공적인 시험도입으로 전력계통 안정성과 생산효율을 향상함

■ 순결한 량심과 완강한 실천으로 올라가는 창조의 동음(『로동신문』, 2023.6.10)

-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월별전력생산계획 수행 및 발전기와 변압기 대보수, 증보수 작업을 추진함
- 물을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발전소 사람들의 열정과 혁신으로 물 관련 작업을 혁신함
- 기술혁신을 통한 대용량변압기 대보수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과 작업 기간 단축, 전력 증산의 성과임
- 발전소 일군들의 혁신과 열정으로 자체 제작 목표를 실현하며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농작물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문제(『로동신문』, 2023.6.10)

-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과 농업기술을 개선함
- 저수지와 관개시설 검토, 중소하천 보강, 물관리 과학적 접근으로 농업생산 지원하고 배수시설 정비와 수문 보강,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적 대책 마련
- 뿌리활성 증진, 병해충피해 방지 등 논벼농사 관리 방법 강화와 더불어 지휘통신체계 강화, 예보자료 효과적 활용으로 발전 및 관개용저수지 관리 개선

■ 생활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로동신문』, 2023.6.23)

- 생활용수문제를 과학연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력으로 선진 정화공정기술 도입 및 실험 진행하고 유산철응집제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원료 최적화와 생산방법 개발
- 복합응집제 시험 도입 및 감시조종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용수 보장하고 체계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과제서 작성을 통한 연구목표를 수행함

■ 효과적인 공업용수전처리기술(『로동신문』, 2023.7.1)

- 폐설물을 활용한 공업용수전처리용 무기복합응집제 기술 개발 및 응용
- 과학자들이 폐설물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를 효과적으로 전처리하기 위한 무기복합응집제를 개발하고 응용 기술을 확립함
- 나노기술응용연구집단의 연구를 통해 공업용수전처리기술을 발전시키고 폐설물을 활용한 성능 우수한 무기복합응집제를 개발하여 정화효율을 높임
- 무기복합응집제를 도입한 단위에서 환경 개선과 이익 증가를 실현하며 해당 기술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
-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의 연구진은 무기복합응집제 기술을 더 많은 단위에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 당정책관철에 바쳐진 깨끗한 량심(『로동신문』, 2023.7.6)

- 당원들은 항상 맑고 깨끗한 민음과 헌신적인 당정책관철 투쟁으로 가득차 있음
- 장세욱 동무는 30년간 당세포비서로서 농장에서의 열심히 일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해 노력한 모범적인 사례임
- 김정은 위원장은 당원들에게 항상 높은 자각과 모범적인 자세로 혁명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함
- 은률군 산동협동농장은 무더위와 가물에도 불구하고 물을 확보하여 훌륭한 작황을 이루어냈음
- 장세욱 동무는 투쟁적인 자세와 당원의 의무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당원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음

■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7.29)

- 전력공업부문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수렴하여, 태풍과 큰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에 노력하며, 작전과 지휘를 심화시키고 있음
- 수풍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올해 엘니뇨현상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방과 수력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천강발전소 등에서도 폭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 장진강발전소와 희천발전소에서는 방수로와 수위 관리 등을 통해 수력구조물과 발전 설비를 태풍과 폭우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에서도 지붕공사와 배수펌프장 건설 등으로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폭염과 벼락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하며, 벼락피해방지 체계를 도입하고 변전소 및 전주의 교체 작업을 철저히 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음
- 전력공업부문은 재해성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작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전력생산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흥산기슭에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로동신문』, 2023.8.24)

-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모습과 인민의 행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을 함
- 함경남도와 함흥시는 함흥동물원을 개건하여 근로자와 청소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물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음
- 함흥시와 함경남도는 개건계획을 작성하고 시공력을 확보하여 함흥동물원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사들의 설계를 개선하고 있음
- 함흥동물원은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향유의 장소로서 어머니당의 은정을

가슴에 새기며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

- 함흥동물원과 함께 인민은 기쁨 넘치는 웃음소리를 끊임없이 퍼뜨릴 것으로 예상됨

■ 새롭게 변모된 동흥산기슭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로동신문』, 2023.9.24)

- 함흥동물원은 동흥산기슭에 자리하여 문화정서생활거점과 교육거점으로 변모되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
- 동물원은 특색 있는 출입구와 현대미와 고전미가 결합된 건물, 맹수사와 원숭이사 등의 동물사들로 꾸며져 있음
- 파충류관은 자연의 동굴을 연상시키며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
- 함흥동물원은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으로 가득하며,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변화된 동물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줄어드는 산림면적, 파괴되는 생물다양성(『로동신문』, 2023.9.24)

- 세계자원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410만 헥타르의 열대원시림이 분당 축구경기장 11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사라졌음
- 브라질은 2022년에 가장 많은 열대원시림이 없어진 나라로, 그 다음은 콩고민주공화국과 볼리비아임
- 열대원시림의 감소는 불법 채벌, 목재무역, 도로 및 목장 건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전문가들은 지난 해의 열대원시림 소실로 2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고 주장함

■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증식(『로동신문』, 2023.10.17)

- 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음
- 올해에는 꿩과 노루를 키워 풍요로운 가을과 변화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높였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에서 도내 시, 군에서는 유용동물보호증식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7. 수자원

■ 관개체계정비보강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2.12.7)

- 신원군농업경영위원회는 다음해 농사차비의 일환으로 관개구조물과 설비, 물길 등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양수동력설비를 수리정비하고 물길가시기에 주력하며 군관개관리소와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예비를 활용하여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의 수리정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음
- 물길가시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밭을 논으로 전환하고 관개용수보장대책을 세우는 등 벼농사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관개시설의 복구, 완비에 역량을 집중_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22.12.10)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 안정화와 편파성 감소를 위해 관개시설의 복구와 완비에 힘을 쏟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관개시설 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개시설 정비, 저수지 및 물길 건설 등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도에서는 양수기 생산과 자재보장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관개시설을 복구하고 관련 장비를 생산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관개시설 복구와 관개시설 보강에는 많은 노력과 자재, 자금이 필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 높은 알곡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안의 청년동맹원들과 일군들은 물길가시기 작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발전을 위한 관개시설 복구와 완비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발관수용수지관생산기지를 자체로 꾸려놓고(『로동신문』, 2022.12.22)

- 와우도구역에서는 밀농사에 필요한 물보장을 위해 발관수용수지관 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구축하였음
- 구역일군들은 밀농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지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설비해결에 힘을 쏟았음
- 설비수리와 자재 조달에 전력을 기울여 수지관 생산기지를 완성시켰으며, 이를 통해 밀포전에 관수를 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압출성형기를 개조하고 수지관 생산에 성공하였음

■ 물원천확보를 앞세워(『로동신문』, 2023.1.24)

- 강서구역 덕흥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나가며 농사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음
- 일군들은 지난 사업에서의 결함을 분석하고, 물보장대책 개선을 올해 농사차비의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밀고 나가고 있음
- 관개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물부족지 조사를 통해 지하수시설을 조성하고 농장원들에게 물보장조건을 원활히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 작업반과 분조에서는 물원천 확보와 관개용수 보장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농장원들은 굴포와 물주머니 등을 만들어 물보장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하수시설 정비와 땅속물 이용을 위한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으며, 진취적인 사고와 노력을 통해 농사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 나라 광천자원의 분포와 리용(『민주조선』, 2023.1.31)

- 다양한 종류의 온천과 약수가 있으며, 그 중 양덕온천, 경성온천, 성천온천, 룡강온천, 달천온천, 황진온천, 외금강온천, 옥류약수, 강서약수, 옥호동약수, 창성약수, 시중약수, 신적약수 등이 있음
- 광천은 화학 조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생물활성 성분천, 탄산천, 라돈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광천을 마시거나 덥히거나 식혀서 치료에 활용하고, 광천흡입치료, 광천욕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천을 활용하고 있음
- 온천자원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천 자원은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물관리의 과학화와 발전효률제고에 주력(『로동신문』, 2023.2.3)

- 전력공업성과 해당 부문 일군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발전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및 자재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수풍발전소의 노동계급은 수자식 조종장치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부전강발전소의 노동계급은 기술혁신과 설비 정비로 발전기의 가동률을 개선하고 있음
- 허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는 수차 효율과 운전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인 개선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 서두수발전소는 수력구조물의 예방보수를 통해 겨울철 전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생활용수보장을 위한 사업 강력히 전개_함경남도에서(『로동신문』, 2023.2.18)

- 함경남도의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용수 보장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취수장 건설 및 양수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함흥시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생활용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수장과 가압펌프장을 건설하고 설비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도와 함께 일하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다양한 단위의 일군들과 협력하여 설비보강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원과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생활용수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
- 취수장 건설, 가압펌프장 건설, 양수설비 개선 등의 사업이 시 안의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서 상수망 보수와 가압펌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지하수 시설을 잘 갖추자(『로동신문』, 2023.2.22)

- 농업 생산을 위해 지하수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문제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과 농업 생산 단위에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미 갖추어진 지하수시설을 환원복구하고, 기존 시설들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하수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물문제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단위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제때에 따라 세워야 함
-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자체 노력과 책임을 가지고 지하수시설을 개선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해야 함

■ 풍부한 산천수치료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민주조선』, 2023.2.22)

- 산천수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의 산천수들은 칼슘이온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건강과 장수에 좋음
- 아달산샘물, 원신샘물, 신덕샘물 등 다양한 산천수들은 맛지수와 건강 지수가 높아 심장 및 순환계통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
- 산천수의 광물질 총합량이 높은 지역들은 평양시, 룡악산, 양덕군 등이며, 건강 장수학적 평가 기준에 도달하는 산천수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_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3.8)

- 안주시는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에 큰 힘을 쏟고 있으며, 양수설비의 대당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들이 자체의 수리기지를 갖추고 협동하고 있음
- 배천군에서는 영농기전을 활용하여 양수설비의 말끔한 수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개체계 정비와 군농기계작업소와 협동을 통해 생산과 수리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함주군에서는 군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양수설비의 수리정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관개관리소의 기술력 강화와 혁신안의 실천을 통해 수리정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다른 지역들에서도 양수설비에 대한 수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관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반적으로 양수설비의 수리정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착실한 노력과 협동이 이뤄지고 있음

■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끝는다_관개시설의 복구, 완비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23.3.15)

- 함경북도에서는 관개시설의 복구와 완비를 농업생산의 사활로 내세우고 있으며, 새로운 관개시설 건설과 현대적인 관수방법을 도입하여 관개체계를 완성하는 노력

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는 관개부문 일군들을 파견하여 관개시설의 상황을 조사하고 양수능력과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수장들의 정비보강과 양수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도적인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정비, 지하수시설 갖추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관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남포시에서는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관개시설의 복구와 완비에 힘을 쏟고 있으며, 농장마다에서 성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시에서는 관개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고 관개구조물공사 등의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개부문 기술자와 기능공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관개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자(『로동신문』, 2023.3.29)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관개체계의 완비를 선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관개용설비와 자재의 생산보장을 중시하고, 기술적인 지표에 맞춰 생산과 질적 보장을 동시에 강조해야 함
- 각 도는 자체적으로 관개용부속품과 자재의 대책을 세우고, 관개기계공장을 활성화하여 생산을 촉진해야 함
- 물관리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화하고, 연구기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물관리에 과학기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실리있는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로동신문』, 2023.3.29)

- 최근 랑림군체신소 병풍덕체신분소에서는 개울물을 이용한 극소형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보장을 개선하고 있음

- 종업원들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차를 개발하고 극소형수력발전체계를 수립했음
- 비동기발전기 개조로 발전기 효율을 향상시켜 통신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사랑안고 태어난 샘물관리법(『민주조선』, 2023.4.12)

- 룡악산지구에 위치한 룡악산샘물공장은 주체 96(2007)년에 설립
- 이를 바탕으로 샘물관리법을 채택하여 샘물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에서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규제를 마련하였음
- 샘물관리법은 샘물의 생산과 공급에서 위생안전기준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새끼물고기방류를 대대적으로(『로동신문』, 2023.4.25)

-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사업임
- 새끼물고기방류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 강과 바다, 호수와 저수지의 오염을 방지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어족을 배양하고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함
- 각 지역과 양어단위는 새끼물고기서식정형을 조사하고 적절한 서식조건을 마련해야 함

■ 주민들의 생활용수보장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4.28)

- 함경북도와 청진시의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
- 일군들은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용수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군들은 집수장 개건보수, 능력 확장, 양수설비 정비보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생활용수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음

- 일군들은 생활용수보장을 맡은 단위들과 협의회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며, 대중에게 당의 가치와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도와 시의 일군들은 생활용수보장 능력이 확장된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당면하여 가물극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로동신문』, 2023.4.29)

- 김정은 위원장은 가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올곡식농사에서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개체계를 완비하고 관개시설을 보강하며, 양수설비와 물확보 대책을 강화해야 함
- 당정책옹위전의 관점으로 포전과 관개건설을 가속화하고 구조물건설을 완공하여 물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물주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올곡식의 가물 피해를 방지해야 함

■ 수질개선에 효과적인 생태피우개(『로동신문』, 2023.4.29)

- 강과 호수의 부영양화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오염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며 생태회복이 어려우며, 과학연구사업을 통해 강과 호수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 생태피우개기술은 피우개에 식물을 심어 물을 정화하는 기술로, 효과적인 오염 제거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생태피우개기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과 연구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우개를 활용하여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관개수로 보수확장공사 결속(『로동신문』, 2023.5.9)

- 동래강저수지에서 홍건도간석지까지의 관개수로 보수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전진을 이룩하였음
- 도에서는 홍건도간석지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도는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공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여 공사를 완수하였음
- 관개수로 보수확장을 통해 홍건도간석지의 포전들에 생명수가 흘러들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새 온천을 찾았다.(『조선신보』, 2023.5.17)

- 백두산밀영고향집 근처에서 발견된 온천은 온도가 44℃ 이상이며 하루에 수백㎥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음
- 이 온천은 수소탄산나트륨천으로, 신경계통, 소화기계통, 고혈압,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온천은 약수로도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짐
- 백두산밀영지구의 새로운 온천 개발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는 답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온천과 약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또한, 이 온천의 발견은 백두산지구용암지대의 지질구성과 지질역사에 대한 귀중한 탐사 자료를 제공하여 학계에서의 연구를 도움

■ 생활용수보장을 위한 대상공사 강력히 추진(『로동신문』, 2023.5.26)

- 남포시의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일군들은 사업을 강력히 조직하고 추진하고 있음

- 일군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생활용수 보장을 위한 대상공사에서 많은 몫이 수행되었음
- 현재는 상수도관늘이기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끝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 심화(『로동신문』, 2023.5.30)

-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과 주민지구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정화를 강조하여 강하천과 호수, 바다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
- 평양건축대학은 수질개선사업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효과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화방법을 확대도입하고 있음
- 정화방법에는 색감 제거를 위한 전기적 방법과 고활성발효균을 활용한 오수침전물의 무해화, 무독화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결과들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수질개선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올곡식을 익는족족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자(『로동신문』, 2023.6.11)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앞그루밀과 보리 수확시기가 왔으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노력으로 곡식 수확 작업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
- 과학적인 적기선정과 지역별 수확일정 계획을 통해 수확 일정을 빈틈없이 세우고, 낱알의 여물기과정과 기상조건을 주시하여 농사지휘를 책임있게 수행하며 과학성을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에서는 탈곡기와 탈곡장마당의 수리정비와 포장, 낱알건조장 보수상태 등을 다시금 체크하여 작은 허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올해의 알곡식 생산을 위해 함께 달려가며 이삭을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당에서 중요시하는 올곡식농사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 올해 올곡식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양양된 기세(『로동신문』, 2023.6.15)

- 올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목표달성을 위해 농사를 잘 지어 근본적인 변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 올해 올곡식농사에 많은 품을 들이며 앞그루밀과 보리씨뿌리기 면적을 확보하고, 관개시설을 활용하여 가물 극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농업위원회 일군들은 밀, 보리수확을 알곡목표달성의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적기선정과 작전을 세밀히 계획하고 수확적기를 정하고 준비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밀, 보리수확을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와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음

■ 강냉이재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전국콩재배기술강습 진행(『로동신문』, 2023.6.22)

- 강냉이재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토론회에서 농업 전문가들은 고온과 다습환경에서 강냉이 재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함
- 전국콩재배기술강습에서는 콩 농사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높은 수확고를 위한 농업기술적 전략과 과학적 비료주기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강의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확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공유됨
- 연구토론회와 강습에서 제시된 가치있는 논문과 방안은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강냉이재배와 콩재배 분야에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수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반영하여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을 강조하며, 알곡 생산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였음
-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 기술의 현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음

■ 올해 농사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 전국적으로 앞그루밀, 보리수확 77%선, 국가알곡수매를 결속한 단위들이 늘어난다(『로동신문』, 2023.6.24)

- 올해의 작황은 앞그루밀과 보리수확이 계속되거나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작물 수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위원회와 도,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은 밀과 보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박력있는 작전과 지휘를 펼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밀과 보리 수확이 진행 중이며, 과학적인 작전을 통해 농사 수확 시기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수확을 이끌어내고 있고, 황해북도에서는 밀과 보리 수확 예상고와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기술 지도가 이뤄지고 있음
- 농기계의 최대 활용과 지원노력의 조직화를 통해 밀과 보리 수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평양시와 평안북도에서도 농사 작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올곡식농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한 올과일 공급(『로동신문』, 2023.7.9)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된 과일들이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 탁아소,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에 공급되었음
-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발전한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는 농장 내의 과수밭에서 수확

- 된 풍성한 작황이 절세위인들의 노력과 과학기술적 비배관리 덕분에 이루어졌음
- 과일수송차에 실려 도착한 과일들이 원산시민들에게 공급되어 시민들은 과일수송대를 기쁨과 감사로 반겼음
 - 해안광장에 도착한 과일수송차들은 과일 향기를 풍기며 시민들의 반갑고 따뜻한 맛이를 받았음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의 과일 생산과 공급은 사회주의 농업의 성과로서 절세위인들의 애정과 노력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로동신문』, 2023.7.12)

- 현시기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과수정책 강조로 과일 품질 향상이 인민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중요한 목표임을 나타내고 있음
-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수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수품종 과일나무의 식재와 관리,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과수밭 관리, 나뭇가지 자르기, 병해충 예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과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과수업의 과학화와 사회주의경쟁을 강조하여, 좋은 경험을 교환하고 혁신을 통해 과일의 품질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함

■ 각급 직맹조직들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 활발히 전개(『로동신문』, 2023.7.13)

-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 직맹조직들이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맹조직들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을 통해 사상을 실천하며 농촌 혁명을 실현하고 있음

- 각 지역 직맹위원회들은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을 조직하고,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지원을 통해 수천대의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작업을 원활히 진행함
- 직총중앙위원회는 기술 전파와 지원을 위해 일군 파견 및 조직정치사업을 통해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음
- 각 지역의 직맹위원회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을 통해 농기계수리지원조활동을 활발히 벌여 모내기와 봄철농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곡식다수확단위 지난해보다 증대(『로동신문』, 2023.7.14)

- 황해남도에서 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알곡식 다수확을 통한 농업생산 촉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은 황해남도의 알곡생산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보급과 노력, 영농물자 보강 등을 지원하며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헌신을 격려하고 있음
- 작업반들은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다수확열의를 고조시키고, 과학농사와 효율적인 재배방법을 채택하여 밀보리 작황을 증진시켰음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배치와 적지선정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였음
- 주체농법을 따르고 다수확을 추구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올곡식농사에서 높은 밀보리 정보당 수확고를 달성함

■ 상하수도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준비사업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8.5)

- 평양시에서 상하수도부문의 과학기술 성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사 개최
- 이 행사는 생활용수생산과 오수정화 성과를 교류하고 경제적인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며 상하수도부문의 과학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근로자,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 등이 가치 있는 발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음
- 행사는 과학기술성과 발표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생산, 공급, 오수정화와 관련된 과학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회도 포함하고 있음
- 행사에는 시 안의 구역, 군, 중앙기관 일군들과 기술자, 근로자들이 지명에 따라 참가할 수 있어 참가자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용수보장단위들을 적극 지원(『로동신문』, 2023.8.20)

- 평양시에서 수도시민들의 생활용수보장을 위해 다양한 단위가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애국의 마음을 실천활동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업의 목적을 강조함
- 성, 중앙기관 직맹조직들은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구역상하수도관리소를 도와주고 있으며 직맹원들은 애국열의를 불러일으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직맹일군들은 베어링과 그리스를 비롯한 펌프장 관련 물자를 마련하여 지원하였고, 수산성의 직맹일군들도 건설자재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을 돕고 있음
- 많은 성, 중앙기관 직맹조직들이 평양시의 여러 생활용수보장단위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치수사업정형을 따져보고 빈구석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자(『로동신문』, 2023.8.25)

- 폭우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치수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물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국가와 인민의 생존과 국가발전에 중요

하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함

- 치수사업의 성공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태도 개선에 달려 있으며, 애국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치수사업의 성과를 위해 효율적인 계획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계와 물질기술적 수단을 강화해야 함
- 각 지역과 단위에서 치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해야 함

■ 상하수도부문의 전진발전을 떠미는 의의깊은 계기(『로동신문』, 2023.9.7)

-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평양시상하수도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2023”은 다양한 구역, 대학, 과학연구단위, 공장, 기업소 등의 참가로 진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에서 도시경영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발표회에서는 생활용수생산과 전동기보호를 위한 기술혁신 등 다양한 기술적 제안들이 제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약 1만여명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여 경험 교류와 과학연구 성과의 공유를 진행하였음

■ 수력터빈날개설계의 과학화실현에 기여(『로동신문』, 2023.9.16)

-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과학자들은 혼류터빈날개의 핵심인 속도모멘트분포곡선을 연구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개발함
- 이를 통해 수력터빈날개의 과학적 설계를 가능케 하여 새로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함
- 김철남 교원과 연구팀은 수년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력터빈날개 설계를 위해 노력하며 날개부하곡선을 활용한 과학적 설계방법을 개발함
- 현장기술집단과 협력하여 수력발전소에 적합한 혼류터빈날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성공함

- 이로써 새로운 혼류터빈은 시운전을 통해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번 연구로 나라의 전력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수상함

■ 치수사업의 의미를 깊이 새기자(『로동신문』, 2023.9.25)

- 김정은 위원장은 물 자원의 풍부함을 고려하여 치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언급
- 치수사업은 물을 다스려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지속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으로, 물환경오염과 물생태계파괴 등 모든 물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치수사업은 물환경오염, 물생태계파괴를 막고 물자원을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개발할 뿐만 아니라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함
- 치수사업은 농업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농경지가 침수 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도 치수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함

■ 회양군민발전소 언제쌓기공사 결속단계(『로동신문』, 2023.9.29)

- 회양군민발전소의 언제쌓기공사가 결속단계에 들어섰음
-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강원도는 회양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을 벌이면서 공정간 맞물림을 면밀하게 하고 있음
- 현장지휘일군들은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며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이고 있으며, 중요한 방도 중 하나로 중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음

-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회양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계속 혁신하고 전진하고 있음

■ 평북의 드넓은 간석지벌에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로동신문』, 2023.10.3)

- 홍건도간석지벌에서 가을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포인트는 대자연 개조구상, 건설방향과 방도, 그리고 땅 활용을 통한 토지정리임
- 홍건도간석지는 토지정리와 내부망공사, 동래강저수지건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 건설을 위한 방대한 동래강저수지건설과 내부망공사를 군민협동작전으로 1년 안에 완공하며,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우량품종 도입 및 농사방법 혁신이 이루어졌음
- 경지면적이 확장되어 가을농사가 풍년을 맞이하고, 올해에는 우량품종 도입과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통해 풍성한 작황을 이룩하고 있음

■ 정비보강사업 강력히 추진(『로동신문』, 2023.10.16)

- 당의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따르며, 발전설비 및 구조물보수를 진행한 일군들과 전력 생산자들은 희천발전소물길굴대보수, 전력생산계획 수행, 발전기대보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수력발전부문의 중요한 발전소에서의 협동작전, 희천발전소물길굴대보수, 발전기대보수 및 부속품 제작, 새형의 수차도 설치와 같은 기술적인 창안도입이 일어났음
- 수력발전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통한 질적인 전력생산계획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천9호발전소건설을 다그친다(『로동신문』, 2023.10.19)

- 시에서는 북천9호발전소 물길굴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정은위원장의 중소

형수력발전소 건설 지시에 따라 물길굴확장공사를 힘차게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 지시를 받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북천9호발전소 물길굴확장공사를 힘차게 추진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마치기 위한 기계화비중 높이기, 공정간맞물림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 시에서는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물길굴확장공사를 통해 천백여m 길이의 물길과 수천kW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를 건설하고, 건설자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적인 공사를 이루어냈음
- 김정은위원장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 지시에 따라 북천9호발전소 물길굴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음

■ 생활용수보장을 위한 대상공사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10.25)

- 평안남도의 도안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도소재지와 평안남도 덕천시, 평안남도 개천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루고 있음
- 도에서는 도소재지 주민들의 생활용수 보장을 중요시하며, 물원천이 풍부한 조건을 가진 도에서도 방대한 작업량에도 불구하고 물길굴뚝기와 자연흐름식 상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절약하고 있음
- 시와 군에서는 상수도망공사와 뽐프장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덕천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료전기재와 자재보장을 앞세워 생활용수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앞선 지역과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일군들의 분발력을 고조시켜 시, 군들에서 올해 내세운 생활용수 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양수설비수리정비를 질적으로(『로동신문』, 2023.11.11)

- 황해남도 안악군관개관리소에서는 다음해 관개용수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군들은 실태료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종업원들은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신작작의 모범으로 나서며, 필요한 자재인 용접 봉과 부속품 등을 원활히 대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종업원들은 크고 작은 설비들의 수리정비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면서 농사 안전성을 높이고 군안의 포전들에 관개용수를 더 잘 보내줄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군안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관개용수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수도시민들의 생활조건보장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11.11)

- 1월초에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생활용수보장, 살림집보수, 승강기정상가동, 땀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여 생활용수보장을 위한 공사를 가속화하고 대중을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동원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시당위원회는 구역, 군당위원회들을 발동하여 힘있는 사상공세작전을 전개하고, 수원능력확장을 위한 공사장에 구호와 표어, 경쟁도표, 속보판을 전개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끌어올리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음
- 평양시당위원회는 대동강구역에서 시당일군들을 동원하여 돌격대를 조직하고, 물탱크건설과 보수, 뽕프장현대화 등의 물탱크 관련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역을 본보기로 만들었음
- 성과를 창조하는데서는 시당일군들이 선두에 서서 대동강구역과 만경대구역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며, 당일군들과 지역 당조직들은 높은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강군민발전소, 세포군민발전소건설 기본적으로 결속(『로동신문』, 2023.11.19)

- 도당위원회는 평강, 세포군민발전소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혁명적인 발전소건설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며, 료전기재와 건설장비의 집중 사업 등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건설과정에서의 편향을 분석하고 군민발전소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군민발전소건설을 담당한 일군들은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중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기능공력량을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며, 자체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려 물길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보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음
- 강원도 평강군민발전소와 세포군민발전소 언제건설에서는 토량 처리와 무늬이언제콘크리트치기 등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를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과적으로 마쳤으며, 물길굴공사, 발전기실건축공사, 압력철관로설치공사 등도 힘있게 진척되었음
- 군민발전소건설자들은 지혜를 발동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토작업속도를 높이며 발전설비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며, 정상운영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

■ 수풍발전소에 보내줄 대형수차날개생산 완수(『로동신문』, 2023.11.20)

- 전력공업성의 지도하에 공장 일군들은 효율적인 발전설비로의 교체와 송전계통의 도중손실 감소를 통해 새로운 전력예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수차날개를 과학화된 물관리와 효과적인 전력생산을 통해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생산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장 일군들은 작전과 지휘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작업반별 경쟁을 촉진하는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합금철 및 설비 부속품 확보를 강조하여 대형수차날개의 생산을 지원하였음
- 공장의 기술자들은 대형수차날개 생산을 위한 기술 준비를 선행하고 새로운 주조설비를 제작·설치하며, 진공뿔프의 성능 개선을 통한 기술 개조를 성과적으로 이루어내었음

- 노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통해 새로운 주조방법 도입 및 생산물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안을 창안하고, 대형수차날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포검사 및 외곽치수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풍발전소로의 보내기에 실속있게 준비하고 있음

8. 식량

■ 영농지식수준제고와 다수확열의(『로동신문』, 2022.12.16)

- 농업근로자들은 농업과학기술과 선진 영농방법을 알고 적용하여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풍부한 영농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을 통해 다수확을 내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에 의존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며, 분발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당결정관철에 떨어져나선 도당위원회들의 소식_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_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23.1.17)

- 사회주의애국운동과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하여 국가부흥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사정형 분석을 통해 올해 알곡생산을 늘리고 다수확운동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 도당위원회에서는 다수확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다수확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지도력 강화와 청년동맹조직, 직맹과 여맹조직들의 지원이 필요함

■ 강심을 먹고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간다_올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청단군에서(『로동신문』, 2023.1.28)

- 김정은 위원장이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을 군앞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함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청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운동을 위해 매일매일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을 만한 준비를 하며 농사차비를 철저히 다그치고 있음
- 군적으로 기름생산작업장에서는 수만톤의 기름을 포전에 실어내고, 흙보산비료, 발효퇴비, 대용광물질비료생산과 농기계수리정비, 물길가시기 등의 과업수행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청년들과 여맹원들도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힘차게 나서고,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직맹과 여맹조직들도 농업근로자들을 지원하여 다수확운동을 더욱 활기차게 벌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황해남도의 농업도민을 중시하며 농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군 복합 미생물비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용광물질비료 생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것은 중요한 정책적요구(『로동신문』, 2023.1.30)

- 공예작물 생산은 인민생활 개선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예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종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름작물 및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함
- 비배관리와 약초, 인삼 재배에 필요한 자원 보장이 필요하며, 은정차재배원의 차나무 재배면적을 늘려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와 투쟁력이 공예작물 생산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전야에 차넘치는 다수확열의(『로동신문』, 2023.2.5)

- 명간군 립석농장 일군들은 기름 생산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장의 기계화초병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기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학습을 통해 농사차비의 계획이 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농장원들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승벽심과 열망을 갖고 있음
- 농장에서는 경쟁적인 분조들 사이에서 뚜렷한 농사차비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

■ 향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로동신문』, 2023.2.6)

- 향료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향료작물재배면적을 늘리고 수매사업을 조직하여 생산을 장려해야 함
- 향료작물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부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야 함
- 종자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확립하여 향료작물 생산을 안전하고 품질 좋게 유지해야 함
- 천연향료와 합성향료 생산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향료조합과 생물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일떠선 련포온실농장에서_첫물남새 수확, 함흥시민들에게 공급(『로동신문』, 2023.2.18)

-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련포온실농장에서 온실남새를 수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대중중심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농장에서 실현되었음
- 온실농장은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되었음
- 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인 영농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높은 생산성을 보장했음

■ 공예작물 재배준비를 실속있게(『로동신문』, 2023.2.20)

- 연탄군 읍농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공예작물 재배준비에 전념하고 있음

- 농장은 작물별 재배면적을 늘리고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예작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작업반들은 기술적 요구를 알려주며 작물별 특성에 맞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적지적작의 원칙을 따라 작물배치를 잘하고 지력을 개선하여 수확고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발효퇴비와 흙보산비료생산을 강화하며 토지개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열성만으로는 다수확을 낼수 없다(『로동신문』, 2023.2.20)

- 열성만으로는 다수확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 농촌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반영되었음
- 초급일군들은 과학농사를 위한 실무강습을 통해 작업반 및 분조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해의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음
- 과학농사에 사활을 걸고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과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확으로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기여하였으나, 일부 농사자들은 지식수준의 차이로 인해 목표 생산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다수확을 위해서 농업근로자들의 과학농사 지식수준이 중요하며, 알곡생산에 참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자주 방문하여 기술적 요구대로 작물재배를 수행하고 토양 특성에 맞게 지력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과학기술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식과 기술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우리 농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되어야 함

■ 밀다수확의 래일을 앞당기는 사람들(『로동신문』, 2023.2.24)

- 평양농업대학 과장 박사 부교수 최원철 동무는 과학기술증서를 받으며 감자재배기술을 개발 도입한 성과를 얻었음

- 최원철 동무와 과학자들은 밀재배기술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밀소출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3년간의 노력으로 정보당 5톤의 밀 재배기술을 개발했음
- 개발한 재배기술을 농장에 도입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도입을 확대시켰음
- 최원철 동무와 과학자들은 정보당 8톤의 밀 생산을 목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는 농사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수확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포전마다에서 다수확을 낼 목표밑에(『로동신문』, 2023.3.10)

- 철산군 련늪농장에서는 봄갈이를 질적으로 끝낼 목표를 세우고 작업조직과 지휘를 철저히 하며 포전갈이에 힘을 쏟고 있음
- 청단군 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는 대용광물질비료생산을 목표로 분발하여 생산량을 높였으며, 자기 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일손을 놀리지 않고 실현했음
- 형제산구역 신미남새농장에서는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술 학습과제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농장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농사에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했음
- 농장 일군들은 봄갈이와 대용광물질비료생산에 힘을 쏟고, 복합미생물비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분발하였음
- 형제산구역 신미남새농장에서는 과학농법을 도입하고 알곡생산계획을 열심히 수행하는 영농작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음

■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끝는다_정보당 발벼수확고를 높일 목표밑에_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23.3.15)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며 올해 목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도안의 농장들에서는 발벼농사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을 향해 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힘을 불려일으키고 있음
- 도에서는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의 발벼재배면적을 늘리고 품종배치와 농약준비 등 여러 대책을 세우며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사방법을 개선하여 알곡소출을 높인 농장들의 경험을 확대하고 일반화하여 모든 농장들에 적용하고 경쟁심을 불려일으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정책에 헌신하며 올해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과학자들(『로동신문』, 2023.3.16)

- 황해북도 농업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농장들을 방문하여 기술강습과 보여주기를 통해 다수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농업지도일군과 농장원들은 과학농사를 틀어쥐고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 열의와 신심으로 노력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과학자들의 지도를 받아 밀소출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밀농사에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음
- 곡산군에서도 과학농사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초급일군들 역시 과학기술을 통해 다수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업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모든 영농공정에 대한 지도를 책임지고 제공하고 있으며, 농장들에서는 이러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킬것을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_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23.3.31)

- 전국 농업근로자들에게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경쟁열풍을 호소하는 모임이 진행되었음

- 대중운동을 통해 토지 개량, 토양 비옥도 향상, 과학적인 작업법 도입 등을 진행하며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알곡고지 달성과 농업혁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호소가 전국에 전달되었음

■ 농업생산의 근본적인 변혁을 담보하는 관건적인 문제(『로동신문』, 2023.4.5)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농업생산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전망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전선이 사회주의건설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농업생산의 중요성과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임
- 농촌의 기층당조직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농업생산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는 핵심 과제임
- 리당위원회는 리안의 사업을 당적으로 책임지며 농촌당세포들을 직접 지도하는 공화당의 중요한 기층조직임
- 농촌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시키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밀, 보리농사에 필요한 식물성장조절제를 농업부문에 지원(『로동신문』, 2023.4.11)

-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앞그루밀과 보리농사에 필요한 식물성장조절제를 농업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 화학부의 과학자들은 《증산2》호를 개발하여 밀과 보리의 생육을 향상시키고 농사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음

- 《증산2》호는 앞그루밀과 보리의 생육기를 앞당기고 저온피해를 최소화하며 정보당생산량을 늘리고 이모작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능이 확인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애국적인 활동은 올해의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시키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농촌에 새 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주자(『로동신문』, 2023.4.30)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의 공업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강조하고 농기계 개발과 생산을 통해 농촌진흥을 추진하고 식량생산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근로자들의 알곡생산에 기여해야 함
- 농기계 및 부속품의 질과 생산량을 보장하기 위해 농기계공장의 개혁과 개진현대화, 과학자와 기술자의 참여가 필요함
- 농기계 및 부속품의 생산량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농기계연구소와 농기계공장들의 개진현대화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함

■ 모내기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로동신문』, 2023.5.5)

-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강조함
- 모내기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농공정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준비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해야 하며, 정부와 중앙기관은 농촌에 지원노력과 영농자재, 물자를 보장하여 모내기준비에 도움을 줘야 함
- 농촌의 성공적인 모내기준비를 위해 모두가 함께 분발하여 노력해야 함

■ 올해의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다(『로동신문』, 2023.5.11)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강조함
- 평원군 원화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으며, 농장이 발전할 방향과 방법을 밝히고 농사차비부터 시작하여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와 인비료 등을 생산하고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송조직과 농기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음
- 모내기 준비에 기초하여 토지 개발과 작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농사 일정을 앞당기고 생산량을 늘리는 노력을 벌이고 있음
- 농장원들은 모내기를 위해 모내는 기계를 운전하고 작업에 힘써 조속히 해결할 열의와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중앙과 현지 일군들의 지원으로 모내기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고 있음

■ 강원도에서 린비료생산을 다그친다(『로동신문』, 2023.5.12)

- 강원도에서는 알곡생산목표달성을 위해 인비료생산을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인비료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인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에 참여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 평강린회석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인정광생산을 적극 내밀며 생산 조직을 강화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인비료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수송조직과 생산 투쟁을 강화하고 양양된 열의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농업발전을 견인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 국가과학원에서(『민주조선』, 2023.5.28)

- 농업과학기술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과학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농업생산 안정화 및 혁신을 위한 기술적 문제해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알곡재배 방법 개발과 지리정보기술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천연생물활성제 생산 시설 확장과 식물영양제 생산을 통해 농촌지역에 과학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해 비료 생산 설비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기계공장의 현대화 및 관개구조물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당의 의지에 부응하여 농업생산의 현대성과 선진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올곡식을 익는족족 제때에 말끔히 거두어들이자(『로동신문』, 2023.6.11)

- 앞그루밀과 보리 수확시기가 왔으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노력으로 곡식 수확 작업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
- 과학적인 적기선정과 지역별 수확일정 계획을 통해 수확 일정을 빈틈없이 세우고, 낱알의 여물기과정과 기상조건을 주시하여 농사지휘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과학성을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에서는 탈곡기와 탈곡장마당의 수리정비와 포장, 낱알건조장 보수상태 등을 다시금 체크하여 작은 허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올해의 알곡식 생산을 위해 함께 달려가며 이삭을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당에서 중요시하는 올곡식농사

투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 올해 올곡식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양양된 기세(『로동신문』, 2023.6.15)

- 올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목표달성을 위해 농사를 잘 지어 근본적인 변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올해 올곡식농사에 많은 품을 들이며 앞그루밀과 보리씨뿌리기 면적을 확보하고, 관개시설을 활용하여 가물 극복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농업위원회 일군들은 밀, 보리수확을 알곡목표달성의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적기선정과 작전을 세밀히 계획하고 수확적기를 정하고 준비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밀, 보리수확을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와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음

■ 강냉이재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전국콩재배기술강습 진행(『로동신문』, 2023.6.22)

- 강냉이재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토론회에서 농업 전문가들은 고온과 다습환경에서 강냉이 재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함
- 전국콩재배기술강습에서는 콩 농사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높은 수확고를 위한 농업기술적 전략과 과학적 비료주기 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강의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확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공유됨
- 연구토론회와 강습에서 제시된 가치있는 논문과 방안들은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강냉이재배와 콩재배 분야에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수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반영하여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을 강조하며, 알곡 생산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였음
-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 기술의 현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음

■ 올해 농사에서 근본적변혁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 전국적으로 앞그루밀, 보리수확 77%계선, 국가알곡수매를 결속한 단위들이 늘어난다(『로동신문』, 2023.6.24)

- 올해의 작황은 앞그루밀과 보리수확이 계속되거나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작물 수확이 진행되고 있고, 농업위원회와 도,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은 밀과 보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박력있는 작전과 지휘를 펼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밀과 보리 수확이 진행 중이며, 과학적인 영농을 통해 농사 수확 시기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수확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황해북도에서는 밀과 보리 수확 예상고와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기술 지도가 이뤄지고 있음
- 농기계의 최대 활용과 지원노력의 조직화를 통해 밀과 보리 수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평양시와 평안북도에서도 농사 작황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올곡식농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한 올과일 공급(『로동신문』, 2023.7.9)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된 과일들이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 탁아소,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에 공급되었음
-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발전한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는 농장 내의 과수밭에서 수확된 풍성한 작황이 절세위인들의 노력과 과학기술적 비배관리 덕분에 이루어졌음

- 과일수송차에 실려 도착한 과일들이 원산시민들에게 공급되어 시민들은 과일수송대를 기쁨과 감사로 반겼음
- 해안광장에 도착한 과일수송차들은 과일 향기를 풍기며 시민들의 반갑고 따뜻한 맛을 받았음
-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의 과일 생산과 공급은 사회주의 농업의 성과로서 절세위인들의 애정과 노력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앞그루밀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본 비결(『로동신문』, 2023.8.4)

- 김정은 위원장은 농장 일군들에게 자기 부문과 단위의 일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혁명적인 사업 수행을 요구했음
- 대중의 정신력을 모으고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혁신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장원들의 믿음과 헌신이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함
- 농장 일군들은 과학적인 작전과 기술 적용을 통해 밀농사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적절한 품종 선택, 비료 사용, 작물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음
- 다양한 농업 작업과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장 일군들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작업반들이 함께 전진하여 성과를 창출하려고 함
- 밀농사 생산량을 늘리고, 작업 일정을 달성하면서 농장 일군들은 지난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밀농사 경험은 노력, 과학적 접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알곡여물기 촉진제 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2023.8.11)

- 나노공학분원에서 개발한 알곡여물기촉진제는 작물 성장과 열매 익음을 촉진시켜 밀과 보리의 여물은 시기를 당기고 수확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임

- 당조직의 지도 아래 일군들, 과학자, 종업원들이 협력하여 다량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음
-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올해의 농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곡여물기축진제 생산과 포장 작업에 참여했음
- 보름 동안에 수백 톤의 알곡여물기축진제 생산과 포장 작업을 완료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으며, 농업부문에 기여했음
- 현재 나노공학분원에서는 올해 벼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알곡여물기축진제 생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백두대지에서 밀, 보리수확 한창(『로동신문』, 2023.8.19)

- 도에서는 8월초부터 밀과 보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수천톤의 밀과 보리를 수확하였으며, 이는 농업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 농업부문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도당위원회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농장별과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을 지원
- 도에서는 밀과 보리수확을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과 밀과 보리의 수확시기를 정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고취시키고 있음
- 도안의 농기계작업소들은 트랙터와 종합수확기들의 부속품 보장에 힘을 넣어 밀과 보리 수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른 지역의 농장들에서도 주도세밀한 작전을 펼치며 밀과 보리 수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농작물비배관리에 품을 들여(『로동신문』, 2023.8.24)

- 열두삼천리벌의 농업근로자들은 알곡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논벼의 영양관리와 농작물보호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폭우와 큰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 잘 짓는 것이 인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농업지도기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논벼의 영양관리와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기계 작업과 포전 관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며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조절하고 있음
- 논농사에서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우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침수 가능한 논들과 산간 논들에 대한 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병충해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약 선택과 살충 효과에 주목하고, 농업근로자들은 책임감 있게 병충해막이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배이상의 강냉이가을걷이실적 기록(『로동신문』, 2023.9.2)

- 당의 제8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의 언제썰기공사가 진행 중이며, 김정은 동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강조하였음
- 농업부문에서 강냉이가을걷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좋은 수확을 달성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근로자들에게 생산혁신을 촉구하였음
- 도내 농촌 지역에서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지역마다 각기 다른 품종과 작업조건에 맞게 강냉이수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음
- 농촌 지역에서 노력과 운반수단을 활용하여 강냉이가을걷이를 마무리하며, 농업근로자들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음

■ 단나무의 덕을 본다(『로동신문』, 2023.9.3)

- 연탄군은 열매수확이 한창이며, 단나무림에서는 부지런한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열매를 따는 모습이 즐겁게 묘사되었음

- 단나무는 3년생부터 열매를 맺고 최대 20kg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는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혈관계통의 병치료에 널리 사용된다고 설명되었음
- 군에서는 단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꾸어 연탄군을 단나무열매로 흥하는 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노력과 헌신으로 행복의 열매가 무르익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황주긴등별이 강냉이수확으로 들끓는다(『로동신문』, 2023.9.13)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 잘 짓는 것이 인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음
- 군일군,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탈기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여 12일 현재 강냉이 가을걷이 실적이 65%까지 상승함
- 청년들은 농촌을 돕기 위해 뜨거운 날씨에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가을걷이를 진행하며 농사를 잘 지으려는 의지를 나타냈음
- 군은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강냉이 가을걷이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농장에서 강냉이 가을걷이의 실적이 상승하며 더욱 열정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매일 수천t의 감자 수확, 가공기지들 만가동(『로동신문』, 2023.9.16)

- 량강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백두대지에서 수천톤의 감자가 수확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도에서는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동원하여 감자수확을 마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농장들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감자수확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천톤의 감자가 가공기지로 보내지고 있음
- 감자가공기지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설비의 동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양의 감자를 가공처리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매일 수만정보의 강냉이가을 진행(『로동신문』, 2023.9.16)

-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전국적으로 수만 톤의 강냉이가을걷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농장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강냉이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음. 농장별 실적을 통보해주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을 각성시키고 있음
- 운반수단을 활용하여 수확물을 실어들이고, 트랙터 운전수들은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농업부문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은 애국적 헌신을 통해 당의 지시에 따라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냉이가을걷이 련이어 결속(『로동신문』, 2023.9.17)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며 강냉이가을걷이에 참여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음

- 도에서는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포전별수확시기를 정확히 정하는데 주력하여 강냉이가을걷이를 준비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였음
- 다양한 지역에서 농장들 간의 경쟁을 고조시키고 강냉이가을걷이와 관련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통해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음

■ 지난해보다 강냉이수확을 보름 앞당겨 결속(『로동신문』, 2023.9.18)

- 평산군에서는 알곡목표달성을 위한 열정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군일군과 근로자들은 지난 16일까지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를 얻었음
- 농사 생산을 강조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군 안의 모든 운전기재가 투쟁에 참여하며, 농업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장 및 기업소 종업원, 가두여맹원 등 모두가 농사 작업에 힘을 모았음
- 평산군은 농사 생산을 통해 인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름 앞당겨 강냉이가을걷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

■ 재령벌의 농촌들에서 벼가을걷이성과 날로 확대(『로동신문』, 2023.9.23)

-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짓고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임
-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른 힘찬 투쟁으로 농업 부문에서 뛰어난 작황을 달성하고 있음
- 농사 작업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농기계 동원과 생산 계획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
- 논, 농장, 작업반들에서 가을걷이계획을 세우고 현장지도를 강화하며 혁신창조와 높은 책임성을 중시하고 있음

- 농촌지원자들이 농사 작업에 책임을 가지며 노력하고 드넓은 전야에서 헌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위대한 헌신의 자욱이 어린 포전들에서 벼가을 한창(『로동신문』, 2023.9.24)

- 태풍 6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피해를 극복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알곡을 거두어둘 것으로 예견됨
-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당과 정부 간부들이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인민군 군인들은 피해를 속히 복구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며 강하천제방복구를 성과적으로 완료시킴
- 김정은 위원장은 농장에서 알곡 수확과 농약살포사업을 지도하며 농업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농장 일군들은 농업전선에서 논벼 천알당 무게를 늘리기 위한 힘들고 열정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와 헌신에 감사하며 풍요한 가을을 기다리며 농작물을 보호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농장에서의 벼가을걷이와 탈곡 실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벼가을걷이의 노래소리는 풍년분배장의 흐뭇한 광경을 연산케 함

■ 흐뭇한 작황이 펼쳐진 전야에 수확의 기쁨 넘친다(『로동신문』, 2023.9.25)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농촌에서 올해 알곡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풍요한 작황을 이루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자원 보장을 강조하고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며 농장의 투쟁을 지도하고 있음
- 군 안의 농촌에서 벼가을걷이가 한창이며, 가을걷이와 탈곡 실적이 높아지고 있고,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군당위원회와 농업경영위원회의 농사 결속과 혁신을 강조하고 농업근로자들의 농사 결속을 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데, 현지에서 벼를 말끔히 거두어들이고 농사결속을 잘하고 있음

■ 강냉이수확을 짧은 기간에 결속(『로동신문』, 2023.9.27)

- 포시 부창농장에서 강냉이 수확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농장일군들은 강냉이를 제때에 거두어들이는데 주력함
- 농장 일군들은 강냉이를 포전에 보전하여 낱알이 허실되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음
- 작업반들 간에 협력과 집단주의가 강조되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뒤떨어진 단위에 윤전기재들을 보내줌으로써 전체 작업에 힘을 실었음
- 농장원들은 식량 생산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벼가을걷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나라의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인의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음

■ 감자산과 금강산(『민주조선』, 2023.9.28)

- 김정은 위원장은 감자산을 찬 사람으로, 감자무지 앞에 미소 지으며 감자산을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에 신경을 쓰며 감자산을 높이 평가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로 인해 감자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따라 명산이 되었으며, 인민들은 이를 환영하며 그의 목표에 동참했음

■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로동신문』, 2023.10.12)

- 노동자와 지원자들의 헌신과 애국충성으로 2023년을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벼가을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황해남도를 중시하며 농사결속 투쟁을 강화하고, 각 도, 시, 군에서는 벼가을 계획을 세우고 농기계 가동을 총동원하여 벼가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요 농촌 지역에서는 벼가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농사의 풍년을 예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벼가을 투쟁에서는 당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 가장 어려운 과제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 기쁨(『로동신문』, 2023.10.16)

-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은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며 1.2t의 알곡을 증수하였음
- 농장은 당의 지원으로 현대적인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보장받아 생산성 향상과 잡도리 강화에 힘쓰고 있음
- 농장에서는 리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과학기술적인 농작물비배관리와 기계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풍년을 이루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의 열풍속에 197%의 생산계획 수행과 집단적혁신을 통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결산분배를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정책과 생활력을 체감하며 애국의 성실한 헌신으로 당에 보답할 결의를 다졌음

■ 지금 농촌에서는 시간이자 쌀이다(『로동신문』, 2023.10.20)

- 현재 농촌에서는 수확의 계절로, 각지 농업부문에서 농사결속과 낱알털기에 힘쓰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낱알털기를 빨리 끝내야 품질을 유지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며, 총비서동지의 지도로 농촌혁명과 생산의 장성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고 있음
- 낱알털기는 당과 국가에 대한 책임이며, 늦출수록 알곡생산량이 감소하게 됨
- 농업부문에서는 혁신과 계획적인 지도, 과학적인 농사지도가 필요하며, 모든 농장과 단위들이 협력하여 균형적이고 성과적인 농사결속을 이루어야 함

■ 분계연선지대의 다수확작업반장(『로동신문』, 2023.10.21)

- 공화국과 인민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자로서, 마옥순동무는 조강농장에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존경받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었음
- 마옥순이 작업반장으로 임명된 2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과 작업반의 발전, 농사 경험과 혁신적인 시도, 작업반의 단합과 성과를 이루어냄
- 작업반에서의 난관과 마옥순의 포전에 대한 노력, 작업반원들과의 단합, 마옥순이 겪은 어려움이 결실을 맺음

■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결실(『로동신문』, 2023.10.22)

- 평안남도 속천군, 황해남도 배천군,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국가알곡수매 결속 소식은 나라의 농사투쟁이 뜻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음
- 군들은 가을걷이, 낱알털기, 수매를 빠르게 결속하기 위해 혁신적인 작전과 국가알곡수매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덩지큰 별방군들의 수매사업에 주목하고 있음
- 평안남도 속천군은 알곡생산계획을 능가하며 국가알곡수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
- 황해남도 배천군에서는 가을밀과 보리씨부리기가 겹치는 상황에서도 농사결속을 위한 과감한 투쟁이 벌어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에서는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며 새로운 첨단영농기술을 채택하여 국가알곡수매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은 조직하기에 달려있다(『로동신문』, 2023.10.29)

-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밀과 보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을 세우고, 가을밀과 보리비배관리에 중점을 두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군의 단위 농업근로자들 중 일부는 가을철에 밀과 보리비배관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군에서는 농장 일군들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고, 밀과 보리농사에서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더 나은 수확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가을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로동신문』, 2023.11.5)

- 농장들은 트랙토르를 포함한 갈이수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선행하고 갈이일정계획 수립, 부속품보장 등을 통해 가을갈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별·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농장의 트랙토르운전수들은 높은 책임성으로 갈이깊이를 정확히 보장하며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이 실속 있게 벌어지면서 농장적인 가을갈이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각 농장에서는 토양조건에 맞게 갈이수단을 배합하고 작업의 질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현장기술지도를 통해 가을갈이의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가을갈이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실적이 오를수록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작업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다수확을 위한 첫걸음(『로동신문』, 2023.11.9)

- 공화국의 현명한 지도 아래, 농업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마치고, 앞으로의 높은 알곡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올해 농사를 결속하고 종래의 관례를 깨면서, 농사차비를 과감히 내밀고, 혁신적인 기풍을 통해 다음 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공화국의 강력한 지원과 지도에 따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다음 해에는 허점이 없도록 종자문제, 지력제고, 물확보 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차비를 세심하게 계획하고, 당의 정책에 따라 힘을 합쳐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강력한 다수확의 목표에 대한 각오를 다졌음

■ 올해 농사에서 창조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자(『로동신문』, 2023.11.12)

- 알곡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에서는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다양한 단위 간에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단위들이 주목받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혁신적인 기풍과 일본새가 도처에서 발휘되어, 다양한 농장들이 올해 농사를 결속하고 이전보다 앞당겨 가을갈이를 추진하며 혁신적인 농업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공화국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기 위해 농업부문 일군들은 창조적인 농기술과 기술을 도입하고,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수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지시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가진 단위들이 다양한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알곡생산의 향상과 장성을 이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올해 농사에서 성과보다 교훈을 먼저 찾고_다음해 알곡증산의 방도를 모색하자(『로동신문』, 2023.11.17)

- 올해의 농업부문에서는 공화국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실천하고, 농사과정을 분석

하여 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종자 문제에 중점을 두어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적기적인 종자 선택, 과학농사 정형, 저수확지농사의 효율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실제로 일부 농장에서는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고 선진영농방법을 활용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음
- 품종배치와 씨뿌리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농사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극복하며 다수확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모든 농업부문 일꾼들이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경험을 적극적으로 일반화하며 공유하고, 저수확지농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통해 나라의 농업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9. 자원순환과 에너지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4개의 군민발전소건설에서 뚜렷한 실적 기록_강원도에서 (『로동신문』, 2022.12.10)

- 강원도에서는 4개의 군민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뚜렷한 실적을 달성하였음
- 도당위원회는 근로자들을 힘있게 동원하여 군민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지원하였음
- 도의 일군들과 발전소건설자들은 열심히 작업하고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진전을 이루었음
- 도에서는 정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리기지에서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은 완공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군민발전소 건설을 통해 도의 경제발전과 농촌살림집 건설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음

■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여 민족사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_송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_수도건설의 새 전기(『민주조선』, 2022.12.11)

- 2022년은 악성 바이러스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건설이 계속되는 격동의 해였음
- 평양시에는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건설되어 수도의 새로운 전기를 창조하고 대건설회로 발전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살림집건설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강조하고 주택구의 현대성과 건축발전을 감시하며 건설역량을 편성하였음
-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건축미학을 구현하고 화성지구는 건설 군으로서의 면모를 살리며 건물과 자연의 융합을 실현하고 있음

- 평양시의 살림집건설은 당과 국가의 약속을 지키고 수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높아가는 자연에너지이용률(『로동신문』, 2022.12.21)

-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석연료 의존국들은 친환경적인 자연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해연안의 국가들은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7,600만 kW, 2040년까지 1억 9,300만 kW, 21세기 중엽까지 2억 6,000만 kW로 증가시킬 계획임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공해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자연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77% 이상을 수력으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태양빛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음
- 대용량 축전지 기술의 개발은 자연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며, 축전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올해 진군의 첫 보폭을 신심있게 내짚었다_새해 보름동안에 수천만kWh의 전력을 증산(『로동신문』, 2023.1.17)

- 각지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음
- 대규모 수력발전소에서는 합리적인 부하분배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전력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화력발전소에서는 설비 조작과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도 노동자들이 증산을 추진하여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순천, 동평양, 청천강 화력발전소에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고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집행 중》 이것을 가장 무거운 중압감을 안고 대해야 한다_최근 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압송전선 이설공사 과정을 놓고(『로동신문』, 2023.1.26)

-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순천시의 고압송전선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공사는 계획적이고 예견성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군들은 자체적으로 자재와 인력을 보장하며, 도시건설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실천과 신념을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결정의 생동성을 실현하고 있음

■ 능률높은 버력적재기를 개발도입(『로동신문』, 2023.1.30)

- 평성석탄공업대학의 과학자들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버력적재기를 개발하였음
- 이 버력적재기는 전기를 이용하며,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적재 시간을 1/4로 단축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년 동안 같은 양의 버력을 처리하는 경우 전력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
- 탄광기계공학부의 교원과 연구자들은 현장에서의 지지를 받아 막장조건에 맞는 버력적재기를 개발하고, 득장탄광기계공장의 노동계급과 협력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였음

■ 한 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로동신문』, 2023.2.4)

- 전기 절약은 개인과 국가에 많은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업임
- 가정 생활에서의 전기 절약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책을 볼 때 탁상등 사용, 불필요한 전등 끄기, 전기 제품 충전 후 플러그를 뽑는 등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전기 절약은 발전소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전력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전기 절약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탄광 노동자들과 전력 생산자들의 노력이 헛되는 경우가 있음

■ 자연에너지를 리용하니 정말 좋다(『로동신문』, 2023.2.7)

-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전력 생산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연에너지 활용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음
-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농촌 지역과 태양광전지판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 전기 절약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전기 절약 방법들이 강조되고 있음
-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은 국가 전력 절약에 기여하며, 수도의 가정들과 농촌 지역에서 절약된 전기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전기 절약과 자연에너지 활용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함

■ 다양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로동신문』, 2023.2.12)

- 당정책에 따라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전력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평양시 중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계통병렬형태양빛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민위원회에서는 제약을 받는 단위들을 발전소에 가입시켜 전력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강남군량정사업소와 평안북도송배전부에서는 버려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생산능력을 조성하며,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에서는 생물질에 의한 가스발동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보장하고 있음

■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_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_전력공업부문에서(『로동신문』, 2023.2.12)

- 당정책에 따라 각지의 발전소들이 전력생산을 힘있게 벌이고 있으며, 올해의 전력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
- 각지 발전소들은 전력증산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발전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도 노동자들이 열정적으로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
-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을 높이고 설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중요 목표달성에서도 전력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공업부문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매일 수백만kWh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되고 있음

■ 생산과 건설이 곧 절약과정으로 되도록(『로동신문』, 2023.2.15)

-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건설을 절약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음
- 자체실정에 맞게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기술혁신과 재자원화기술의 발전을 통해 절약사업을 심화시키고 제품의 생산량과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모든 사람들이 절약예비를 탐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술적 방도에 대해 계속 파고드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 절약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에 들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 공민적 본분을 다해야 함

■ 매 가정에서 전기 한 와트씩만 절약해도(『로동신문』, 2023.3.10)

- 우리는 절약이 필요하고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
- 절약은 작은 한 와트부터 축적되며, 이를 모아 조국의 전진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큰 힘으로 발전함
- 가정과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절약을 실천하고 귀중한 전기를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대기전력이 낭비되는 전기제품들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많은 전기가 낭비됨

■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로동신문』, 2023.3.19)

- 원산청년발전소에서는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설비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전력 생산을 최대로 높이고 있음
- 기술자와 노동자들은 기술혁신운동과 자동화측정장치 도입을 통해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1호발전소는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2호와 3호발전소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여 일정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4호발전소에서는 발전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엽간 및 순회점검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원산청년발전소는 1/4분기에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여 생산활성화와 정비보강을 지속하며 전력 생산에 노력하고 있음

■ 《메탄가스를 리용하니 정말 좋습니다》_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무안목장을 찾아서(『로동신문』, 2023.3.27)

-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종합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메탄가스 이용정책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있음
- 목장에서는 메탄가스 생산장을 운영하고, 가축배설물을 메탄가스로 변환하여 취사용 연료와 축사난방에 활용하고 있음
- 메탄가스를 사용하는 식당과 축사는 종업원들의 생활보장과 가축의 난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메탄가스로 발전된 전력은 경영활동에 활용되고 있음
- 목장에서는 메탄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고, 온실에서는 신선한 작물이 생산되고 있음
- 종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메탄가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증산의 지름길을 열어갈 하나의 지향(『로동신문』, 2023.4.5)

-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부름에 응답하여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청년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전통과 기질을 강조함
- 서창청년탄광의 김혁청년돌격대와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힘차게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 있음
- 벨트콘베아설치를 위해 부속품 가공과 설비 정상가동에서의 부품 생산, 조직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확장굴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음
- 서창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확장굴진계획을 매일 수행하며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음
- 공무부문 노동자들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부속품 가공 작업을 수행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의 석탄증산을 확실히 담보하고 있음

■ 대건설전구들에 활력을 더해주는 거세찬 숨결(『로동신문』, 2023.4.6)

- 노동계급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1/4분기 시멘트생산계획을 기한 내에 완수하고 시멘트생산실적을 갱신하며 강력한 투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계급은 시멘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원료, 연료보장, 설비 안전한 가동 등에 노력하고 있음
- 상원석회석광산, 화천탄광, 일출봉광산, 삼청광산 등 다양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설비 관리, 부속품 보장 등에 주력하며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 노동계급은 석탄 생산의 핵심 부문인 시멘트 생산단위와 소성직장, 공무, 보수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보태며 시멘트 증산과 생산 실적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상원의 노동계급은 대건설전구에 활력을 더해주며 지속적인 시멘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새형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조화입, 계통별시운전에 련이어 진입(『로동신문』, 2023.4.26)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장에는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나타나고 있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다른 단위들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중요한 주체화대상공사를 맡아 당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중앙기관에서는 자재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사색과 탐구를 통해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설치 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새형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공기압축기 시운전은 나라의 철강재 생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업임
- 각 지에서 온 노동자, 기술자들은 열의를 가지고 일하며, 함경북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공사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음

■ 항상 관심하고 앞세워야 할 사업(『로동신문』, 2023.4.27)

- 경제부문 일군들은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건설에 적극 도입하여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과학기술중시기풍은 모든 부문과 단위를 지배하며, 경제의 발전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함
- 일군들은 과학기술성과를 신속하고 광범히 도입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협력과 혁신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
- 과학기술성과의 공유와 교류는 생산과 건설의 최적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방법이며,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
- 증산과 절약의 방도는 기술혁신에 있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과 자립경제 강화를 위해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를 탐구하고 도입해야 함

■ 정비보강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23.4.30)

-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정비보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각 지의 제철소, 제강소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철강재생산토대강화에 주력하고 굳건한 철강 기둥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현존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건설의 1121고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련합기업소 일군들은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중주파유도로, 대형산소 분리기, 산소전로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석탄증산을 위한 기술혁신목표 련이어 달성(『로동신문』, 2023.5.7)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강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석탄 생산에 기여하였음

- 각 탄광연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여 부속품 생산, 정대 생산, 채굴 작업 효율화 등에 집중하였음
- 탄광들은 각종 부속품 생산을 정상화하고, 연소모형구조기술을 활용하여 치차와 부분품을 자체 생산하였음
- 탄광들은 채탄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장치 도입으로 채취율과 천공속도를 높여 석탄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이점을 얻었음
- 탄광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활용하여 적재기를 제작하고 굴진막장의 기계화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킴

■ 12개 고지점령을 견인해갈 드높은 탐구열의(『로동신문』, 2023.5.9)

- 국가과학원에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점령을 위한 과학기술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여러 연구소에서는 천연생물활성제 생산, 알곡여물기촉진제 생산, 농업에 필요한 물보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 전력생산, 철강재 및 화학비료 생산, 세멘트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과학원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카리복합비료생산기술 개발, 메기종자 육종, 국산화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날로 적극화되는 자연에너지개발 리용(『로동신문』, 2023.5.23)

- 세계적으로 태양빛과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적극화되고 있음
-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고, 라오스에서는 수력과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생산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잠비아에서는 전력생산능력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에너지와 수력발전에 투자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나라의 전력생산량의 일부를 자연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김철에 새형의 산소열법용광로(『조선신보』, 2023.5.24)

- 김철에서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 이 공사에서는 순환수펌프장과 급수탑, 공기압축기장, 배풍장의 설비가 완료되었으며 시운전이 진행 중임
-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산소전로증설공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철강재생산 토대를 강화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연합기업소는 설비조립과 계통별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산소전로에 대한 첫 화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천수백능력의 인견펄프생산공정 확립, 시험생산 진행(『로동신문』, 2023.5.28)

- 청진화학+E99섬유공장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공장은 인견펄프생산공정을 성공적으로 일떠세우고,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를 건설할 것을 강조함
- 공장의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과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공정확립을 위한 설비와 장치물을 제작하고 시험생산을 진행하였음

■ 수십개 굴진단위가 상반년계획 완수(『로동신문』, 2023.6.1)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을 위해 굴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굴진단위가 상반년계획을 완수함
- 김정은 위원장은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높이며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에 충분한 석탄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굴진단위들을 지원하여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며 석탄증산을 실현함
- 각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선행시키기 위해 탄부들의 열의와 굴진방법에 대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함
- 다양한 탄광의 굴진단위들이 교대간 협동과 기술교환을 강화하여 상반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본격화되는 수소에너지개발움직임(『로동신문』, 2023.6.9)

-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50년까지 수소 수요는 현재의 10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소 제조 및 저장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수소 공급 및 저장 시설을 구축하며, 수소를 먼 거리로 수송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여러 나라에서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소 내연기관 개발을 통해 연비와 기관 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소에너지의 활용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연구가 더욱 적극화됨

■ 생태환경보호와 에너르기절약(『로동신문』, 2023.6.11)

- 김정은 위원장은 환경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에너지 소비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공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전력전자장치의 효율적 사용, 건설 분야에서의 녹색건축기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효율적인 전기설비 사용과 전원 차단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은 국가 경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애국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역할을 명심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
-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에 동시에 기여하며,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리성일의 메시지로 논문을 마무리함

■ 당, 행정배합의 강화이자 생산장성이고 단위발전이다(『로동신문』, 2023.6.16)

-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높은 생산계획을 수행하며, 대동강호안공사와 소하천옹벽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농사로부터 탄부휴양소개전, 양어장건설, 득장다리건설 등을 통해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석탄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도 효과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며, 단위발전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조직사업을 통해 농사정형을 구축하고 있음
- 행정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에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행정대행을 극복하여 당, 행정배합을 강화하고 단위의 발전을 실현하며, 석탄생산과 사회주의애국운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힘껏 추진하고 성과를 당일군들과 함께 나누며, 이상적인

당, 행정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을 통해 석탄공업부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당위원회의 노력과 지도 아래에서 행정경제사업은 향상되며, 당일군들은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토처리를 앞세워(『로동신문』, 2023.6.28)

- 금야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유망한 채탄장의 박토처리를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 노천탄광의 일군들은 굴착과 박토처리를 강화하여 대형굴착기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 및 기술혁신을 통해 중요부속품을 확보하고 대형굴착기운전공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계절적특성을 고려하여 박토처리공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박토처리 능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대형굴착기들의 가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음
- 최근 두 달간의 노력으로 대형굴착기중대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술혁신안을 실현하여 박토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음
- 갯일군들은 매주 기술학습과 과학기술보급을 강화하며 대형굴착기운전공의 기술기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예비부속품 확보와 계절적특성을 고려한 박토처리공정을 추진하고 있음

■ 석탄생산능력 확장공사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7.1)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부지구 여러 탄광에서 석탄생산능력확장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키우고 석탄을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에 충분히 공급하는 목표가 강조됨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능력확장공사를 면밀하게 계획하고 설비 및 자재 보장대책을 세우며, 새로운 채탄장 전개와 석탄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에서는 고속도굴진운동과 굴진작업을 통해 능력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키며 굴진속도를 높이는 등 석탄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무진대청년탄광에서도 중점대상굴진을 적극 추진하며, 굴진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하고 설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굴진실적을 상승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부지구 탄광 일군들은 경쟁적인 협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능력확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석탄공업 부문에서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 단계 벨트콘베아공사 결속, 시운전 진행(『로동신문』, 2023.7.2)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석탄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채탄방법 개선과 종합적 기계화, 운반 다양화, 선탄공정 완비가 중요하며, 서창청년탄광을 중심으로 벨트콘베아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서창청년탄광에서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설치된 2단계 벨트콘베아와 1단계 벨트콘베아를 연결하여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고 자재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중요과업을 완수하는 노력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서창청년탄광 등 다양한 탄광에서 갱건설, 설비제작, 벨트콘베아 설치 등의 작업을 혁명적 조직과 협동으로 수행하고, 갱내작업의 종합기계화와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 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 공사결속으로 2단계 벨트콘베아의 시운전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탄광에서는 정상가

동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서창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열의와 협동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오늘과 래일(『로동신문』, 2023.7.11)

- 전면적인 발전의 새 시대가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펼쳐지고 있음
- 계획적인 사업과 자재 보장 전략을 통해 광산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실현하며 생산 경영을 강화하고 있음
- 생산일지를 통한 정밀한 계획, 세심한 평가 시스템, 규칙적인 기술혁신 등이 광산의 경영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
- 자재일군의 역할이 강조되며 자재 절약, 생산 과정 개선, 혁신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있음
- 자체적으로 만든 부속품 등 광산 내부에서의 자력갱생과 능력 확장을 추진하며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 있음

■ 날로 활발해지는 자연에너지개발움직임(『로동신문』, 2023.7.23)

- 자연에너지 개발은 환경 보호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여 매우 실용적임 자연에너지는 풍부하고 제한이 없으며 환경 영향이 작고, 다양한 나라에서 태양빛,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을 찾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풍력, 수력,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능력이 2030년까지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자연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에너지로 전력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베트남은 2050년까지 풍력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730만명이 일하는 반면, 2021년에는 1,270만명으로 늘어났음

■ 석탄생산에서 혁신(『로동신문』, 2023.7.30)

- 남덕청년탄광의 갱 일군들은 새로운 채탄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탄부들의 증산열을 고조시켰음
- 채탄 1중대는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중대장과 초급일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솔선하여 석탄 증산을 위한 조치를 취함
-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통해 암질조건에 맞게 굴진속도를 높이며, 자신들의 혁명성을 실적을 통해 입증하고 있음
- 채탄 2중대와 3중대의 탄부들은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기풍을 활용하여 힘차게 증산투쟁을 벌여 석탄 생산 계획을 성공적으로 앞당기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이 눈에 띄게 기여하여 갱이 지난 28일까지 남덕청년탄광의 석탄 생산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됨

■ 기간공업부문이 현대적혁신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로동신문』, 2023.8.5)

-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음
- 순천화력발전소와 같은 화력발전소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을 높이고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력하고 있음
-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같은 탄광에서는 증산경쟁을 벌이고 석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속도굴진운동과 채탄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중요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물동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철도화물수송량을 향상시키고 있음

■ 평보를 모르는 지하의 전초병들(『로동신문』, 2023.8.6)

- 득장청년탄광에서 진행 중인 투쟁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석탄증산의 담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루고 있음
- 탄광에서는 압축기를 증설하여 굴진속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결정적인 담보를 마련하고 있음
- 전차노선의 정비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이로써 석탄운반과 관련된 자재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있음

■ 예비를 낳는 샘(『로동신문』, 2023.8.13)

- 룡등탄광에서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광의 생산 방법을 혁신하고 있음
- 탄광에서는 통나무 대신 나무를 여러 개 묶어 만든 동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동발은 수명이 더 길면서 원가를 절약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됨
- 폭약 주입 공정을 혁신하여 종이 소비를 줄이고 발파 효율을 높여 탄광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소형원심송풍기와 천공기를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전기 소비를 절약하고 천공속도를 향상시키며, 이로써 원가를 낮추고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

■ 탄버력을 리용하여 얻은 실리(『로동신문』, 2023.8.13)

- 룡담세멘트공장의 일군은 석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버력을 생산에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음
- 기술자들은 자재를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탄버력분쇄기를 설계하고, 노동자들은 필요

한 자재와 부분품을 마련하여 탄버력분쇄기를 제작하는데 기여했음

- 탄버력을 생산에 재활용함으로써 많은 양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장은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완수할 수 있었음
- 종업원들은 절약은 생산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자원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며, 공장 내에서 활발한 절약 투쟁이 벌어졌음

■ 굴진에 계속 힘을 집중, 연간계획완수단위 련이어 배출(『로동신문』, 2022.8.22)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 작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각 굴진단위가 굴진계획을 수행하고 예비채탄장수를 늘리는 등 석탄 생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탄광 증산을 위해 탐사와 굴진을 강조하고 새 탄광과 갱들을 개발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연합기업소는 굴진을 통해 탄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단위들 간의 사회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굴진공들은 작업 조직과 지휘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탄광들은 설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고속도굴진경기를 진행하여 석탄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발파방법과 천공배치를 개선하여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음
- 각 굴진단위 탄부들은 석탄 증산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며, 연속천공과 발파를 통해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있음

■ 9월의 명절을 로력적성으로 빛내일 드높은 혁명적열의(『로동신문』, 2023.9.4)

- 노동계급은 9월의 명절을 기념하는데 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통해 8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음
- 금속,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노동계급은 혁신을 추진하고 석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 과학기술을 통해 화학공업, 기계공업, 건설건재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었음
- 단위들은 자체로 화학원료 등을 해결하여 생산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을 활발히 실시했음

■ 무대에서 만난 탄부들(『로동신문』, 2023.9.5)

-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통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음
- 다양한 종목에 참가하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열정적인 노래와 공연을 통해 탄부들의 희열과 생산열의를 높이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정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음
- 갱장과 전차공처녀의 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다루며, 무대에서의 특별한 능력과 마음가짐을 강조하였음

■ 연간계획완수단위, 완수자대렬이 늘어난다(『로동신문』, 2023.9.7)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하고 기술혁신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음
- 석탄공업부문에서 다수의 굴진단위가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석탄증산을 위한 연속천공 및 연속발파 작업으로 전진을 이룩하였음
- 임업부문에서는 화평림산사업소를 중심으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고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음
- 철도운수부문에서 수백 명의 기관차승무원이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연간 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경공업부문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다양한 공장에서 계획 완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생산토대강화에 모를 박고(『로동신문』, 2023.9.15)

- 광산들은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를 강화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여 첨단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산 섹터의 일군들은 지역 광물 생산 단위에서 경제 조직사업을 통해 정비와 보강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예비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채굴장과 운광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 광산에서는 생산 환경 개선과 설비 성능 회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조종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철의 기지들에 주체화의 불바람이다(『로동신문』, 2023.9.15)

- 북한의 여러 철의 기지 및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화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식의 제철, 제강법을 완성하고 철강재생산을 늘려, 철강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화 대상공사는 많은 성과를 이루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도 수십톤에 달하는 강철구조물 제작과 조립 등 다양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완료하며 성공적인 시험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지대한 토량 처리 및 진행, 지붕트라스 제작 및 설치 등의 작업을 성과적으로 완료하고 있으며, 청진제강소와 보산제철소에서는 회전로들의 대보수와 산화배소구 단광수직로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 중임
- 금속공업과 건설부문의 다양한 단위들이 금속공업의 주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 장비, 강철구조물제작 및 건설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와 노동계급은 채취 및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주체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며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석탄공업이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척후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로동신문』, 2023.9.16)

- 김정은 위원장은 석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석탄이 전력, 금속, 화학 공업 등 다른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원임을 강조하였음
- 석탄공업부문은 탐사와 굴진 활동을 강화하여 채탄장을 더 확보하고,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석탄 공급을 증가시켜야 함
- 석탄 공업부문은 기술 혁신과 과학 기술의 도입을 강조하여 석탄 생산을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함
- 석탄 공업부문은 자체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며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함
- 각 탄광은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탄부들에게 더 나은 생활조건을 제공하여 석탄 생산을 촉진해야 함

■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 본격적으로 진척(『로동신문』, 2023.9.18)

- 남양탄광에서 진행 중인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가 석탄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운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김정은위원장은 효율적인 채탄방법, 갱내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채택하고 질 좋은 석탄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을 강조함
-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에 참가한 차광수청년돌격대와 영구화중대 대원들이 연속천공, 연속발파를 통해 갱도영구화를 앞당기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창조하고 있음

■ 주민용멜감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로동신문』, 2023.9.21)

- 멜감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구멍탄 및 착화탄 생산 확보를 위한 설비를 강화함
- 공장의 생산능력 향상과 구멍탄 공급체계를 강화함

■ 탄전이 자랑하는 청년돌격대원들(『로동신문』, 2023.9.22)

- 김정은 동지의 지시에 따른 청년돌격대의 채탄막장 과제를 수행함
- 물잡이주머니 제작과 석탄생산을 증산하고 자율적인 자기 교대 작업으로 지속적인 석탄 공급 확보함

■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로동신문』, 2023.9.29)

- 환경보호형 건물의 중요성과 에너지 소비 문제 있음
- 건축가들은 환경보호형 건물 설계 및 에너지 효율 증대 노력하고, 에너지절약형 조명 및 태양에너지 난방 시스템 도입 사례 있음
-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공원 건설 추진하고 도시에서의 환경 보호 노력과 공중화원, 공중녹지 건설 활성화함

■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에 증산의 불길 타오른다(『로동신문』, 2023.9.29)

- 노동계급이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공업부문에서 증산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탄광에서 과감한 노력투쟁과 창조투쟁이 전개되어 높은 생산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석탄공업부문에서의 불길한 증산운동을 지지하며,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에 충분한 석탄을 공급할 것을 촉구함
- 자강도공급탄광,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에서는 노동계급이 앞장서 증산투쟁을 벌이며 혁명적인 생산조직과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발파방법과 채탄방법을 도입해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있음
- 남덕청년탄광, 송남청년탄광의 탄부들은 집단주의기풍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높은 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음

■ 석탄증산을 위한 애국운동의 불길이 타번진다(『로동신문』, 2023.10.4)

- 석탄운반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의 여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10t전차를 복구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직맹돌격대원들이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탄광에서 10t전차를 복구하고, 그 노력을 다른 지역의 탄광연합기업소에 확산시키며 석탄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 직맹돌격대원들은 전차원상복구에 참여하면서 부속품을 자체 보장하고 긍정적으로 혁신에 동참하여 석탄운반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직맹위원회에서는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직맹돌격대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며 다른 지역의 탄광연합기업소 직맹원들을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김덕훈 내각총리 서부지구의 전력, 석탄공업부문 단위들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10.9)

-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이 서부지구의 전력, 석탄 공업부문을 현지료해하며 올해의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실태를 점검하였음
- 전력생산의 중요성과 올해의 투쟁목표를 강조하며, 김덕훈은 과학기술을 발전의 생명선으로 삼고 노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여 발전소운영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올해의 정비보강계획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 덕천지구의 제남탄광과 북창지구의 인포청년탄광에서 석탄생산정형을 료해하며, 김덕훈은 일군들의 경영관리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노동조건, 생활조건에 관심을 기울여 석탄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현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겨울철 전력생산을 위한 화력탄을 충분히 확보하고, 탄광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보장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음

-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지켜 변혁의 해로서의 2022년을 위대한 증산투쟁의 해로 만들기 위한 김덕훈동지의 현지료해가 이뤄졌음

■ 벨트콘베아개건공사 결속(『로동신문』, 2023.10.11)

- 월봉탄광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천수백m의 벨트콘베아를 열흘 동안에 개건하여 석탄운반능력을 향상시켰음
- 탄광에서는 벨트콘베아 개건을 위한 설계를 완성하고 일군들은 자재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부분품제작과 벨트콘베아개건공사 준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사업이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켰음
- 석탄생산을 위한 중심적인 전력기지로서의 벨트콘베아 개건에 관한 공사조직과 일군들의 실천력은 석탄증산을 위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발적 열의를 고조시켰음 이를 통해 전력 생산이 높아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

■ 기간공업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로동신문』, 2023.10.13)

- 높은 당의 지시에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운동과 증산투쟁을 통해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있음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하고 기술혁신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통해 생산적양양을 이루어내는 현장 소식
-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등 여러 부문에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신적 열의로 증산투쟁을 펼치며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금속 재생산을 늘리기 위한 증산투쟁이 전개되고,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과 수력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전력생산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태양빛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주민봉사 진행(『민주조선』, 2023.10.13)

- 나라에서는 효과적인 자연에너지 활용을 위한 태양빛발전소 건설 및 전력봉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태양빛발전소를 통한 나라의 자연에너지 이용과 전력보장사업 활성화 소식이 전해짐
- 평양시, 삼지연시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형태양빛발전소가 건설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를 통해 시안 지역의 주민세대를 대상으로 전력봉사를 시작하였음
- 태양빛발전소 운영이 시작된 만경대유희장지구는 해비침조건이 좋고 부지면적이 넓어, 태양빛발전소를 통한 전력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태양빛전지온실(『로동신문』, 2023.10.15)

- 태양빛전지를 활용한 온실운영에 대한 기사임
- 태양빛전지를 활용한 온실운영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함
- 빛포화점을 고려한 태양빛전지 설치, 전력과 작물 재배 효과적 조화가 존재함
- 아시아의 태양빛전지온실 사례 소개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 소개함
- 반투명태양빛전지 및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온실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 진행 중임

■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십억kWh의 전력을 증산(『로동신문』, 2023.10.18)

- 태전력공업부문의 혁신운동과 성과에 대한 기사로 김정은위원장은 전력생산 중요성을 강조함
- 각 발전소의 성과 소개 및 혁신적 기술 활용에 대해 소개함
-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적인 예방보수에 대해 소개함

- 전력공업부문의 힘찬 투쟁으로 전력생산성이 확대되고 있음

■ 능률적인 석탄싸이로 새로 건설(『로동신문』, 2023.10.23)

-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룡문탄광에 석탄싸이로 건설을 진행하고 시운전준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석탄싸이로 건설은 석탄상차에 들던 설비와 자재, 로력을 절약하고 석탄하실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방대한 콘크리트치기와 구조물제작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난관이 제기되었음
-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석탄싸이로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자와 로동자로 이루어진 건설력량을 편성하여 투쟁을 벌였음

■ 북부지구 탄전에 갈탄타르가공공정 확립(『로동신문』, 2023.10.26)

- 공화국의 정비보강계획을 중심으로, 석탄공업성은 새로운 갈탄저온건류공정과 타르가공공정을 확립하는 과학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경원기술개발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금속,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가공공정을 합리적으로 꾸린 데 대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증류공정의 기술지표를 개발하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면서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에네르기개발의 다각화추세(『로동신문』, 2023.10.27)

- 에네르기문제는 세계적인 중요 관심사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로부터 벗어나 자연에네르기원천을 개발하는 추세임
- 화석연료의 한계와 환경위험에 대응하여, 많은 나라들이 자연에네르기원천으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음

- 중국은 태양, 풍력에너지기 설비를 늘리고, 꾸바는 태양에너지기 양수기를 활발히 도입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브루네이는 화석연료에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태양에너지기 발전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바다마름을 이용한 생물에너지기자원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상의 바다 마름 리용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 전력생산량 장성, 매일 계획을 초과수행하며 힘차게 전진(『로동신문』, 2023.11.9)

- 2023년은 발전행로의 전환과 변혁의 해로,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김정은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증산의 동기가 강화되고 전력생산량이 112%로 증가하는 등 발전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해임
- 여러 발전소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혁신을 통해 연소효율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강화하며, 수력발전소에서는 물관리의 과학적 진행과 수차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 생산량을 107%로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혁신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송배전부에서는 대형전력설비의 기술개조와 송배전선로의 정비보강 등을 통해 수만 kW의 전력예비를 조성하고, 재해성기상현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전력생산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십만의 석탄 증산(『로동신문』, 2023.11.9)

-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받들어 지난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십만 더 석탄을 생산하며 증산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음
- 다양한 석탄광에서는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석탄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정비 보강사업을 추진하며, 득장청년탄광과 룡산탄광에서는 석탄이 꼭 차야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석탄 증산에 힘쓰고 있음

- 탄광의 공무직장에서는 굴진과 채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석탄생산에 기여하고, 룡산탄광의 탄부들도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올해를 빛내며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음

■ 정비보강사업의 기본적인 결속을 위한 투쟁 고조(『로동신문』, 2023.11.13)

- 경제건설의 고지를 보존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의 불바람이 일어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이 혁신적인 방법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체화를 실현하고 있음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이 화력타빈날개를 교체하고 전력및 발전설비를 보수정비하며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수력발전소들도 과학화된 수력구조물관리를 통해 고수위 및 고효률운전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이 현장지휘조를 결합하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하면서 석재가공기지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안천선유리공장과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석재가공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10. 정치경제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한 토론_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_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해나가겠다_김유일대의원(『로동신문』, 2023.1.19)

- 지난해 전력공업부문은 전력수급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생산토대를 강화하며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수행했음
- 수력발전소에서는 저수지 관리와 발전설비 보수로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안정화하고, 화력발전소에서는 설비 보수와 계통 정비를 강화하여 전력 생산을 증산했음
- 성에서는 전력지리정보체계 도입과 연소자동조종기술 도입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고, 수력발전소의 난방과 유기질비료 생산에도 메탄가스를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해 전력공업부문의 성과를 높이지 못했음
- 앞으로는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 보수와 현대화를 진행하며, 전력공급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실현하고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동력공업을 추진할 계획임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한 토론_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겠다_김성원대의원(『로동신문』, 2023.1.19)

-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며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해 높은 생산성과 수행률을 달성하였음
- 과학기술발전과 경영관리의 개선으로 어획량과 물고기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했음
- 사업소는 당의 농촌건설강령에 부응하여 농장에 필요한 자재를 보급하고 영농과정에서 돌격대를 지원하여 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음
- 사업소는 당정책을 자기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삼고 애국과 애민정신을 실천함으로

써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한 토론_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고_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겠다_우종설대의원(『로동신문』, 2023.1.19)

- 배천군안의 일군들은 올해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고 언급
- 지난해에는 배천군안의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졌고, 수천대의 효율적인 농기계도 도입되었음
- 과학농사를 통한 주도적이고 역동적인 농사작전과 지휘를 통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벼와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고 과학기술적인 관리와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농기계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갈 것임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한 토론_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농작물우량품종들을 육종도입하고_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겠다_김광욱대의원(『로동신문』, 2023.1.19)

- 우리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충실히 받들고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며 뜻깊은 올해에 훌륭한 과학연구 성과를 내놓을 결의로 넘쳐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통해 식량문제와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근본요구라고 말함
- 지난해 농업연구원은 당의 농촌혁명강령을 수행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을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보장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음

- 농업과학연구는 병저항성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육종,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방법, 농기술제품 도입 등의 과학적인 연구를 포함함
- 올해에는 과학적인 농작물 배치, 영농시기 설정, 수확고판정의 정확성, 밀농사방법 확립 등의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과학연구의 성과를 실제 생산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_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로동신문』, 2023.1.19)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추진하는 시기에 소집되었음
- 지난해 내각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강령에 따라 현행생산을 활성화하고 정비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 중심과업을 펼쳤음
- 지난해에는 적대세력의 제재책동과 전쟁광증, 자연재해 등의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음
- 올해에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경제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며 경제부문 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따르고 경제지표와 중요고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 2023.1.21)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강령적 과제에 대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되었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회의를 주도하며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딛기 위해 경제발전

과 생산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음

-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결정을 철저히 따르고 경제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 농업부문에서는 재해 대응과 수확안정화를 위해 우량종자 확보, 재배기술 확립, 관개 체계 완비 등의 대책을 강조하였음
- 내각전원회의에서는 당정책 관철과 경제법칙 준수, 과학연구사업과 경제규율 강화를 제안하였고, 일군들은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음

■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1.26)

- 김덕훈 내각총리는 농업부문의 사업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과학기술적 대책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언급하였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밀재배 면적 증가와 유기질비료 사용, 관수 및 배수체계 완비, 비배관리 등을 강조하였음
- 농산과 축산의 순환생산체계 구축과 유기농법 도입, 농기계부속품 보장 등을 제안하였음
- 협의회에서는 알곡 생산 목표에 대한 일군들의 역할과 지원, 농촌과 도시의 협력, 영농물자 공급과 론택 조직 등이 논의되었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식량공급소와 량곡판매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하였음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로동신문』, 2023.4.5)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는 4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1/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올해 알곡생산목표에 대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이 보고를 하였고,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함

- 일부 단위들의 결함과 편향을 분석하며 당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조하였음
- 중심고리와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여 다음분기 계획수행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대중운동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동신문』, 2023.4.7)

-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은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1,930개 이상의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수여받음
-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받은 단위들은 근로자와 당원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선전 선동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범적인 단위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애국립칭호 수여가 진행되고 있음
- 대중의 애국열은 당의 대회결정을 계기로 비상이 고조되어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 나라의 사회주의선경과 금수강산으로의 변모가 추진되고 있음
-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애국적 열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기를 가지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자립경제의 기동을 굳건히 다지며 계속혁신, 연속공격(『로동신문』, 2023.4.7)

-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자립경제를 강화하고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금속공업 노동계급의 열정이 언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 생산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철과 제강법의 완성을 강조함

- 금속공업성과와 해당 단위의 노동자들은 철강재증산을 통해 5개년 계획달성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음
- 강철 제조소와 산소분리기 공장에서는 생산투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계획수행률을 높이고 있음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생산장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로동신문』, 2023.4.9)

-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고 사상관점과 태도를 혁신해야 함
- 사상관점과 태도의 개선은 경제의 발전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과 국가경제의 주요한 발전동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춰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해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

■ 관개건설목표수행을 위한 사업 강력히 전개(『로동신문』, 2023.4.12)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의 투쟁열은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적인 작전과 대담한 지휘로 일본의 공작이 무력화되어 요새를 뚫을 수 없다는 강조가 있었음
- 황해북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
- 관개건설을 위해 관련 자재 확보와 양수기 생산,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음
- 관개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적으로 추진하고 도안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음
- 화선식 정치사업을 통해 혁명열과 투쟁열을 고조시키고, 당의 사상관철전과 정책을 옹위하고 있음. 관개건설을 위한 지휘조와 추진조가 신속히 자리를 잡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랑처리와 양수장건설 등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음

■ 도당위원회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견인하자(『로동신문』, 2023.5.6)

- 모든 도당위원회들은 당중앙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농사문제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향해야 함
- 시, 군당위원회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지도하고 농사를 당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며, 농촌 발전을 위한 당의 결정과 지시를 옳게 조직지휘해야 함
-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당의 농업정책에 따라 농사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며, 농촌의 기술과 기능공을 지원하여야 함
-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농사에 총동원하고 농촌의 발전을 지원해야 함

■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힘있는 조직정치사업_각지 근로단체조직들에서(『로동신문』, 2023.6.2)

- 김정은 위원장은 근로단체조직들에게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집단적 경쟁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지역 청년동맹조직들은 건설 및 사상교양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쟁열의를 고조시키고, 석탄공업부문의 청년돌격대를 강화하여 생산증산을 이루고 있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 다양한 직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통해 대중적 기술혁신과 생산자대중의 증산투쟁열의를 증진시키고 있음
-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지휘조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열의를 조직하고 있으며, 과일과 축산물 생산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음

- 근로단체조직들은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진행과 당정책의 관철을 강화하고 있음

■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할 과감한 진군기세(『로동신문』, 2023.6.3)

- 각 부문 및 단위에서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자체 갱생과 생산투쟁을 통해 5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공업 부문의 일군과 노동계급은 설비 정비와 내부예비를 활용하며 계획 수행과 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음
- 금속공업부문 및 다양한 기타 부문의 일군들은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설비 정비를 통해 자립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석탄공업부문의 탄부들은 설비와 채탄방법 개선을 통해 석탄 생산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은 화학제품 생산성고를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전력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전력생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철도운수부문의 일군과 노동계급은 기관차와 화차의 맞물림조직을 개선하고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당중앙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당사업의 화력 집중(『로동신문』, 2023.6.4)

- 당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생산투쟁은 강력한 사상공세와 혁명열, 애국열을 불러일으키며 집중적으로 전개됨
- 당 조직들은 자체 부문과 단위에서 당정책과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상공세를 집중하고,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고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음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당조직들은 생산투쟁과 집단적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료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주의경쟁도 전개하고 있음

- 금속공업부문과 석탄공업부문 등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내부 예비 및 현장정치사업을 전개하며, 전력생산부문에서는 정상화된 전력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과 조직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당조직들은 대중을 발동시키고 집단적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직정치사상공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석탄과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음

■ 김덕훈 내각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6.6)

- 김덕훈은 평안지역 농장들을 방문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확인하고 알곡생산에 필요한 방안을 현지에서 고찰함
- 김덕훈은 당 결정의 성과가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모내기 시기에 영양관리와 비료 보급에 과학적 접근을 강조함
- 수확 시기에 따른 알곡 보관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대책을 통해 생산 효율과 보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함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알곡 생산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산자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벌이고 더 많은 비료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함
- 대안친선유리공장과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제품 질 향상과 기술혁신에 주력하며 계획적이고 완강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과학기술적지도 심화,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제품 기동적으로 생산보장(『로동신문』, 2023.6.10)

-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 생산은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강조하였음
-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이 강화되어 과학기술적 대책안과 선진 농업방법의 전개로 농업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농사추진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적 대책을 작성하고 앞그루작물 재배와 영농공정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과학농사추진조는 과학자들과 협조하며 재해와 기후 영향을 극복하고 농작물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전습을 통해 농업부문의 기술실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대학과 과학연구기관들은 우수한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과학기술제품을 생산하여 농업 생산을 보장하고 있음

■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드세찬 진군기세(『로동신문』, 2023.6.13)

-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중요한 12개 고지를 제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지도하고 있음
- 농업 전선에서는 관개건설과 농촌진흥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과학농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중요 공업부문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운송을 개선하고 있음
- 임업부문에서는 통나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간공업 부문에서도 성과를 이뤄내며 대비약과 대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드세찬 진군기세_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서 대중적인 혁신운동 전개, 많은 단위들이 새 기준, 새 기록 창조(『민주조선』, 2023.6.14)

- 당 중앙의 전면적 발전 목표에 따라 전체 국민이 자립과 자기력을 강화하여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토대로,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12개 중요한 고지를 지침으로 삼아 총진군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5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수준을 구축하고자 함
- 중요한 결정과 정책에 따라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알곡 생산, 화학공업, 전력 생산, 철도 운수 등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과를 이루며 경제 부문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각종 발전소의 건설과 개량을 통해 전력 생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생산적양양을 통해 국산 비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화학제품 생산에서도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자립경제 발전의 핵심인 농업, 철도 운수, 기간공업, 산림업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으며, 당의 지도하에 생산량 증가, 기술 혁신, 계획 수행 등을 통해 12개 중요 고지의 달성을 향한 영웅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농촌지원열기를 고조시키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로동신문』, 2023.6.16)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농촌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과 지방 당조직들에서 전개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의 정치 및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농촌선전사업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문화성 당조직은 교양거점과 살림집의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 예술단과의 협력으로 정치선전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다양한 당조직들이 농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영화총국, 과학기술위원회, 채취공업성 당조직 등이 각각의 역할과 방식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부문의 당조직들이 농촌지원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발전과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작물 비배관리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23.6.17)

-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 비배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주체 농법을 따르며 농업 생산에 사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임
- 지역별로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농작물 생육을 개선하고, 대용비료와 성장촉진제를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
- 병충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논물관리 방법의 도입 등을 통해 농작물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별로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농촌 개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 부문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강력히 견인할 비상한 의지(『로동신문』, 2023.6.24)

-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당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역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강력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함
- 농촌 지역의 일군들이 올해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주력하며, 농장 개선, 교육 및 과학기술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과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올해 올곡식 생산과 공업 발전에 대한 열정을 언급함
- 각 지역 단위에서는 경제, 교육, 공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제품 생산량 증가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임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힘있는 조직정치사업(『로동신문』, 2023.6.27)

- 중앙 및 지방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조직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혁명적 열정을 고조시키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조직들에게 자신의 부문과 단위에서 정책과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강조함
- 중앙기관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을 받아 일군과 정무원을 강화하고 전원회의의 정신을 확립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 당조직은 알곡 생산 목표를 중요하게 다루며, 교육위원회 당조직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토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의 분발력이자 지역의 농사실태이다(『로동신문』, 2023.7.1)

-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는 농업발전과 농사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함
- 김정은 위원장은 격동적인 시대에서 사업기풍과 혁신이 요구되며, 농사의 성과가 지역 농업지도기관의 노력에 의존한다고 강조함
- 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농업경영위원회들은 중앙정책을 지원하고 관철하여 발상 태모기르기 방법을 도입하고 영농물자와 자재공급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에 성과를 창출함
- 농업지도기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며 혁신적인 방안과 작전을 추진하고 중앙 정책을 지지하여 농사의 성과와 농업발전에 기여함

■ 올해 목표점령으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린다(『로동신문』, 2023.7.3)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이 인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선에서 힘차게 투쟁하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결과를 달성함
- 인민경제의 성과적 발전을 위해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증산운동을 힘차게 벌여 애국적 열정과 투쟁정신을 보여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경제사업의 중심에 정비보강계획 수행을 놓고 부문별로 생산 강화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함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등의 부문에서 힘찬 투쟁을 통해 생산적양양과 혁신을 이루어내며 경제 발전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냄

■ 당면한 영농사업을 드팀없이 추진(『로동신문』, 2023.7.3)

- 각 지역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혁명방침을 준수하며 알곡생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인용하여 알곡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도의 일군들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부문에서 선진영농방법과 과학적 기술을 도입하여 농작물의 생육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진행함
- 각 지역에서는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고 집중호우와 비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알곡생산계획 수행을 통해 당과 국가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양액비료공장건설 마감단계(『로동신문』, 2023.7.10)

-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김정은동지의 지시에 따라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영양액 비료공장건설이 고조되고, 생산건물 건축과 여러 영양액비료생산공정이 규모있게 진행됨
- 김정은 동지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통해 남새재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고, 영양액비료 생산공장 건설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음

- 현장지휘조의 노력으로 생산건물 및 설비 설치를 철저히 추진하고, 화학건설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포함한 연관단위의 노동계급도 영양액비료생산을 위한 설비와 장치를 제기일에 제작함
- 다양한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근로자들과 근로자들도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주변정리 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협업을 이뤄나가고 있음
- 건설자들의 열정과 힘찬 투쟁으로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건설은 완공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당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

■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기세 더욱 고조(『로동신문』, 2023.8.3)

- 전국의 다양한 부문과 기업소가 7월 인민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가의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음
- 금속 및 화학공업부문에서 증산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철강 생산과 고온공기 연소 등에서 혁신이 이루어졌음
- 전력, 석탄공업 및 철도 운수 부문에서도 증산 투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음 전력 생산에서는 여러 발전소의 현대화와 물 관리가 강조되었고, 석탄 광산에서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석탄 생산성을 향상시켰음
- 기계공업부문에서 노동계급은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전진하였으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를 자체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건재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분투가 이루어졌으며, 임업부문에서는 생산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설비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기록되었음

■ 김덕훈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8.3)

- 김덕훈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검토하고 지도함
- 김덕훈은 금성트랙토르공장을 방문하여, 농촌 개발 및 농기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랙터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 제품 성능 향상과 활성화된 생산과 관련하여 과학연구부문 및 품질감독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언급되었음
- 협의회에서는 기계공업부문 공장 및 기업소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고 질제고 열풍을 일으킬 방법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 김덕훈은 기상수문국을 방문하여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조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의 중요성을 지적함

■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을 수정보충(『조선신보』, 2023.8.2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 다양한 법률의 수정보충을 심의하고 채택한 회의임
- 기상수문법은 기상수문 분야의 교류와 협조 규제를 강화하고, 기상수문시설의 관리와 기상수문사업의 지도통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음
- 바다오염방지법과 배등록법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 조사, 오염 상태의 평가 기준을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연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보충하였음
- 농업법은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 작성과 생산조직, 농업 생산 및 기업 관리 개선, 가격 책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여 농업생산과 생산물 처리 질서를 개선했음
- 가격법은 지표별 가격 적용과 가격표 게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가격 지정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충했음

■ 과학기술법, 발명법, 품질감독법을 수정보충(『조선신보』, 2023.9.1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법, 발명법, 품질감독법 등의 수정보충안에 관한 문제가 심의되었고 해당 정령들이 채택되었음
- 과학기술법에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와 과학기술심의 등 과학기술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밝히고 있음
- 발명법의 수정보충으로는 발명권과 특허권의 신청원칙, 심의원칙, 발명가와 기업소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음
- 또한, 품질감독법에서는 제품검사, 품질증명서 발급, 재검사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음
- 이러한 수정보충안의 채택을 통해 과학기술과 발명, 제품품질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도 30돐 기념보고회_황해남도 과일군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로동신문』, 2023.9.19)

- 송곡과수농장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현지도과업관철로 과일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과수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전진을 이룩하였음
- 북창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토대를 구축하고 과수원을 규격화된 포전으로 만들어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여 생활조건을 개선함
- 신대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의 영양관리를 개선하고 단위발전을 이룩하여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음
- 풍천과일가공공장에서는 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제품의 가짓수를 확대하며 혁신적인 생산성과를 이룩하였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기념보고회_ 남포시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로동신문』, 2023.9.22)

- 천리마구역 강선농장에서는 주체 5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받아들이고 농장원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농업발전과 관련된 교시가 이루어졌음
- 남포시농촌경리위원회 애원농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발전과 농촌진지강화를 위한 가르침을 전하고 룡강군 애원고급중학교에 사랑의 자옥을 남김
- 1973년 9월에는 온천군 석치농장에서 농촌살림집건설과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한 김정일 동지의 지도가 언급되었음
- 1993년 9월에는 풍년든 운하농장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 알곡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교시가 있었음
- 참가자들은 영도업적단위에서의 일군들, 농업근로자, 창작가, 예술인들이 현지도과업에서 이룩한 전진과 농촌혁명에 기여한 사업을 찬양하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로동신문』, 2023.10.6)

- 정부확대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 생산투쟁, 중요건설 및 혁신, 결속의 투쟁, 정부의 중요정책 집행 등이 주요 토의 내용이었음
- 확대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휘하며, 내각 부총리, 정부 관련 기관, 지역위원회 등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음
- 내각부총리 양승호의 보고에 따르면, 3/4분기 동안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과 중요 건설 성과, 결함 및 편향에 대한 분석 등이 강조되었고, 토론에서는 향후 결속의 투쟁과 중요정책 집행에 대한 계획이 다루어졌음
- 김덕훈은 인민경제의 주요 성과와 결함, 향후의 중요투쟁과 정책 집행에 대한 보고를 이끌었음

- 정부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5개년계획의 완수와 농업부문의 성과 향상, 알곡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개건현대화사업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2023.10.10)

- 남포의료기구공장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개건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토대 강화, 기술혁신, 전자의료기구 생산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군들은 창의적활동을 통해 화선식정치사업을推進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건물의 개건보수 및 설비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공장은 현대화를 위해 자동온도조종장치 등 기술혁신을 도입하고, 체온계 생산원가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종업원들은 의료기구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실현을 위해 당정책에 따라 의료기구 생산에 힘쓰고 있음

■ 3,4분기를 총화, 대책 토의(『조선신보』, 2023.10.13)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에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토의가 포함되어 있음
- 확대회의에서는 3, 4분기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상황과 생산투쟁, 창조투쟁의 성과가 강조되며, 분석된 일부 부문의 결함과 편향이 언급되었음
- 올해 반드시 5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담보 마련, 농업부문의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농기계 가동률 향상과 영농작전 주도력 강화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 내각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의 지도하에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양승호 내각부총리가 3,4분기 동안의 생산투쟁과 창조투쟁의 성과를 보고하였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의 진행(『로동신문』, 2023.10.20)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조직, 금융감독법 및 살림집관리법 채택,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가 의결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선거지도위원회 조직에 이어 금융감독법과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의 소환 및 선거가 진행되었음
- 법제위원회에서 산출된 금융감독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와 리용에 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조직, 금융감독법, 살림집관리법의 채택 및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대한 의안들이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음

■ 교육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을 수정보충(『조선신보』, 2023.11.20)

- 12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법, 인민경제계획법, 유용동물보호법, 원림록화법 등에 대한 수정과 보충이 논의되었음
- 교육법 수정에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교육강령 작성 및 집행, 교육기자재의 생산 및 공급 등 교육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음
- 인민경제계획법의 개정에서는 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계획총화에서의 요구 등이 새롭게 규제되었으며, 인민경제계획화방법도 개선되었음
- 유용동물보호법 수정에서는 유용동물보호원칙, 동물새품종검사 및 등록과 같은 내용들이 강화되어 유용동물의 보호와 증식을 강조함
- 원림록화법의 수정에서는 원림록화계획의 시달, 원림록화설계작성에서의 요구, 원림록지구역의 관리분당 등이 더욱 구체화되어 나라의 원림정책을 강화하였음

■ 농사 전 과정을 주도하는 강력한 견인기는 과학기술이다(『로동신문』, 2023.11.26)

- 당중앙위원회는 8기 7차 전원회의에서 과학농사추진조를 조직하여 과학농사지도를 강화하고 선진농업기술 생산을 혁명적으로 채택함
- 지난 시기 뒤떨어진 농장들은 과학농사추진조의 탐구활동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진농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
- 현지 농업과학자들은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과학농사대책안을 작성하고,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선진영농기술을 보급하여 농사작업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함
- 과학농사추진조는 수많은 성과와 경험을 통해 선진과학기술제품의 도입,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강의 등으로 농업부문에 혁신을 가져왔음
- 미래를 대비해 과학농사추진조는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나라의 농업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11. 지질과 지형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_만포8월2일 세멘트공장
에서 올해 첫 발파 진행(『로동신문』, 2023.1.6)

-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고지로 설정된 간석지건설에 대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와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만포 8월 2일 세멘트공장의 노동자들이 발파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간석지개간과 현장정치사업을 통해 부침땅 면적을 확대하고 발파 준비를 책임적으로 진행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각회도간석지건설을 위해 내적 잠재력을 발휘하여 부속품 및 설비의 보장과 발파 준비를 완료
- 만포 8월 2일 세멘트공장은 광산분사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지질표면 파악과 현지측량을 통해 설계를 완성하고 발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음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와 만포 8월 2일 세멘트공장에서는 10만산대의 발파 작업이,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6만산의 발파 작업이 진행
- 간석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시멘트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

■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기세 더욱 고조_올해 목표달성을 위한 관건적인 대책 실행_채취공업부문에서(『로동신문』, 2023.1.23)

-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채취공업부문에서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해로 인식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생산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보강계획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광산과 제련소의 생산토대를 강화하고 생산 계획을 월별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자립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만포 제련소와 문평 제련소의 일군과 노동계급은 현행 생산을 완강하게 내밀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해결하고 있음

■ 경지면적 확장사업을 판이 크게 벌려야 한다(『로동신문』, 2023.1.25)

- 경지면적을 확장하여 알곡 생산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새땅찾기운동을 통해 경지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을 농업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였음
- 간식지를 개간하고 간식지건설사업을 힘차게 진행하면서 알곡 생산면적을 확대해야 함
- 설계와 기술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방조제와 장식공사 등의 건설을 완료해야 함
- 농업 생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내부망공사를 추진하여 물길과 구조물공사를 완료해야 함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밝힌 진로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진군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1월_단천지구광업총국의 광산, 공장, 기업소들 첫달부터 기세를 올리며 전진(『로동신문』, 2023.1.31)

- 단천지구의 광산과 공장 일군들이 알곡 생산과 증산투쟁에 전진을 거듭하였음
- 검덕지구의 광산개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검덕지구를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 중요함
- 단천지구의 제련소에서도 증산투쟁이 진행되었고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토의되었음

-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백바위광산에서는 보수정비와 자재보장을 통해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냈음
- 단천지구의 광업총국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현재의 진군속도를 유지하고 전진을 계속하고 있음

■ 새 광맥을 찾아서(『로동신문』, 2023.2.3)

- 지하자원탐사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교원, 연구사들은 추운 환경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지구과학기술학부는 전국 각지로 나가 자원탐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탐사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 전에도 무조건 수행하고 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총비서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받아들여 사회주의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부장과 다른 연구사들도 성공적인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음
- 탐사 결과에 따라 탐사대상지가 확정되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광산들이 생겨날 수도 있음

■ 순천석회석광산에서 22만산 대발파 진행(『로동신문』, 2023.2.22)

- 순천석회석광산은 시멘트 목표 달성을 위한 발파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광산의 일군들은 료택조직과 공정설계를 선행시키고 발파준비를 진행하여 발파작업을 완료하였음
- 협의회를 통해 광량을 늘리고 발파구역을 확정함으로써 석회석 생산을 효율적으로 보장하였음
- 굴진설비와 발파기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광산 작업을 수행하였음
- 순천석회석광산의 노동계급은 당의 목표에 따라 박토처리와 낙광정리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애국의 마음을 지녀야 새땅예비도 보인다(『로동신문』, 2023.2.28)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땅예비를 통해 경지면적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알아차렸음
- 애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땅찾기 작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농촌혁명과 농촌진흥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새땅을 계속 찾아내고 농경지를 복구하며 알곡재배면적을 늘려야 함
- 애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평의 땅이라도 더 찾아 경지면적확장을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함

■ 관점만 바로서면 새땅예비는 얼마든지 있다(『로동신문』, 2023.3.1)

- 곡산군은 하천정리를 통해 폭우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땅을 찾아 알곡생산면적을 늘렸음

■ 각회도간석지건설을 위한 20만산 대발파 진행(『로동신문』, 2023.4.8)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2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간석지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압축기와 자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취해지며,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발파준비를 완료하고 정비를 실시하였음

■ 석화간석지 건설장에서 20만산 대발파 진행(『로동신문』, 2023.4.11)

-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석화간석지건설장에서 간석지개간을 힘있게 진행하며 20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음
- 대발파의 성공으로 수십만 m^3 의 토양과 막돌이 확보되어 1차물막이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음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기술협의회를 진행하고 발파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한 자재와 물자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감
-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착암기와 압축기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도갱굴진 작업을 앞당겨 완료하였음

■ 관개수로보수확장공사 결속(『로동신문』, 2023.5.9)

- 도당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평안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동래강저수지로부터 홍건도간석지까지의 관개수로보수확장공사를 완료하였음
- 도에서는 홍건도간석지농사를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음
- 근로자들은 열의와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관개수로보수확장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홍건도간석지농사를 위한 관개수로보수확장공사의 성과로 생명수가 홍건도간석지의 포전들에 풍부히 공급되어 농사작업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로동신문』, 2023.5.20)

-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재해성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 일군들은 엘니뇨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였으며, 농업지도기관들은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여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해안방조제와 저수지, 관개물길, 강하천 등의 공사를 최단 기간에 완료하고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밀과 보리를 포함한 작물들의 수확을 제때에 진행하며, 벼모판 비배관리와 모내기 선행공정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사방야계공사와 과수부문 대책 등이 결속되고 물관리 방법들이 실행되며, 농업기술적 대책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과 병해충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간석지방조제와 내부망공사성과 확대(『로동신문』, 2023.5.27)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와 월도간석지, 홍건도간석지 2단계 2구역 조유지제방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음
- 종합기업소는 계속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며 매달 종합기업소 앞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석화지구와 월도, 홍건도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공사에 일군들은 공사 계획을 박력있게 진행하며 돌확보와 방조제성토공사, 장식공사, 구조물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음
- 종합기업소는 건설자들을 동원하여 사상해설침투와 경제선동을 통해 새로운 혁신창조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건설자들은 방조제건설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작업조직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음
-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공사의 50% 이상 달성 성과와 월도, 홍건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황해남도, 평안남도 해안방조제공사들 련이어 완공(『로동신문』, 2023.5.29)

- 인민군부대들은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해안방조제공사를 혁신적으로 진행하며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해안방조제공사를 수행하는 군인건설자들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의지로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지속적인 공격전을 벌이며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때로 대상공사를 완수하고 있음

- 현장지휘조들은 당에서 정해진 기간과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진행하였으며, 해안방조제공사는 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음
- 해안방조제공사는 태탄군, 청단군, 은률군, 웅진군, 벽성군 등에 전개된 인민군부대들에 의해 굳건한 성벽으로 완성되었으며, 자재확보와 역량 배치 등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전격전을 벌여 짧은 기간에 완수하였음

■ 드넓은 간석지에 규격포전을 펼쳐놓은 자랑찬 위훈(『로동신문』, 2023.6.1)

- 평안북도 여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월도간석지내부망공사를 진행하며 중요한 포전 정리 과제를 계획대로 결속함

■ 대자연을 다스리는 정복자들의 투쟁기상(『로동신문』, 2023.7.4)

- 간석지건설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 목표를 세우며 기계설비와 자재보장, 물질기술 토대를 강화하는 혁신적 대책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
- 인민군 군인들은 석화간석지, 장송간석지, 광산간석지 등에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하게 벌이며 월도간석지 하천 및 조유지 제방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토공법을 도입하며, 각회도간석지건설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대동만간석지 진해구역건설 단위에서는 운반수단 가동률을 높여 마감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18만산 대발파 진행, 1차물막이공사 성과 확대(『로동신문』, 2023.8.11)

-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석화간석지건설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 건설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며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로 강조되고 있음

- 군인건설자들은 18만 대의 폭파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설비, 자재 확보를 철저히 하며 전체 공사 작업을 지휘하고 있음
- 현장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기계설비 및 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인건설자들은 협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18만 대의 폭파 작업은 군인건설자들의 노력과 투쟁 기질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장지도(『조선신보』, 2023.8.28)

-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의 피해복구 현장을 지도하였으며, 피해와 복구 상황을 감독함
- 안석간석지 제방 파괴로 인한 침수로 인해 논벼 560여정보가 피해를 입은 원인을 분석하고, 일군들의 무책임한 직무태만 행위를 비판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피해 복구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파견하여 지휘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부와 지방 행정경제일군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엄하게 비판하였음
- 안변군 농경지 침수 피해를 계기로 전국적인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군대의 투쟁기풍을 통해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였음

■ 정비보강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진 이룩(『로동신문』, 2023.9.7)

- 북한은 석탄 절약과 전력 증산을 목표로 보일러, 터빈발전기 대보수를 각지 화력발전소에서 결심하였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와 구조물 보수를 강조하며 전력생산계획을 과학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 북한의 전력공업성은 주도적이고 현존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보일러, 터빈발전기의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둔 과학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주인들의 일본새가 달라지니 농장별이 변모된다(『로동신문』, 2023.9.17)

- 금탄농장에서의 농업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농장별을 통해 더 넓은 경지로 확장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농지를 가꾸어가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금탄농장은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고 옥토로 변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일판을 펼쳐 고향땅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

■ 간석지조사선 건조(『로동신문』, 2023.9.18)

- 룡해운성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부문에서 간석지조사선 건조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석지개간을 과학기술적으로 토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담보를 마련하고 있음
- 관련부문의 여러 단위와의 협력과 기술합의를 통해 룡해운성에서는 배설계를 담당하는 단위가 용접봉과 케이블 등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을 통해 간석지조사선 건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체무이 작업에서도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4·15기술혁신돌격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8월말까지 동력장치계통설치와 상층구조물조립 등 모든 작업을 결속하고 성공적으로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건조된 간석지조사선을 해당 단위에 인계하였음

■ 40만산 대발파 진행, 하천 및 조유지 제방공사에 총력 집중(『로동신문』, 2023.9.19)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월도간석지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당의 간석지개간을 국가적 중대사로 받들어 일군들은 분발과 분투로 조국의 대지를 확장하고 있음

- 종합기업소에서는 다수의 대상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건설역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현장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
- 자력갱생과 견인불발의 투쟁기세 속에서 40만산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천 및 조유지제방공사를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으며, 발파준비를 맡은 장송간석지건설대는 암질조건에 따른 능률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도갱굴진을 완료하고 다양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함경북도 명간군 호산리에서 중신세의 고래화석 새로 발굴, 천연기념물로 등록(『로동신문』, 2023.10.6)

-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진이 함경북도 명간군 호산리에서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의 명간고래화석을 발굴하였음
- 명간고래화석 발굴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의 명간고래화석이 지구상에서 사멸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명간고래화석으로 감정분류하였음
- 명간고래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호산리 지역이 넓은 바다와 육지로 이루어져 있어 동식물이 번영한 자연경관과 유리한 기후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음
- 김일성종합대학의 발굴 작업은 고래의 기원, 진화, 생태환경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이미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에 동식물의 진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명간고래화석은 천연기념물 제299호로 등록되었음

■ 간석지건설의 질적수준을 높이자(『로동신문』, 2023.10.24)

- 간석지건설자들에게는 새롭게 건설한 간석지가 향후 후대에 마음을 폭 넓게 만들기 위해 질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

- 질보장을 위해선 현지조사와 과학적 설계, 엄격한 시공에서의 설계 준수가 필요하며 일군들은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함

■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 활발히 진행(『로동신문』, 2023.10.28)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홍건도간석지 2단계 조유지 제방공사를 계속 혁신적으로 진행
- 간석지건설자들은 작전과 지휘를 통해 토량확보, 제방성토공사, 장석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 수리기지를 접근시켜 가동률을 높이고, 실태를 분석하여 작업조직을 치밀하게 조정하고 있음
- 장송간석지건설대는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갱굴진과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사기계화대에서도 조유지제방공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일일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음
- 간석지건설자들은 성토공사와 제방 쌓기를 통해 빠른 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애국충성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유지제방공사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주인다운 태도에서 책임성과 적극성이 나온다(『로동신문』, 2023.10.30)

-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단위들의 힘찬 전진과 애국정신, 혁신적인 노력이 주요 특징으로 돋보임
- 간석지조사선건조를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자력갱생과 창조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식의 부분품제작, 수밀검사방법 도입, 건조원가 절감 등의 성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음
- 협의회에서의 중요부분품 수입 문제와 국내 기술집단과의 협동작전으로 창조물을 내놓는 립장들의 단단한 결의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하였음

■ 안석간석지에 새겨진 위대한 애국의 자욱을 심장에 안고 살자(『로동신문』, 2023.11.5)

- 이해의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은 국토의 안전과 농경지의 보호를 목표로 하며, 강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 나무심기 등의 대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에서의 총비서동지의 지도력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헌신의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으며, 산야마다에 푸른 숲이 펼쳐지고 강물이 보배강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굴의 투지로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로동신문』, 2023.11.5)

- 홍건도간석지 1, 2단계 조유지제방공사, 월도간석지 조유지제방공사, 그리고 석화간석지 1차물막이건설이 큰 진척을 이룸
- 홍건도간석지 1단계 조유지제방공사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막돌운반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얼음이 깔린 간석지바닥을 활용하여 막돌운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과감한 결정력과 혁신적인 사고로 성과를 거둠
- 화물자동차 부품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화대에서 부속품을 재생리용하는 도전했고,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부속품의 정밀도와 내마모성을 고려한 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 굴착기 회전대판 고장 시, 전문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리에 도전했으며 기술자와 노동자의 협력으로 고장난 굴착기를 24시간만에 수리하여 공사에 빠르게 투입함

12. 토양

■ 지력개선에서도 중요한 것은 각오이다(『로동신문』, 2022.12.24)

- 농사의 근본은 지력제고이며, 지력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임
- 농업부문 일군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름원천을 찾아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지력개선은 뜨거운 사랑과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려는 각오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명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다수확을 얻을 수 있음

■ 전면적부흥발전의 새 지평에 솟아난 사회주의재부_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월도 간석지건설 완공(『로동신문』, 2022.12.28)

- 위대한 당의 지도 아래에서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노력으로 월도간석지가 부흥강국의 재부로 거듭나고, 농업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간석지개간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간석지건설을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음
- 평안북도의 건설자들은 힘있는 투쟁을 통해 월도간석지건설을 전개하고, 기술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토지개량제확보에 큰 힘을(『로동신문』, 2023.1.9)

- 고산군은 알곡증산을 위해 토지개량사업을 통해 석회 생산과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
- 지난 시기 대용비료로서의 석회 생산을 통해 알곡 소출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석회 생산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 석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연료와 룬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원료 확보를 선행하여 목표를 수행하고 있음

■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자(『로동신문』, 2023.1.11)

- 포전 개량을 통한 토지 개량사업은 농사차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
- 토지개량을 통해 비옥하지 않은 농경지를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변화시켜 전반적인 알곡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음
- 토지개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군들은 혁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알곡 생산을 높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토지개량을 통해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은 힘을 모아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증산의 투쟁을 벌여야 함
- 토지 개량사업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토양분석, 배수 시설 구축, 유기농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토지를 개량하여야 함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수십만 톤의 원료 확보_평안북도에서(『로동신문』, 2023.1.26)

-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음
- 도내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여 생산을 늘리고 지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원료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력 개선과 알곡증산을 목표로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계획에는 원료확보와 생산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며,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적극 받아들여야 할 효율적인 보호농법(『로동신문』, 2023.2.13)

- 김정은 위원장은 토지를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으로 보며 후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 보호농법을 일반화하여 토지를 보호하고 지력을 향상시키며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보호농법을 받아들이면 부족한 유기질비료원천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음
- 일부 단위에서는 이미 보호농법을 도입하여 토지보호에 관한 중요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불경두독재배와 같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성과를 얻고 있음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효율적인 보호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고 알곡생산을 장려해야 함

■ 포전을 걸구어간다_농사차비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동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로동신문』, 2023.2.13)

- 김정은 위원장은 토지를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으로 강조하고, 알곡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차비에 대한 결단력있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함
- 보호농법의 일환으로 유기질복합비료 생산과 원료확보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토양 개선과 작물 수확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작전과 경험이 활용되고 있음
-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토지 보호와 알곡생산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힘찬 투쟁과 지혜를 통해 보호농법의 발전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수십만의 자급비료 생산, 흙갈이성과 확대_남포시에서(『로동신문』, 2023.2.18)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작전과 지휘를 통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력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당위원회와 시농촌경리위원회는 지력개선을 위한 일군들의 임무분담과 자급비료 생산을 강조하고, 운반작업에 대한 수행 요구를 높이고 있음
-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적인 열의로 자급비료 생산과 운반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흙보산비료와 토양분석을 통한 흙갈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 지력개선을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로동신문』, 2023.2.20)

- 농업 생산을 개선하기 위해 지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사작전과 지휘를 통해 올해의 알곡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시농촌경리위원회는 지력 개선을 위한 일군들의 임무분담을 구체화하고 자급비료생산과 운반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포전별 토양분석을 통한 흙보산비료 제조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적 대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흙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로동신문』, 2023.2.28)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흙갈이를 통해 올해 알곡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에서 흙갈이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포전별 토양분석을 기반으로 한 책임적인 흙갈이가 이뤄지고 있음
- 지난해에 비해 높은 실적을 달성하며 흙갈이를 통한 지력 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흙갈이를 계획대로 내밀어(『로동신문』, 2023.3.5)

- 어랑군 두남농장에서 흙갈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알곡생산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전환 방안을 찾았으며, 흙갈이 작업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였음
- 일군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농장원들은 일반적으로 2~3일이 걸리는 작업을 하루에 해결하며 흙갈이 작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또한, 다양한 작업반에서는 토양의 특성에 맞는 작업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운반수단을 활용하여 흙갈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였으며, 농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흙갈이를 진행하고 면적을 확대하고 있음

■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끝는다_지력개선에 힘을 넣는다_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23.3.15)

- 황해북도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지력 개선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에서는 계획적이고 강력한 사업들을 통해 농사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군들은 과학농사와 안전한 소출을 추구하기 전에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아래 지력 개선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거름원천을 확보하여 논밭의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전 도지역에 퍼져 있으며, 각 당 및 정권 기관,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 모두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음
- 도급기관 일군들은 거름 생산 증가에 맞게 전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대용광물질비료를 적극적으로 생산리용하자(『로동신문』, 2023.3.22)

- 황해북도는 대용광물질비료 생산에 집중하여 농사 생산을 향상시키고 있음
- 대용광물질비료는 농작물 생육을 개선하고 알곡생산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원료확보와 대용광물질비료 생산을 통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 원료 매장지를 활용하고 생산토대를 꾸미는 것이 필수임
-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원료원천을 찾아내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대용광물질비료 생산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을 발휘하여 대용광물질비료 생산을 힘있게 추진해나가야 다수확을 실현할 수 있음

■ 농촌지원사업에 총력을 집중(『로동신문』, 2023.4.1)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매일 농촌에 거름을 보내주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거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는 거름 확보를 위해 도내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을 동원하여 도시거름과 유기질복합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도는 지력개선을 위한 사업정형을 통해 일군들의 분발력을 고조시키고 대중을 농촌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로동신문』, 2023.4.4)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최전선인 농업전선에 대한 지원의 도수를 높이고 있음

- 함경북도에서는 농장들에 거름을 보내주기 위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거름을 마련하고 있음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등에서도 농촌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벌여 거름생산과 운반을 진행하고 있음

■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한 당적지도 박력있게 전개(『로동신문』, 2023.4.4)

- 함경남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사상에 따라 농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는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공세와 사상공세를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음
- 시군과 도급기관에서는 선전선동역량과 수단출동모임을 통해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선전선동공세를 펼치고 기동예술선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는 집중강연선전대와 당일군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를 발동시키기 위해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

■ 질 좋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박차를(『로동신문』, 2023.4.9)

- 태천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량과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된 비료의 원료보장과 영양성분 충분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많은 양의 생산도 알곡증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종업원들은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태천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더 많은 질 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생산량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집중은 알곡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군들은 공정별 기술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은 농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유기질복합비료 생산을 이루어내고 있음

■ 봄철영농사업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4.11)

- 평안남도의 농촌들은 봄철영농사업을 당의 지시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당은 올해 농사에 대한 총력을 집중하도록 명령하고 있음
- 시군농업지도기관들은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농사일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깐깐하게 수행하고 있음
- 성천군의 농장 일군들은 토지비옥도 향상을 당의 정치적 목표로 받아들여 지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상하농장과 향풍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자급비료를 확보하고 작업 과정에서 기술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평성시와 평원군의 농장들은 품종 선택과 작업 과정에서 기술규정을 준수하며 벼모판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 농촌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을 빨리 늘이자(『로동신문』, 2023.4.23)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 농촌의 주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의 자체 기술력 강화와 영농방법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자와의 협력과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실물교육과 경험발표회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꾸준한 학습과 탐구를 통해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선진적인 영농방

법, 기계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자체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실속있게 추진해야 할 토양개량기술개발(『로동신문』, 2023.4.24)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토양개량기술의 개발과 추진이 강조되었음
- 토양은 농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토양개량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 토양개량기술은 땅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을 조절하여 농작물이 최적으로 자라는 것을 도와줌
- 토양개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토양 조사분석과 합리적인 개량 방법 적용을 통해 작물의 소출을 높일 수 있음
-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은 토양개량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실속있게 추진하여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실리가 큰 유기농법(『로동신문』, 2023.4.25)

- 유기농법의 중요성과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이 당 정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강조되었음
- 유기농법은 화학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한 소출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일부 농장들이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지력을 향상시키고 알곡 생산량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당정책의 결실과 일군들의 투쟁과정에서 온 나라의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침
- 유기농법 도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당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의 결단력이 필요하며,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의 협력과 경험 교환도 중요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기농법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사회주의 전야를 기름지게 해야 함

■ 많은 량의 천연류황감탕비료를 농업부문에 기증 인민경제대학 의암천연물기술교류사에서 (『민주조선』, 2023.5.3)

- 인민경제대학 의암천연물기술교류사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천연류황감탕비료를 농업 부문에 기증하였음
- 천연류황감탕비료는 농작물의 생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알곡생산량을 늘리는 영양 강화제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많은 농경지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었음
- 인민경제대학의 일군들은 사상과 정신을 받들어 농업부문에 천연류황감탕비료를 기증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였고, 책임일군과 종업원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 지난 4월에는 많은 양의 천연류황감탕비료가 농업위원회에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 천연류황감탕비료의 효과가 입증되었음
- 이 사업은 농촌 발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민경제대학의 일군들의 노력과 애국심이 인정받음

■ 열매남새용 세척 및 소독설비 개발(『로동신문』, 2023.5.13)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은 플라즈마기술과 초음파기술을 이용한 열매남새용 세척 및 소독설비를 개발하였음
- 이 설비는 열매남새의 겉면에 있는 흙, 먼지, 유기물질, 세균,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에 비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
- 이 설비는 식품 및 의약품, 과일 가공 공장 등에서 재료와 포장용기의 세척 및 소독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 양어장 및 수영장의 물 처리 등 인민경제 다양한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김동국을 비롯한 연구진은 공업용 오존 발생기, 오존수 제조기, 초음파 세척기 등의 기술을 개선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연구진들은 현장 조건에 맞게 세척 및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 수천정보 논밭을 규격포전으로(『조선신보』, 2023.5.19)

- 황해남도의 전야들은 기계화포전과 규격포전으로 수천정보의 농지를 변모시키며 봄철토지정리를 진행하고 있음
- 토지정리돌격대 일구들은 토지정리에 힘을 쏟아 계획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평안북도여단에서도 토지정리면적을 늘리고 있음
- 황해남도여단의 교대당 작업실적을 향상시키며 봉천군, 청단군 등의 농경지를 규격포전으로 변모시키고 있음
- 4월 22일, 토지정리돌격대가 매일 수습정보의 토지정리를 해제하고 있는 상황임
- 봄철토지정리의 진행으로 황해남도의 전야들이 큰 변모를 겪고 있으며 농경지의 기계화와 토지정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환경보호에 좋은 녹지조성(『로동신문』, 2023.6.18)

-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풍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식물을 조성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녹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
- 녹지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의 면모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녹지조성은 과학적인 설계와 계획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사용하고 생울타리, 잔디, 화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아름다운 자연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랭습지개량에 필요한 농기계생산을 다그친다(『로동신문』, 2023.6.30)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저수확지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기계 제작과 과학 기술성과의 역할을 강조했다
- 황해북도는 저수확지농사 확대를 위해 랭습지개량에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를 만들어 지역 내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과학자와 연구사들이 새로운 농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기술자와 기능공들이 부품 품 제작과 농기계 조립,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협력을 강조하였음
- 농기계 생산은 황해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수급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 뽕잎생산을 늘이는데 모를 박고(『로동신문』, 2023.8.21)

- 향상된 뽕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관리소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 성과에 대한 중요한 비결은 지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음
- 관리소에서는 과학적인 지력 개선을 추진하여 뽕잎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토양분석을 통해 각 뽕밭의 토양 상태와 영양 성분을 파악하였음
- 일군들은 토양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력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채택하였으며, 거름과 퇴비 등을 과학적으로 생산하여 뽕잎 생산량을 늘렸음
- 뽕누에고치생산에서의 지력 개선은 높은 고치생산 실적으로 이어져, 뽕잎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음

■ 한평의 땅도 포기하지 말고 억척으로 지키고 가꾸자(『로동신문』, 2023.8.24)

-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와 토지 손실이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있으며, 농지는 귀중한 재부로 여겨져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자신의 땅을 억척으로 지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고 있음

■ 밀, 보리씨뿌리기 준비를 다그친다(『로동신문』, 2023.9.7)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음
- 군의 일군들은 밀과 보리파종기 제작을 위한 조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학림 농장 제5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거름 확보와 지력개선에 집중하며 포전에 실어내는 사업도 밀고나가고 있으며, 당정책관철에 대한 농장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

■ 귀중한 이 땅을 옥토로 가꾸어가리(『로동신문』, 2023.9.13)

- 토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 농업이 기본생산수단이라고 강조함
- 화대군 읍농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과학적인 농사지도와 혁신적인 농법으로 발전함

■ 책임감을 무겁게 자각하고 분발해야 한다(『로동신문』, 2023.10.26)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에서는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상적인 발동과 일군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였음
- 가을철에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계획의 과학적 작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됨
- 일군들은 가을철에도 마음의 신들매를 바짝 조이고 분발하여 국토관리사업에서의 개진을 실현하고 국가와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행동해야 함

■ **지력개선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2023.11.4)**

- 각 지역의 농촌에서 다음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지력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며, 군당위원회에서는 사상공세를 벌여 혁신의 불길이 작업장 전체에서 타오르게 하고,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력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
- 올해의 농사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력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힘을 넣어 진행, 특히 낮은 지력 지역의 포전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목표에 맞게 거름을 생산하도록 노력함
- 황해남도 은천군과 평안남도 숙천군에서는 지력개선에 힘을 넣고,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높은 생산을 이끌어낸 농장, 작업반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책 수립 및 실천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지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지고 농사차비를 책임적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함
- 북창군에서는 소석회생산을 강하게 추진하고, 석회석과 초무연탄을 이용하여 소석회를 생산했으며, 다른 지역의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거름 생산을 늘리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빛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결구지 못할 땅이란 없다(『로동신문』, 2023.11.27)**

- 올해 농업부문의 다수확은 강심을 먹고 풍요로운 결실을 안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지력수준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고품질 거름의 생산과 지력의 개선은 수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농장원 한승희의 노력은 돌밭에서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인 농업 기술과 함께 3배 이상의 수확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농업 성취는 결연한 땀과 열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
- 평안북도 동림군 삼성농장 제4작업반원들은 높지 못한 소출 지역에서도 농업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 지력을 개선하고 2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는 알곡생산계획의 220% 수행으로 나타났음

- 땅을 기름지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니탄, 갈탄과 같은 자원과 효능높은 발효균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사의 주인인 농업부문 일군들은 지역과 단위 농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발적인 지력개선을 통해 농업의 성과를 높여야 함

■ 놓치지 말아야 할 열두바닥파기(『로동신문』, 2023.11.27)

- 열두바닥은 거름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파내어 논밭에 실어내는 것은 농사의 지능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었음
- 농촌 일부 지역에서는 거름 생산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아 지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경향이 있었으며, 거름 부족은 농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쁜 땅이 없고,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실농군이라고 강조하며, 정성을 기울이고 진심을 다해 토양을 가꾸는 자세가 농사의 주인 정신이라고 강조되었음
- 낮이나 밤이나 농사의 주인 정신으로 땅을 가꾸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의 성과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음
- 열두바닥파기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되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되었음

13. 한반도와 국토환경

■ 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_평양시 은정구역 배산남새농장, 력포구역 소신남새농장,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로동신문』, 2022.12.7)

- 당의 숭고한 뜻에 따라 평양시 은정구역과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많은 수의 살림집들이 성공적으로 건설되었음
- 살림집들은 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조성되어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풍경을 형성하고 있음
- 건설 작업에는 일군들의 현장 파견과 자재 보장, 기술 전승 회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농촌살림집들의 공사 속도와 질에 대한 지휘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살림집 건설에는 예비조사와 생산 보장, 마감 건재 생산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 작업자들은 설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질적 완공 일정을 보장하였음

■ 대안젓소목장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 진행(『민주조선』, 2022.12.7)

- 당의 육아정책이 각지에서 자랑스러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남포시의 대안 젓소 목장이 현대화되었음
- 대안 젓소 목장은 젓소 사양 관리와 젓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공정들을 갖추고 있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이루어져 있음
- 대안 젓소 목장의 현대화로 인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젓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지게 되었음

■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며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_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_현대적인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민주조선』, 2022.12.11)

-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이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아이스크림 생산기지로 건설되었음

- 아이스크림공장은 첨단 생산설비와 공정을 갖추고,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아이스크림공장은 사회주의 국가적 중점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인민의 행복과 문명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의 건설은 나라의 식료공업 발전에 기여하고, 식료공업부문의 표준과 모범으로 건설되며 인민들의 행복과 문명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

■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여 민족사적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_송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_세계굴지의 련포온실농장(『민주조선』, 2022.12.11)

- 련포온실농장은 세계 수준의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생산면적이 100정보이며 다양한 종류의 남새와 잎새를 생산할 수 있음
- 온실농장은 현대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영양공급과 배수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료 절약을 실현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은 함흥시와 함경남도 인민들의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련포온실농장의 성공을 토대로 평양시와 평안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적인 농업 기술의 보급과 인민들의 식량자급자족을 실현하고자 함

■ 각 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_함경남도보건산소공장 새로 건설, 인흥젓소목장 젓소분장, 성천강타일공장 개건(『로동신문』, 2022.12.21)

- 함경남도는 당의 결정에 따라 도보건산소공장, 인흥젓소목장 젓소분장, 성천강타일공

장을 건설하여 의료봉사와 젓가공제품 공급, 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도내에서는 건설과 개건목표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건설역량을 편성하여 설비와 자재보장을 선행하여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
- 보건설소공장건설을 담당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설비 설치와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
- 인흥젓소목장과 성천강타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생산량과 품질을 제고하여 당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음

■ 우리식 문명창조의 새시대에 솟아오른 인민의 리상마을들_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로동신문』, 2022.12.27)

-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따라 함경남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새로운 문명이 펼쳐졌으며,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음
- 평양시와 해당 도들은 건설역량 편성과 자재보장대책을 선행하여 건재생산단위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에서 살림집건설과 주변정리를 완료하였음
- 평안북도에서는 각 농장의 살림집건설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에 따라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시공의 질과 속도를 병행하였음
- 함경북도 청진시의 건설단위들은 선진적인 건설공법을 도입하고 기계화 비중을 높여 문화주택을 건설하였음

■ 대규모광물생산기지에 특색있게 솟아난 선경마을들_검덕지구에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 새 집들이 진행(『로동신문』, 2022.12.31)

-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에 일떠서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건설되었음

- 검덕지구의 발전과 광산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인 군인건설자들과 주민들이 자신들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밝힌 우리의 전진방향과 투쟁방략을 깊이 새기자_국토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로동신문』, 2023.1.7)

- 올해의 국토관리 과제와 방향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동강 수위 조절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과학적인 산림복구 사업 전개, 도로 건설 방법의 개선, 도시경영 사업 강화를 추진해야 함
- 상황에 따라 대동강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대동강과 보통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환경과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함
- 산림복구 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여 나무 심기와 관리를 신중히 진행하고, 땔나무림조성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기여도를 확보해야 함
- 도로는 나라의 중요한 척도이며 경제 발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공법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므로, 도로 건설과 관리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경제 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각 도, 시, 군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 보수 계획을 세우고 관상적 가치가 있고 그늘조성에 좋은 나무를 심어 도시경영 단위들에 필요한 기공구를 보장하고, 기계화된 도시관리를 위해 자동 청소차와 잔디깎는 기계를 제작해야 함

■ 당의 뜻을 받들어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를 앞장에서 수행해간다_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로동신문』, 2023.1.15)

- 김정은 위원장은 수도에 대규모의 살림집 건설을 중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이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투쟁기상과 번영에 불가항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함

- 평양 건설 혁명은 주체 건축을 통해 수도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서, 건설 속도와 신화적인 업적을 세차게 펼치고 있음
- 건설 지휘부와 시공 단위는 기동적이고 실질적인 작전과 지휘를 통해 평양 건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공정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앞서가는 혁신적인 건축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평양 건설 혁명의 성공을 위해 산림복구 사업은 과학적인 전망과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도로 건설 방법도 혁신되어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하천정리에서 성과를 이룩한 비결(『로동신문』, 2023.1.31)

- 하천정리에 있어서 허천군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군일군들의 당정책관철에 대한 인식과 투쟁기상의 역할이 큼
- 하천정리는 재해성기후와 폭우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군의 중요사업으로 선포되었고, 지난해에는 많은 지역의 하천을 정리하는 목표가 세워졌음
- 하천정리는 군 자체의 힘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집단적인 혁신을 창조해야 함
- 하천정리를 위한 기계설비와 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정책의 운명을 두어깨에 지고 투철한 관점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성과를 달성했음
- 지난해에는 많은 공사량과 다리 건설 등으로 높은 실적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하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은 한마음으로 전진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_중장기적인 계획을 바로세우고 근기 있게 추진하여야 할 치수사업(『로동신문』, 2023.1.31)

- 치수사업은 국토관리의 중요한 애국사업으로서,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

- 과학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관건적 요인임
- 치수사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국토환경보호 성과 지역의 임무 역시 중요함
- 타산에 기초하여 치수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며,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방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함
- 재해성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며, 치수사업 집행은 당정책에 대한 관점과 일군들의 힘과 열정이 필요함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압록강치약공장 건설 마감 단계_평안북도에서(『로동신문』, 2023.2.3)

-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압록강치약공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당중앙전원 회의 결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 공장건설은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마감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작업과 설비조립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 압록강치약공장은 흐름식 치약 생산공정, 칫솔 생산공정, 분석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추게 됨
- 평안북도의 일군들은 소비품 생산 확대를 위해 공장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공장 종업원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산 공정 완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압록강치약공장건설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음

■ 치산치수사업에서도 사상전이 선차이다_송화군당위원회 사업을 놓고(『로동신문』, 2023.2.7)

- 송화군에서는 치산치수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심과 사상전을 통한 사상사업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으로 이루어진 것임
- 군은 남대천정리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입었으나, 군당위원회는 강하천 정리공사와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전을 벌여 정신상태 개선에 주력하였음
- 군당책임일군은 복채를 틀어잡고 사상전을 이끌면서 복소리의 크기와 감흥을 조절하였으며, 군기동예술선동대를 통해 군안의 선전선동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음
- 공사에는 군당책임일군과 군안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군당위원회는 모든 부문, 단위, 근로자들이 국토관리사업에 총동원되도록 사상동원사업을 진행하였음
- 송화군에서는 국토관리사업에 진정한 애국의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군자체의 힘과 대중의 정신력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것임

■ 산과 물을 다스리자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_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운룡농장의 치산치수 경험을 놓고(『로동신문』, 2023.2.10)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운룡농장은 치산치수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였음
- 일군들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작전을 통해 하천들을 정리하였음
- 작업량을 구체화하고 작업반별 임무분담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성공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
- 산림조성사업을 근거리내 내밀어 나무모생산과 농장림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 운룡농장의 경험은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일관성 있는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_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었다(『로동신문』, 2023.2.16)

-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착공식이 개최되었음
- 김덕훈 내각총리가 착공식에서 화성지구 건설을 중요정책으로 제시하고 건설자들을 격려했음
- 건설의 대격전을 선포하게 된 착공식장은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사회주의변화가를 펼쳐갈 군민건설자들의 투쟁열기로 가득한 장소였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평양시 1만세대 건설이 화성지구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건설자들을 격려했음
- 화성지구 건설은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조선인민의 불가항력적 기상을 실증하는 변혁적 실체가 될 것임

■ 사상관점부터 바로세워야 한다_ 지난해 각지에서의 국토관리사업정형을 놓고(『로동신문』, 2023.2.23)

-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국토관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행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 전진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중소하천 정리, 하천바닥파기, 생태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자만과 부족한 태도로 인해 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은 사상적인 과제로서 시, 군당책임일군들의 책임감과 실천력이 필요하며, 자기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

■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각지의 농장마을들에서 새집들이 진행(『로동신문』, 2023.2.25)

-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마을과 문화주택이 건설되고 있음

■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진행_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었다(『로동신문』, 2023.2.26)

- 조선로동당은 수도 평양에 새 거리를 건설하여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청년들은 혁명적 대진군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창한 창조대전에 참여하며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제공함

■ 가로수조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동신문』, 2023.2.27)

- 가로수조성은 도시와 마을의 면모를 개선하여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임
- 원림관리국과 평양건축대학은 가로수조성사업의 개선을 위해 현대적인 거리와 마을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나무의 선택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가로수조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수종 선택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나무를 선택해야 하며,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가로수들의 배치와 가지자르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또한, 도시경영부문은 세계적인 추세와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품종의 나무를 육종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본격적으로 추진(『로동신문』, 2023.3.6)

-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건설이 시작되어 건설부대들이 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음

- 건설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화성지구 건설부대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전달되었음
- 군민건설자들은 현장에서 기초굴착공사에 힘을 실어 최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건설지휘부는 일정 기간에 맞추어 목표를 세우고 조직과 지휘를 철저히 하며, 중기계와 운전기재를 활용하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군민건설자들은 당의 건설혁명 정신을 따라 굴착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여러 부대와 시공단위 일군들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관점이 새롭고 작전이 혁신적이어야 산천이 달라진다_최근 치산치수사업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신흥군당위원회 사업을 놓고(『로동신문』, 2023.3.7)

- 군당위원회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분발하여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산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군급기관 일군들을 포함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을 개선하여 치산치수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기계수단의 확보와 중기계 한대씩 배치하여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예술선동활동과 예술소품공연을 통해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사상공세를 진행하고 있음
- 군안의 산골짜기와 강하천 등 위험 지역을 답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치산치수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사회주의문화농촌에 꽃피는 인민의 웃음소리_상원군, 린산군, 개풍구역, 판문구역의 여러 농촌마을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로동신문』, 2023.3.7)

- 황해북도와 개성시는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과 기술적방조를 강화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화선식 선전선동을 전개하였음
- 상원군은 로동리의 살림집건설추진정형을 주별, 월별로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웠음

- 린산군은 작업의 기계화와 전문화를 선도하며 석련리의 농장마을에 특색있는 문화주택들을 세웠음
- 개풍구역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시공역량 편성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키고 실속있는 공사를 통해 신팡리소재지 마을의 살림집건축공사를 완료했음
- 판문구역에서는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집단적혁신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문화주택을 건설하였음

■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일관하게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의 치산치수 경험(『로동신문』, 2023.3.8)

- 산과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사업은 자체 힘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상이공예작물농장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농장일군들은 치산치수사업을 실무적으로 대하고 계획을 세우며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았음
- 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장식공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장의 하천들을 다스리고 공사시간을 단축시켰음
- 나무심기와 산림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농장의 살림살이와 생활상 편의를 향상시켰음
- 자체 힘으로 치산치수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농장의 농업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김덕훈 내각총리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과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료해(『로동신문』, 2023.3.10)

- 김덕훈 내각총리가 평양시와 화성지구에서 새 거리건설과 살림집건설을 현지에서 요해함

- 김덕훈 내각총리는 청년전위들의 공사 열기를 고무하고 후방보장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도록 지시하였음
- 건설협의회에서는 건설 공정과 재료 생산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고 대책이 강구되었음
- 김덕훈 내각총리는 농장에서의 알곡생산과 과학기술적 대책에 관심을 가지며 재해성 기상현상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음

■ 국토관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로동신문』, 2023.3.20)

- 전국에서 국토관리사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토관리와 관련한 계획과 실행대책을 철저히 보장하며 전진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토관리사업을 애국사업으로 강조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함
- 시, 군들은 하천정리공사와 도로 개선 등을 통해 실적을 거두며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토관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는 관점이 중요함

■ 화성지구 2단계 건설장에서도 성과 확대(『조선신보』, 2023.4.12)

- 화성지구 2단계 건설장에서 군인건설자들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지휘부는 건설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건설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별 공정계획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군인건설자들은 고층 살림집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지상골조공사에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음

■ 해주밀가공공장 개건, 조업식 진행(『로동신문』, 2023.4.16)

- 해주밀가공공장의 개건 및 조업식이 진행되었음

- 공장은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설비를 갖추고 자동조종체계가 확립되어 황해남도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공장의 개건공사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생산능력 확장과 제품 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조업식에는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

■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조선신보』, 2023.4.24)

-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하에 준공되었음
- 이 건설은 평양시 5만세대 건설의 두 번째 대상으로 군민건설자들의 투쟁으로 빠르게 완공되었음
- 준공식에는 정부 간부들과 평양시민, 근로자들이 참석하였고 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화성지구의 대건설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강조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지구의 건설을 평가하고 2단계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호소를 함

■ 강하천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로동신문』, 2023.4.26)

-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재해성이상기후현상과 강하천정리사업에 대해 강력히 내밀고 있음
- 도당위원회는 강하천정리사업을 위한 대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보여주기사업을 통해 신흥군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 군일군들은 강하천정리에 참여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열의가 고조되고 있음
- 허천군과 다른 군에서도 치수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하천정리를 진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경험을 공유하고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강하천정리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수천km의 물길가시기 및 보수공사 진행(『로동신문』, 2023.4.27)

- 평안북도에서는 당의 결정을 받들고 관개시설을 복구,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에서는 관개시설 복구, 완비를 위한 목표수행을 중요한 과제로 틀어쥐고 물길가시기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효율적인 토론을 통해 방대한 공사 과제를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도급기관과 기업소 등의 역량이 집중되어 백마-철산 물길가시기 및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전선동 역량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동원하여 질보장과 경쟁열의를 고조시킴

■ 화성거리에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조선신보』, 2023.5.8)

-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었음

■ 관개수로 보수확장공사 결속(『로동신문』, 2023.5.9)

- 동래강저수지로부터 홍건도간석지까지의 관개수로보수확장공사가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의해 완료되었음
- 올해 홍건도간석지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담보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알곡 생산 증가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강조되었음
- 평안북도는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간석지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기 위해 홍건도간석지농사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관개수로를 보수확장하여 간석지농사에 필요한 단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협력으로 현지답사를 진행하며 설계와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음
-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였으며, 선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높은 일손과 공사속도를 유지하였음

■ 여러 농촌마을에서 살림집입사모임(『조선신보』, 2023.5.10)

- 4월 28일, 평양북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등 여러 지역의 농촌마을에서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준공되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였음

■ 우리 당정책은 진리이고 과학이며 승리이다(『로동신문』, 2023.5.11)

- 당중앙위원회는 농업 개발과 알곡 생산을 포함한 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배수시설 건설과 보수공사를 강력히 추진(『로동신문』, 2023.5.16)

- 김정은 위원장은 강하천에 여러 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국적으로 배수시설건설과 보수공사과제의 90% 이상이 수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음
- 도당 일군들은 현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대상을 확정하고 수송조직을 철저히 조직하여 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배수시설건설과 보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군들은 계획을 세우고 자재보장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건설자들의 노력으로 18개소의 배수문이 신설되었고 60여개소의 배수문이 보수되었으며, 다른 도에서도 계획된 공사과제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배수양수기, 배수문정비사업 예견성있게 추진(『로동신문』, 2023.5.19)

- 강원도에서는 재해성 이상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체계를 강화하고 배수양수기와 배수문의 수리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폭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강원도는 배수체계 완비를 알곡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배수양수기와 배수문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음
-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배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 군민발전건설 활발(『조선신보』, 2023.5.19)

- 강원도에서는 군민발전소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6년 이후 이천, 고성, 평강, 세포, 회양, 문천 등 6개소의 군민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이천과 문천 군민발전소는 이미 2020년에 완공되었음
- 강원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물길굴콘크리트피복공사는 90%의 완료도를 달성하였고, 전반적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고성군민발전소건설은 현재 본격적인 진행 단계에 있으며, 회양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는 선진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를 계획대로 진척시키고 있음
- 세포군민발전소건설자들은 혁신적인 투쟁을 통해 압력철관로설치공사를 완료에 가까이 하고 있으며,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자들도 무늬이연제공사를 결속하여 완공을 앞당기고 있음

■ 수천개의 물확보시설공사 진행(『로동신문』, 2023.5.21)

- 평안북도는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물확보시설을 강화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는 가물과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있음
- 도는 물확보시설 공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농경지면적과 물보장 대책에 주목하고 있음

■ 하천정리에 박차를(『로동신문』, 2023.6.3)

- 동림군은 10km의 하천을 정리하고 참대버드나무를 포함한 많은 나무를 주변에 심어 국토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군은 하천 정리 작업을 위해 중기계와 운송 수단을 투입하며 돌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룡목 모보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하천 정리 작업을 고향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며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군은 하천 정리와 나무 심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몇 달 동안의 노력으로 10km의 하천 정리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농경지 보호를 담보하였으며, 군은 국토 관리 노력을 지속하며 발전을 이어갈 계획임

■ 젓소목장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로동신문』, 2023.6.9)

- 김정은 위원장은 앞날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을 위해 육아정책을 강조함
- 황해북도에서는 젓제품 생산능력이 큰 젓소목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단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당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은 황주군 운성리지구에 능력 있는 젓소목장을 건설하여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제품을 공급할 목표를 힘차게 추진하고 있음
- 건설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물과 먹이보장, 수의방역 등의 조건을 고려하며 설계와 자재 보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일군들의 협력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젓소목장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계획되어 지역의 젓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6.11)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 정비, 국산 촉매 도입 등을 강조하여 주체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정비보강추진지휘조가 정비보강계획에 따라 대상공사를 내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계획 수행에 힘쓰며 성공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순천지구의 영양액비료공장건설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저탄장능력확장공사, 남흥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가스청정공정 보강 및 기능성박막생산기지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명간화학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등 여러 화학공업기지에서도 정비보강사업 및 생산공정 개선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강조됨

■ 로동당의 은덕으로 웃음꽃이 활짝 핀다(『로동신문』, 2023.6.15)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이 인민의 복지를 위해 복무하는 참된 사회주의이며, 불패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했음

- 대평지구에서 로동당의 지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집과 시설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리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다층 및 고층 살림집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진료소 등의 공공시설과 상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화롭게 조성됨

■ 수백만m³의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 진행(『로동신문』, 2023.6.16)

- 함경북도에서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포함한 국토관리사업을 진행하며 강하천정리에 힘을 쏟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강하천정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큰물피해 방지와 주변환경 개선을 강조함
- 지역발전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 함경북도는 치수사업을 통해 사활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강하천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계획적인 목표와 조직사업을 전개하며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통한 실적 달성과 중기계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강하천정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임

■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 모습, 복받은 근로자들의 기쁨_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 진행(『민주조선』, 2023.6.20)

- 평안북도와 인접한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의 농촌마을은 농촌혁명의 성과를 드러내며 새로운 번영과 행복의 산지로 거듭남
- 의주군 서호리, 초산군 앙토리, 시중군 약샘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주택들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농업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음

■ 강하천정리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로동신문』, 2023.7.3)

- 김정은 위원장은 강하천정리와 물관리사업 강화를 강조하며 중요성을 강조함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 지향적인 추진을 강조함
- 일군들은 국토관리정책을 수행하고 강하천정리를 꾸준히 진행하며 연간 계획의 88%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강하천정리의 질적 개선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재해성기상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강하천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강하천정리를 통해 대상 지역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며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투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 흥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_자강도의 여러 농장마을에서 새집들이 진행(『민주조선』, 2023.7.11)

- 자강도 여러 농장마을에서 농촌혁명강령을 실천하며 새집들이 경사가 나타나고 있음
-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산간지대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주택이 지어져 농업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받들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건설계획을 세우고 기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살림집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꽃피난 새 문명, 새 생활_신도군 비단섬로동자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민주조선』, 2023.7.12)

- 김정은 위원장은 신도군 비단섬로동자구의 주민들에게 살림집부터 제공하며 건설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를 제공함
- 평안북도당위원회와 인민들이 함께 하여 살림집건설을 실현하고 경제발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힘있게 투쟁할 결의를 피력함

■ **문명창조의 새시대에 솟아오른 사회주의농촌의 자랑찬 모습_강원도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 진행**(『민주조선』, 2023.7.24)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강원도의 여러 농촌마을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져 농업근로자들의 기쁨이 넘치고 있음
- 천내군, 고성군, 세포군, 평강군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의 문화주택들을 건설하여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변모시켰음
- 당의 구상과 농촌건설정책을 받들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어 마을들을 혁신시키며 농촌의 발전을 실현함

■ **강하천정리에서 우선시해야 할 과업**(『로동신문』, 2023.7.30)

- 김정은 위원장은 강하천정리 강화를 강조하며, 인민의 생명재산과 국가의 재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강하천정리에서 폭우피해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한 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강수량과 물통과량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 측면에서 빈틈 없는 대책을 세우고, 기계수단을 활용하여 강하천정리를 추진하고 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도, 시, 군들은 자체의 기술력을 튼튼히 꾸리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하천정리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여 진일보를 이루어야 함

■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고**(『로동신문』, 2023.8.1)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재해성이 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평양시에서 폭우와 태풍에 대비하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도시에서는 수원지와 상하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보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함경북도에서는 정비보수와 오수정화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회령시, 길주군, 온성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상수관늘이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오수망준첩 및 나무 버팀대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에서는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제방성토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물피해 위험을 줄이고 있음

■ 살림집건설을 통해 본 우리 당정책의 인민성(『로동신문』, 2023.8.2)

-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살림집 건설 작업은 어머니당의 고마움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됨

■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높이 완공을 앞당겨간다(『로동신문』, 2023.8.8)

-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 부문이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와 사회주의의 활력을 고조시키며 강국의 내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대의 문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민건설자들이 살림집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건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과 현장 정리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음
- 건설지휘부에서는 날씨와 기상 조건에 대비하고 건설물을 완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건설단위들을 적극 지도하고 있음

■ 현실적조건에 맞는 당사업방법론을 적극 탐구적용하자(『로동신문』, 2023.8.11)

- 중구주택건설사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건설 공사 개선과 완료 기한 단축을 목표로 했음

- 건설자들은 기술 혁신과 기계수단 향상에 노력했음

■ 개건현대화된 남포밀가공공장 조업(『민주조선』, 2023.8.18)

- 남포시에서 밀가공공장을 현대화하여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공장을 개건하고 빠른 공사 진척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음
- 남포시당위원회와 근로자들은 협력하여 공장 설비 조립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밀가공공장 조업식에서는 당의 정책과 영도를 강조하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강조했다음

■ 량강도의 살림집건설(『조선신보』, 2023.8.25)

- 량강도 농촌들은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 소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극히 적게 전해져 왔으며, 골재 부족과 추위로 건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음
- 현지에 도착한 당원대대 건설자들은 힘들게 온 길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농촌살림 집건설장의 작업에 착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놀라움과 감사를 받았음
- 김정은 위원장은 노력과 지원으로 량강도 농촌들은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을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의 힘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음

■ 하나로 된 마음과 힘(『민주조선』, 2023.8.31)

- 수도 평양의 서포지구에서 청년 건설자들이 낭만과 열정으로 새 거리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평안북도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높은 공사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건물의 공사가 진행 중임
- 청년건설자들은 힘차게 공사를 벌여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하나로 된 마음과 힘을 모아서 건설 작업을 진행하며, 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살림집골조공사 마감단계(『조선신보』, 2023.9.6)

- 착공 6개월 후,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청년건설자들은 수십동의 살림집골조공사와 내외부 미장성고를 결속하며 공공건물과 하부망공사를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개월 동안, 건설장에서의 청년들의 힘찬 노력으로 서포지구 새 거리는 날이 갈수록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착공된 서포지구 건설은 청년건설자들의 역동적인 투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내외부미장성고를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자연재해방지 능력이자 당조직의 전투력이다(『로동신문』, 2023.9.7)

- 최근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자연재해에 경고하고 예방조치를 당조직에 촉구함
- 국토관리를 생명안전과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두고, 당조직은 국토관리에 힘을 집중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자연재해방지능력을 향상시키라고 당조직에 촉구함
-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시적이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요령주의를 방지해야 함
- 김정은 위원장은 자연재해방지능력이 전투력이라며, 모든 당조직은 재해방지능력을 총력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고있는 조선인민(『민주조선』, 2023.9.7)

- 러시아연방의 기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외부압력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보도함

- 조선인민은 외부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발전을 선택하며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길을 택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확보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전사회의 일심단결이 높은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있음
- 조선인민은 적대세력과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통해 평화롭게 발전하려는 결의를 담백하게 밝히고 있음
-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정치적 일심단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립적민족경제를 향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밀된장생산공정 확립(『로동신문』, 2023.9.13)

- 온천군기초식품공장은 밀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초식품을 활성화하고, 맛 좋은 밀된장 생산을 위한 공정을 확립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구조를 개선하고 있음
- 공장의 노동자들은 질 좋은 기초식품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밀된장 생산을 강조하며, 설비와 자재의 자체 생산으로 자력갱생 정신을 실현하고 있음
- 기술자와 기능공들은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체적인 지혜로 밀정선기, 정미기, 살균탱크 등의 설비를 제작하며 혁신적인 밀된장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밀된장의 풍미를 유지하고 품질 지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험생산을 실시하고, 맛있는 밀된장 생산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기술력을 강화하고 자체 수리기지를 갖춘 공장에서는 설비의 원활한 가동을 보장하며, 강냉이와 밀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기초식품과 음료를 생산하여 군안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식료공장의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23.9.15)

- 김정은 위원장은 경공업공장을 노력절약형과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를 활용하여 고품질 소비품 증산을 지시함
- 룡강군, 곡자공정과 신젓생산설비 현대화로 식품 증산, 지방경제 특색 부여함
- 새로운 설비 제작, 기술적 문제에 도전하며 짧은 기간 내 곡자공정을 현대화함
- 신성과 기반으로 룡강군, 신젓생산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 생산현장 개선으로 일자리 확대, 더 많은 제품 생산 담보 확보,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 보장에 관심 가짐

■ 수천세대의 소총, 다층살림집건설을 전격적으로(『로동신문』, 2023.9.23)

-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상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음
- 룡양광산지구에서 인민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수천세대의 살림집건설이 결속 되고, 계획된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강조하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모든 건설대상 들의 외부공사를 끝내는 목표를 세우고 건설지휘부에서 작전과 지휘를 철저히 진행 중임
- 각급 부대는 효율적인 건설기공구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적극 채택하여 건설기일을 앞당기고, 건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검조선인민군의 다양한 부대들이 현지 건설장에서 성과를 올리며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성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강하천정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로동신문』, 2023.9.25)

- 김정은 위원장은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홍수피해를 막고 강하천 주변을 잘

- 꾸며야 한다고 강조하며, 라선시가 가을에 강하천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
- 각 지역에서는 중소하천들의 정리공사와 함경북도에서의 수성천호안공사, 길주군의 두만강제방보수, 회령시에서의 회령천 작업, 함경남도의 허천군, 신흥군, 고원군, 황해북도 등에서의 강하천정리사업이 각종 공사와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군의 일군들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강하천정리사업을 치밀하게 조직 전개하고, 특히 남대천의 위험 개소 제거에 군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연탄군에서는 장마철의 물흐름량 종합과 최대 비내림량을 고려하여 중소하천 정리를 진행하고,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장마철에 강하천 바닥의 흙과 모래를 파내는 작업을 중심으로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변모되는 사회주의농촌마을(『민주조선』, 2023.9.26)

- 북변부터 두메산골까지 전국적으로 새집들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촌혁명강령의 영향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농촌혁명강령은 전국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기 위한 건설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
- 중앙부터 지방까지 활발한 농촌살림집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화된 건설 자재와 지휘력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농촌살림집이 소개되고 있음
- 국가적 조치로 건설지휘력이 조직되어 시멘트 등이 전진공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건설력과 설계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상으로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어, 총비서동지에 대한 감사와 농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로동신문』, 2023.10.5)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영양액비료공장이 건설되어 준공되었음
- 영양액비료공장 건설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건설건설공업성 등이 자재 및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고, 노동자, 기술자, 건설자 등이 협력하여 성과적으로 완료되었음
-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새로운 영양액비료공장은 국가의 발전 목표와 김정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인민의 신선한 남새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우리 당생일날에 펼쳐진 새집들이경사(『민주조선』, 2023.10.10)

-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대책들이 마련되었고, 당창건기념일까지 피해복구를 결속하기로 결정되었음

■ 올해 치수사업정형을 엄정히 따지고 교훈과 극복방도를 찾자(『로동신문』, 2023.10.15)

-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과 치수사업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강조적인 지시가 주요 내용임
- 당중앙위원회의 강령과 치수사업의 실태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엄중한 지시에 대한 언급함
- 치수사업의 일부 지역에서의 부실한 진행과 일군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문제 발생함
- 치수사업의 개선을 위해 일군들은 교훈과 극복방도를 찾고, 적시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진행을 강조함

■ 골재가 쏟아진다(『민주조선』, 2023.10.15)

- 청류골재사업소에서 진행되는 건설재료 보급사업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

- 대동강에서 수송된 골재들이 선별과정을 거치고 건설장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보여줌
- 화성지구 및 서포지구의 건설장에 골재를 보내주기 위한 노력과 대형화물자동차의 활용함
-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작업현장에서 기대와 활기가 가득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임

■ 새 농촌마을에 공동축사가 일떠섰다(『로동신문』, 2023.10.17)

- 어머니당의 사랑에 영감을 받아 지난 해에 시작된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소재지 마을의 공동축사건설이 완료되었음
- 군의 노력으로 진행된 공동축사건설, 축사 운영 및 농촌건설계획의 성과에 대해 보고함
- 공동축사의 기능과 현대적 특성을 갖춘 새로운 살림집건설, 건설과정에서의 공동노력과 사랑에 대해 표현함

■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대(『조선신보』, 2023.10.20)

- 12월 5일에 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이 준공되어 탄산소다의 자급률 향상이 기대되고, 이는 회망초를 활용하여 기초화학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전임을 나타냄
- 12월 5일 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 준공식, 탄산소다의 자급률 향상과 회망초 활용에 대한 기대하고 있음
- 조선에서의 탄산소다공업화는 8월에 완공된 남흥청년화학련한기업소의 탄산소다생산공정에 계속되어, 이번에는 12월 5일 청년광산에 신규 생산공정이 준공되었음
- 이로써 회망초를 활용한 탄산소다 생산이 가능해져 기초화학제품의 생산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준공식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함

- 양승호 내각부총리는 건설자와 로동계급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 공사가 화학공업발전에 새로운 도약대를 제공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개건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준공(『조선신보』, 2023.10.27)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서관이 개건되어 120만여부의 장서와 1,000여석의 열람능력을 갖춘 대규모 도서관으로 준공되었음
- 120만여부의 장서능력과 1,000여석의 열람능력을 갖춘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서관이 개관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승찬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이 준공사를 주도하였음
- 개건된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은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2023.11.10)

- 황해북도에서는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노력 속에서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을 개건하고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다양한 맛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음
-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의 준공식에서는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문창일과 관계부문,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등이 참가하였으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이 지도자 김정은위원장의 농산물 공장 현대화에 대한 지시를 수행하였음
- 생산건물과 사무청사를 비롯한 여러 건물을 질적으로 내밀고, 제곡공정, 효소분해공정, 포장공정 등을 혁신하며 흐름식으로 갖추어진 기초식품공정과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를 통해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음
-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화국의 결정을 받들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민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초식품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음

- 참가자들은 준공식 이후 공장을 돌아보며 생산공정과 시설을 확인하였음

■ 농촌살림집건설 적극 추진(『로동신문』, 2023.11.12)

- 함경북도에서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기념하고 건설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농촌살림집건설장에서 힘을 모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에서는 올해의 농촌살림집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사업과 장악, 총화 등을 통해 공사 일정을 추진하고, 일군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시, 군별 사회주의 경쟁 속에서 창태축산농장마을을 조직적으로 꾸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건설자들은 집단적 혁신으로 수백세대의 농촌집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외부미장작업에 착수하고 있음
-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미장공, 용접공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별 전문화를 통해 왕재산농장 문화주택 및 공동축사건설을 병행 진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 명간군에서는 혼합기, 스킵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의 품질과 속도를 향상시키고, 함경북도 경흥군에서는 작업의 기계화와 전문화를 높여 공사 성과를 끌어올리고 있음
- 또한, 여러 시, 군의 근로자들은 경소마그네샤에 의한 건구 및 색기화를 향상시켜 건설장에 품질 좋은 건재를 공급하고 있음

■ 대건설전구로 달리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로동신문』, 2023.11.16)

- 다양한 분야의 3대혁명붉은기단위들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물자 및 지원물자를 마련하고, 특히 출판물보급소, 생산국안, 출판물보급소 등이 살림집건설과 새 거리건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지역 기관들은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지하고, 락랑구역상업관리소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건설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도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공장 지배인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하며, 각자의 역할을 통해 건설에 기여하고 있음

■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 검덕지구의 전변(『민주조선』, 2023.11.16)

- 검덕지구를 광산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당중앙의 웅대한 계획에 따라 함경남도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1,4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이 건설되어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이 향상되고 있음
- 미더운 인민군 군인들은 광산도시건설에 애국의 힘과 열정을 바쳐 새로운 선경을 펼쳐놓으며, 룡양광산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미래 비전에 따라 특별한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국민의 기쁨을 증폭시키고 있음
- 살림집입사모임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승고한 경륜을 펼쳐가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들여 근로하는 인민에게 풍족한 만복을 안겨주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

■ 전국의 많은 시, 군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마감공사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2023.11.17)

- 농촌건설중앙지휘부는 건설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감독일군 파견과 선진적인 공법, 기술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건설을 실현하고 있음
- 도, 시, 군 전체에서 건설자들은 당의 정책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특색과 원림경관을 고려하여 원림수목선정과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농촌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마감공사와 올해 새로 건설되는 마을에 대한 공동축사건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과 창조의 불길이 펼쳐지고 있음

■ 평양제약공장 준공식 진행(『민주조선』, 2023.11.22)

- 평양제약공장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었으며,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로 몇 배나 더 많고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매봉산의료용소모품공장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2023.11.23)

- 올해 승리적인 투쟁 속에서,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매봉산 의료용소모품공장이 새로 일떠나 강력한 힘으로 준공되었음
- 생산건물과 보조건물 등이 갖춰져 다양한 의료용소모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훌륭한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나라의 방역사업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공장 준공식에는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하여 보건상 최경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원산시 근로자들이 참가
- 매봉산 의료용소모품공장은 김정은동위원장의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져 공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할 것임을 강조함

■ 매봉산의료용소모품공장 준공식 진행(『민주조선』, 2023.11.23)

- 뜻깊은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투쟁 속에서,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매봉산 의료용소모품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훌륭한 준공식이 진행되었음
- 생산건물과 보조건물 등이 갖춰지며 각종 의료용소모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건강증진 및 나라의 방역사업에 기여할 토대가 마련되었음
- 공장의 준공식에는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인 백성국, 보건상 최경철, 관계부문 일군들, 그리고 원산시 근로자들이 참가

■ 평양시 강동군에 축산농장 새로 건설(『로동신문』, 2023.11.28)

- 새로 일떠선 송금축산농장은 현대성과 문화성, 그리고 생산 및 생활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농촌문명을 구현하였으며, 탁아소 및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맛 좋고 질높은 젖가공품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연설자는 송금축산농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축산농장으로써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당의 육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14. 해양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_함경북도에서(『로동신문』, 2022.12.3)

- 함경북도에서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도에서는 바다와 강, 호수 지역에서 새끼물고기 방류와 양식을 증가시켜 수산자원을 확대하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대중을 동참시키고 있음
- 련진수산사업소와 간해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인공배양장을 향상시키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향상시켜 다시마, 섭조개, 해삼 등의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도에서는 바다동식물 생육에 유리한 인공어초조성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강과 호수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 개건 및 능력확장공사 결속_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22.12.10)

- 평안남도에서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의 개건과 능력확장공사가 결속되었으며, 도에서는 새끼쏘가리와 먹이용 물고기를 생산하여 연풍호에 방류할 수 있게 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도에서는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의 면모를 일신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도는 설비, 자재, 중기계, 전기재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철저히 전개하였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책임감을 발휘하며 공사과제를 수행하였음
- 수산성에서도 공사를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는 연풍호의 수산자원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생산능력도 향상되었음

- 생산건물에는 알깨우기장, 조종실 등이 완비되었고, 필요한 설비, 수감장치, 감시체계도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에는 수천m²에 달하는 양어못이 설치되어 있음

■ 지난해의 1.4배에 달하는 쏘가리 방류(『로동신문』, 2022.12.16)

-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4배에 달하는 새끼쏘가리를 생산하여 태천호에 방류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어 수산자원을 증식시키는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새끼쏘가리 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화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새끼쏘가리 생산을 위해 물온도 체계를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과학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개선을 이룩하였으며, 먹이용 물고기의 인공번식과 기르기에도 주력하여 진전을 이루었음
- 사업소는 충실하게 수만마리의 새끼쏘가리를 생산하여 태천호에 놓아줌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에 기여하였음

■ 조기양어에 힘을 넣자(『로동신문』, 2022.12.16)

-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자원 발전을 위해 조기양어 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조기양어 생산을 위해 조기종자 문제와 물 문제, 먹이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과학기술적인 사업을 통해 조기양어 생산성을 높여야 함
- 또한 원료와 자재 공급, 기자재 생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조기양어 사업을 지원해야 함

■ 각 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_도항공구락부, 도수의방역소,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 준공_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22.12.23)

- 평안남도에서는 도항공구락부, 도수의방역소,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의 건설이 성공

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공체육 발전, 수의방역 수준 향상, 양식물 생산 증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항공구락부, 수의방역소, 개천시의 양어사업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
- 건설 현장에서는 항공구락부는 고품질의 활주로, 격납고, 육체훈련실 등을 갖추었으며, 수의방역소는 수의약품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개천시방류어업사업소는 새끼쏘가리 생산과 양식물 생산을 위한 건물과 설비를 완비하였음
- 준공식에서는 평안남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주요 당 및 관계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전해졌음
-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영도에 힘입어 새끼쏘가리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생산계획을 완수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음

■ 각 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_금천자라공장, 풍어바다양어사업소, 강령바다양어사업소 종어장 새로 건설(『로동신문』, 2022.12.24)

- 금천자라공장, 풍어바다양어사업소, 강령바다양어사업소의 건설로 인하여 수산업발전과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어, 양식기지가 마련되었음
- 해당 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보장하여 대상건설을 최단기간에 진행하였음
- 자라공장, 양어사업소 등의 건설에서는 질적인 건축물과 설비조립, 생산체계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지혜와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였음
- 금천자라공장, 풍어바다양어사업소, 강령바다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정책을 실천하여 양어와 양식을 과학화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바다양어와 양식의 발전전망(『로동신문』, 2023.1.15)

- 바다양어와 양식은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양어와 양식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국가들이 투자하고 있음
- 양식의 과학화와 전문화, 우량품종의 도입, 종묘생산의 집약화와 전문화 등이 중요한 추세이며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바다양어와 양식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배양기지를 구축하고 양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바다양어와 양식에서는 다시마와 김양식, 우량품종의 재배방법 등에 집중하고 양식면적을 확대해야 함
- 바다양어와 양식의 발전을 위해 종자문제 해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당의 지도에 따라 과학화와 집약화를 추진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함

■ 각 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_수산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음_함경남도에서 (『로동신문』, 2023.1.15)

- 함경남도는 수산자원 확대를 위해 새끼물고기 방류 사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양어와 양식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음
- 풍어바다양어사업소는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넙치, 우레기, 가재미 등 다양한 어종을 기를 수 있으며, 새끼물고기 생산 및 방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
- 일군들은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한 선진 기술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풍어바다양어사업소의 성공을 이끌고 있음
- 도는 수산부문에서 다양한 단위로 새끼물고기 방류와 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화된 새끼물고기 사육관리와 기술력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바다동식물 생육을 위한 조건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주력(『로동신문』, 2023.2.4)

- 수산성 수산연구원 중앙양어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당의 양어정책을 위한 과학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쏘가리양어기술과 못과 그물우리에서의 은어양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먹이를 활용한 그물우리양어 생산성 향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사업의 전진을 통해 쏘가리와 은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논판양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강습 및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산제염소에서 소금생산 시작(『로동신문』, 2023.2.14)

- 당중앙위원회의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받아 원산제염소에서 소금 생산이 시작 되었음
- 제염소는 위대성교양사업을 진행하며 생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제조직과 지휘를 강화하고 있음
- 양수기운전공들은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 설비의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염 공들은 진군길에서 혁신을 창조하여 소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 제염소는 바닷물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찌물생산방법과 물대기방법을 적용하고 일정계획을 지키며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

■ 서해의 어장으로 고기배들 진출(『로동신문』, 2023.3.11)

- 평안남도 수산부문 어로공들이 올해 첫 출어식을 개최하여 물고기 대풍을 시작하였음
- 도수산관리국은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여 수산사업소들의 선박 출항을 원활하게 보장하였음

- 가마포수산업소에서는 설비 보수정비를 완료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문덕수산업소에서는 물고기 잡이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물질기술을 강화하였음
- 출어식에는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석하였음

■ 바다에는 흐뭇한 다시마작황, 포구에는 기쁨의 노래 가득_서해의 바다가양식사업소들을 찾아서(『로동신문』, 2023.3.24)

- 서해 바다에서 다시마 양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량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와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는 다시마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며, 기술력 강화와 교육체계를 통해 자기개발에 힘쓰고 있음
- 사업소의 생산실적은 연간 수백톤에 이르며, 고급화된 양식장과 물질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 있음
- 양식공들과 가공공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해 사업소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서해 바다에서의 다시마 양식 사업은 사회주의조국의 발전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

■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수천의 소금을 증산(『로동신문』, 2023.4.4)

- 소금공업국은 생산적 양양을 통해 소금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생산성의 불길이 번지고 있음
- 소금공업국의 1/4분기 생산량은 계획의 3배 이상으로 증산되었고,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많은 증산이 이루어짐
- 소금공업국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열정과 투쟁으로 인해 인민경제계획수행

의 담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 소금공업국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일터마다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을 배치하고 있음
- 소금공업국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혁신을 통해 소금수요를 원활히 보장하고 있으며, 높은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생태환경보호사업은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로동신문』, 2023.4.23)

- 김정은 위원장은 환경보호와 자연보존 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생태환경파괴의 주요 요인은 인간의 잘못된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생태환경의 파괴는 해안 도시의 피해, 생물종의 멸종, 물 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인민들도 자신의 지역과 부문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
- 생태환경보호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애국사업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명적인 책임임

■ 새끼물고기방류를 대대적으로(『로동신문』, 2023.4.25)

- 김정은 위원장은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새끼물고기 방류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애국사업으로, 식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사업임
- 새끼물고기 방류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품종의 새끼물고기를 방류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함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끼물고기의 인공번식과 방류기술을 발전시키고, 서식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야 함
- 강과 바다, 호수와 저수지 등에서의 새끼물고기의 서식조건을 파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리 및 감독통제기관들이 책임을 다해야 함

■ 수질개선에 효과적인 생태띄우개(『로동신문』, 2023.4.29)

- 김정은 위원장은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증식하고 대기, 강하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 강과 호수의 부영양화는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며, 용존산소량을 저하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와 인의 과잉임
- 생태띄우개기술은 띄우개에 식물을 심어 물을 정화하는 기술로, 띄우개에 심은 식물이 질소와 인을 흡수하여 오염된 물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생태띄우개에서 오염제거효과는 띄우개구조, 통풍조건, 온도, 오염량 등의 영향을 받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교원과 연구사들은 다양한 형식의 생태띄우개를 이용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에서 수산자원을 늘이기 위한 사업(『조선신보』, 2023.5.24)

- 함경북도에서 수산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도인민위원회는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와 련진수산사업소를 본보기로 삼아 모든 수산사업소에서 새끼명태 생산체계와 과학적인 종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진수산사업소, 석호바다가양식사업소 등의 수산, 양식사업소들은 양식장 면적을 확대하고 혼합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다시마와 썩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물의 생산을 탁아소, 유치원 및 주민들에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 심화(『로동신문』, 2023.5.30)

- 김정은 위원장은 공장과 기업소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를 정화하여 강하천과 호수,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평양건축대학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중요한 연구종자로 선정하고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평양을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갖춘 문명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경영학부의 연구집단은 생화학적 정화방법을 연구하고, 정화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화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생산폐수의 정화에 대한 전기적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연구집단은 또한 고활성발효균을 활용한 오수침전물의 무해화와 무독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현실에 적극 도입되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수지오물에 의한 세계적인 생태환경오염문제(『로동신문』, 2023.6.14)

- 수지오물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1회용 비닐제품 사용 금지 및 생분해성 구력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지오물 회수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수지오물을 가공하여 건설재료나 연료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어떤 나라에서는 수지오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바다와 호수에 버려지는 수지오물로 인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수지오물 및 폐기물이 계속 증가할 경우 바닷속의 합성수지량이 물고기의 중량을 넘어서게

될 우려가 있음

- 과학자들은 수지오물로 인한 바다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호흡기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수지오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있음

■ 지하초염수(『조선신보』, 2023.6.16)

- 지하초염수란 물 1L에 물려있는 소금량이 50g 이상으로서 바닷물보다 농도가 수배나 높은 짠물을 말하며, 이 물로 소금을 생산하면 바닷물을 소금밭에 넣고 햇빛에 졸여 소금을 만드는 천염제염에 비해 그 생산량이 2~5배에 달하며 생산주기와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음
- 2006년 당시 지하초염수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나,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든 사람은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부 해양자원연구실 김룡홍 실장임
-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시추가 진행되었으나 바라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음
- 고심 어린 연구와 탐사끝에 2012년경부터 서해안에서, 2021년경부터는 동해안에서도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이 시작되어 나라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음

■ 동해해양연구소, 서해해양연구소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로동신문』, 2023.6.20)

- 19일, 동해해양연구소와 서해해양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가 열림
- 보고회에서는 주체 52년부터 시작된 연구소의 발전 역사와 수령님의 지도 아래 해양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주체 52년에 설립된 연구소들은 해양과학연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전문가 양성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량 향상에 노력하였음
- 보고자들은 연구소들이 주체적으로 나라의 해양과학발전을 이끌어오고, 해양환경관

측, 자원 조사, 재해예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며, 수령님의 지도 아래 해양과학연구의 발전을 강조하였음

■ 철저히 막아야 할 물오염(『로동신문』, 2023.7.3)

- 김정일 위원장은 물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를 강조하며,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강조했음
- 모든 사람들은 작은 물 오염도 주의해야 하며, 과학적 대책으로 물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강물 오염을 막기 위해 과학적 조치와 환경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건설과 생산에서도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광산에서도 폐수처리와 침전지 조성을 철저히 하여 물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물 오염 방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각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들도 항상 환경 보호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 연구를 심화하고 감독과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 오늘은 해양의 날(『로동신문』, 2023.7.12)

- 오늘은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
- 해양자원은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공간자원, 바닷물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대책과 첨단해양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요함
- 해양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전문가와 기술자의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 해양부문의 일군들은 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어디서나 양어를 할 수 있다(『로동신문』, 2023.7.17)

-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됨
- 김정은 위원장의 양어 확대 지시가 언급되었으며, 해양 환경과 자원을 기반으로 양어를 중요 산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양어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선 경험과 기술의 공유가 필요하며, 선진적인 양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물고기 생산의 선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양어단위와 종어기지에서는 적절한 물고기종자의 선택과 먹이문제 해결을 통해 양어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됨
- 양어산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주도적으로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언급됨

■ 신속하고 적실하게 대응하자(『로동신문』, 2023.8.10)

- 태풍 6호가 근접하고 있으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생산 및 건설 지연 방지가 중요함
- 김정은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모든 부문과 단위는 빈틈 없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귀중한 설비와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각 부문에서는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석탄, 철도, 소금 생산, 전력, 금속 공업 부문에서 주의가 필요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의 노동자와 당원들은 자연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하며, 언제나 안전을 우선시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피해야 함

■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 제고에 모를 박고(『로동신문』, 2023.8.27)

- 각 양어단위는 생산 활성화를 위해 양어와 양식을 과학화하고 물질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청년두단종양어사업소는 팽화먹이 생산량을 늘리고 지렁이 서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 함흥 메기 공장은 통합 생산 체계를 현대화하고 야외 못을 건설하여 계절에 따른 물고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서흥범안양어사업소에서는 물고기의 인공 번식 기술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가물치를 기르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염주청년양어장은 물고기의 활착률을 높이고 새끼 물고기를 방류하여 양어 생산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심고리로 틀어진 두 가지 문제(『로동신문』, 2023.9.13)

- 최근에는 운전수산물사업소에서 연간 수산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배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산전선에서 역사를 빛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사업소에서는 선단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찾아냈으며, 특히 선단의 물고기그물 개조로 기망당 어획고를 1.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어로공들의 물고기잡이와 바다상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수단에 정통하게 만들고 정확한 물온도와 물고기 움직임 분석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수산물 생산 계획을 앞당기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공무기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로 칠갑과 용접 붕, 나사 등을 생산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축전지 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음
- 현재의 현실은 황금해의 역사를 빛내기 위해 수산부문에서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고 자체의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미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태천호기슭에서 만난 양어공들(『로동신문』, 2023.9.21)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어공들은 태천호에 수많은 새끼물고기를 방류하여 양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양어공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꾸며진 그물우리양어장에서 쏘가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쏘가리는 군안의 전쟁 노병들과 군인들에게 배송되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쏘가리양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양어공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끼물고기를 키우는 순간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어족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음
- 태천호는 쏘가리양어에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양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당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양어공들은 주장하고 있음

■ 선봉화력발전소 제염직장 조업식 진행(『로동신문』, 2023.9.26)

- 새로 완공된 선봉화력발전소의 제염직장을 통해 소금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되었으며, 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라선시의 조업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소금공업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강조되었음

-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발전소 일군들이 참석한 조업식에서 김권이 연설을 통해 김정은 동지의 지시에 따라 소금생산 증산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기술 및 시공 역량을 조직하고 화선정치사업을 전개하였음
-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소금생산을 위한 설비 및 기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제염직장의 일군과 종업원들은 책임적으로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위민헌신의 길에서 태어난 뜻깊은 이름들(『로동신문』, 2023.9.27)

- 김정은 위원장은 지하초염수를 이용한 소금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김정일의 유훈을 실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표현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소금의 이름을 ‘은덕소금’으로 정하였음
- 《은덕소금》의 부름은 김정은 위원장이 소금 생산 과정에서의 은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김정일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중요한 결실임을 나타냄
-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사건에서 콩대풍으로 물고기산이 솟아오르는 경치를 ‘이채어경’이라 칭하였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어인 ‘이채어경’이 탄생하였음
- ‘이채어경’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물고기 생산을 통해 식생활향상을 이루어 나가는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는 군부대와 수산사업소에서의 수고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나타냄

■ 당의 정비보강전략의 정당성을 과시(『로동신문』, 2023.10.3)

- 소금공업국에서 75주년 경축행사를 통해 올해의 투쟁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생산실적을 달성했음
- 당 제8차대회의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소금공업국은 현행생산과 정비보강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었음
- 소금공업국의 제염소 일군들은 정비보강사업과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여 높은

생산실적을 달성했음

- 각 단위에서의 혁신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한 소금공업국의 책임일군들의 충성과 인민경제 발전에 대한 다짐이 전해졌음

■ 시, 군들에서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로동신문』, 2023.10.5)

-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양어와 양식을 적극 전개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양어와 양식은 날로 우심해지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양어와 양식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양어장과 양식장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단위들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책임일군들이 양어와 양식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양어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양어기지를 건설하며 양어의 과학화와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등의 투쟁이 필요하며, 양어와 양식의 성과를 보고 인민들이 실제로 덕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동해기슭의 제염공가정(『로동신문』, 2023.10.19)

- 수많은 가정 중에 동해바다의 제염공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애국의 마음으로 소금 생산에 헌신하고 있음
- 애국정신으로 소금 생산에 헌신하는 가정
- 한금철이 동해에서 소금밭을 만들고 가족들이 소금 생산에 기여하는 노력이 당의 지도하에 계속되고 있음
- 한선경이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금밭에서 일하는 결심을 했고,

이후에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음

- 한금철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군대에서 제대 후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조국을 위한 애국 행동을 이어가고, 가정은 공화국을 생각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애국의 세계로 묘사되고 있음

■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바다의 산성화(『로동신문』, 2023.10.22)

- 바다물의 산성화가 현재 3억 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5600만 년 전의 대량 온실가스 방출 시기보다도 빠르다고 한 연구 결과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음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바다에 흡수되고 있으며, 바다물의 산성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어촌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임
- 바다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650ppm 이상이면 물고기들이 고탄산가스혈증에 걸릴 수 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100년에는 세계 바다 겉층에서 사는 생물의 과반 이상이 고탄산가스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바다물의 빠른 산성화는 세계어업, 바다생태계, 식품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

■ 쏘가리기르기에 유리한 연풍호(『로동신문』, 2023.10.28)

- 연풍호는 평남관개체계로 물을 대주며, 쏘가리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를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쏘가리는 농어과에 속하며, 대동강의 물로 이루어진 연풍호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연풍호에는 2018년에 새끼쏘가리와 먹이용 물고기를 생산하는 쏘가리종어기지가 설립되었음

■ 올해 수산물생산목표점령의 관건이 달려있는 성어기가 박두하였다(『로동신문』, 2023.10.31)

- 수산물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수산부문의 헌신적인 투쟁과 김정은동지의 중요한 지시가 주요 포인트로 대두되었음
- 수산물고지점령을 위한 일군들의 투쟁기세와 지도자의 동해와 서해 수산부문 지원 강조함
- 날이 갈수록 현상화되는 이상기후로 수산물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부문을 향상시키고, 수산일군들의 복지와 조직사업을 강화해 출어일수를 보장하며, 어로전 전략을 수립하여 수산물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소금공기줄발생기 연구제작(『로동신문』, 2023.11.3)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나노물리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소금공기줄발생기는 미세한 소금 입자를 발생시켜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장치는 $0.1\sim30\mu\text{m}$ 크기의 분말상태 소금을 공급함
- 소금공기줄은 일반적으로 호흡기에 흡입되어 염증 제거 및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여 여러 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비약물요법으로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물리치료 방법임
- 과학자들은 문헌연구와 집체적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기간 내에 소금공기줄발생기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분석기를 활용하여 흡입농도와 흡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대학의 연구진은 다양한 고정용 및 휴대용 소금공기줄발생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립상시험과 립상검토를 통해 치료 및 예방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은 미래에도 확대도입사업을 통해 소금공기줄발생기를 활발히 연구하고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 강원도 통천앞바다에서 어로활동 활발(『조선신보』, 2023.11.10)

- 강원도 통천앞바다에서는 고기잡이가 한창이며, 조선동해안의 다양한 수산사업소들이 고기배를 동원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로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4년 전 강원도 통천군의 거성지구에는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가 설립되었으며, 이 사업소는 하루 수백t의 급동능력과 수천t의 랭동저장능력을 갖추어 효율적인 어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물고기가공기지는 첨단 설비로 가득하며, 세척, 선별, 경사승강콘베아, 공중이동콘베아 등의 자동적인 생산과정을 거쳐 높은 생산 효율성을 실현하고 있음
- 랭동 및 가공장으로 이송된 물고기들은 부두에서 장비와 종업원의 빠른 작업으로 높은 효율로 하선되며, 고기배들이 매출시즌에 여러척씩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물고기들은 신속하게 처리됨

15. 환경 정보화 및 과학기술

■ 기대되는 과학기술발표회(『로동신문』, 2023.3.9)

- 지하자원보호부문의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되어 지하자원 탐사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성과와 경험을 교류하여 개선을 이끌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음
- 발표회는 지하자원 탐사 및 보호부문의 전문가와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가하여 지하자원 개발, 자연환경보호, 지하자원 채취율 향상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성과를 발표함
- 참가자들의 제안을 접수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출자들에게 시상과 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이번 발표회의 중요한 점임
- 이번 발표회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하자원보호부문에 대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나라의 지하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은 지하자원보호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와 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재부인 지하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임

■ 정보화실현의 래일을 그려보는 곳_농업연구원 농업정보화연구소를 찾아서(『로동신문』, 2023.3.16)

- 농업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작물 생육모의기술과 화상자료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농업과학자들은 탐구열을 가지고 알곡생산, 화상자료 활용, 물관리의 과학화 등에 힘쓰며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소는 지능화된 농장통합생산체계 개발에 힘을 합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영농 과정이 지능화된 본보기농장들로 이뤄질 것임

-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영예를 향해 나아가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마음에 간직되었음

■ 농촌기술혁명(『로동신문』, 2023.3.22)

- 농촌기술혁명은 농업근로자들의 해방과 생활 개선을 위한 투쟁이며, 농촌경리의 과학화와 발전을 목표로 함
- 농촌기술혁명은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 향상과 농촌경리의 현대화를 통해 농촌생산력을 높이고 농촌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촌기술혁명의 구체적인 방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 향상과 농업과학기술 학습 강화,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 선진영농기술 보급 등임
-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농촌초급일군들의 교육과 선진적인 과학농법 도입, 대학졸업생 배치 등이 필요함
- 농촌기술혁명의 성과로서 농업근로자들의 사회주의농촌 주인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은 가속화될 것임

■ 농업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_농업연구원 부원장 기자와 회견(『로동신문』, 2023.3.26)

- 올해 농사와 농업생산의 변혁을 위한 과업과 실천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었음
- 농업과학연구부문은 농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현재 농업연구원은 새 품종육종과 선진 재배기술 연구, 알곡 농사와 토양 개량에 대한 연구, 정보화된 농업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의 정보화와 위성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해 농사작업과 영농 과정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임
- 농업연구원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업

부문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 진행(『로동신문』, 2023.3.31)

-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은 지하자원 탐사 및 보호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성과와 경험을 교류하여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최되었음
- 발표회에는 지하자원 탐사 및 보호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과 관련부문의 일군, 박사원생, 대학생 등이 참가하였음
- 주제는 “지하자원의 지속적 개발 이용과 보호”로, 나라의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탐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과정에 관한 150여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우수한 논문 발표자들에게는 증서 등이 수여되었음

■ 농업생산장성을 과학기술로 안받침해간다(『로동신문』, 2023.4.7)

-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에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 기후조건보다는 과학기술에 의존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업생산을 강력하게 지원하고자 함
-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밀, 보리의 생육상태에 맞는 비배관리방법과 강냉이파종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기술강습과 보여주기를 통해 과학기술적 요구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
- 농업과학연구소들은 지력개선을 중요한 연구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급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원천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생산방법과 산성토양, 냉습지 등의 개량을 위한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채택(『조선신보』, 2023.4.19)

- 전원회의에는 최룡해 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관련 일원들이 참석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관리법과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 소환과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음
-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과학기술인재들의 국가적인 관리와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인재 양성과 조건 보장 등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을 채택하였으며,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의 소환과 선거도 진행

■ 과학농사를 선도해가는 대학연구집단들(『로동신문』, 2023.5.8)

- 농업대학의 연구집단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협력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고 선진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연구집단들은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도입사업을 추진하며, 농기계 개발, 영양강화제와 살초제 등의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현지 농장의 실정에 맞게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농작물품종육종사업과 종자성형피복제, 지효성비료의 생산도입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농장들에 종합파종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평양농업대학의 연구집단들은 밀 다수확재배기술과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연구과제들을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 높은 목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업대학 연구집단들의 활동은 주타격전방의 농업공정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 발효연구소에서 많은 시, 군들에 가루젖산균을 보내준다(『민주조선』, 2023.5.16)

- 국가적인 부담으로 어린이들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연구소에서 현대적인 가루젖산균 생산기지가 설립되었음
-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활성이 높은 가루젖산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원균 선발과 균의 활성 보존을 위한 조건 및 첨가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최근에는 연구소에서 수많은 양의 가루젖산균을 생산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 공급하였음
- 이러한 연구소의 노력은 국가적 정책에 기반하여 어린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가루젖산균 생산기지의 성공적인 운영은 식품 산업의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농사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23.5.23)

- 농업과학원에서는 연구목표수행에 집중하여 농사의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음
- 과학원과 공예작물연구소에서는 과학농사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제품 생산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농촌에 보급하였음
- 다양한 연구소에서는 벼종자피복제, 살초제 등을 개발하고, 농업정보화 및 식물보호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농업생물학연구소와 농업토지자원연구소는 농작물 생육시기와 토양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당의 지도하에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사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비료생산 적극 추진(『민주조선』, 2023.5.28)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비료생산을 강화하고 있음
-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해 설비의 현대화와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원료 절약과 생산 증가를 가능케 하는 착상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음
- 석탄 생산 및 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음
-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성과를 실천에 반영하고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고 있음

■ 모든 농촌리들에게까지 젃가루생산설비를(『조선신보』, 2023.5.31)

- 농촌 젃가루 생산설비를 모든 농촌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의 설비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해북도와 강원도는 젃가루 생산설비를 계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보증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함경남도의 금야군, 북청군, 자강도 희천시에서는 자체 기술력 강화와 자재 보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비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
- 평안남도의 숙천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젃가루 생산설비 제작과 운영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 건물 건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전국과학기술보급부문 발표회, 전국륙해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8.4)

- 전국 과학기술 보급 부문 발표회는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주제로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음
- 발표회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 수집과 보급에 대한 당정책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보급거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논문이 제출되었음
- 전국 룡해운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는 배수리 및 선박 건조 공정의 현대화를 주제로 하여 선박 건조 및 국산화에 관한 연구자, 기술자, 교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열렸음
- 발표회에서는 선박 건조와 성능 개선을 위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유압 용접 봉피복기 제작, 유수분리 장치 국산화, 폴리인산을 활용한 녹방지칠감 개발과 응용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이러한 발표회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전국밀재배기술경험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8.5)

- 조선농산기술협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밀재배기술경험발표회는 밀농사의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당정책을 강조함
- 다수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및 농업 전문가가 참가하여 밀 재배와 생산에 관한 최신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함
- 발표회에는 40여 건의 논문과 경험 공유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다양한 밀 품종에 따른 재배 기술과 경험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이번 발표회는 밀농사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행 연구와 최신 과학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밀 재배를 개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전국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8.19)

- 2023년 9월 17일과 18일에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가 주최로 한 화상회의 방식의 전국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개최되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 함경북도종합병원, 흥남제약공장을 비롯한 10여개의 단위에서 교원, 연구사, 의사, 약제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였음
- 발표회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아 방역 및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성과를 널리 보급하는 목적으로 열렸음
- 방역 및 제약분과와 의료기구분과로 나뉘어 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총 50여 건의 논문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음
-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에 대한 여러 논문이 평가를 받았음

■ 전국금속재료부문, 전국광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8.24)

- 2023년 2월 22일과 23일에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금속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개최되었음
- 발표회의 주제는 “금속재료의 질적개선”이며, 강재생산용 금속재료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통보하는 목적으로 열렸음
- 국가과학원의 여러 단위인 흑색금속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교통운수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 완성된 3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과 경험이 소개되었음
- 이번 발표회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금속재료문제를 해결하고 철강재생산을 늘려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과학기술전시회가 남긴 여운(『로동신문』, 2023.9.13)

-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발언과 평양시상하수도부문 과학기술발표회의 개최가 주요한 포인트임
-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 발전을 강조한 김정은위원장의 발언과 평양시상하수도 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의 성황리에 개최가 언급됨
- 발표회 및 전시회의 준비과정, 참가자들의 열정, 현장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성과와 발명들, 발표회 후의 특별한 주목 대상 및 평가사업 등이 과학기술활동의 진행 과정을 나타냄
-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강조, 발표회-2023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표, 창안된 기술 및 혁신성과 그리고 발표회 후의 평가사업과 상장 수여 등 모든 측면이 다루어짐
- 발표회 및 전시회가 진행된 날은 며칠밖에 안 되었지만, 모든 부문과 지역에서 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한 과학기술활동을 당정책관철에 맞춰 지향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로 나타남

■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9.15)

-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및 주요 내용
- 13일과 14일에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개최된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화학공업협회의 주최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발표회의 목적은 정비보강대상공사들의 과학적담보에 대한 결정을 높이 받들어 화학공업부문의 과학기술성공과를 공유하고 흡수하는 것이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1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이 참가하였음
- 발표회는 탄소하나화학공업과 희토류응용기술분과, 기초화학 및 비료공업분과로 나뉘어 제출된 기술제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대형경판선압기제작,

영양액비료생산공정확립, 질소비료생산용 탄닌축매제조 등의 제안이 관심을 모았음

- 발표회 기간에는 기술강의와 녹화편집물시청이 있었으며, 우수한 제안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는 증서와 해당 시상이 수여되었음

■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탐구열의 고조(『로동신문』, 2023.9.22)

- 김정은 위원장의 농업과학기술 발전 지시 및 농업과학원의 연구 활동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며 농업과학원에서는 알곡생산목표달성을 과학기술로 지원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은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논벼생육과 가을걷이에 대한 과학기술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는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활용한 수확시기 예측과 농업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음
- 식물보호학연구소는 과학적으로 병해충 발생 시기를 예측하고 농작물병해충예보봉사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며, 농업나노기술연구소에서는 나노규소비료를 도입하여 알곡생산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연구소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벼모기르기를 과학화하는 기술과 벼종자피복제, 인안비료의 개발과 도입, 농약나노첨가제, 복합미생물발효촉진제 등 다양한 농업 과학기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음

■ 과학농사추진조(『조선신보』, 2023.9.22)

- 경계감이 있으나, 과학농사추진조는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영농과정에서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 파견된 과학농사추진조는 현지 농장에서 밀과 보리의 뿌리상태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물주기를 최적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물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농업일군들은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깨달았음
- 불경재배방법을 포기하고 과학농사를 도입한 농장은 연유와 비료를 효율적으로 절약

하면서도 높은 알곡 생산을 이루어냄으로써, 과학기술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경제적인 면에서 입증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알곡의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등 과학농사추진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의 성과는 조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인민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농사추진도의 활동은 올해에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9.23)

- 평양건축대학 70돌 기념으로 열린 전국 건설과학기술발표회는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420여 건을 발표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평양건축대학, 함흥건설대학 등 다양한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하였으며, 공간구성수법,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의 응용, 일체식벽체시공의 휘틀시공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발표된 제안 중에서는 가구의 배치형식에 따른 공간구성수법, 건축정보모형화기술의 응용, 일체식벽체시공의 새로운 휘틀시공방안 등이 현실적인 실천가치를 갖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경험발표에서는 화성지구와 검덕지구의 살림집건설에 대한 성과와 세계건축성과자료에 대한 녹화물시청이 진행되었음
- 과학기술발표회는 건설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해결에 기여하였음

■ 환경오염의 일종-전자기복사(『로동신문』, 2023.10.6)

- 대기공간은 다양한 전자기파로 가득하며, TV, 무선전화, 레이더, 단파 및 초단파물리

치료설비, 마이크로파가열 및 복사설비 등이 이를 발생시킴

- 전자기파는 세기, 지속시간, 발생위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오랜 시간 노출시 피로, 기억력 감소, 신경쇠약, 가슴 답답함,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전화기의 전자기복사선이 곤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꿀벌과 참왕통이에게는 유전물질 파손과 이동능력 저하를 일으킴
- 환경오염으로 간주된 전자기파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기구와 협회에서 세계적 범위의 전자기복사 세기 규격을 제정하고, 전자기파의 원천을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전자설비를 개조하여 전자기파류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대응책으로는 전자기파막이장치 설치와 함께 세기를 낮추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전자기파의 환경 영향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 - 2023》 개막(『민주조선』, 2023.10.18)

-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 - 2023》이 개막되어 선진과학기술과 제품의 보급, 교류, 개발, 도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행사임
-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 - 2023》 개막, 선진과학기술과 제품의 보급과 교류에 중점을 두었음
- 전시회는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도입 성과를 소개하며 이를 적극 보급하고 교류하는 목적으로 열렸음. 개막식에는 최동명동지와 근로자 등이 참석하였고, 연설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강조하였음
- 전시회에는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산업부문 및 다양한 부문에서 개발된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이 출품되었고, 전시물에 대한 소개선전과 함께 보급, 교류,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음

-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 - 2023》은 나라의 자립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며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시회 개막식에서 강조되었음. 개막식 이후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음

■ 전국도서관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신보』, 2023.10.18)

- 국가과학원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도서관부문 과학기술발표회는 도서관의 자료 기지구축과 봉사를 주제로 하여 수십개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박사원생이 참가하면서 11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와 운영경험이 발표되었음
- 전국도서관부문 과학기술발표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중앙위원회 조선도서관협회 주최로 국가과학원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발표회 참가자들은 최신과학기술자료로 자료기지를 갱신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전파하며 도서관을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였음
- 도서관과 미래원에서 선진기술을 보급하여 인민경제 부문과 단위들의 전비보강과 생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둔 발표회는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참가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미래원, 지방 도서관 등에서 제출된 11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와 운영경험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었음

■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민주조선』, 2023.10.25)

-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함
-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과 국가 부흥발전에 기여한 2,800여 건의 발명과 정보기술제품을 전시하며 개막되었음
- 2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된 이번 전시회에는 대학생들이 인민경제발전의 중요과

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책 제시와 함께 국가 부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습과 탐구 결과물이 출품되었음

- 개막 모임에는 리두성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일군들,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문철동지가 개막사를 했음
- 리두성 중앙위원회 부장은 전시회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혁명인재육성사업에 기여한 불멸의 업적을 기리며, 대학생들을 힘있게 전인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음

■ 전국자동차부문, 자연에너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진행(『로동신문』, 2023.10.27)

- 전국자동차부문 및 자연에너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개최함
- 전국자동차부문과 자연에너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국가과학원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국가과학원 등에서 참가한 다양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자연에너지 개발 등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함
- 발표 주제로는 경제발전과 자동차, 자연에너지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이 선택되었고, 통합자동차체계, 무인운반차 일정작성, 풍력 및 태양빛발전설비 개발 등이 다뤄졌음
- 발표된 기술제안들은 공장과 기업소에서 도입된 통합자동차체계, 무인운반차 일정작성 방법, 풍력 및 태양빛발전설비 개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기계설비 현대화와 자연에너지 리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전국음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로동신문』, 2023.10.28)

- 전국음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됨
- 조선음향학회의 주최로 24일부터 27일까지 메아리음향사에서 전국음향부문 과학기

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이번 행사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들어 음향리론, 건축음향, 예술음향 등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음향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등에서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생 등이 40건의 가치있는 음향설비 및 재료 연구를 발표하였음
- 국산화된 음향재료의 리용 주제의 연구토론회에서는 부편질석을 마감재료로 사용하여 건축음향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교육문화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높이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 제25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진행(『로동신문』, 2023.10.31)

- 제25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최함
- 체육성의 주최로 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25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국가자료통신망 《자강력》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전시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전시회는 프로그램부문, 측정기구부문, 기자재부문, 의약품 및 영양제부문, 과학기술도서 및 룡화편집물부문으로 나뉘어 체육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170여개 단위에서 이룩된 580여건의 체육과학기술성과를 소개하고 교류, 보급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 체육연구원, 조선체육대학, 평성체육대학, 압록강체육단, 청천강체육단, 선교구역과 외청소년체육학교 등에서 나온 연구성과들이 종목별 교수훈련의 질 향상과 체육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받았음
- 전시회에서는 당김세기측정장치, 음향효과전자자극장치, 바드민톤공 등이 주목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10.31)

-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가 개최함
- 25일부터 30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는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열의를 고조시키고 창조형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개최되었음
- 각지 대학 청년동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1,60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음
- 발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생들은 표창장과 발표증이 수여되었음

■ 낡은 경험수첩이 아니라 새 과학기술도서를 보아야 한다(『로동신문』, 2023.11.5)

-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낡은 경험 대신 새로운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적용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는 우리 농촌의 확고한 풍조와 생활기풍으로 이어져야 함
- 농업생산은 자연기후가 아닌 농업과학기술에 의해 담보되며,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근로자들은 과학농사열의 일환으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음
- 과학농사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강남군 이산농장 경리 홍성호동무가 알곡생산계획을 1.6배 이상으로 수행하며 단위들 간의 대렬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소개함

■ 과학기술발전목표실현을 위한 지도사업 심화_금속공업성에서(『민주조선』, 2023.11.6)

- 금속공업성에서의 과학기술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성의 각 제철, 제강소들에 파견된 일군들이 질적 보장과 기술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에서 활동하는 성일군들은 현지에서 발생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성은 협력과 방조를 강화하여 과학기술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 단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일군들은 현장에서 경험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금속공업성은 현장과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고 있음

■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11.10)

- 조선과학기술총련맹이 주최한 전국용접부문 과학기술발표회는 국내 용접 기술과 봉 제작 분야에서의 혁신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남포시 대안구역에서 개최되었음
- 발표회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교통운수대학,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 등에서 온 교원, 연구사, 현장일군,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여 60여 건의 용접 기술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음
- 발표회에서는 국산화를 촉진하고 높은 품질의 용접봉을 만들기 위한 현대적인 용접설비와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10여 건의 용접 기술 제안이 소개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용접봉이 국산화 요구에 적합하게 평가받았음
- 발표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과 과학연구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방조를 강조하며, 과학기술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 용접 기술과 봉 제작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참가자들은 실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우수한 성과들을 널리 통보하고 흡수하여 향후 혁신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나노기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준 계기(『로동신문』, 2023.11.14)

- 최근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3”은 조선과학

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나노기술협회의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 조선나노기술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전시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이며, 나노산업은 지식집약형산업으로서 새로운 재료와 장치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음
- 전시회에는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이 소개되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그 중에는 나노복합재료를 이용한 고리, 나노복합수지벨트, 나노분사잉크 등이 주목을 받았음
-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의 전시대에서는 그래펜리튬축전지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소개되었는데, 그래펜리튬축전지는 연축전지에 비해 작은 질량과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승용차, 전동차, 무궤도전차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음
- 농업과학원전시대에서는 나노규소비료, 빛합성강화제 등이 소개되어 농업 분야에서의 나노기술 적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화상창상붕대, 파클리탁셀나노리포솜주사약 등 의약품 분야에서도 나노기술의 응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관자들에게 선보였음

■ 전국재해관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23.11.18)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재해관리협회의 주최로 14일부터 17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자연재해위험감소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라는 주제로 전국재해관리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개최되었음
- 발표회는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며 위기대응지휘의 과학화, 정보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고 국가적인 자연재해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기상수문국,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상, 전력공업성 등 10여개 단위의 일군,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발표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참가하였음

- 예보 및 예측분과, 재해방지기술분과, 위기대응기술분과로 나뉘어진 발표회에서는 태풍과 큰물, 가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제때에 복구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토대를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적문제들이 다루어졌음
- 발표회에서는 수력발전소 큰물재해관리정보체계, 화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일기도류 사검색체계, 국내 태풍회수의 계절예보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제안들은 실천적의의가 크게 평가되었음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1. 기상과 대기

■ 북한은 더 춥다... “23일 낮부터 떨어져 24일 영하 41도까지”(『아주경제』, 2023.1.21)

- 21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한 북한 기상수문국의 중앙기상예보대 독고혁철 실장은 “23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해 25일까지 날씨가 몹시 춥겠다”고 밝히고 “올해는 1981년 이후로는 두 번째로 추운 해이며 23년 내 가장 심한 추위”라고 언급
- 가장 추운 날은 24일로, 아침 양강도 삼지연시 백두산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에서 영하 37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부내륙 대부분 지역은 영하 36도에 영하 30도이며, 그 밖 지역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한국보다 더 춥다” 北 -30도 中 -50도 기록적 ‘한파’ 왜?(『한국경제』, 2023.1.25)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에 있어야 할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왔음
- 한국 기상청은 지난 24일 한파 특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수도관 등 동파 위험을 알렸으며, 서울은 영하 16도, 북한 접경지역인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음
- 북한에서는 북부 내륙지방의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기상수문국은 25일까지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지난 21일 예고했음

- 조선중앙TV에서 북한 기상수문국 관계자는 백두산 지역은 기온이 마이너스 4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추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기상 부문 과학화 박차(『NK경제』, 2023.3.20)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관계자들이 기상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월 20일 보도했음
- 예보대에서는 단기예보와 중기예보, 장기예보의 맞춤 확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합리적인 강수예보체계, 재해성기상현상검색체계 등에 대한 개발사업과 단기수치예보모형의 과학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됨

■ 황사에... 추위에...배고픔에... “태양절이 웬말”(『RFA』, 2023.4.12)

- 북한에서는 4월 15일의 태양절, 즉 김일성 위원장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으며, 최근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당은 모든 단위와 기관, 공장, 기업소, 학생, 주민들에게 태양절 경축 행사를 강제로 진행하도록 지시함
-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어려운 생계 상황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행사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발 황사와 추운 날씨로 인해 태양절을 저주하는 분위기가 생겼음
- 학생들은 소년단 입단식, 노동자와 농민, 일반 주민들은 충성의 노래모임과 군중무용을 연습하도록 강제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태양절 경축을 노래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보다는 생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북한 “촉우기는 세계 최초의 비내림양 측정기구”(『NK경제(생활&문화)』, 2023.5.21)

- 북한 노동신문은 15세기 중엽에 우리 선조들이 비내림양 측정기구인 촉우기를 발명한

사실을 소개함

- 비내림양에 대한 관심은 봄철 가물림과 여름철 장마를 이용하여 농사를 잘 짓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됨
- 초기 측우기의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조들은 높이 40cm, 직경 16cm의 측우기를 만들었고, 이후에 더 개량하여 높이 30cm, 직경 14cm의 측우기를 제작함
- 측우기는 돌로 만든 받침대 위에 둥근통 모양의 빗물 받이를 올려놓고,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서 비내림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 이러한 측우기를 설치하고 측정한 비내림양 정보는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보고되며, 세계 최초의 비내림양 측정기구로서 우리 민족의 창조적인 재능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됨

■ 북한 기상수문국 “엘니뇨 발생 시 북한에 재해 발생했었다”(『NK경제(생활&문화)』, 2023.5.28)

- 북한 기상수문국은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엘니뇨로 인한 재해 예상에 대해 언급함
- 엘니뇨는 폭염과 폭우 등의 재해성 기상 현상을 야기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구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강조함
- 과거에는 엘니뇨로 인해 폭우가 적었던 지역에서도 큰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여 재해 대비에 대한 교훈을 강조함
- 엘니뇨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세계기상기구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북한에서의 폭염과 폭우 예상 시기를 설명함
- 리성민 부국장은 사전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한 조치를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北, 재해성 기상 현상 경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YTN』, 2023.6.22)

-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 액막이 등 미신을 신뢰하며 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미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신과의 전쟁’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경고함
- 주민들이 미신에 기대하는 것은 극심한 민생고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미신을 통해 자신을 달래려는 모습이 나타남
- 북한은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며, 최근의 미신 신뢰와 함께 주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함
- 국제 기구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한반도 장마’에 북한도 초긴장 “자연의 광란”(『국민일보』, 2023.6.26)

- 남해안을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북한은 농작물 피해 및 자연재해 우려에 대비하며 ‘자연의 광란’ 표현을 사용하여 당 간부들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당 간부들에게 장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하며 대응 중요성을 강조함
- 노동신문은 각지 농촌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북도의 농업 근로자들이 홍수와 폭우 등으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함
- 황해남도와 평양에서는 강우 대비를 위해 양수장 건설과 양수 설비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중, 3중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됨

- 북한 매체는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예상되므로 미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강조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 北, 장마철 폭우에 농사 망칠라 노심초사.. “절대 방심 말아야”(『Daily NK』, 2023.7.4)

- 노동신문은 장마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올해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로,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를 강조함
- 농업 부문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에너지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강조함
- 북한은 건설 및 기반 시설의 취약성으로 인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사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함

■ 北, 폭우경보에 “하늘 무너져도 알곡 생산 해내야”(『YTN』, 2023.7.12)

- 북한은 폭우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 폭우 대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며, 비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북한은 어떤 상황이든지 알곡 생산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하며, 농업 부문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이를 맹세와 지상 과업으로 여기며 재해성 기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폭우 주의경보 발령’을 보도하며 13일부터 14일 밤까지 폭우가 예상되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대응과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한국 댜친 장마, 북한으로 올라간다면?(『RFA』, 2023.7.17)

- 장마전선이 북한에 도달할 경우 수해의 가능성이 우려됨
- 북한 당국은 장마로 인한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경제 분야 중요 고지 중 하나인 ‘알곡’을 위해 수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오는 20~22일 사이 북한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
- 북한은 매년 장마로 인한 수해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폭우 발생 시 식량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됨

■ 북, 태풍 북상에 ‘피해 최소화 투쟁’ 주문...전문가 “주민 희생 강요”(『RFA』, 2023.8.8)

- 북한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조직에 촉구하였음
- 관영매체는 생명 안전과 경제정책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로 지적하며, 사전 대책과 중장비 구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농업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옥수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작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하였음

- 또한, 북한의 농업 기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재해 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상황의 개선이 농업 부문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음

■ [자막뉴스] 더 큰 위기 예고...북한 바짝 긴장(『YTN』, 2023.8.9)

- 김덕훈 내각 총리는 농사 작황 점검과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대책을 주문했음
- 북한 매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생명 안전을 보호하도록 각급 조직에 촉구했으며,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했음
- 북한은 연일 농작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면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북한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비 부족으로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급했음

■ 유엔 “지난 30년간 홍수·폭풍에 북 주민 2,698명 사망”(『RFA』, 2023.9.1)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은 가뭄과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인해 5,100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기간 동안 홍수로 2,463명, 폭풍으로 235명이 사망했음
- 2018년에는 대규모 홍수로 76명이 사망하고 3,200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연재해가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음
- 북한의 자연재해 대비 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인프라 부족으로 더 악화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1 글로벌 기후 위험 지표에 따르면 북한은 재난 위험관리 순위에서 세계 191개

국가 중 29위로,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음

- 보고서는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지대 농업 개선,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지역협력 활용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올가을 최저 기온’ 설악산 영하 5.6도 첫 서리 첫 얼음도(『헤럴드경제』, 2023.10.21)

- 21일 아침, 강원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이 기록되었음
- 오전 6시 현재, 산간과 내륙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이 측정되었으며, 북춘천에서는 첫서리와 첫얼음이 지난해보다 사흘 늦게 나타났음
- 강원 기상청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진다면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 이로써 강원 지역은 추운 날씨로 올가을의 시작을 알렸음

■ 갑작스런 한파에 양강도 생필품 가격 들썩(『RFA』, 2023.11.7)

-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갑작스런 한파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며 주민들이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음
- 양강도에서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예상하던 가운데, 추위로 물품 수급에 영향을 주어 생필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날씨 비정상화로 중국산 의약품 등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추위로 의약품 가격 또한 상승하며 감기약, 설사약 등의 가격이 높아져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날씨 추위로 장마당에서 비닐박막 가격이 올라가고, 화목, 석탄, 계란 등의 생필품 또한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음
- 올해 5월부터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지난해의 배로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가격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겨울 추위 찾아왔지만 아직 방풍 장치 하지 못한 세대 많아”(『Daily NK』, 2023.11.22)

- 북한 양강도 및 함경북도 지역에서 경제난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민들이 방풍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주민들이 겨울에 필요한 난방과 땀감을 먼저 확보하느라 방풍 장치 설치를 후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땀감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음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은 비용 부담으로 방풍용 비닐 박막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비닐 박막 가격이 내렸지만 땀감을 살 돈으로 인해 방풍 장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무와 석탄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돈이 부족한 경우 외상으로 나무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방 주민들은 난방 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추운 날씨에 불을 지키지 못하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방풍 장치는 생존에 필수적인 땀감보다 후순위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2. 기후변화와 재난

■ [2022 RFA 10대 뉴스 ⑩] 가뭄·홍수·비료부족에 어김 없는 식량난(『자유아시아방송』, 2022.12.30)

- 2022년에 북한은 식량난으로 고통받았으며,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작년에 비해 18만 톤 감소하여 약 15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임
- 식량 부족을 겪은 북한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63%에 해당하는 1,630만 명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 정권은 주민 복지보다는 무기 발전과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에도 봄 가뭄과 여름 폭우가 더해져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쳤음
-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지원이 거절되어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 식량 상황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조치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으며, 북한은 과학 농사와 외부 지원을 통해 식량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북한 황해남도 해주 부근 해역에서 규모 2.9 지진(『KBS』, 2023.1.23)

- 북한 황해남도 해주 부근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음
-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남도 해주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5km로 분석되었음
- 한국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자연지진으로 분석”됨이라고 밝힘
-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천과 경기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되었음

■ 북한도 엘니뇨로 인한 가뭄 우려(『NK경제』, 2023.2.1)

- 로동신문은 얼마 전 과학자들이 올해 발생하게 될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2월 1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올해 8~11월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66%라며 지구의 기온과 강수량은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음
- 로동신문은 전문가들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다음 엘니뇨 기간에는 세계가 전례 없는 더위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를 통해 로동신문은 고온에 의한 가뭄 피해 등 엘니뇨가 물고을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신속 보도(『YTN』, 2023.2.7)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과 시리아의 서북부 지역에서 지난 6일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외신을 인용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00여 명, 부상자는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며 튀르키예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밝혔음
-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을 인용해 1,4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3,5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음
- 북한 관영매체는 보통 주요 국제뉴스를 수일간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만큼 이번 소식을 비교적 신속히 보도한 건 이번 참사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 北, 봄철 산불방지에 부심... “신속 대처 준비 주력”(『YTN』, 2023.3.26)

- 봄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각지에서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각급 산불방지분과에서는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해 위험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산불막이선들을 보수하는 한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산림녹화 사업을 강조해왔고, 지난달에는 내각 주최로 관련 회의를 여는 등 산림복구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 황해남도 해주에서 규모 2.7 지진(『KBS』, 2023.4.6)

- 지난 6일 새벽에 북한 황해남도 해주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함
-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남도 해주 남서쪽 15km 지역에 위치했고,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이번 지진은 지역적인 범위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北 곡물 수입 확대에도 ‘당 군 보위기관 등 우선 공급’... 쌀 옥수수 가격 오름세(『파이낸셜뉴스』, 2023.5.4)

- 북한의 봄 가뭄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올해 식량 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뭄 정도는 검붉은색과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음
- 과거 몇 주 동안의 관측 결과, 북한의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는 가뭄 상황이 더욱 악화됨
-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가뭄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관개체계를 강화하며 관수

설비를 총동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함

- 전문가들은 4월은 주요 작물 모판과 파종 시기로 가뭄 피해가 더욱 심각하며, 식량 생산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北 가뭄 심각, 모내기 앞두고 폭우 반복 식량생산 ‘빨간불’”(『동아일보』, 2023.5.5.)

- 북한의 올해 봄철 가뭄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심각한 가뭄 상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의 위성사진에는 전역이 ‘심각한 가뭄’을 나타내는 검붉은 색으로 표시됨
- 북한은 폭우로 인한 가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강원도 남부지역과 개성시 등에서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힘
-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임진강 63%가 북한에 “홍수 관리 어려워”(『세계일보』, 2023.5.10)

- 한강 임진강 일대에서 홍수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시설들이 존재하며, 환경부가 홍수 대응 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임진강에는 군남댐과 탄강댐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홍수조절댐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저수량이 한계적이어서 완전한 홍수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필승교 수위국은 민간인통제선 지역으로 북한의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시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북한의 댐 문제를 상시 감시하고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와 대비 태세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상 저온에 北 농가도 피해… “농장관계자들 시름 깊어”(『Daily NK』, 2023.5.22)

- 북한과 국내에서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상 고온으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다가, 4월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과 과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꽃의 개화 및 수순 형성 단계에서 이상 저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열매의 형성과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 조건과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나, 당국의 목표 달성 압박 분위기에 의해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태임
- 북한은 농작물 생육 예보의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알곡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北,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총력(『Daily NK』, 2023.5.24)

- 북한은 역대급 엘니뇨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재해성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를 조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들은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위기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재해지역 급파 구조대와 의료대 동원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농업 생산량 증대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환경, 도시경영, 전력, 철도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 지휘체계와 통보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기상청은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이고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라고 발표하였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5~7월에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60%라고 관측함
- 엘니뇨 발달시 한반도는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부문에서 적기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미리 앞질러가며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강조함

■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서 2.4 지진...“자연지진”(『YTN』, 2023.5.25)

- 오늘(25일) 밤 10시 27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31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함
-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진의 규모는 2.4로 측정됨
- 지진은 함경북도 길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지진은 최근 발생한 지진 중 하나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하늘의 변덕 물리쳐야”(『NK경제(IT과학)』, 2023.6.23)

- 노동신문은 재해성 기상 현상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은 과학연구 부문이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응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세계기상기구가 주목한 엘니뇨 현상의 증가로 인해 북한의 기후조건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노동신문은 과학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응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 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성 기상 현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북, 폭염·폭우에 농사 망칠까 ‘조마조마’(『RFA』, 2023.7.7)

- 북한은 폭염과 장마 대비에 신경을 쓰며 농사 피해를 예방함
- 농사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만, 폭염과 장마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남아있음
- 북한의 관개시설은 물 부족으로 취약하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함
- 기반 시설은 폭우에 취약하며, 수해와 질병의 확산 가능성이 큼
-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농작물과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농업 전문가들은 8월 중순까지의 기상 상황을 주목해야 함

■ 북한, ‘카눈’ 태풍경보 발령 “사전대책 세워야 할 것”(『아주경제』, 2023.8.7)

- 북한은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접근에 따라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사전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음
- 조선중앙방송은 센바람, 폭우, 해일, 해상 경보 등을 발표하며 10~11일 강원도, 함경남북도, 라선, 황해남도에서 주의 및 경보를 내렸음
- 방송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발견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농업, 교통운수, 국토관리, 수산, 해운 부문 등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방지와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음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11일 동해안에는 해일 주의경보가 내려졌으며, 동해와 서해에는 센바람 높은 물결 경보도 발령되었음

■ 北도 ‘카눈’ 복상에 ‘전전공금’...농업 피해 최소화 주력(『YTN』, 2023.8.9)

- 북한은 태풍 ‘카눈’으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장하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가 황해도와 평안남도 농장을 방문하여 농사 작황을 점검하고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대책을 주문함
- 북한 매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도록 각급 조직에 촉구했으며,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에 비가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함
- 북한은 연일 농작물 보호를 강조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직결을 우려하며, 이번에도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함
- 2020년 8월 ‘바비’ 태풍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시찰에 나섰으며, 2019년 9월 ‘링링’ 태풍 때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재난 특집 방송을 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함

■ 北, 태풍 ‘카눈’ 복상에 경보 발령...부문별 대책 마련 총력(『Daily NK』, 2023.8.9)

- 북한은 태풍 6호 ‘카눈’의 복상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각 부문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음
- 노동신문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센바람, 폭우, 해일 등의 영향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진행 중이며, 중요 건설장에서의 안전 조치 등도 강화되고 있음

■ ‘자연재해 막아라’...민방위군까지 총동원해 폭우 대응 나서(『Daily NK』, 2023.8.9)

- 지난달 황해북도 름산군에 폭우가 내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자, 름산군 군당위원회가 민방위 비상소집을 통해 피해막이 총동원사업을 진행함

- 린산군 군당은 비상소집을 통해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를 동원하여 물길내기, 도랑파기, 독 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기상수문국의 기상 상황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군당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특히 폭우에도 민방위군을 총동원하여 옥수수밭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함
- 군당과 군 인민위원회, 농장 일꾼들은 물길내기 작업을 위해 도구를 들고 협력하여 피해를 막았으며, 물이 고일 수 있는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군당은 앞으로 더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합동작전 비상소집 명령체계를 마련해 놓고, 고사총부대들에 항시 비상소집 대기를 요청함

■ 유엔, 대북 텐트지원용 제재면제 승인…올 세번째(『RFA』, 2023.8.1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지원에 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하였고, 이는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대북 지원 제재 면제임
- WHO는 홍수, 가뭄 등 비상사태 시 민간인을 돕기 위해 북한에 텐트 수입을 요청하였으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요청을 허가하여 5개의 다목적용 텐트를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임
- 이번 제재 면제는 지난 4월 FAO의 대북 농업용품 지원과 5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에 대한 요청을 승인한 사례임

■ 北 김정은, 태풍 피해 지역 방문해 간부 질타 “둔감하고 무책임”(『YTN』, 2023.8.14)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를 방문함
-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농업지도 기관과 당 조직의 무책임한 태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해진 것을 지적함

- 김 위원장은 간부들이 국가적 조치에 둔감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 예방 대책을 강조함
- 김덕훈 내각 총리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며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동행함
- 태풍 ‘카눈’은 북한으로 이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며 이 과정은 11일 새벽에 진행되었음

■ 김정은, 수해 농장서 복구 지도...농약 살포에 헬기 동원(『YTN』, 2023.8.18)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을 방문하고 농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공군을 동원하여 농장 복구 작업을 지도했음
- 김 위원장은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현지에서 지휘했음
- 김 위원장은 침수 채소밭의 농작물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군부대의 헬리콥터와 경수송기를 동원하고 농약 살포 작업을 지시했음
- 또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 군인들을 치하하며 자연재해 복구 작업에서 혁명군대의 충실성과 투쟁 기질을 보여주었음
- 이로써 김 위원장은 피해 지역의 농경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농업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나섰음

■ 북한 “침수피해 지역 당 조직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 때문”(『NK경제(정치&안보)』, 2023.8.14)

- 김정은 총비서가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를 방문하여 태풍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사업을 지도함
- 태풍 6호로 인한 폭우와 해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강하천이 터지고 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된 피해가 발생했으며, 김 총비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하도록 지시함

- 김 총비서는 침수된 농경지를 빠르게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관리대책을 시급히 세우도록 지시함
- 김 총비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농업지도기관들과 당 조직들에 돌렸으며, 자연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곳 일꾼들은 국가적 조치에 둔감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김 총비서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함

■ 북한 당국, 농작물 훔치면 노동단련대 수감 엄포(『RFA』, 2023.8.23)

- 북한 당국은 농작물 훔치는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최근에는 주민 회의를 열어 농작물 훔칠 경우 노동단련대에 3개월 이상 수감될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하였음
- 이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직접 농작물 훔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밝힌 것임
- 주민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당국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북한의 농업 작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철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총리가 무슨 힘 있나”…김정은 공개비판에 북 주민들 비아냥(『RFA』, 2023.9.7)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 지역을 시찰하며 피해 현장을 지도하고 피해복구를 지시함
- 이전에는 김정은이 군수공장이나 미사일 발사장 등 군 관련 현장만을 찾았지만, 이번

에는 농업 부문 피해 지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임

- 김정은은 물에 잠긴 농경지를 보며 분노하고, 김덕훈 총리와 내각 간부들을 ‘정치적 미숙아’, ‘지적 저능아’, ‘관료배’, ‘건달뱅이’ 등으로 비난하며 엄한 처벌을 지시함
- 이러한 김정은의 내각 비판은 이례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공개되었으며, 김정은이 직접 총리와 내각 간부들을 비난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임
-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내각 비판과 처벌 경고에 대한 의아함이 커지고 있으며, 당의 검열 부서들이 총리와 내각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규모 2.5 지진 “자연 지진”(『세계일보』, 2023.9.2)

- 10월 2일 오후 8시 54분 33초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9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음
- 이 지진의 발생 위치는 북위 41.28도, 동경 129.15도로 확인되었으며, 발생 깊이는 15km임
- 이 지진은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가 1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임
- 기상청 관계자는 이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하고 있음

■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2.1~2.3 지진 자연 지진 가능성(『세계일보』, 2023.9.8)

- 오전 3시 29분 48초에는 길주 북북서쪽 38km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오전 4시 1분 16초에는 39km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오전 5시 12분 1초에는 43km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관측되었음
- 기상청 관계자는 이들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했음
-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1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될 정도임

- 길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올해 들어서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9차례나 관측되었음
-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중 71차례가 있었는데, 그중 4분의 1 이상이 길주에서 발생했음

■ 함북 길주 인근 규모 2.5 지진 기상청 “연지진”『아주경제』, 2023.10.6)

- 기상청은 6일 오후 6시 29분 3초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1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로 확인되었음
- 해당 기사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규모 2.5 지진에 관한 내용임
- 기상청은 해당 지진을 분석하고 발생 위치, 규모, 깊이를 제시하여 보도되었음

■ 기상청 “북한 황해남도 웅진 인근 바다서 지진 발생”『아시아경제』, 2023.10.15)

-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2분 38초에 북한 황해남도 웅진 남동쪽 30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37.72도, 동경 125.5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로 확인되었음
- 해당 기사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발생한 규모 2.3 지진에 관한 내용임
- 기상청은 해당 지진을 분석하고 발생 위치, 규모, 깊이를 제시하여 보도되었음

■ 北 함경남도 장진 북쪽서 규모 2.8 지진…자연지진 분석(『YTN』, 2023.10.20)

- 20일 새벽 0시 반쯤, 북한 함경남도 장진 북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함
- 지진 발생 깊이는 9km로 확인되었으며, 기상청은 이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함

- 북한의 함경남도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규모 2.8이며, 발생 깊이는 9km로 파악되었음
- 기상청은 해당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하여 보고하였음

■ 기상청 “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2.2 지진 자연지진” 『파이낸셜뉴스』, 2023.10.28)

- 28일 오전 8시 37분 14초,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41.25도, 동경 129.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1km로 확인되었음
- 해당 기사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2.2 규모 지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기상청은 이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분석하고 발생 위치와 규모, 깊이를 제시하여 보도되었음

■ 북한 황해남도 용연 부근 해역서 규모 2.5 지진(『KBS』, 2023.11.3)

- 이번 지진은 서해 해역의 용연에서 서남서쪽으로 19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되었음
- 기상청은 이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됐다”며 “지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이번 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89차례 발생함
- 기사에서는 해당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지진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하였음
-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북한 황해남도 용연 서남서쪽 인근 바다에서 규모 2.5 지진 발생(『YTN』, 2023.11.3)

- 새벽에 발생한 북한 황해남도 용연 해역의 2.5 규모 지진은 북위 38.10도, 동경

124.72도에서 12km의 깊이에서 일어났음

- 기상청은 이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하며, 발생 규모와 깊이를 공개함
- 해당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은 안전 상태를 감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진 정보는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북한 지역에서 자연발생한 지진은 특히 국내 및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안전 상태를 주시하는 중임

■ 북한 함경북도 길주 규모 2.9 지진…‘자연지진’으로 분석돼(『YTN』, 2023.11.22)

- 오늘 오후 4시 29분에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부근의 지진은 규모 2.9이었음
- 해당 지진의 진앙은 함경북도 길주에서 북북서쪽으로 4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함
-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분석하여 발생 원인을 설명함
-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이번 지진을 포함하여 총 91회로 집계되었음
- 주어진 기사에서는 해당 지진에 따른 피해나 추가적인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

■ 북한 함경북도 길주서 또 지진…규모 2.6(『YTN』, 2023.11.23)

- 기상청은 오늘 밤 9시 21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 해당 지진의 진앙은 북위 41.30도, 동경 129.20도로 파악되었으며, 발생 깊이는 15km로 확인되었음
- 기상청은 해당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여 지진이 자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과 낮에도 각각 규모 2.5와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정보에 따르면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다수의 지진은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北 함경북도 길주서 규모 2.5 자연 지진 발생 하루 새 3번(『서울경제』, 2023.11.23)

- 23일 오전 7시 54분에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였음
- 이번 지진을 포함하여 하루 사이에 함경북도 길주 인근에서 3번의 지진이 나타났으며, 어제에도 2.9 규모의 지진과 1시간여 후에 2.3 규모의 지진이 있었음
- 이번 지진의 발생 지역은 북북서쪽 38km이며, 지진의 깊이는 19km로 확인되었음
- 기상청은 해당 지진에 대해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며, 이 지진 또한 자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계속되는 지진 활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함

■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2.6 지진 이틀간 5차례(『KBS』, 2023.11.24)

- 어젯밤 9시 21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틀 동안 5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음
-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자연 지진”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지역으로 알려진 길주에서 발생했음
- 길주는 핵실험 이후 자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어제 낮에도 규모 2.2의 지진이 길주에서 발생한 바 있음

3. 농업과 축산

■ 北 “애국운동으로 부흥강국” 70여년전 ‘애국미 헌납’까지 언급(『세계일보』, 2023.1.4)

- 북한이 일제강점 직후와 6·25전쟁 당시 주민들의 애국적 행보를 조명하며 시대정신으로 ‘애국심’을 다시금 꺼내 들었음
-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애국심에 기대는 것 말고는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이 70년도 더 된 과거의 시대정신까지 소환한 것은 북한 경제를 좌우할 요인이 국제사회의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중국의 대북지원 등 ‘외부’에 달린 만큼, 내부적으로 정신 무장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방증임

■ 통일부 “2개월 만의 북 전원회의, 농업 관련 단일 안건 이례적”(『자유아시아방송』, 2023.2.6)

- 북한이 단일 안건으로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2개월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농사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음
- 북한은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 전망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임
-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식량 상황을 겪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식량 수입 경로가 차단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北,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당면한 농사문제 토의”(『YTN』, 2023.2.6)

- 북한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토의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정치국 결정서에는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박한 초미의 과제고,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음
- 정치국 회의에는 김정은 로동당 총비서는 불참했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회의를 주재했다고 통신은 밝혔음

■ 북한, 공예작물 재배 독려(『NK경제』, 2023.2.13)

- 북한이 공예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배를 독려하고 있음
- 로동신문은 공예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2월 12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재배하고 있는 공예작물에는 섬유 작물로 목화, 갈, 왕골 등이 있고 기름작물로 들깨, 참깨, 낙화생(땅콩), 해바라기 등이, 기호작물로는 호프, 차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사탕무, 8월플, 사탕갈, 박하 등과 같은 당 작물, 향료 작물도 있다고 소개했음
- 한편, 로동신문은 이런 공예작물이 인민소비품 생산의 중요한 원료가 되며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 북 영농자재 없어 밀·보리 파종 지연(『자유아시아방송』, 2023.2.28)

- 북한이 봄철 밀과 보리 농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파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디젤유 부족으로 밭갈이를 진행하지 못해 밀과 보리 씨뿌리기 작업이 차질을 겪고 있음
- 북한 당국은 밀과 보리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야 하지만 농장들은 자금난과 디젤유 부족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평안남도 은산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도 밭갈이와 밀과 보리 씨뿌리기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 북한의 식량 상황은 심각하며, 연료와 비료 등을 농장 자체로 해결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자금이 부족한 농장에서는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큼

■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 0.8% 감소 한국의 74.2%(『헤럴드경제』, 2023.2.28)

- 지난해 북한의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벼 재배면적은 53만 9,679ha로 전년보다 0.8% 감소했음
-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봄 가뭄과 장마철 직후 호우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력 이동이 어렵고 북중 교역 차질로 비료·농기계 등도 부족해져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한편, 작년 북한의 벼 재배면적은 한국의 74.2% 수준임

■ 北, 전원회의 종료...김정은, 농업생산량 확대 주문(『아주경제』, 2023.3.2)

- 북한이 지난 1일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달 26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막했음

-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생산량 확대에 기반한 농촌정책을 강조했음

■ 북한 “쌀로 자주강국 받들어야 앞으로 3년이 중요”(『헤럴드경제』, 2023.3.18)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쌀이 곧 자주이고 자립이며, 자위”라고 강조했음
-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국가의 전진과 강세는 멈춤도 한계도 없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쌀로써 자주강국을 받들고 자립의 돌파구를 열어 자위의 성세를 굳건히 담보하자”고 역설했음
- 북한은 지난 연말 제8기 제6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경제 분야의 12개 중요 고지를 정하고, 그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했음
- 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알곡 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 북한, 과학농사지도 심화(『NK경제(경제&산업)』, 2023.4.11)

- 북한의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종자보장과 작물배치,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편파성을 극복하고 모든 농장들에서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적기적작과 적지적작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사작전과 영농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사와 관련된 부문과 단위들의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인재를 육성하여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뒤떨어진 지역들의 농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북한의 농촌경리위원회 일꾼들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은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VOA “北, 지난달 중국에서 쌀 4만 6천 톤 수입...2월보다 2배 ↑”(『YTN』, 2023.4.22)

-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4만 6천여 톤의 쌀을 수입하여 이전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사들임
- 이 수입량에는 단립종 쌀과 장립종 쌀이 포함되는데,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고 얇은 모양으로 가격이 저렴함
- 또한, 북한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품목으로 가발과 인조 속눈썹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역외가공 무역을 재개하여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음
-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쌀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북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농업과학기술봉사SW 황금열매 이용해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진행(『NK경제(IT과 학)』, 2023.5.18)

-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를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보급과 문제 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정보화연구소는 현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자료기지(DB)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문답봉사프로그램을 갱신하고 있음
- 또한 농업과학추진조와 연계하여 생육 단계별 농업기술적 대책과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제품들에 대한 자료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적인 지원은 농사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정보화연

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의 탐구열의가 높이 발양되고 있음

- 북한 로동신문은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농사실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도들을 알려주는 문답봉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북한 올해 4월 농업연구원 → 농업과학원으로(『NK경제(IT과학)』, 2023.5.23)

- 북한은 농업연구 기관인 농업연구원의 이름을 농업과학원으로 변경하였음
- 농업과학원은 농업부문 과학연구단위들을 첨단기지화하는 사업을 통해 농사에 대한 과학기술의 보급과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은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이며 정확한 방도들을 알려주어 농사생산의 과학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정보화연구소를 통해 지식자료기지(DB)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문답봉사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소들은 논벼, 강냉이영양상태 진단, 농작물의 병해충발생 예보, 농작물여물기촉진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은 앞으로도 농업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분야의 과학기술적 발전에 기여할 계획임

■ 농사일 급박한 황해남도에 중앙 노력도 배치…역량 총동원(『Daily NK』, 2023.5.25)

- 북한은 황해남도의 농장들이 올곡식 관리와 모내기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기관과 중앙대학 학생들을 황해남도 농촌 현지에 보내 농사 일손을 돕도록 지시하고 있음
- 황해남도 농업 현장은 농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올곡식 물주기와 비료 치기, 모내기 등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관의 일꾼들과 중앙대학 학생들이 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 북한은 농사에 대한 국가 방침을 받들어 나가기 위해 황해남도 농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중앙기관과 중앙대학들을 동원하여 올곡식 수확과 관련된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기계들이 황해남도 농장들에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지원자들은 올곡식 물주기와 비료 치기, 모내기 등에 힘쓰고 있음
- 북한은 황해남도 농업 현장에 동원된 지원자들이 현지 농장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올곡식 수확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해남도 농업의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北 “밀 보리 적기 수확에 집중해야”…농업 성과 사활(『YTN』, 2023.6.11)

- 노동신문은 밀과 보리의 수확 시기를 5~7일 앞당기면 7~10%의 소출 감소가 발생한다고 경고하며, 곡식 수확의 적기 중요성을 강조함
- 현재 초여름 장마의 시작은 수확을 최적기에 결속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함
-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의 간부들이 농업 지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음
- 북한은 올해 경제 과업 12개 고지에서 알곡을 첫 번째로 제시하며, 농업 분야 성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 북한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모내기 일정을 앞당긴 노력을 기울여 전국적으로 기본 면적의 벼 모내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음

■ 북한 온실남새 부문 과학기술토론회 2023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6.20)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남새기술협회가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 2023’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온실남새농사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주제로 하였으며, 온실채

소 생산과 재배기술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토론회에는 농업과학원, 원산농업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했으며, 배수율과 일조량에 따른 자동 영양액 공급 방법, 겨울재배용 온실오이 품종의 특성과 재배기술, 지능적인 환기장치의 효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음
- 온실채소 생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안 80여건이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채소품종과 재배기술을 비롯한 주제들이 포함됨
- 토론회에서는 다층재배 방법, 인공조명을 활용한 채소 생산 방법, 기능성 채소품종의 특성과 활용에 관한 과학기술 강의와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됨

■ 북한 “먼거리영농기술문답서비스 이용자 10만명”(『NK경제(IT과학)』, 2023.7.5)

- 북한, 농업위원회 주도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추진 중임
-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일꾼들 대상으로 영농공정별 기술문답 제공으로 과학농사 발전 지원
- 수십 차례 강의 및 70여 건의 강의안 배포로 농업 근로자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상에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확대함
- 문답봉사를 통해 가입자들의 기술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호평임
- 북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로 과학농사 발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노력함

■ 북한 “농사직설은 가장 오래된 농업 서적”(『NK경제(생활&문화)』, 2023.7.8)

- 1429년에 저술한 ‘농사직설’은 중세시기 농업에 관한 책으로, 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영농 방법과 경험을 종합 체계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 농사직설은 제한된 지역의 영농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종자 준비부터 밭 갈기, 작물 재배법 등 농사의 필수적인 과정과 기술을 담고 있음
- 책에는 농기구, 거름 주는 방법, 다양한 작물 종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대에 재간행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소개함

- 비록 편찬 목적과 편찬자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중세 농업의 발전과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이 책을 통해 중세시기의 농업 지식과 방법을 탐구하며, 그 시대의 농업문화와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상기후는 기정사실” 北, 식량난 또 올까 장마에 촉각(『세계일보』, 2023.7.17)

- 북한은 겨우 넘은 식량난 고비에도 불구하고 장마 대비를 강조하며 새로운 위기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함
- 북한 정부는 올해 ‘알곡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보릿고개를 넘어 봄철 모내기예 군을 동원하여 물난리 가능성에 대비함
- 김덕훈 내각 총리는 농작물 생육상태에 맞게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특히 김매기 방법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배수시설과 해안방조제 등을 관리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함
- 김덕훈 내각 총리는 사리원보이라(보일러)공장에서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생산보장하고, 공장 노동계급과 노동자들이 인민에게 신선한 남새(채소)를 공급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룡강석재가공공장, 사리원시 양정사업소, 강동온실농장건설장 등 현지 사업소를 방문하며 지역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현지료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북한, 장마철 수해 최소화에 총력 김덕훈 현지 시찰(『세계일보』, 2023.7.17)

- 북한은 장마철을 맞아 농업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지에서 사업 시찰을 진행함
- 김 총리는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등 여러 지역의 농장을 방문하며 농작물 생육에 맞게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특히 김매기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김 총리는 농업부문 간부와 근로자가 폭우와 태풍 등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과 해안방조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추진함
- 농장 관계자들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량이 낮아지는 장마철에 맞게 미량원소 비료 분무 주기를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올해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 생산을 설정하여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조직에 노력을 촉구함

■ 북한 농업과학원에서 연구토론회, 기술강습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7.21)

- 조선농산기술협회가 주관한 연구토론회와 기술강습이 열렸으며, 이는 알곡 작물의 생산 증대 및 농작물성장촉진제 활용을 목표로 함
- 농업과학원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연구토론회에서는 알곡 작물의 수정률 및 여물을 향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경감, 병해충 관리 등이 논의됨
- ‘농작물성장촉진제의 활용’ 주제로 개최된 강의에서는 천연생물활성제, 식물영양제, 성장조절제 등의 활용 방법과 효과가 소개됨
- 참가자들은 알곡 작물의 생육 후반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다루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함
- 주최된 이벤트들은 북한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북한 농업위원회 먼거리영농기술문답 서비스 적극 활용(『NK경제(경제&산업)』, 2023.8.7)

- 북한 농업부문 총괄 기관인 농업위원회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는 도, 시, 군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통해 중요 기술적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화상회의, 원격강의, 실시간문답 등을 통해 농업 근로자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농업과학연구 성과와 다수확 경험자료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자료봉사를 실시하고, 수많은 가입자들이 요청하는 문제들에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음

■ 별안간 내려진 낱알 오존처리 기술 도입 지시에 현장선 ‘황당’(『Daily NK』, 2023.8.14)

- 북한 정부는 가을에 거둬들일 양곡의 보존을 위해 오존처리 기술을 도입하고 일반화할 계획임
- 농업위원회는 도, 시, 군 당국에 오존처리 기술 도입을 지시하고, 양곡 보관창고를 실사 점검하도록 함
- 현장에서는 양정 부문과 농장들이 아직 이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지시를 받은 뒤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일부 양정 부문 일꾼들은 보관할 양곡이 없거나 이미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는 이 지시를 강조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 재해성 이상기후에 긴장한 北… “24시간 화상망 열어놓으라”(『Daily NK』, 2023.8.16)

- 북한은 올해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알곡을 강조하며 농업 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황해남도에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라는 지시

를 내렸음

- 북한은 황해남도에 24시간 화상망을 열어놓으라고 도 당위원회와 도 농촌경리위원회에 지시하며,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북한은 황해남도의 농장들에 당에서 제공한 농기계를 잘 활용하도록 하고 논물 온도로 인한 벼 뿌리 썩음을 방지하는 사업에 착수하도록 당부함
- 황해남도는 북한의 쌀 독점 생산 지역으로 간주되며, 당과 국가가 농업 부문의 선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현장에서 효과적인 농업 관리를 통해 올해의 수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음
- 황해남도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들이며, 농업 부문에서 모든 일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강조하고 있음

■ 北 “긴장 견지하며 재해성 기후 강력 대처”…농업 일꾼 역할 강조(『Daily NK』, 2023.8.17)

-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의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며 농업 부문 일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농사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알곡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농사의 주인인 농업 근로자들이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음
- 농업 부문 일꾼들은 임의의 시각에도 폭우가 내릴 수 있으며,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사의 주인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 올해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부문 일꾼들은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있으며, 이것은 당의 권위,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 부문 일꾼들은 쌀로써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 김정은 태풍피해 지역 다시 찾아…공군기까지 투입해 농약 살포(『Daily NK』, 2023.8.18)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현황을 종합 보고받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지도하였음
- 김 위원장은 침수된 농작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헬리콥터와 경수송기를 동원하여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하였음
- 김 위원장은 인민군 군인들을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 전선에서의 역할과 농사의 주인 정신을 강조하였음
- 김 위원장은 농장들에게 자연 기후와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작물을 잘 가꾸어내도록 당부하였으며, 농사를 안전하게 수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 또한, 김 위원장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함

■ “애국의 땀을 깡그리 바치자” 추수 탈곡 돌입한 北(『문화일보』, 2023.8.19)

- 북한은 가을걷이와 탈곡 대비를 위해 농사 마무리 준비에 나서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농작물의 생육후반기 비배관리와 더불어 올해 농사의 성공적 결속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며 이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봄내여름 내에 가꾼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농기계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황해남도에서는 농기계 정비를 진행하며 농작물 생산에 최대한 기여하고 있음

- 북한은 올해 경제발전 ‘12개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해 내내 올곡식 수확, 모내기 준비, 장마 피해 대비 등을 주문해 오고 있음

■ FAO, 대북 제재면제 물품 이송 지연(『RFA』, 2023.8.28)

- FAO의 대북 농업 관련 지원물품 이송이 지연되어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정되었음
- FAO는 ‘북한 도시 및 농촌 인구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대두 생산 기술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며, 이를 위한 제재면제 물품 조달을 시작함
- FAO가 북한에 이륜 경운기, 이동식 콩 탈곡기, 휴대용 급수 펌프, 태양광 배낭 분무기 등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의 국경 봉쇄와 외국인 직원 부재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지 못함

■ 북 당국 “올 작황 좋다”… 일부 농민들 되레 걱정(『RFA』, 2023.9.1)

- 북한의 농업성은 올해 예년과 유사하게 8월 20일에 알곡의 예상 수확을 평가하였으며, 농민들은 농작물 생산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였음
- 농업성은 올해 예상 수확량으로 정보당 벼가 3.4톤, 강냉이가 3.7톤, 감자가 34톤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높은 생산량으로 평가되었음
- 올해는 국가 알곡 생산 계획량(600만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농민들은 날씨가 좋아 예상 수확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중앙에서의 알곡 생산량 증가 독촉으로 예상 수확량을 너무 높게 잡았다며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음
- 과거에도 예상 수확량이 실제 수확량보다 높게 잡혀 농민들이 고생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농민들이 모자라는 수확량을 직접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북한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NK경제(IT과학)』,

2023.9.4)

- 로동신문은 9월 4일에 게재한 기사에서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아 과학농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로동신문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고, 월별, 주별, 날짜와 시간별로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의 운영을 기본적으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부터 지방까지 농업과학기술보급체계를 조직화하고 운영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과학기술 학습을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북한, 농업과학기술 앱 황금열매 1.2로 업그레이드 준비…농업경영정보화 지원(『NK경제(IT과학)』, 2023.9.25)

- 황금열매 1.1은 실시간으로 농업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답봉사와 영농물자정보교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자수가 수십 배 늘어났음
- 이 프로그램은 농작물생육예보, 과학기술자료열람, 문답봉사, 영농물자정보교류 기능을 포함하며, 다양한 농업과학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농작물생육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함
- 황금열매 1.2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형식이 개선되었고, 장악보고와 측정봉사 기능이 추가되어 농장원들이 전국의 작업반장들로부터 직접 장악할 수 있도록 함
- 이 프로그램은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정보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장원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 문답봉사를 가능하게 함
- 황금열매는 황해북도체신관리국과 농업정보화연구소의 공동 개발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자료통신봉사기(서버)의 구축 문제를 협력과 정보산업성 지원을 통해 해결함

■ 쌀자루 산더미처럼 쌓고 출판… 北 “‘학농사’ 성공” 자축(『머니투데이』, 2023.10.10)

- 북한이 ‘풍작’ 성과를 선전하면서 황해남도 배천군 역구도농장에서 결산 분배가 진행되었음
- 기사는 농장에서의 성과와 결산 분배가 발표된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음
-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특정 농장에서의 과학농사로 인한 좋은 성과를 선전하며, 이에 따른 결산 분배의 진행을 알렸음
- 풍작 선전에 따라 농장원들의 기쁨과 분배장에서의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농촌 진흥 및 부유한 사회주의농촌의 기대가 나타나고 있음

■ 북, ‘작황 양호’ 농장에 결산 분배 독촉(『RFA』, 2023.10.16)

- 북한의 농산물 작황 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서, 북한 당국이 농장들에 결산 분배를 서두를 것을 독촉하고 있음
- 현재 북한 전역에서 벼와 강냉이(옥수수)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산 분배가 몇몇 농장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며, 농부들은 아직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 분배를 서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해당 기사는 북한의 농산물 결산 분배에 대한 독촉과 농부들의 현황을 다루고 있음
- 농부들은 탈곡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 분배를 서두라는 독촉에 놀라고 있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이미 결산 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 북 일부 농민, ‘애국미’ 선 공제 결산분배에 반발(『RFA』, 2023.10.25)

- 북한 당국이 농민들에 대한 연간 결산분배에서 애국미를 미리 공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
- 올해 결산분배에서 애국미가 농민들에게 미리 공제되는 것은 예년과는 다르게 처음이라며, 일부 농민들은 이에 반감을 표현하며 작업반장에게 대화하고 있음

- 기사는 북한의 결산분배 시스템과 미리 공제되는 애국미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부 농민들은 1년 식량으로 받게 될 현물알곡에서 공제되는 애국미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미리 결산분배에서 제외되는 양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풍작이라는데 “배고파 귀순” 北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중앙일보』, 2023.10.25)

- 소형 목선을 이용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하며 “배고픔”을 호소하는 가운데, 북한은 ‘풍작’을 선전하고 있음
- 주민의 귀순 이유와 북한의 ‘풍작’ 선전, 작황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시간순으로 서술되어 있음
- 주민의 귀순 이유, 북한의 ‘풍작’ 선전, 작황 향상, 곡물 가격 안정, 식량난 해소에 대한 전망 등이 다루어져 있음
- 소형 목선을 이용한 주민 4명의 귀순 이유로 “배고픔”을 호소하며 북한의 ‘풍작’ 선전에 대한 이해 관계가 모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고공행진하던 北 시장 곡물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Daily NK』, 2023.11.3)

- 북한의 쌀 가격은 지난달 중순 크게 하락한 후, 현재까지 1kg에 5,000원 안팎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수확이 진행되면서 곡물 공급이 늘어난 결과로 예상됨
- 북한 전역에서 옥수수 가격이 지난달 중순보다 더 하락하였으며, 평양에서는 1kg에 2,2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전국적인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마다 23~27%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는 쌀 가격은 수확이 끝난 지역에서 시장에 풀린 곡물로 인한 공급 증가로 해석되며, 향후 쌀과 옥수수의 시장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농장에서의 의무 수매와 결산 분배가 완료되면서 곡물 시장에 풀리는 심리적

요인들이 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북한의 올해 쌀농사 작황이 작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 충족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음

■ 北 “연말 앞두고 올해 경제발전 목표 무조건 점령” 독려(『파이낸셜뉴스』, 2023.11.7)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연말을 50여일 앞두고 올해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독려했음
- 신문은 ‘증산 투쟁, 창조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라는 기사를 통해 올해의 결정적 담보로서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하며 경제발전 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인민 생활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진 310일간의 성과를 자평하며, 대중의 정신력 발동을 경제지도 일군에게 승전 포성을 높이 울리라고 촉구했음
- 북한은 2021년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전력, 석탄 등 12개 항목을 ‘중요 고지’로 설정했음
-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경제지도 일군들에게 혁명적인 전개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5개년 계획 수행에 박력 있게 작전과 지휘를 내리라고 주문했음

■ 북 “거름생산과제 연말까지 완수” 독려(『RFA』, 2023.11.21)

- 북한 당국이 연말까지 완수되어야 하는 미달된 거름 생산과제를 전면 독촉하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거름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거름 생산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추위가 심한 시기에 썰매를 이용하여 얼어붙은 거름을 협동농장에 실어야 하는데, 이에 초급 중학교 학생부터 60세 미만 주민까지 모두 참여함

- 전통적으로 거름 생산과제가 진행되는 시기인데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거름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미달된 과제를 올해 중에 무조건 완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거름 생산 압박으로 공장과 기업소는 거리와 마을의 쓰레기를 협동농장에 거름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협동농장들 중 일부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쓰레기를 논밭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협동농장들은 거름을 받지 못하면 도당과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압력을 견디고 침묵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쓰레기를 받은 협동농장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북한, 농업부문 원격교육 강화(『NK경제(경제&산업)』, 2023.11.28)

-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농업과학기술학습에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음
- 올해만 해도 평양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 숙천농업대학 등에서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원격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원격교육 학부에는 2,000명 이상의 농업근로자가 공부하고 있음
- 올해에는 남포농업대학, 강계농림대학, 함흥농업대학에서도 원격교육을 시작하며, 노동신문은 이들 대학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원격교육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이 원격교육체계를 통해 학습하고 있으며, 노동신문은 이 대학에서도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함
- 각지 농장대학에도 많은 농업근로자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업발전에 기술적 기여를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 학습에 참여하고 있음

4. 보건과 환경오염

■ 북 ‘코로나 올인’에 말라리아 다시 증가세(『자유아시아방송』, 2022.12.8)

-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2021년에 22% 증가하여 2,357명을 기록했다고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 10년 전부터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망자는 1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북 지원단체의 활동과 물품 지원에 차질이 있어 말라리아 통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에 북한 내에서 감염된 말라리아 사례는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며, 발견된 말라리아는 삼일열원충(P.vivax)으로 치료가 비교적 용이함
-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된 북한 주민은 약 2,50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며, 고위험군은 약 145만 명임

■ 북, 장마당 코로나 소독 첫 의무화(『자유아시아방송』, 2023.1.13)

- 북한 당국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장마당 소독을 의무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음
- 은산군과 안주시에서는 장마당 매대와 상품을 소독하는 작업을 개인 장사꾼에게 의무화하였으며, 소독수와 분무기를 갖추고 시장관리소에 제출해야만 출입이 가능함
- 이번 조치는 코로나 의심증상 환자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개인 소독 작업을 의무화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각 장사꾼들의 소독 책임과 소독수 구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내 누적 발열자 수는 470만 명으로 알려졌다

■ 北, 25일부터 5일간 평양 봉쇄 ‘호흡기 질환 증가’ 이유(『아주경제』, 2023.1.25)

- 북한이 ‘호흡기 질환 증가’를 이유로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평양을 5일간 봉쇄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소재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자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5일간 평양을 봉쇄하는 가운데 평양주민들은 봉쇄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하루에 여러 번 체온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2월 8일 예정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수만명의 시민과 군인을 동원해 야외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코로나 종식’ 선언했지만 고강도 방역 지속(『YTN』, 2023.5.11)

-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전히 고강도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비상방역을 국가 사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소독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의 방역 조치에는 체온 측정과 손소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든 지역과 단위에서 예견성 있는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음
- 북한은 여전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종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북한의 방역 사업에 대한 주력을 강조하며, 북한이 계속해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유엔 “북한 주민 절반이 영양 결핍 상태”(『문화일보』, 2023.7.14)

-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45.5%(1,180만 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음
- 영양 부족 인구는 지난해 41.6%에서 4%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로 나타남
-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소말리아(48.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국경 폐쇄로 인해 식량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은 식품 수입이 제한되어 식량 부족이 심화됨

■ 유엔 “북한 기아, 소말리아 수준 코로나로 식량 안보 악화”(『세계일보』, 2023.7.14)

- 유엔 기구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절반 정도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남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전년도에 비해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유사한 수준임을 RFA는 분석함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22년 16.8%로 약간 나아졌음
- 코로나19 기간에 만성적 식량 부족이 더 악화되었으나 국경 폐쇄로 인해 체계적인 식량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RFA가 분석하며,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상황을 설명함

■ 수인성 질병 환자 급증…의약품 부족에 수질 개선도 난망(『Daily NK』, 2023.8.2)

- 평안남도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는데,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물의 품질 문제로, 양덕과 맹산 산골 지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문덕, 평원, 숙천 지역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함
- 주민들은 약품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은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하여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환자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도 소독을 위한 약품 부족으로 충분한 정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독 작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소독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문제가 있음

■ 북한, 병해충예보 휴대폰 앱 전국 보급 중(『NK경제(IT과학)』, 2023.8.9)

- 북한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는 기상수문국과 협력하여 손전화기(휴대폰) 병해충예보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농장에 도입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고온, 폭염, 태풍 등에 의한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측하고 포전예찰과 예방구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연구소는 연구사들을 파견하여 기술적 지원 및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지도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병해충 예찰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예찰예보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농약 생산을 지원하며 감자 역병의 예측 사업도 김일성종합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행 중임

■ 당국 외면 속 죽어가는 해외 북 노동자들(『RFA』, 2023.9.20)

- 러시아 파견 북한 건설회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

중 8명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었음

- 문건에는 말기암 등 중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상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치료 대신 일을 나가다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고, 병원 치료를 받기에 돈이 부족하여 중병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 중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내몰린 상황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자 파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北 황해북도 목장서 염소 40% 집단 폐사…축산업 ‘비상’(『Daily NK』, 2023.9.26)

- 황해북도에서 발생한 염소의 집단 폐사는 기생충에 의한 질병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염소는 특히 풀의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기생충에 취약함
- 염소 폐사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높아졌는데, 이전에는 중국에서 소독약과 구충제 등을 들여오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으나 현재는 직접 제조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약재는 부족한 상황임
- 축산 사업에 필요한 기본 약품이 부족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황해북도 수의방역소와 상급 기관은 자체적으로 소독약을 제조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북한 수의방역 기관은 초지 소독과 구충제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과 수입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축산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염소 폐사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독과 구충제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갱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북, 국제기구 직원 복귀 ‘미적’ 속 지원용품은 수령(『RFA』, 2023.9.29)

- 북한이 코로나 이후 3년 7개월 동안 국경을 폐쇄했지만, 최근엔야 다시 개방했지만 UN과 같은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국제기구의 외국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내의 활동에 차질이 생김
- 유니세프는 최근에도 북한에 지원 용품을 보내고 있음. 산모와 아동 건강을 위한 필수 의약품과 물품 등이 전국 50개 군의 시설에 분배되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아동 건강 상태가 염려스럽다고 밝혀졌음
-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을 언제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현재 북한의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건강이 아닌 다른 분야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임

■ WHO “北에서 풍진 퇴치 접종률 99.8% 달성”(『세계일보』, 2023.11.1)

-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풍진이 퇴치됐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음
- WHO 동남아시아 지역 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는 북한에서 대규모 면역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집단면역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국가인증위원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했음
- 북한은 9개월~15세 아동과 16~18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홍역·풍진 백신 면역 프로그램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11월에는 아동기 면역 프로그램에 홍역·풍진 백신을 도입했음
-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귀 뒤, 목 뒤의 림프절 비대와 통증으로 시작되어 얼굴과 몸에 발진이 나타나고 미열이 동반됨

- 전염력이 높아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풍진은 기침, 말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 분변, 소변,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환자와 의사는 발병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 대북전단, 북에 다량 유입?…“4월부터 감염적지물 발견”(『RFA』, 2023.11.7)

- 북한이 코로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비상방역대책을 제안하는 문건을 발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이 4월부터 대북전단 등을 통한 ‘적지물’을 발견하며金正은의 민감한 대응과 대책이 나타난 문건이 입수됨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비상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의진자 및 적지물을 철저히 장악, 규제를 강화하는 신고통보 체계를 강조함
- 문건은 해안가에서의 대응을 강조, 주민들에게 적지물 위험성을 알리고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바다에서 ‘감염위험 적지물’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함
- 대북전단 등의 살포가 금지되기 전에도 대북전단 등이 상당량으로 유입되었으며, 대북 정보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은 위험 결정 이전에도 비공개로 활동을 지속함

■ 북 결핵환자 1천 명 또 증가…영양실조 탓(『RFA』, 2023.11.7)

- 2023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1천 명 증가하여 13만 4천 명으로,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에서 모두 고위험국으로 지정되었음
- 남성 중 45세에서 54세 사이가 가장 많이 결핵에 걸렸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영양실조가 나타났음
- 북한 내 결핵 환자 중 치료받은 비율은 61%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사망률은 2% 포인트 상승하여 19%로 나타났음
- 세계적으로는 2022년에 192개국에서 75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며,

이는 1995년 이래 최고치로, 접근성 개선으로 진단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었음

- 전체 결핵 환자는 1천60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결핵은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감염병 중 하나로 남아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WHO의 강조가 있었음

■ 말로만 코로나 해제한 북한?…주민들 “잠잠하더니 또 들볶아”(『Daily NK』, 2023.11.17)

- 연말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주민 등을 동원한 대규모 ‘방역 훈련’을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보건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전해졌음
- 지난 11일부터 4일간 남포시에서는 ‘국가 방역능력 건설 점검 및 전염병 위기 시 대응 능력 판정’이라는 훈련이 이뤄지며, 이는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 행정, 보건 부문 기관들은 비상 방역 시 주민 관리, 현장에서의 행동 방법 등을 검토하고, 기업소 및 주민들의 방역 규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행동 수칙을 점검함
- 대형 모의 훈련에서 남포시는 지침대로 보건, 위생, 방역 관련 임무를 수행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내각 보건성은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며 방역 능력 건설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방역사업에 대한 책임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일꾼들과 주민들에게 해이와 방심을 경계하고 방역 규율과 질서를 지키도록 선전 전개 중임을 보도하였음

5. 산림

■ 북 주민, 기록적 한파에 산림단속 강화로 추위에 떨어(『자유아시아방송』, 2023.1.25)

- 북한 한파로 인해 당국의 산림단속이 강화되고, 주민들은 떨감 부족으로 인해 나무를 잘라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산림단속으로 인해 나무를 베어내던 주민이 산림훼손죄로 총살된 오문혁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
- 주민들은 당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분노하고 있으며, 산으로 짝막한 산간벽지에서는 나무 판매가 중단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신세에 놓여있음

■ 북한 “이번 봄 나무 1억 그루 심어”(『NK경제(생활&문화)』, 2023.4.20)

- 북한의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에 따르면, 이번 봄철에 전국적으로 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됨
- 평양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주변 산들에 창성이깎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을, 시내 여러 곳과 공원, 유원지에도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려짐
- 황해남도의 시, 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적기에 나무심기를 진행하며, 작년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포시에서는 단계별 계획과 나무모보장을 하면서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을 지키며 나무를 심고 있음
- 개성시에서도 수종별 생물학적 특성과 지역의 기후, 토양 조건을 고려하여 나무심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 강도높은 산림 검열...“묘목 도둑 극성”(『RFA』, 2023.6.6)

-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내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수림화를 완성할

약속을 함

- 김정은의 산림 회복 약속 10주년을 맞아 북한은 각 지역의 산림조성 사업을 강도높은 검열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의 종합검열은 강도가 높아 현지 간부들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음
- 검열 성원들은 시, 군 양묘장 및 양묘 영양단지공장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지난 10년간 가꾼 산림조성 구역들을 점검하며 게을러진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예상됨
- 혜산시 건설에 동원된 양강도 청년동맹돌격대와 여성동맹돌격대 대원들이 검열에 동원되어 묘목 보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검열이 마무리되면 심한 식량 상황과 함께 불이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산림조성 문제가 시민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 “녹색성장과 저탄소경제는 지속적 경제 발전의 주류”(『NK경제(생활&문화)』, 2023.6.7)

- 6월 7일, 북한 로동신문은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함.
- 녹색성장은 파괴된 생태환경 복구와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경제발전 방식으로 소개
-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펼치며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화, 과학기술 연구, 교육,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
- 자원의 적절한 사용료 적용, 오염물질배출요금, 재자원화장려금, 이산화탄소흡착장려금 등의 경제적 장려책을 도입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
- 녹색성장과 저탄소경제가 현재 경제 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방향으로 소개함

■ 북한, 산사태방지시스템 전국 도입 추진 중(『NK경제(IT과학)』, 2023.6.20)

- 북한 산림연구원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개발하고 전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동신문이 6월 20일에 보도함
- 산사태방지시스템은 산사태발생위험평가, 조기경보, 산림조성 및 구조물 건설 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 대상지를 분석하고 최적의 산림조성 및 구조물 건설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로동신문은 설명함
- 북한 산림연구원과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방지체계를 개발하고, 강수량, 토지 이용 상태, 지질조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과 관련된 이해를 높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산사태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함
- 산사태방지체계는 산림 자원 및 토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강조되며, 산림연구원은 시, 군 단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사태 위험도 파악과 조기경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로동신문은 밝혔음
- 북한 산림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산사태방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식을 확보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사태 예방 기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산림 파괴하지 말라” 북 당국, 주민교양(『RFA』, 2023.7.4)

- 북한 당국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산림 보호에 주력하며, 산림 황폐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
- 북한 당국은 산림 관련 정책을 강조하며, 국토환경보호성과 산림과학부 신설, 임업법 제정 등을 통해 산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당국은 주민들을 산림 조성과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사상교양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홍보함

- 주민들은 당국의 산림 관련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산림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 황폐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인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북한, 전국산림부문 경협교환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9.11)

- 9월 6일과 7일에 조선산림협회가 주최한 전국산림부문 경협교환회가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되었음
- 행사의 주제는 ‘나무모 기르기와 관리의 과학화’로, 산림조성을 전망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열렸음
- 행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원산농업대학,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산림연구원 등 1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함
- 발표된 주요 주제로는 온실나무모 기르기, 속성나무모 기르기 등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이 있었으며, 나무모 재배용 기질생산 방법과 조직배양모 대량 생산 기술 등에 관한 논문들이 관심을 받았음
-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부문에서의 과학기술적 발전과 경험 공유가 이루어졌음

■ [단독] 북한 시, 도, 기업, 기관에 녹지 조성을 법으로 의무화(『NK경제(경제&산업)』, 2023.10.8)

- 북한이 ‘원림녹화법’을 통해 나무와 꽃을 포함한 녹지 조성 및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북한, ‘원림녹화법’으로 나무와 꽃 등 녹지 조성 의무화함
- 지난 10월 5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이 공개한 ‘원림녹화법’은 법의 사명과 원림녹화

사업의 기본 원칙, 계획 작성, 설계, 경관 조성, 녹지 관리에 관한 다양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은 법에서 원림녹화 사업의 사명과 원칙, 계획 작성 및 승인, 설계 작성과 승인, 경관 조성에 필요한 법적 요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원림녹화법은 나무와 꽃을 비롯한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도시와 마을, 기업, 기관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법을 어기면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북, 새집 입주 농민들에 과일나무 심기 독려(『RFA』, 2023.10.31)

- 북한에서는 최근 새로 건설된 농촌 살림집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 것을 농민들에게 독려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새로운 농촌 살림집 건설과 함께 농민들에게 집 뜰에 과일나무를 심을 것을 강조하고, 해당 내용이 농근맹회의에서 전달되었음. 또한 농근맹은 어디선가 구해온 과일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반응은 과일나무를 심는 데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음
- 북한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 사업과 농근맹을 통한 농민들에게 과일나무를 심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농근맹은 농민들의 정치조직으로, 새로운 집과 마을을 꾸리고 사회주의 선경으로 만들기 위해 집 뜰에 과일나무를 10그루 심을 것을 지시하고 있음
- 농민들은 과일나무를 심는 데 대한 반응이 양극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텃밭 면적이 부족해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감나무는 좋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북한,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개막(『NK경제(IT과학)』, 2023.11.7)

- 11월 6일, 조선산림협회가 주최한 '산림조성과 관리의 과학화'를 주제로 한 전국산림 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가 개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산림연구원, 도산림과학연구소 등 60여개 단위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이 참여하여 100여건의 과학기술제안을 제출했음
- 이 행사는 국가자료통신망에 개설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 사이트를 통해 가상전람회 방식으로, 발표회는 화상회의체계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음
- 행사 기간 중에는 백두산 지구 산림조성과 관리의 과학화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열렸으며, 이를 통해 산림분야에서의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음
- 이번 행사는 산림조성과 관리에서의 과학기술성공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국가 차원에서 산림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음

■ 북한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폐막(『NK경제(경제&산업)』, 2023.11.26)

- 11월 24일, 북한에서 성공적으로 폐막된 전국산림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에서 '산림조성과 관리의 과학화'가 주제로 설정되었음
- 이 행사에는 100여건의 과학연구성과가 제출되었고,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한 가상전람회 방식으로 선진적인 산림과학기술성과와 경험이 교류되었음
- 발표회에서는 산림건설설계주문작성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산림 분야의 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다뤄졌음
- 행사 기간 동안 백두산지구 산림의 과학적 보존과 관리와 관련된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어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가 공유되었음
-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산림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조성 및 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시하였음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 북한 “자연생태계 보호 위해 특별한 주의해야”(『NK경제』, 2023.1.6)

- 북한 로동신문은 “북한에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들과 희귀한 동식물들의 서식지보호와 생태환경의 회복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며 “근로자들 속에 앞선 과학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그들이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1월 8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오늘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며 일반적으로 생태계는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무기적 환경의 총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로동신문은 북한 자연생태계의 보호에서 중요한 대상이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라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자면 산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잘하며 보호구들을 바로 정하고 그 면적을 단계별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북한, 생태환경개선 위한 조사사업 추진(『NK경제(생활&문화)』, 2023.4.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과 도시경영성에서는 생태환경 개선을 중요 정책과업으로 선정하고, 환경감시설비 보강과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있음
- 후보지 조사를 통해 자연보호구를 늘리고, 주요 보호구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연구하고 있으며, 바다생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각 도들에서는 산림생태환경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환경보호시설 개건보수 및 새로운 준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국토 전역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북한 “생물다양성 보호에 노력”(『NK경제(생활&문화)』, 2023.5.22)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국제적인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적인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됨
- 북한은 녹색증장기계획을 반영한 국토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보호와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수산자원 보호와 물 관리를 과학화하는 사업도 진행하여 연안과 영해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실현하고, 전국적인 보호구를 조사평가하여 북한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됨
-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곰, 복작노루, 기러기, 오리류, 도요류 등 동물종들의 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새로운 생물종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IAEA 일본 핵오염수 발류 보고서 부당”(『NK경제(생활&문화)』, 2023.7.9)

-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은 IAEA 보고서를 비판하며, 일본이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는 계획을 합법적인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국장은 방사성동위원소가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강조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오염수 방류 계획 지지를 비난하고, 이로 인해 생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 국제원자력기구가 국가별로 핵 오염수 방류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며, 환경보호 단체와 세계보건기구의 우려와 반대를 강조하고, 일본의 계획에 열성적인 태도에 대한 의문을 표시함
- 국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적 기준과 일본의 불법적 반인륜적 행동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저지 조치를 촉구함
-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등을 비판하며, 지구 환경 및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북한 “국조 까치는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새”(『NK경제(생활&문화)』, 2023.8.1)

- 김일성종합대학은 까치를 국조로 정한 이유를 소개하며, 까치가 평화애호적 입장을 상징하고 조선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도 머물 수 있는 사철새로서 깊은 연계와 사랑을 받는 새임을 강조함
- 까치는 아름다운 외모와 다양한 울음소리로 자연을 빛내고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써 새로운 새로서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에도 잘 어울린다고 설명함
- 까치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친숙하며 까치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들이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소중한 위치에 머무른다고 강조함
- 북한은 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0호로 까치를 국조로 정했다고 밝혔음
- 대학은 까치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을 상징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이로써 까치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국가상징으로 확고히 정해졌음

■ 북한도 저탄소경제로 가나…과학기술 뒷받침 강조(『NK경제(IT과학)』, 2023.9.3)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총비서의 뜻으로 저탄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음

- 저탄소경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이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음
-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저탄소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탄소경제의 핵심 요인으로서, 화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고 다양한 자연에너지를 생산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세계적인 저탄소경제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며, 국제적인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북한, 전자식물지 DB MySQL로 전환(『NK경제(IT과학)』, 2023.11.15)

- 북한이 ‘전자식물지’ 데이터베이스를 MySQL 기반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생물종 목록에 대한 자료기지를 갱신하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자식물지의 DB 구조 변경 및 갱신을 위해 Access와 MySQL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식물자료 관리에 새로운 분류군 코드를 도입하고 DB 구조를 현대화하였음
- 논문은 전자식물지의 갱신 작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물종 목록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과학기술자료 DB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해외 자료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 연구진은 오피스와 내비캣을 활용하여 전자식물지의 DB를 구조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MySQL로 전환하여 컴퓨터망에서의 활용성을 높였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식물지 조선식물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표를 통합하고 DB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7. 수자원

■ 북한 “샘물 자원 풍부...탐사 사업 진행”(『NK경제』, 2022.12.11)

- 북한 로동신문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이라 불려오는 북한에는 이름난 샘물들이 많다고 12월 11일 소개했음
- 로동신문은 만경대샘물1호, 2호와 봉화리 샘물을 비롯해 평양시에만 해도 건강에 좋은 샘물이 수십 개소에 분포돼 있다고 전했음
- 강동군에 있는 아달산 샘물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소화기계통 질병과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혈관계통 질병의 예방치료에서 효과가 있는 샘물이라고 함
- 특히 로동신문은 당의 환경보호정책에 의해 북한에서 샘물과 그 주변의 수려한 풍치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새로운 샘물 자원에 대한 탐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 통신 시설에 극소형수력발전소 적용(『NK경제』, 2023.3.30)

- 북한 로동신문은 최근 랑림군체신소 병풍덕체신분소에서 산골의 개울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고 3월 29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과거 분소에서는 주위 환경과 계절적 조건의 영향으로 전력 보장에서 일정하게 제한을 받았다고 전했음
- 그런데 모든 통신을 신속 정확히, 믿음직하게 보장하는데 분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직원들은 조건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는 것이 알려짐
- 관계자들은 과학기술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방도를 찾는 한편 일부 단위에서 이용하는 각이한 형태의 수차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실정에 맞는 수차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나갔다고 밝힘

■ 북한 “물위기 대처 인류 앞에 나서는 사활적 문제”(『NK경제(생활&문화)』, 2023.5.15)

- 북한 로동신문은 5월 15일 보도에서 지구의 물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확대로 더 많은 물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로동신문은 물 부족 문제로 민물양의 제한과 분포 불균형,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증가 등을 언급하며, 2050년까지 물 부족으로 인해 50억 명 이상이 한 달 이상 물 부족 상태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함
-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농업생산과 식량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달라지는 현상은 식량 안전과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 로동신문은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물원천 확보를 위해 바닷물담수화 기술, 오수정화 기술, 지하저수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여러 나라에서는 가뭄 견딜성이 강한 작물과 품종을 심고 물절약형 농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로동신문은 이러한 물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인류에게 사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음

■ 北 핵실험장 인근 지하수 오염돼...탈북민 피폭검사 중요(『중앙일보』, 2023.5.17)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핵실험으로 인해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특별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실험 횟수로 인해 방사능이 계속 누적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특히 핵실험 시 플루토늄은 갭도 안에 남아 있어 지하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함
- 현재까지 북한은 풍계리 지역에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국제적인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방사능 관련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풍계리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계리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파악할 예정임

■ 북한 김책공대, 오존수 제조 장치 개발(『NK경제(경제&산업)』, 2023.5.19)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5월 14일, 나노물리공학 연구소 연구진이 물을 전기분해해 오존수를 제조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음
- 대학은 오존이 산화제적 성질이 우수하여 폐수 처리와 음료수 소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전기분해를 통해 오존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높은 농도의 오존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함
- 연구진은 물 전해식 오존수 제조기를 제작하기 위해 오존 발생 효율이 높은 나노복합 촉매를 개발하고, 오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확정했으며, 최고 15mg/L 이상의 오존수를 얻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음
- 물 전해식 오존수 제조기는 양극과 음극이 일정한 간극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전극쌍으로서 물에 전기를 투입하면 오존과 산소, 수소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기술은 폐수 처리와 예방적 소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수도법 강력 집행 지시...주타격대상은 평안남도(『Daily NK』, 2023.6.19)

- 북한 내각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상·하수도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이를 통해 농업폐수와 공장 폐수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여주었음
- 평안남도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지역별 ‘그루빠’라 불리는 팀을 구성하여 공장 주변 강물 오염 정도와 수질을 조사하

는 사업을 추진함

- 주민들의 생활오수로 인한 강물 오염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저수지 물탱크와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할 것을 당부함
- 내각은 상하수도망의 종합설계도면을 새로 작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폐수·오수 정화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함
- 현재 평안남도가 물길이 평성시와 연결돼 있어 특히 주타격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도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 북한, 전국수리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IT과학)』, 2023.7.26)

- 북한의 조선수리공학회가 7월 24일과 25일에 인민대학습당에서 화상회의체제로 전국수리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함 이 발표회의 주제는 ‘수력건설, 국토건설 기술의 이용과 전망’이었음
- 발표회는 홍수와 해일 등의 재해성 이상 기후로부터 강하천과 해안을 보호하고 국토 건설에서 과학기술성 성과를 도입하며 전력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국토의 변화를 이루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고찰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개최되었음
- 행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등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총 8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발표회는 조수력건설분과와 하천건설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력건설과 국토건설 분야에서 얻은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서로 공유 및 이전되었음
- 홍수 통과 능력 향상을 위한 준설방안, 대규모 운하건설의 환경영향평가지표 선정 등에 대한 연구 및 제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유엔, 유니세프 ‘대북 식수·위생 지원’ 제재면제 승인(『RFA』, 2023.8.17)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대북 식수·위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음. 이로써 유니세프는 북한 지역사회와 보육원, 학교, 병원 등을 지원

- 하기 위한 보건, 영양, 식수·위생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음
- 제재 면제 물품은 46종으로 미화 약 115만 달러 상당이며, 지역 병원들과 6,2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 정화 제품과 수질 검사 기구 등이 포함됨
 - 이번 제재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자 운송 어려움을 고려해 1년 동안 유효하며, 대북제재위는 효율적인 운송과 통관을 위해 물품을 통합된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권고했음
 - 유니세프 국제 직원들은 이제 지원 물품들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예정임

■ 추수도 안 끝났는데 내년 농사 걱정… “물 원천 확보하라”(『Daily NK』, 2023.9.27)

- 함경북도는 내년 농사를 위해 물 원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시를 시범 단위로 선정하고, 물 원천 확보를 위한 지시를 내렸음
- 함경북도는 나선시 농업 부문에 9·9절 이후 보름간 여유를 가지고 물 원천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사업 방안을 직접 발로 뛰며, 물 원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함경북도는 올해 어떻게든 물 원천을 확보하여 물 대기 방법을 개선하고 물 낭비를 없애며,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식을 알아내 도내 시·군 농촌들에 도입할 것을 강조함
- 함경북도는 도시의 공장, 기업소들이 농장들을 하나씩 맡아 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도록 했으며, 농촌의 물 문제를 해결하여 나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함

■ 북, 삼수발전소 댐 수문 예고없이 과도 개방…주민 피해 확산(『RFA』, 2023.10.31)

- 북한 당국이 삼수발전소의 단천발전소 취수구 건설을 위해 수문을 사전 예고 없이 과도하게 개방하면서 혜산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 삼수발전소 개방으로 혜산시 주민 피해 확산되고 있음

- 2017년에 착공된 단천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인해 삼수발전소 저수지의 물을 빼내 취수구를 건설 중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살림집과 텃밭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9월 초부터 삼수발전소의 비상 수문을 예고 없이 개방해 물을 반복적으로 빼내고 있으며, 주민들은 비상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불안정하여 살림집이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 양강도당 책임비서와 도당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삼수발전소의 비상 수문 개방으로 인해 김치움과 감자움이 물에 잠기면서 갑작스러운 추위로 주민들은 식량을 보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하늘에서 본 북녘] 양강도 삼수발전소 댐 방류로 침수 피해(『Daily NK』, 2023.11.6)

- 양강도 삼수발전소가 지하수로 공사를 위해 지난 9월 초부터 여수로를 통해 저수지 물을 반복적으로 빼내면서 허천강에 흙탕물이 범람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함
- 삼수댐에서 급작스레 예고 없이 많은 물을 빼내다가 하류에 흙탕물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텃밭이 물에 잠기고 살림집이 침수 위기에 처해졌으며, 주민들은 식수난을 겪고 있음
- 삼수발전소는 2007년 완공된 수력발전소로, 저수지 물을 지하로 함경남도 단천에 연결하여 계단식 수력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하 물길굴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최근 물을 예고 없이 빼내면서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함
- 삼수댐에는 김정은 찬양 글귀로 장식된 초대형 길이 560m의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글귀를 명산과 명승지에 새기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왔음
- 삼수발전소에서의 물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에 흙탕물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비상 수문 개방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삼수발전소의 물 관리로 인한 피해가 주목받고 있음

■ 열악한 상수도 시설에 여전히 강하천 물 길어 먹는 北 주민들(『Daily NK』, 2023.11.21)

- 평안남도에서의 수도시설 노후화로 도시 50%, 농촌 65%의 가구가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큰 도시에서는 일주일에 1~2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상황임
-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북한의 수도관 설치 비율은 68%로 크게 감소하였고,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보수가 부족해 수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졌음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 지역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돗물 공급 시간이 더욱 감소하고, 주민들은 주택 주변 우물이나 하천에서 물을 길어와 생활용수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상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생활용수의 공급, 이용, 하수도 시설 관리와 폐수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상하수도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북한 당국은 재원과 기술 부족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음

8. 식량

■ “식량 줄게 돈 다오” 평양시, 배급 수송비 시민에 전가(『자유아시아방송』, 2022.12.1)

- 평양시 양정사업소들은 식량 운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포장용기, 자동차, 연유 등 모든 비용을 주민 세대에 부과하고 있음
- 평양시는 주요 곡창지대에서 탈곡한 알곡을 시민 배급용으로 받으며, 평양시가 유일한 정상 식량 배급 지역임
- 양정사업소 종업원들은 식량을 운반하고 포장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숙식하며 작업하고 있음
- 철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동차와 포대, 연유 등이 부족한 상황임
- 평양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도 식량 운반에 필요한 돈과 물자를 내야 함

■ FAO “북 식량 안보 상황 여전히 취약”(『자유아시아방송』, 2022.12.2)

- 유엔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음
-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감소하고,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음
- 북한의 식량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가뭄과 수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北 댈친 기후 위기 올해 식량 451만 톤, 작년보다 18만 톤 줄었다(『중앙일보』, 2022.12.14)

-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만 톤 감소한 451만 톤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촌진흥청은 14일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임
- 쌀 생산량은 20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9만 톤(4.2%) 감소했는데, 벼 생장기인 7월 기온이 낮았고 일사량은 적었으며 알곡이 여무는 9월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임
- 옥수수 생산량은 올해 봄철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만 톤(1.3%) 줄어들은 157만 톤을 기록함

■ “1g이라도 더 바쳐” 북, 애국미 헌납 주민 압박(『자유아시아방송』, 2022.12.14)

- 북한 당국이 식량난으로 애국미 헌납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음
- 중앙당은 주민들에게 애국미를 바치라는 지시문을 전달하였고,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1g의 식량이라도 더 바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압박하고 있음
- 지시문은 주민들을 선동하며 애국미 헌납을 강조하고, 완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적인 사상비판과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 주민들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애국미 강요에 비난하며, 양심과 애국심이 있어도 식량은 없으니 애국미를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음
- 식량난으로 장마당에서 식량 거래를 못하게 해 헌납할 애국미가 없는 경우 쌀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올해 농사가 예년에 비해 잘 안되어 식량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함

■ “소만도 못한 사람” 북 농장 부림소에 알곡 사료 배급(『자유아시아방송』, 2022.12.23)

- 북한당국이 협동농장의 부림소에 대해 알곡과 강냉이(옥수수)를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김정숙군 원동리 협동농장에서는 부림소 한 마리당 강냉이 100킬로를 배급하고 있으며, 부림소 관리하는 농민에게 위탁되어 부림소의 식량은 농민이 받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 알곡분배는 올 수확량이 부족한 탓에 농장에 출근하는 농민들도 200공수 분량의 알곡만 현물로 분배받을 수 있었고, 농민들은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는다면 불만을 토로하였음
- 북한은 협동농장 부림소의 식량을 1년 중 소비량을 계산하여 공급하는데, 최근에는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부림소를 관리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사료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 부림소에 대한 알곡과 강냉이대의 사료 공급은 처음이며, 이러한 공급은 농장부림소로 인해 알곡 증산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소식통의 의견임

■ 코로나 봉쇄 시기 북한 경제 분석…“‘침묵의 기근’ 주목해야”(『Daily NK』, 2022.12.23)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봉쇄로 북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침묵의 기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음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강남 삼성호텔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에너지협력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 보통 기근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에 그 사실을 숨기는 게 불가능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장 교수는 이어 만약 경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북한의 기근이 침묵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식량난 北 “장마당 양곡판매 금지” 체제수호 위한 통제카드[인사이드&인사이드](『동아일보』, 2023.1.3)

- 북한의 풀뿌리 시장경제 장마당이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시장 자체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 당국의 장마당에서의 양곡 판매 금지 조치를 받고 있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는 지난해 12월 8일 농장법 등 곡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했음
- 이는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 1990년대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 부족으로 배급이 끊기자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밀수입 식량을 사고팔며 자생했으나, 그렇게 몸집을 키워 온 장마당은 심각한 식량난 속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맞았음

■ “북 대중운동 강화로 주민 생활고 가중 전망”(『자유아시아방송』, 2023.1.5)

- 북한 당국은 대중운동과 노력 동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 분야 관련 보고서는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 당국이 대중운동과 노력 동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북한은 자원과 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당국이 특히 청년 계층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는 청년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북한 식량부족 사태, 1990년 대기근 이래 최악”(『SBS』, 2023.1.20)

-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가격, 식량 재고량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해 1990년대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음
- 38노스는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가격 급등과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도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음

■ 北에선 ‘똥’도 흠쳐간다 변소가 식량난 해결? 새벽에 인분 확보 전투(『매일경제』, 2023.1.23)

- 북한에서는 아침마다 똥 확보 전투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매년 1월 ‘알곡 증산’을 위해 퇴비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임
- 북한은 올해에도 새해 경제 분야의 12개 중요고지 가운데 첫 번째 미션으로 알곡 증산을 내세웠음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각지 농업부문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알곡증산의 담보를 위한 자급비료 생산에서부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분발해 나섰다”고 보도했음
- 영농 기계화 수준이 낮은 북한에선 화학비료 사용이 한해 농사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신해 인분과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쌀이든 돈이든 바쳐라” 북, 건군절 맞아 지원물자 강요(『자유아시아방송』, 2023.2.6)

- 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군부대 지원금을 세부담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 안주시에서는 인민반 세대별로 내화 5천원을 인민군대 지원금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임
- 주민들은 현금 부족으로 군부대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앙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오락가락 양곡 정책으로 북 식량값 불안정(『자유아시아방송』, 2023.2.7)

- 북한 당국이 지역마다 증설했던 국가양곡판매소를 축소하고 장마당 식량판매 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양곡판매소의 운영 부진은 북한 당국의 정책상의 문제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양곡판매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음
- 국가양곡판매소는 협동농장에서 알곡을 수매가격으로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지만, 협동농장은 알곡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음
- 국가양곡판매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협동농장에 영농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국가양곡판매소만 활성화하고 장마당 식량판매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
- 당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양곡판매소를 축소하고 식량판매를 완화하였지만, 식량 가격과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음

■ “북, 새 양곡정책 후 분배문제 발생_식량통제 강화”(『KBS』, 2023.2.16)

- 북한이 식량난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식량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통일부가 분석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식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식량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 뾰족한 해법없이 끝난 전원회의… “알곡고지 점령”만 되풀이(『Daily NK』, 2023.3.2)

- 북한 내 식량난 심화 정황이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증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알곡고지 점령’ 구호만 재차 강조할 뿐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일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다”고 전했음
-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수입·수출 등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내부의 자원만으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려다 보니 과거에 이미 강조돼온 방안들이 되풀이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임

■ 북한 농업연구원장 “식량문제해결 농업과학자들에 달려있다”(『NK경제』, 2023.3.3)

- 북한 농업연구원 원장이 농업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3월 3일 로동신문은 김광욱 농업연구원 원장이 “이번 당 중앙 전원회의가 명시한대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고 가까운 연내에 나라의 농업을 흥풍을 모르고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착실한 토대를 구축하자면 농업과학자들이 목표와 기준을 더 높이 세우고 그 수행에서 과감한 분발력과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연구원에서 올해 재해성이상 기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조건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 작성된 계획들을 재검토, 재심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내각 국가경제지도기관들, 농업생산 경제건설 대책 추진(『NK경제』, 2023.3.7)

- 북한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해 농업생산과 경제건설에서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들이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강구되고 있다고 3월 7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내각에서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명 과업으로 내세운 당 중앙의 의도에 따라 올해 농사와 전망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닦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 농촌에 대한 노력적, 물질적 지원을 선차적 문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면밀한 계획과 조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관개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농촌진흥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현존 관개시설을 정비보강하고 관개 면적을 더욱 늘리는데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농촌문제해결 위해 군 동원(『NK경제』, 2023.3.12)

-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제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기로 했음
- 로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3월 12일 보도했음
- 이번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인민군 각 군종, 군단 지휘관들이 참가했다고 전해짐

- 로동신문은 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전역들에 군대를 파견해 전국적 범위에서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에 대한 문제와 군앞에 나서는 중요 정치군사 활동 방향들과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 김정남 농업연구원 부원장 “알곡생산량 비약적으로 늘리자면 농업정보화 반드시 실현해야”
(『NK경제』, 2023.3.26)

- 북한의 대표적인 농업관련 연구기관인 농업연구원의 관계자가 농업의 과학화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지상명령이며 정보화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남 부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대 분야의 하나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 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이 책정됐다”며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들은 당중앙이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이다”라고 설명했다
- 그는 새 품종육종과 선진적인 재배기술을 연구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조건과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건물질 함량과 수확고가 높은 감자품종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농업연구원 농업대학들 과학연구 활동(『NK경제』, 2023.3.29)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연구원과 각지 농업대학들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과학연구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3월 29일 보도했음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에서는 지역별로 품종배치와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안 등을 만들고 화상회의체계를 통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연구소와 연구분소들의 과학자들로 조직된 연구조들이 전국 각지에 나가 선진적인 과학농법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기술전습과 보여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농업화학연구소에서는 과학자들을 여러 도에 파견해 영양냉상모재배용 벼모 판종합 영양제의 생산과 도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이 당 간부들에게 설명한 경제 5개년계획은?(『NK경제(경제&산업)』, 2023.4.23)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노물리공학연구소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오존수를 제조하는 장치를 개발했음
- 로동당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서 식량문제와 경공업혁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대운하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간부들에게 소개했음
-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대운하건설 등의 전망적인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 나가도록 강조됨
- 로동당은 식량문제와 소비품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집중해야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북한 정부는 중대한 사업으로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치수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중국서 쌀 반입, 북한 한달새 2배 늘었다…식량난 심상찮나(『중앙일보』, 2023.4.23)

- 북한과 중국 간 월간 교역액은 6개월 연속으로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북한의 경제가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쌀 46,000톤을 수입하였으며, 식량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산 식량 곡물 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보임
- 장립종 쌀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립종보다 가격이 싼 품종임
- 북한은 손목시계, 신발, 가발, 속눈썹 등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을 크게 늘렸으며, 코로나19 이후 OEM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난과 식량문제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중 국경이 열릴 경우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유엔 “북, 자료부족으로 식량위기국가에서 제외”(『RFA』, 2023.5.3)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위기국가 명단에서 자료 부족으로 제외됨
- 북한의 식량 상황은 알기 어려워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유엔이 지적했음
- 2023년 세계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인구는 58개국, 2억 5,80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북한의 극심한 식량 불안에 대한 정보도 어렵게 입수되고 있는 상태임
-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식량위기국가 명단에 단 한차례만 포함된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가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전 세계 식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이러한 상황은 세계 기아퇴치를 위한 유엔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인류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음

■ 北 구글 검색어 ‘날씨’가 ‘미국’ 늘렸다... 모내기철 앞둔 김정은의 고민(『한국일보』, 2023.5.3)

- 북한 내에서 구글 검색어 분석 결과, 날씨가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봄 가뭄과 모내기 시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
- 모내기철을 앞둔 북한에서는 기상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올바른 모내기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의 기상 관측 시설은 한정적이며, 외부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정확한 기상 예보와 분석이 어려움
- 기후 변동으로 인해 기온 변화와 일조율의 감소, 강한 바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는 모내기 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북한의 기상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식량 자급률과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北 평양 신도시 주택건설 속도전...체제 결속 도모(『YTN』, 2023.5.5)

- 북한은 수도 평양의 ‘뉴타운’ 건설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화성지구에 대한 선전을 전개하고 있음
- 화성지구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모양을 본뜬 40층 아파트와 ‘3대 혁명’, ‘주체사상’ 등의 선전문구가 있는 고층 아파트가 세워져 있음
- 이러한 건설 사업은 신도시 건설에 집중하여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화성 지구는 최근 완공돼 입주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북한 평양의 사회주의 변화가로 자리 잡고 있음
- 북한의 뉴타운 건설은 신도시 개발과 사회주의 상징성을 결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북, 식량난에 사법일꾼 배급도 줄여(『RFA』, 2023.5.8)

- 5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 사법일꾼들에게 지급하던 식량 배급량을 줄임
-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뇌물을 바치라고 유도
- 보위부에서는 본인에게만 소량 배급하고, 입쌀이 없는 강냉이만 지급하면서 주민들의 가족도 어려워짐
- 사법일꾼들은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뇌물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반발과 대립이 격화됨
- 식량 배급량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 노동자들도 강냉이 쌀 구입이 어려움

■ ‘北에 쌀 페트병 보내기’ 비밀리에 재개한 탈북단체(『파이낸셜뉴스』, 2023.5.10)

- 북한에 보내는 ‘쌀 페트병 보내기’가 재개되었다고 추정되며, 이번에는 한강 하구에서 연이어 발견됨
- 페트병 안에는 쌀과 USB, 의약품이 들어 있으며, USB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과거에는 대북 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가 금지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재개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경찰은 탈북민 단체의 조류를 이용한 페트병 전달 시도를 조사하고 있음
- 쌀 페트병 보내기가 북한에 대한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음

■ 북 북부 산간지대 식량난,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RFA』, 2023.5.18)

- 대표적인 감자 생산지인 양강도 대흥단군의 협동농장에서는 출근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식량난으로 인해 10명 중 3명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 양강도와 자강도 지역의 협동농장들에서 겪고 있는 식량난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한 수준임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지난해 대흥단의 감자 생산이 저조하고, 올해는 감자 종자가 부족한 상황임
- 협동농장 지역인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는 감자 1kg당 내화(북한 돈) 2천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난이 심각한 근거로 지적됨
- 아사자 발생에 대비해 당국은 협동농장의 당, 행정 책임자들에게 대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농부들은 돈주들에게 식량을 구걸하고 아사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도와주고 있음

■ 유엔, FAO·WHO 대북지원 제재 면제…농업·의료용품 지원(『RFA』, 2023.5.19)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함
- FAO가 요청한 농업용품 지원으로 이륜 경운기, 콩 탈곡기, 휴대용 급수 펌프, 태양광 배낭 분무기 등 75,600달러에 달하는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며, 이는 북한 도시 및 농촌 인구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임
- 해당 지원 물자들은 중국에서 공급되며, 이송 예정일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늦어도 오는 7월까지임
- 이번 FAO의 지원 프로젝트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양시의 5개 협동농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으로는 북한에 산소발생기 500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및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호흡기 치료 장비로 쓰임

■ 북한 식량난 완화됐다...4월 쌀 밀가루 수입 전월에 비해 급감(『YTN』, 2023.5.22)

-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이 3월 대비하여 크게 줄어듦 (77억 3천만 원)
- 수입한 쌀과 벼는 3월 대비 73% 급감하여 약 77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됨
- 북중 교역이 차질을 빚은 작년 4월과 비교하면 13.9배 급증했음
- 수입한 밀과 밀가루는 3월 대비 31% 감소한 약 22억 4천만 원으로, 작년 4월과 비교해도 54%가 줄어듦
- 이러한 식량 수입의 감소는 식량난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北 만성 식량 부족 연평균 80~150만t 모자라,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더 심각(『문화일보』, 2023.5.27)

- 북한에서는 연평균 80만~150만톤 정도의 식량이 상시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의미함
- 식량 부족은 김정은 정권 집권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식량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식량 부족 문제는 외부 수입과 국제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국제기구 직원 철수로 식량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김정은 정권은 포전담당 책임제와 새 시대 농촌강령을 시행하여 식량 생산과 공급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해 농업에 적합한 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식량 작물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

■ 러시아산 밀가루 중국 통해 북한 유입(『RFA』, 2023.5.29)

- 최근 중국을 통해 유입된 러시아산 밀가루가 북한 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 밀가루 유입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여, 주민들이 구매하기 쉬워지고 있음
- 수입산 밀가루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오며, 상품설명서에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음
- 하지만 유통기한과 생산 연월일이 표기되지 않아 물품의 유통 상태에 대한 불안이 있음
- 밀가루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식량난이 완화되고 있지만, 유입 경로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40代 농장원 영양실조로 일도 못 나와... 北간부 “모두 힘든 시기”(『Daily NK』, 2023.6.5)

- 북한의 경제난과 봉쇄로 인해 극심한 생활난이 지속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신흥군과 영광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보릿고개에 접어들며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절량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 밀보리를 모아가지만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식량난으로 1~2세대는 겨우 한 끼를 때우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식량가격이 상승하며 아사자 발생도 증가하고, 유엔 기구도 북한의 식량 어려움을 우려하며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와 다양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함
- 북한은 농업 발전 목표와 과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국내 생산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도 식량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북 식량안보 아태지역 최악”(『RFA』, 2023.6.8)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23년 지역 주의 모델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나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라고 경고함
-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4.5점을 받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식량안보, 통치방식, 기관 등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음
- 북한의 식량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역시 북한의 식량소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했으며, 식량수급 불안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함
- 이로 인해 북한 주민 중에서는 한국에 탈북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낮은 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유엔 보고서는 인도주의 위험도, 인도주의 위기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며, 북한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조사함

■ “밀·보리 생산량 작년 수준”... 재배면적 늘려도 생산량은 비슷(『Daily NK』, 2023.6.21)

- 북한 내부소식에 따르면 올해의 밀과 보리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날씨와 농업 환경의 영향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과 보리 생산량을 늘리고 농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보당 수확량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임
- 밀과 보리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부족이 지적되며, 이로 인해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음
- 작년 겨울과 봄의 기후 조건이 불리하며, 특히 4~5월에는 낮은 기온과 가뭄이 생육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밀과 보리 파종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일부분으로 한정되고 있어, 생산량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북 주민 “말 잔치 그만하고 식량문제 해결하라”(『RFA』, 2023.6.23)

-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김정은 총비서와 중앙당 위원들, 지방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사업을 정형함
- 주민들은 회의와 행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정치 행사에 비해 식량 문제를 더 우선시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음
- 주민들은 노동당의 정책 결정과 회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며, 요란한 정책 결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주민들은 노동당에 정치적인 행사보다는 식량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라는 요구를 표하고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주민들은 노동당의 회의와 행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최악 식량난 北, 주민은 공원서 돈 뿌린다 그곳선 무슨 일이(『중앙일보』, 2023.6.24)

- 북한 주민들이 사주팔자와 액막이 등의 미신을 믿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와 어려움으로 미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당국은 미신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대중 선전사업을 통해 미신에 대한 해설담화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 당국은 ‘미신과의 전쟁’을 선언하여 미신과 종교활동을 비사회적인 행위로 여기고 엄격히 금지함
- 북한은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이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안보에서 최악을 기록하며,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음
-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을 폭로함

■ “北 주민 천만 명 인도적 위기”... ‘일방적 미화’ 유튜브 채널 차단(『YTN』, 2023.6.27)

- 북한 당국은 최근 당 전원회의 이후 연일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와 주민의 분발을 촉구함
- 이미 식량 부족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 민간단체는 북한에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함
-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평가 기준으로 식량안보 상황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게 공개됨

-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일방적 미화와 사실 왜곡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평가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선전으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여전히 굶어 죽는 北 주민 1,000만명 이상 인도적 지원 필요(『세계일보』, 2023.6.27)

- 영국의 개발 이니셔티브(DI)가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음
- DI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이후 연속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설명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은 ‘급성 식량 위기와 생계 위기’ 이상 상황에 부딪쳤으며,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식량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함
- 평양 주민 지연씨와 중국 국경 근처 건설노동자 찬호씨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주민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함
- DI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 안보 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현황이 불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함

■ 북한 전문 매체들 “북한 식량난 고비 넘겨” “음식 장사꾼 제일 좋아해”(『세계일보』, 2023.6.27)

- 국내외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이 식량난 위기를 넘겼으며, 보릿고개 이후 북·중교역으로 인한 공급량 증가와 사재기 감소, 식자재 가격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함

- RFA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장마당 식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 판매가 활기를 찾았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음
-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밀가루와 콩기름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2021년 해상무역과 단둥-신의주 화물열차 운행 재개로 식자재 수입이 지속되어 가격이 안정된 상황임을 설명함
- 식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음식 장사꾼들이 사탕과 과자, 빵 등을 만들어 다시 나오고 있으며, 지역 장마당에서 음식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하지감자 출하와 밀보리 수확이 시작되면서 식량난이 한 고비를 넘기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식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내부 소식매체도 이러한 측면을 보도함

■ [자막뉴스] 北 주민들 ‘심각한 위기’... 유튜브 채널도 폭파(『YTN』, 2023.6.28)

- 북한 당국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와 주민의 분발을 촉구함
- 노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이며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 북한은 식량 부족 및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 민간단체에 의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평가 기준에 따라 북한은 식량안보 상황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게 공개됨
-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운영 기준에 따라 구글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이를 북한 체제의 미화와 사실 왜곡에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평가함

■ “北 주민 천만 명 인도적 위기”... ‘일방적 미화’ 유튜브 채널 차단(『YTN』, 2023.6.28)

- 북한 당국은 최근 당 전원회의 이후 연일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와 주민의 분발을 촉구함
- 이미 식량 부족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 민간단체는 북한에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함
-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평가 기준으로 식량안보 상황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게 공개됨
-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일방적 미화와 사실 왜곡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평가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선전으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상승세 보이던 시장 쌀·옥수수값 일제히 하락... 그 배경은?(『Daily NK』, 2023.6.28)

- 최근 북한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자와 햇곡식 수확의 시작 및 수입 물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북한 내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및 양강도 혜산에서 쌀 가격이 하락하여 비교적 물가가 비싼 양강도 혜산의 경우에도 2주 만에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시장의 옥수수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곡물 수입량 증가와 밀, 보리, 감자 수확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쌀,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대중 쌀 수입량은 이전 대비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포지구 건설 동원된 청년들 영양실조 심각... 식단 보니...(『Daily NK』, 2023.7.3)

- 북한 서포지구 건설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 중 많은 수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이로

인해 현장 출근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청년 돌격대원들은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장시간 내몰리고 있으며, 제공되는 식사는 염장무나 시래깃국 등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함
- 북한은 수도 평양 살림집 건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활용하였으며, 청년들의 건강 문제와 식량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은 청년들을 강제로 어려운 고강도 노동에 동원하고 자발적인 지원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현실은 장비 부족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북한의 청년들이 힘든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 단체들과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로 비판받고 있음

■ 전원회의서 농사 집중 강조한 평안남도 “무조건 자급자족”(『Daily NK』, 2023.7.5)

-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농촌 부문의 일꾼들이 농사에 집중하며 앞채를 메고 올해 농작업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강조함
- 도당은 올해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나라의 식량 안정을 위해 평안남도가 황해남도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당을 보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도당은 모범농장을 확대하고 농장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비배관리, 물관리, 토양관리 상태 및 재해 대비책을 확인하라고 강조함
- 도·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전원회의 이후 농촌 현장으로 내려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일부 농장에서는 상급기관 일꾼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불편한 조건에서 농사를 진행하는 상황도 언급되었음

■ 北주민 절반이 ‘영양결핍’..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파이낸셜뉴스』, 2023.7.14)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약 45.5%가 영양 부족

- 상태였으며, 이는 이전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함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의 25.7%에서 2022년에는 16.8%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식량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유엔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서 3년 연속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경 폐쇄와 검역 조치로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현장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량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함
 -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함

■ “소말리아와 비슷”... 만성적 식량난에 北주민 절반 영양 결핍(『매일경제』, 2023.7.14)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약 45.5%(1,180만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음
- 이는 지난해의 2019~2021년 영양 부족 인구 비율 41.6%보다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됨
- 다만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 25.7%에서 지난해 16.8%로 약간 개선됨
- RFA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경 폐쇄로 체계적인 식량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함
- 유엔 기구들의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 및 개선 필요성이 강조됨

■ “소말리아 수준” 북한 주민 식량난 이 정도였나(『세계일보』, 2023.7.14)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의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음
- 북·중 국경 폐쇄로 인한 식량 부족 악화로 체계적인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임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22년 16.8%로 약간 개선됨
-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코로나19로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식료품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 어려움을 더해갔음
-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소말리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경 폐쇄 등으로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임

■ 북한 주민 절반 영양결핍...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YTN』, 2023.7.14)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식량농업기구(FAO)의 ‘2023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가 영양 부족 상태였음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비율은 2012년 25.7%에서 2022년 16.8%로 상황이 다소 개선됨
-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 북한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더욱 악화됨
- 북·중 국경 폐쇄로 체계적인 식량 지원이 어려워져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됨
-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중국의 식료품 수입에 의존하던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 ‘식량난’ 북, 농경지 용도변경 실태 조사(『RFA』, 2023.7.18)

-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농경지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지시를 내렸음
- 농경지 침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군·인민위원회, 검찰소, 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검열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 검열 성원들은 농경지 간부들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농경지를 떼 주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며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조사 내용 중에는 농경지를 이용하는 단위들이 식량 증산을 위해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받는 대신 농경지를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조사 결과 이용하던 농경지는 원상복구하도록 하며, 검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설비와 도구를 몰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게 될 것임

■ 北 시장 옥수수 가격 급락...쌀 가격은 지역별로 양상 달라(『Daily NK』, 2023.7.26)

- 옥수수 가격 하락에는 풋강냉이와 감자의 유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옥수수 수요가 감소함
- 최근 북한 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가격 하락폭이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 감자와 풋강냉이의 유통은 옥수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도 이들 식품을 배급함
- 지역별로 쌀 가격 변동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안남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대로 유지되었음
- 농업 전문가들은 작황이 좋아진 옥수수 및 기타 작물 생산으로 인해 옥수수 수요가 일부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따른 수확 시기에 따라 곡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식량난 허덕이는 北, 농업법 개정해 독립채산제 등 수정(『YTN』, 2023.8.4)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고, 농업개혁과 관련된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을 수정했음
- 수정된 독립채산제는 생산자가 추가로 생산된 양의 일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임
- 수정된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 내의 조직을 나타냄
- 이러한 수정은 최근의 식량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됨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수정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자연의 광란 짓부시고” 식량에 사할 北 태풍 ‘카눈’에 비상(『세계일보』, 2023.8.9)

- 북한은 초강력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상 상태에 놓였으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각 분야에서 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농업 부문은 식량 보호를 위해 배수 갑문, 보수 정비, 제방 보강, 밭고랑 파기, 배수로 상태 점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태풍은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며,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
- ‘노동신문’은 다양한 지역에서 센 바람, 폭우, 해일 등의 영향을 예상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자연의 광란을 피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장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北 “벼 추수 탈곡 준비에 자만 방심 말아야”(『YTN』, 2023.8.27)

- 노동신문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북한이 벼 추수와 탈곡 준비에 신중함을 요하는 경고를 하고 있음

- 일부 농업 생산 단위에서 비 대비로 인해 탈곡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간부들의 자만과 방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에서 김덕훈 내각의 규율 문란을 비판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각지에서 벼 추수와 탈곡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보도함
- 자만과 방심은 해이를 놓고, 책임감을 무더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노동신문의 경고가 이어졌음

■ 앞그루 작물 수확에도 北 시장 쌀값 오름세…6,000원 코앞(『Daily NK』, 2023.8.23)

-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체 식량인 옥수수의 가격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쌀 가격 상승은 주로 쌀 수입량이 부족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는데 기인함
- 대체 식량인 밀, 보리, 감자, 옥수수의 수확이 좋아지면서도 이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인 12만톤의 쌀을 수입했으나, 이는 전체 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 부족한 양임
-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대체 작물과 수입 쌀의 공급이 연동돼야 시장 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수요에 비해 수입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함

■ 미 농무부 “북 올 작황 지난해와 비슷”… 식량난 극복 불투명(『RFA』, 2023.8.30)

- 북한의 올해 작황은 지난해와 유사하며, 식량난 극복이 불투명한 상태임
- 미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약 210만톤으로,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음

- 옥수수 생산량은 약 230만톤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함
- 농무부는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국경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농업 전문가 조충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 농업 및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양강도 가을걷이 시작부터 큰 혼란(『RFA』, 2023.9.8)

- 내각 농업성은 날씨가 더워 ‘공화국창건기념일(건국절, 9월 9일)이 지난 후에 가을걷이를 시작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번복하며 혼란을 야기함
- 김정은은 9월 4일 아침에 갑작스런 지시로 내각 농업성에게 다음 날인 9월 5일부터 가을걷이를 시작하라고 명령함
- 갑작스런 지시로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 농촌경영위원회, 각급 협동농장들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음
- 현재 양강도에서는 감자, 강냉이, 콩 등이 여전히 살아있어 곡식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임
- 현실에 맞지 않는 가을걷이로 인해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 등에서는 아직 가을걷이를 시작하지 않고 있으나 중앙에서는 다른 도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 감자 값 하락에도 쌀 강냉이 밀 가격 여전히 상승(『RFA』, 2023.9.14)

- 감자의 수확 시작으로 감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감자 가을 직전에는 1kg당 2,500원에서 1천원으로 하락함

- 날씨와 중앙의 지시로 가을걷이가 지연되고, 중앙에서 정한 감자가을 기간과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감자의 하락 가격에도 불구하고, 쌀, 밀, 강냉이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식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른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며, 식량의 이동이 통제되어 식량 가격 하락이 전반적으로 이어지지 못함
- 올해 감자농사가 잘되어 전반적인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가을걷이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먹는 문제는 계속 관심사로 남아 있음

■ “시급한 식량문제 어디에” 북 주민, 방러 보도에 실망(『RFA』, 2023.9.15)

- 13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북한 당국은 이 소식을 매일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하고 있음
- 주민들은 이 방문을 통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지만, 보도에서는 우주 발사장과 군사위성 소식만 나오며 실망과 체념을 함
- 입쌀 1kg의 가격이 1주일 사이 7,200원에서 8,000원까지 오르며, 주민들은 높아진 식량값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주민들은 러시아 방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농업과 식량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주민들은 과거의 정상회담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있음

■ 北, 가을걷이 총동원령… “알곡 생산, 공화국 존엄 사수 문제”(『Daily NK』, 2023.9.15)

- 노동신문은 올해 알곡 생산 문제가 북한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함

-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을걷이와 탈곡을 최적기에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함
- 모든 지역, 부문, 단위에서 농촌에 대한 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낱알을 털 때 속도와 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낱알을 베어들이거나 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함
- 농사를 잘 지어 농업 전선에서 경제발전의 12개 중요고지를 확실하게 점령하여 경제 전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함

■ 북, 옥수수 수확 동원 뒤 여학생들 몸수색(『RFA』, 2023.9.18)

- 북한에서는 옥수수 수확 시기에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에 동원되어 수확 작업을 하고 있음
- 당국은 옥수수를 훔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수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음
- 봄철에는 학생들이 도내 협동농장에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을 한 반면, 가을철에는 수업을 마치고 농장에 파견되는 방과 후 노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학생들의 동원은 옥수수 수확 작업에 도움이 되며 수확량의 유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봄철보다 가을철에는 노동 수요가 적어서 학생들의 수업 중단이 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사를 수확하는 방식이 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음

■ 북, 올 추석 명절 식량공급 없이 탈곡장 경비 강화 ‘빈축’(『RFA』, 2023.9.29)

- 올해 북한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농장의 탈곡장 경비가 증강되었음. 이번 명절 동안 추가로 제대군인 네 명이 탈곡장 경비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이례적인 조치임

- 농민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도 햅곡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탈곡장 경비에만 중점이 둔다는 당국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 또한 명절을 맞아 농민들은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자재가 주어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음
-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총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이는 2021년의 469만 톤보다 18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성적인 식량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민들이 추수한 옥수수와 콩, 벼 낱가리를 탈곡장에 운반하고 탈곡 작업을 하고 있음. 남학생들은 주로 이삭을 운반하고, 여학생들은 이삭의 오사리를 벗기고 창고에 쌓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경비원들이 농민들을 몸수색하여 강냉이 알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는지, 허리춤에 강냉이이삭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경비와 몸수색은 농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음

■ 北, 연일 ‘풍작’ 선전에 통일부 “北 식량 작황 예년과 비슷”(『YTN』, 2023.9.25)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일 ‘풍작’ 선전에 대응하여 올해 북한의 가을 식량 작황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음
-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추수 시기에 작황이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음
- 이에 따라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올해 상당한 수확량을 달성했다며 러시아의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고 전했음
- 따라서 북한의 ‘풍작’ 선전전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北, 옥수수 강냉이 수확에 학생들 동원해놓고 “도둑 잡는다”며 여학생들까지 몸수색(『세계일보』, 2023.9.19)

- 북한 당국이 가을철 농작물 수확을 위해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고, 농장에서

강냉이를 수확하는 ‘강냉이 가을전투’를 진행하며 여학생들의 몸수색까지 벌인 사실이 전해졌음

- 학생들은 오전 수업 종료 후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농장에서 강냉이 수확 작업에 투입되며, 남학생들은 주로 운반을 맡고 여학생들은 강냉이의 오사리를 벗기고 창고에 쌓는 일을 담당함
- 작업이 끝나면 농장 순찰대에 의해 학생들의 몸수색이 이루어지며, 강냉이를 훔쳐가지 않았는지 확인된 후에 집에 갈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농업증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지방 및 협동농장 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일선 간부들이 작업에 동원된 학생들의 몸수색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 당국, 양강도 농장 수매양곡으로 감자 대신 감자전분 요구(『RFA』, 2023.10.20)

- 북한 당국이 양강도 협동농장들에게 감자 대신 감자 전분을 국가수매양곡으로 바치라는 지시를 내려, 농민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음
- 북한, 양강도 농민들에게 감자 전분을 국가수매양곡으로 바치라고 지시함
-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감자 대신 감자 전분을 국가수매양곡으로 수확했으나, 올해는 감자를 전분으로 가공하여 바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협동농장에서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감자를 가공해 전분으로 만들어 국가에 바치고 있음
- 양강도의 협동농장은 올해 수확한 감자의 일부를 감자 전분으로 가공하여 바치도록 국가 지시를 받았고, 농장마다 수확량에 따라 농민들에게 나눠준 감자의 양이 다르게 조절되고 있으며, 감자 전분과 감자 까리가 남게 되어 이를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음
- 농민들은 감자 전분을 가공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이로 인해 얻는 무료로 생기는 추가적인 식량이 큰 기쁨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에 바친 후에는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까리국수나 까리떡을 만들어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 양강도 일부 농장, 대학생까지 동원해 감자 재수확(『RFA』, 2023.10.24)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양강도 삼지연시 포태종합농장과 대흥단군 종합농장에서 가을걷이가 끝난 감자 밭을 다시 엮어 가을걷이를 다시 하는 독특한 일이 벌어졌음
- 북한에서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로 가을걷이를 처음에는 이미 끝낸 감자 밭을 다시 엮어 다시 수확하도록 근로자, 학생들,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감자 재수확이 이뤄지고, 가을걷이를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감자가 생산되었음
-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감자 가을걷이를 다시 하는 도중에 발생한 책임 문제로 인해 포태종합농장과 대흥단군 종합농장에서 사상투쟁회가 일어나고, 이 문제로 여러 간부들이 소환되어 사상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날씨 예보의 잘못된 정보로 가을걷이 속도가 중점되어 감자 파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을걷이를 다시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임

■ 北, 연일 ‘좋은 작황’ 보도…김정은 치적 띄우기(『YTN』, 2023.10.9)

- 북한 매체는 올해 추수 상황이 전례 없이 좋은 작황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효과적인 지시와 노고에 기인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풍년 속에는 김정은 지시의 효과가 깔려있음
- 북한의 농업 근로자들이 드넓은 황해남도 농장에서 높은 수확고를 내다보는 모습을 지난 6일에 보도한 후, 이튿날 7일에는 곡식더미를 높이 쌓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성과는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식량 증산 목표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북한은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데 김정은 지시의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농무부는 최근 발표한 ‘북한 계절 곡물 전망’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농업 근로자들이 풍년을 이루어내고 있어 북한 매체에서는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농무부는 올해의 쌀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北 태풍 피해 덜해 수확량 증가한 듯 “김정은 노고, 귀중한 결실”(『파이낸셜뉴스』, 2023.10.9)

- 북한은 농사 작황이 전례 없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과 힘든 노동에 대한 높은 찬사를 표현하며 수확 성과를 강조하고 있음
- 북한, 전례 없는 좋은 작황 속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농업 리더십 강조함
- 북한의 작황 성과에 대한 노동신문의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농사가 성공적으로 수확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이로써 북한의 현재 식량난에 대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작황 성과를 설명하면서 농사가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언급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식량 증산을 중요시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와 미국 농무부는 예년과 비슷한 작황 수준을 언급하고 있음
- 신문은 작황 상황에 대한 농장 경리의 증언을 인용하여 올해 농사가 대단히 좋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언급과 함께 북한의 농업 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음

■ 北 “전례없이 좋은 작황” 연일 선전하지만(『한국경제』, 2023.10.9)

- 북한은 좋은 작황 소식을 선전하며, 농업정책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식량 증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내부 선전 용도로 보이는 실제 식량 증산은 미미하며, 식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
- 북한은 좋은 작황을 강조하며 농업정책과 김정은 지시의 효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부 선전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작황이 나아졌지만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노동신문은 좋은 작황 소식과 농업정책, 지시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식량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의를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부 선전

용으로만 활용되는 작황 소식이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은 올해의 농사 작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식량 증산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되는 소식일 뿐,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北, 연일 ‘좋은 작황’ 선전하지만 “식량부족 상태 지속될 것”(『한국경제』, 2023.10.9)

-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좋은 작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됨
- 최근의 작황 선전과 함께 노동신문의 기사는 김정은의 식량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황이 미미한 증가에 그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함
- 작황 소식은 주로 서해 곡창 황해남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농장들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확고를 기록하고 있음
-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알곡’을 올해 경제 분야에서 우선 순위로 삼아 식량 증산에 힘쓰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총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北 초엘리트 노동신문 기자, 돈벌이 쏙쏙 ‘농업부’ ‘생활부’ 쏙림 심화 “쌀 20kg 고춧가루 받아”(『문화일보』, 2023.10.23)

- 북한 당국이 양강도 농장에게 감자 대신 감자 전분을 국가수매양곡으로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농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음
- 북한, 양강도 농장에 감자 전분 수매 양곡 지시함
- 북한은 오랜 기간 감자를 수확 후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군량미로 활용 해왔지만, 올해는 감자 대신 감자 전분을 국가수매양곡으로 거두기로 하여 양강도

농민들의 만족을 얻고 있음

- 양강도 농민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감자 대신 감자 전분을 국가에 바치는데, 협동농장들은 감자 가공 시설이 없어 개별 농민들이 전분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는 등 감자 처리 방식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농민들은 감자 대신 전분을 국가에 바치면서 생기는 남은 감자 전분과 까리를 활용하여 까리국수나 까리떡을 만들어 식량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에게는 식량난을 해결하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올해 수확량 성공적” 北, 쌀 포대 더미 선전하며 강조(『세계일보』, 2023.10.23)

-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쌀 포대 더미를 과시하며 이번 해 수확 성과를 선전하고 있으며, 이로써 작황이 성공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 쌀 포대 더미로 선전…올해 수확 성과 강조함
- 북한은 수확 철에 들어가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를 선전하고 김정은 총비서를 찬양하며,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관영매체는 올해 수확이 전례 없이 풍성하다며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찬사를 전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10만 톤으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 노동신문은 농업 근로자들의 풍요로운 가을을 강조하고, 미국 농무부와 통일부의 평가를 인용하여 작황 상태를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만성적 식량난 시달리는 北…중국에서 위스키 와인 수입은 역대 최대(『YTN』, 2023.11.2)

-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고급 주류에 해당하는 위스키와 와인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북한 매체는 최근에 농사가 풍작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9월까지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쌀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 간 선전과 현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올해 들어 위스키 287만 달러, 와인 231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각각 2배 이상, 5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입액임
- 위스키와 와인은 북한 고위층에서 선호하는 선물로 알려져 있어, 북한 당국은 이들의 사치품 소비를 통해 해당 인물들에게 충성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고급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 [자막뉴스] 김정은의 통치 방식? 식량난 겪는 북한, 사들인 술이…(『YTN』, 2023.11.2)

- 북한 매체는 올해의 농작물 풍년을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식량난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음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9월까지의 수입액은 역대 최대로 기록되었음
- 북한 당국은 위스키와 와인과 같은 사치품을 고위층 선호품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 계층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급 주류가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북한의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치품 수입을 통한 충성심 유도를 시행하고 있음

■ 만성적 식량난 시달리는 北…중국에서 위스키 와인 수입은 역대 최대(『YTN』, 2023.11.2)

- 북한 매체는 올해 농업 성과를 강조하며 식량난이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귀순한 주민들의 발언과 국제 매체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사치품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한 위스키와 와인의 금액은 사상 최대치로 기록되고 있음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세관 당국의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 증가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인 가능한 무역 자료가 북한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
- 북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을 위해 사치품을 수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를 유지하고 고위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됨
-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고급 주류를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북한은 유엔 제재를 우회하며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음

■ 北 “풍작이라더니 결산분배 받을 쌀이 없다”(『파이낸셜뉴스』, 2023.11.9)

- 북한 당국은 올해 농산물 결산분배를 평년보다 앞당겨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애국미를 미리 공제하겠다고 발표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
- 농민들은 국가가 1인당 50kg을 애국미로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굶어 죽으라는 처사로 인식하며, 특히 장사가 안되는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북한 당국은 풍년을 강조하며 결산분배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농장에서는 애국미 징수가 계속되어 결산분배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북한 관영 매체는 일부 지역에서의 농산물 풍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현실과는 무관한 선전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중국으로의 쌀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식량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北 쌀값, 해산선 보름만에 7.1% 하락…평양·신의주선 상승(『Daily NK』, 2023.11.16)

- 양강도 해산에서 쌀 가격이 보름여 만에 7.1% 하락하며 해산 지역에서 감자 수확이 끝나면서 일부가 시장에 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평양과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서는 시장 쌀 가격이 상승하며 1kg당 3.5%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현재 북한 전체 지역의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9% 낮은 수준임
- 올해 북한 쌀 가격은 2021년과 2020년 그리고 2019년 11월 중순보다 각각 15.9%, 18.2%, 3.8%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며, 최근 4년 동안 11월 중순의 시장 곡물 가격을 비교할 때 2019년 가격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 매체들은 각 협동농장이 당국이 제시한 쌀 생산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의 예상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전년보다 늘어났더라도 식량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옥수수 가격은 특히 해산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1kg당 11.5% 하락하였고,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옥수수 수확량은 예년과 비슷한 23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음

■ 北 국경경비대, 겨울용 땀감 및 식량 부족 초비상(『파이낸셜뉴스』, 2023.11.29)

- 북한에서는 올해 수확 성과를 과시하면서 결산분배를 유례없이 앞당겨 진행했으나, 애국미를 미리 공제하겠다는 당국 발표로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
- 도시 주민처럼 장사를 못하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1인당 50kg의 애국미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농민들은 굶어 죽으라는 처사로 인식하고, 일각에서는 국가가 주민들의 여유 식량을 약탈해 국가 양곡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황해남도 등에서 풍년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알곡생산계획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당국의 선전이 신뢰성에 부족함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연료 부족과 겨울용 땀감 부족으로 산지로 파견되어

떨감을 확보하려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군인들은 주민의 집을 털어 떨감을 훔치는 등의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군인 도둑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지에서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北 시장 쌀·옥수수 값 하락세…풍작 때문일까? 수입 때문일까?(『Daily NK』, 2023.11.29)

- 현재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추수된 햅쌀의 유통으로 인해 종전보다 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양강도 혜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 국경봉쇄가 강화된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재 쌀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시장 쌀 가격이 현재 대비 20~23% 정도 높았음
- 북한은 올해 사상 최대치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곡판매소에서 햅쌀과 함께 수입 쌀도 판매되고 있음
- 강냉이(옥수수) 가격은 평양 시장에서만 4.5%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신의주와 혜산 시장에서는 2주 전과 차이가 없음

9. 자원순환과 에너지

■ 북한 “과학기술 떠나서는 재자원화 사업도 없다”(『NK경제』, 2022.12.12)

- 북한 로동신문이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 로동신문은 “재자원화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재자원화한 원료, 자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생산물과 건설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결정적으로 재생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재자원화 사업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항일투사 친척만 사람이냐” 투사촌 인근 주민, 전기 차별 공급에 불만(『자유아시아방송』, 2022.12.14)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는 항일투사촌에만 전기를 특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사범당국이 항일투사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세대를 단속하고, 코걸이나 돈을 사용하여 항일투사촌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주민들만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항일투사촌에는 권력과 돈을 가진 간부들과 돈주들이 무료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항일투사친척들과 일반 주민들은 전기가 불안정하여 전기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음
- 주민들은 권력과 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간부들과 돈주들이 처벌되지 않는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음
- 사범당국은 전기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항일투사촌 전기를 가로채는

주민들만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국가에서 전기를 정상 공급해주었다면 불법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 과학기술전당 태양광발전시스템 개선(『NK경제』, 2022.12.24)

- 북한이 과학기술전당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선해 효율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는 태양광발전 활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로동신문은 “최근 과학기술전당에서는 대규모 태양빛발전체계(시스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여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고 12월 24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몇해 전까지 과학기술전당의 태양빛발전체계가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장비돼 있는 대용량역변환기가 잘 맞지 않아 계통연결형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북, 석탄 의존도 높아 아황산가스 한국의 18배(『자유아시아방송』, 2022.12.27)

- 북한의 높은 석탄 의존도로 인해 북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성관측 연구결과가 나왔음
- 북한의 석탄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석탄 의존도가 환경과 공기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의 석탄 의존도로 인해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의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북한의 석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평양과 평안남도 북창, 남포시에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이 집중돼 있어 오염이 심한 상황임
-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올해도 북한 텅스텐 ‘수출 효자’ 전망(『자유아시아방송』, 2023.1.3)

- 북한의 텅스텐 및 몰리브덴 광물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수요와 가격 상승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산 텅스텐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1~10월 중국에서 북한산 텅스텐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4.5%로 1위를 차지함
- 북한은 텅스텐 수출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텅스텐 수출은 2023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비제재 품목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의 수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내 가격 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전략적 광물자원을 더 많이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었음
- 텅스텐의 중국 내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내부 생산에 차질과 전세계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 북 제철소, 철광석·연료 부족으로 생산 차질(『자유아시아방송』, 2023.1.5)

- 북한의 김책제철소가 전력과 кок스 부족으로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김책제철소는 연기 나는 날이 거의 없고, 전기와 콕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동이 어려운 상황임
- 콕스 대금을 갚지 못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콕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소열법을 통한 강철 생산은 전기 공급에 큰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김책제철소는 가끔씩 가동해 국가에 필요한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철을 수집하여 재활용해 철강재를 만들고 있음

■ 北, 자원 부족에 고철 거름 활용 자력갱생 기조 속 재자원화(『문화일보』, 2023.1.9)

- 북한이 올해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하고자 공장에 고철을 보내고 농촌엔 거름을 지원하는 등 자력갱생 일환으로 자원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금속공업 부문에 대한 전 사회적인 지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강원도, 함경남도, 양강도, 남포시에서 많은 파철을 수집하여 철 생산기지들에 보내주었다”고 보도했음
- 통신 등 북한 매체는 새해 들어 각 지역에서 ‘파철 모으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철강재와 화학비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쇠붙이나 거름을 끌어모아 각각 제철·제강소에 보내고 농촌에 지원하고 있음

■ 가정집 밥솥에 철제대문까지 훔쳐가는 나라(『자유아시아방송』, 2023.1.12)

-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해 파철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 당국은 전인민을 파철 수집에 동원하기 위해 일일 파철 과제를 내리고 실적을 총화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음
- 파철 수집 과제를 너무 과도하게 내려 주민들은 가정용품인 밥솥이나 철문과 같은 물건까지 훔쳐 파철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당에서는 김책제철소를 포함한 금속 부문 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국가에 바치는 애국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음
- 주민들은 파철 수집 계획이 강압적으로 내려지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파철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도난이 증가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에 고철 수집 강요... 서로 밥술 대문까지 훔쳐 가”(『조선일보』, 2023.1.13)

- 북한이 자원 재활용 목표를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고철 수집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밥술 및 철문을 훔치는 등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해서라며 주민들에게 고철 수집을 요구했음
- 자력갱생 일환으로 자원 재활용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요구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도둑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함경북도 소식통은 “기관, 기업, 학교들에서 소속종업원과 학생들에게 매일 1인당 5kg의 파철 과제를 주고 있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과도한 파철 수집 과제를 떠안다 보니 주민들은 쇠붙이라고 생긴 것은 가리지 않고 수집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회수한 자원 100% 재생 이용해야”(『NK경제』, 2023.1.31)

- 북한이 재자원화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회수한 자원을 100% 재생해서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신문은 “재생기술의 영역을 부단히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결코 멀리 있는 그 어떤 묘연한 것은 아니다”며 “눈앞의 예비도 보지 못하고 자재 타발(투덜거림), 조건 타발만 하거나 일련의 성과에 만족해 제자리걸음을 하며 더 전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부 단위들에서는 분발해야 한다”고 1월 31일 보도했음
- 노동신문은 재생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자면 창조 관점부터 혁신적이어야 한다며 기존 관념에 구애되지 않는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면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이미 창조된 자원의 가치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앞서 재자원화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관점과 입장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됨

■ 북 연유 부족 심각, 일부 간부는 전용차 빌려주고 돈 벌기도(『자유아시아방송』, 2023.2.20)

- 북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공장과 기업소들이 화물차 운행에 지장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연료인 연유와 타이어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일부 간부들은 자체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연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전용승용차를 돈주나 장사꾼에게 빌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휘발유 부족으로 인해 간부들은 돈주나 장사꾼을 태우거나 심부름을 하여 돈을 벌며, 번 돈을 이용해 연유를 구입하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해결하고 있음
- 최근에는 연유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와 승용차의 대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돈과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 돈주나 장사꾼에게 차를 빌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허울뿐인 자원재활용 소비품” 북 주민 외면(『자유아시아방송』, 2023.2.20)

- 북한 당국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소비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지만, 생산된 제품들은 주민들에게는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8.3제품이라 불리는 재활용 제품은 가방, 기능성 화장품, 기타, 털모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들은 이 제품들을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 외면하고 있음
- 재활용 제품은 지방정부의 수매상점과 직매점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장마당가격보다 싸지만 주민들에게는 실용적인 상품이 아니라고 반응하고 있음
- 또한 당국은 재자원화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생산된 제품들은 판매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음
-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생산을 위해 폐기물과 유헥자재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소비품 생산이 어려워졌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 생필품 대란이

발생하자 재자원화법을 제정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

■ 북한, 평양시 곳곳에 태양광발전소 건설(『NK경제』, 2023.2.24)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평양시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2월 23일 보도했음
- 조선의오늘은 특히 평양시 중심 구역들에 여러 단위가 공동으로 전력생산에 참가하는 계통병열형태양빛(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 구역들에서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단위들의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해 발전소건설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과학기술 자료들을 내려 보내주는 등 모든 일이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모란봉구역에서 건설하는 발전소에서 태양광전지판 설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서성, 선교, 대성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에서도 발전소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천구역에서는 발전소의 생산능력을 4배 이상 확장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북한 “경제 12개 중요고지점령 전초병이 과학자, 기술자”(『NK경제』, 2023.3.26)

- 북한 로동신문이 올해 경제정책으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점령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로동신문은 전국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들고 일어나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가 되는데 제일척후병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올해에 5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자면 나라의 경제 사업을 추켜세우는 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직접적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용기와 순발력이 12개 중요고지의 점령속도이고 5개년계획

의 추진속도이며 나아가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전진이라고 주장했음

■ 北 “자립경제 쌓기둥 세워야”...금속 화학공업 발전 촉구(『YTN』, 2023.3.26)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자립경제의 쌓기둥을 세워야 한다며 금속·화학공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 신문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사례를 소개하며 금속, 화학공업 부문에서 힘있게 추진되는 주체화 대상공사들은 품이 많이 들면서도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성패와 직결된 중대과업들이라고 추켜세웠음
- 북한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경제 분야 ‘12개 중요고지’ 가운데 4번째부터 7번째 고지인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 시멘트에 해당함

■ 北 올 들어 벌써 36건 환적 석탄 유류 반출입, 대놓고 안보리결의 비웃는 북중러(『문화일보』, 2023.4.24)

- 올해 들어 북한 서해상에서 36건의 불법 환적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과 동일한 수준의 불법 행위로 추정되고 있음
-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이나 대리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음
- 환적과 관련하여 남포항에서 석탄과 유류의 반출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선박들의 입출항 상황을 보도하고 있음
-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유조선 7척이 남포 유류 하역 시설로 들어오고, 특히 21일에는 길이가 100m와 65m인 유조선 2척이 등장했음
-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연료성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남포항에는 여전히 불법 경로를 통해 유류가 유입되고 있다는 추정이 있음

■ “북한 주민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용해 전력 자급자족”(『문화일보』, 2023.5.13)

- 북한 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 자체에서도 생산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개인용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급 기대를 포기하고 스스로 대처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5년 전부터 낮아지며, 소형 패널의 경우 약 15~50달러에 구입할 수 있음
- 북한 정부는 개인용 태양광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태양광 패널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태양광 발전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지역과 지방 주민들에게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일부 탈북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소형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정도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

■ 北 심각한 전력난 평양만 전력 집중공급 “지방은 하루 1~2시간 공급”(『파이낸셜뉴스』, 2023.5.17)

-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평양시와 지방 지역 간의 전력 공급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전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주민들은 매일 1~2시간 정도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를 제외한 공장들도 전기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평양시는 주택 건설과 강동온실 건설 등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은 전력 부족으로 등잔도 켜지 못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고 있음
- 북한의 전력 생산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겨울에는 수력발전 소들의 생산이 부족해 주민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전력 부족 상황은 지방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태양광패널 등 대체 에너지 수단의 이용도 제한적임 이로 인해 정전 사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 북한 “에너지 절약사업이 애국사업”(『NK경제(경제&산업)』, 2023.6.12)

- 6월 11일 국토환경보호성 리성일 환경과학기술연구원의 기고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오염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으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 리 연구원은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파괴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함
-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함 이를 위해 공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녹색건축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함
- 가정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설비를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야 한다고 조언함
- 모든 개인이 에너지 절약 사업을 국가경제발전과 생태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애국사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 북한 “재자원화 사업 성과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있다”(『NK경제(경제&산업)』, 2023.6.19)

- 로동신문은 6월 18일의 보도에서 재자원화 사업의 성패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기사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재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로동신문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재자원화 사업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추진하고, 과학연구 부문과 재자원화 사업 참여 단위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및 실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재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며, 선진 재생 에너지 기술을 탐구하고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로동신문은 강조함
- 로동신문은 과학기술 중시를 통해 생산과 건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북한 김책공대, 온천수 이용 지열발전시스템 개발(『NK경제(경제&산업)』, 2023.7.22)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7월 19일에 50kW 지열 발전체계 설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자연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기물질란킨순환을 통해 낮은 온도의 지열 자원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추세를 설명함
- 발전체계는 증기발생기, 저비점증기터빈, 응축기, 예열기, 온천수펌프 등으로 구성되며, NH₃(R717)를 작업물로 사용하여 전기 생산과 석탄 절약을 위한 과정을 설명함
- 연간 120~180t/h의 석탄을 절약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체계임을 강조함
- 70℃ 이상의 온천이나 폐열이 있는 지역에 적용 가능하며,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소개됨

■ 무동력 보일러 설치 열풍에 기술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Daily NK』, 2023.8.17)

- 자강도 주민들은 새 살림집에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기술자를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살림집 방안에 구들장 대신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인기가 있으며, 이는 난방 효율과 편의성 때문임

- 주민들은 국내산, 중국산, 한국산 자재 중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자재를 가진 기술자를 원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기술자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조선(한국)산 온수 난방 호스가 인기가 있어, 남조선산 자재를 가진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무역일꾼들도 중국을 통해 남조선산 자재를 가져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재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음

■ “북, 남포항 일대 유류 저장고 지속 확장”(『RFA』, 2023.9.8)

- 북한은 남포항 일대에서 유류 저장소를 확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저장소 3개가 설치되어 남포항 인근에 총 5개의 저장소가 운영될 전망이다
- 새로 설치된 저장소의 지름은 약 28미터로, 기존의 21미터보다 큰 규모임 이로써 남포항 일대에 저장된 석유와 화학물질의 수용 능력이 늘어나며, 이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됨
- 북한은 남포항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저장소를 확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이는 북한이 선로를 통한 화학물질 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포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새로 설치된 저장소들은 남포항 일대에 저장된 석유와 화학물질의 물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여전히 해상을 통한 석유 밀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 정부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선박 중 60%가 올해에도 활동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함

■ 북한, 재생에너지 이용한 주택 건설 장려…주민 대부분 만족(『Daily NK』, 2023.9.13)

- 북한에서 주택건설 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하면 건설

자재가 우선 공급되거나 질 좋은 자재가 배정됨으로써 전력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 건설 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국가가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전력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 설계 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졌음
-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에 대체로 만족하며, 이를 통해 밝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언급함
- 북한의 주택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에는 개별 태양광판 설치와 태양광발전소 전력망 가입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개별 태양광판 설치의 비용 부담이 낮지만, 태양광발전소 전력망 가입 시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함

■ 북 지방도시에 개인 연탄공장 등장(『RFA』, 2023.10.9)

- 평안남도 순천에서는 9월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인 연탄공장이 주로 평양시에 연탄을 공급하며, 시 인민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순천 구명탄공장은 국영탄광에서 합의가격으로 무연탄을 구입하고, 이를 진흙과 섞어 구명탄을 생산하는데, 이 활동에는 2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음
- 구명탄은 남성 노동자들이 노상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며, 생산된 구명탄은 평양시장으로 차량을 통해 공급되어 평양 주민의 연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평양 사동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등 시외 살림집은 구명탄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방에서 실어온 구명탄은 평양시장에 넘겨져 판매되고 있음
- 구명탄의 도매가는 600원, 소매가는 750원으로 현지 시세에 따라 구명탄이 평양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월동 준비 시작된 北…구명탄 가격 지난해 比 크게 떨어져(『Daily NK』, 2023.10.25)

- 북한에서는 겨울을 맞아 월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난방 연료인 구멍탄(연탄)의 가격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 북한의 평양 및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구멍탄 1개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37.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석탄의 가격 하락은 계속되는 채광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탄광연합기업소가 연간 생산 목표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함
- 석탄 가격 하락은 주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돈이 부족해 월동을 위한 석탄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석탄 장사꾼들은 석탄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주민들에게 더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 석탄 가격 하락에도 주민들의 체감은 크지 않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 땔감 가격 상승에 겨울 앞둔 북 주민들 시름 깊어(『RFA』, 2023.10.26)

- 북한의 땔감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층부터 중산층까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 자강도 소식통은 땔감 가격이 높아져 겨울철에 땔감이 더욱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자강도가 석탄 부족과 긴 겨울로 인해 땔감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을 강조했음
- 땔감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액화 가스 수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석탄과 땔감의 값이 급격히 오르게 되었음
- 양강도에서도 땔감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겨울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입방의 화목과 3톤 이상의 석탄이 필요한 상황임
- 땔감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겨울철 땔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음

■ 재생에너지 전력망으로 주민에 전기 공급…전력난 해결 도움?(『Daily NK』, 2023.11.10)

- 북한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주거 밀집 지역, 특히 아파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을 도입하고 있음
- 이 새로운 전력망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며, 국가가 에너지 분야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결과로 구성되었음
-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은 아파트 등 공동 주거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 주민 세대는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 가입비와 적산전력계 설치가 요구되며, 고정 기본 이용 요금과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함
-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하며, 주민들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의 개선을 언급하며 특히 밤에 충전해 놓은 전지를 활용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해졌음

10. 정치경제

■ 북한, 사회급양법 채택(『NK경제』, 2022.12.7)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12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했음
-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운석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관계자들이 방청함
- 한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회급양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음
-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짐

■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3일째 회의 진행(『NK경제』, 2022.12.29)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12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3일 회의에서 보고를 계속했다고 전했으며, 보고에서 올해 당의 활동과 자체 강화에서 많은 변화와 진전이 이룩된 것에 대해 총화하고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지역의 정치적 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당 정책에 관철되도록 하는 원칙과 당사상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간부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짐

■ 北, 올해 과제 ‘12개 고지’로 표현...1번 알곡 2번 전력(『YTN』, 2023.1.10)

- 북한이 지난달 열린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 분야의 12개 중요고지로 알곡, 전력, 석탄 등을 선정했음
-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는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 쫓기대회’ 행사장의 대형 전광판에 12개 중요고지를 하나씩 나열했음
- 행사가 열린 경기장 내 전광판 화면을 보면 알곡, 전력, 석탄 등의 순으로 적힌 목표가 인민 경제발전 12개 고지 점령이란 문구와 함께 차례로 나왔음
- 올해 북한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12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그만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풀이됨

■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선행 원칙’ 밝혀(『NK경제』, 2023.1.12)

-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서 견인기적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에 대해 강조됐다”고 1월 11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2023년 국가 사업계획 및 예산 채택(『NK경제』, 2023.1.19)

-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함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리병철 비서가 주석단에 등단했음
- 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음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방경제 발전 강조 나선 北 김정은 “된장 비누 질 높여라”(『서울경제』, 2023.1.23)

- 북한이 지방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했으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소비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질책을 거론하며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은 지방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켜세우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면 모든 도, 시, 군들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부단히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음
-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 차에 접어드는 북한이 농촌 개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간부들이 더 노력하라고 다그친 것이란 분석임

■ 북한 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NK경제』, 2023.2.6)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2월 6일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5일 채택한 결정서를 통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밝혔음
- 또 농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의 우선적 발전을 추동하며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 것을 비롯해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북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농업발전 논의(『NK경제』, 2023.3.16)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15일 진행됐다고 16일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의 첫 해 내각사업정형이 총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의 정책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음
- 회의에서는 내각당위원회와 각급 당 조직들이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착실하게 축성하기 위해 실행 계획들이 다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함

■ 식량난 시달리는 北...가뭄 식량생산 대책 회의 개최(『아주경제』, 2023.4.5)

- 북한은 식량난 대비를 위해 1분기 경제 결산 회의를 개최했음
-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덕훈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박정근·양승호 내각 부총리와 내각 성원들의 참석을 포함해 농업지도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의 일군들도 참여했음
- 회의에서는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 총화,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올해 알곡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논의됨
- 참석자들은 올해 농작물 파종을 적기에 질적으로 완료하고 식량 생산에 지장이 없도

록 가뭄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했음

- 또한, 간석지 건설과 관개 공사, 농기계 생산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여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음

■ ‘식량난’ 북한, 내각 전원회의 열고 봄 가뭄 피해 방지 논의(『경향신문』, 2023.4.5)

- 식량난 대응을 위해 북한이 1분기 경제 결산 회의를 개최했음
- 김덕훈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으며, 농업지도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일군도 참석했음
- 회의에서는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과 올해 알곡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논의됨
- 참석자들은 농작물 파종 일정을 준수하고 가뭄 피해 대책을 마련하며, 간석지 건설, 관개 공사, 농기계 생산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음
-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문 간 연계와 협동 강화를 강조하여 다음 분기 계획 수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새로 만들었다(『NK경제(IT과학)』, 2023.4.12)

- 2021년 이후 과학기술인재 강화를 위해 모든 과학기술인재들을 파악하고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에 등록하는 정책이 시작됨
- 새롭게 채택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강조하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등록하며, 자질향상과 사업조건, 생활조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들이 새로운 법에 규제되어 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 여러 법 초안들이 의결되고 채택되었음

- 북한은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의 소환과 선거도 진행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北, 태양열온실 짓겠다는 등 주민에 건설자금 강요” 반강제적 인력 동원도(『문화일보』, 2023.4.27)

- 북한 당국은 경제난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태양열 온실과 버섯 공장 건설을 강요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러한 건설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주민들은 건설자금 부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건설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임
- 북한 당국은 건설 지원을 위해 주민들에게 북한 돈 2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 작업에는 주민의 노동력도 동원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 지시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으며, 현물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음
- 주부들도 건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동원은 장사를 하는 조건에서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北 전승절 띄우며 “알곡생산목표, 경제발전 중요고지 점령해야” 경제과업 수행 촉구(『문화일보』, 2023.5.8)

- 북한은 전승절을 앞두고 경제 과업을 전투적으로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전승세대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할 것을 강조했다
- 북한은 생산정상화와 생산활성화를 위해 자신심과 배짱을 갖고 사회주의 재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상 교육을 강조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쟁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북한은 새세대들에게 위훈의 가치와 고귀성을 심장에 새기고 사상과 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목해야 함

■ 북한 국가과학원, 경제발전 12개 고지점령 지원 총력(『NK경제(경제&산업)』, 2023.5.12)

- 국가과학원에서 경제발전 12개 고지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연구소들이 천연생물활성제 생산을 위한 설비 제작과 식물약 생산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나노공학분원은 알곡여물기 촉진제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수리공학연구소는 농사에 필요한 물 보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현대화연구소 등은 대규모 온실농장에 지능형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열공학연구소와 동력기계연구소는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흑색금속연구소와 과학원 함흥분원은 철과 비료공장에 과학자를 파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과학원에서 시멘트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존생산공정 개조 및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임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6월초 개최 상반기에만 두차례 이례적(『경향신문』, 2023.5.29)

- 북한은 다음 달 초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상반기 경제 성과와 사업정형,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외교적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로 제시된 알곡 생산 확대 등 농업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전원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데, 북한 내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전원회의는 6월 상순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로 소집되며, 김 위원장이 참석하

여 상반기 경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와 보완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혁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도 토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북한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등 개정(『NK경제(경제&산업)』, 2023.6.1)

- 6월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상무회의에서는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 여러 법 조항에 대한 수정보충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개정안이 채택되었음
- 산업미술법에서는 산업미술 창작활동 조직과 조건, 균중적인 창작, 도안 심의결과의 기록, 자료 열람봉사 및 보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세분화되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음 또한 직업기술교육법에서는 직업기술학교의 조직, 교육계획, 교원 양성 및 배치, 교재, 실험실습설비 보장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수정되었음
- 보통교육법에서는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연령에 대한 규제,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교원 자격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음
-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 수출입상품검사일꾼들의 책임과 역할, 검사신청 문건의 절차와 확인, 검사장소,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의 지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었음
- 이러한 수정과 보충은 수출입상품의 품질과 양을 확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확장하기 위해 수출입상품검사에 규칙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음

■ 北, 8차 전원회의 앞두고 경제성과 최우선 부각 “많은 단위 새 기록”(『서울경제』, 2023.6.13)

- 북한은 제8기 제8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민경제 주요 부문에서

새 기준과 기록을 창조하여 성과를 이뤘다고 선전함

- 농업 전선에서는 알곡 생산 목표를 비롯해 다양한 성과를 이뤘으며, 관개건설 분야에서는 밭 관개망 및 관개체계 구축, 강령호 담수화 공사, 해안방조제 영구화 공사 등의 목표를 달성함
- 평양을 중심으로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건설 완공 이후 2단계 공사와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등의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제8기 8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 논의와 의결을 위한 자리로 예상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됨
- 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8기 8차 전원회의 소집 시점은 6월 중순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 달을 상·하순으로 나누는 북한의 시점 관습을 고려하여 오는 15일 안으로 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전원회의 앞둔 北, 경제 주요 부문 성과 선전전...“새 기록 창조”(『YTN』, 2023.6.13)

-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경제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자리로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 북한은 농업 전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과 기록을 창조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뤘으며, 관개건설 분야에서도 밭 관개망 및 관개체계 구축, 중소 하천의 바닥파기 등을 통해 목표를 성취했다고 밝혔음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임업 등 주요 공업부문의 사업장에서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화성지구와 서포지구의 건설 사업을 강조하며 발전 상황을 설명함
- 북한은 자력갱생과 전환의 해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투쟁의 승리를 실증하는 예시를 제시함
-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북한의 식량난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경제 성과 선전을 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현재 상황과 전략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됨

■ 北 8차 전원회의 앞두고 농업성과 집중 부각(『파이낸셜뉴스』, 2023.6.13)

-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상반기 경제 결산과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도하며, 새로운 기준과 기록을 창조하고 있다고 선전함
- 통신은 농업 전선에서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강조하며, 밭 관개망 구축과 관개체계 구성, 바닥파기 등을 통해 관개건설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함
-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임업 등 주요 공업부문의 성과를 소개하며, 화성지구와 서포지구 건설 계획을 강조함
-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선전하는 중요한 자리로 예상되며, 노동당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대내외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결정한 제8기 8차 전원회의 소집 시점은 ‘6월 중순’으로 관측되었으며, 전원회의는 한 달 상·하순으로 나누는 북한의 달력에 따라 오는 15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北 “알곡 고지 점령해야”... 전원회의 후속대책 논의(『YTN』, 2023.6.29)

- 북한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생산 등의 후속 대책을 논의함
- 확대회의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농사 작전과 지휘를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언급됨
-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와 중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유제품 공급 대책 등도 논의됨
- 북한은 올해 중점 경제 과업을 나타내는 ‘12개 중요 고지’ 중에서 알곡을 첫 번째로

두어 농업 증산을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은 확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보도함

■ 북한, 전원회의 후속 내각회의 개최 “웅대한 목표 달성하자”(『경향신문』, 2023.7.6)

- 북한은 지난달 중순에 열린 제8기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서는 상반기 부분별 인민경제계획을 총화하고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상반기 경제계획 수행과 경제사업의 혁명적 전개를 강조함
- 모든 일군들이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국가부흥의 목표를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으로 달성하도록 강조하였고, 농업부문에서는 영농공정 추진, 과학기술적 농사지도, 육아정책 관철과 품질감독사업 개선 등이 논의됨
- 김덕훈 내각 총리 주재로 열린 화상 회의에는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내각 구성원, 직속기관 관계자, 지역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장 및 기업소 관계자 등이 참가함
-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연속 개최하여 당 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임

■ [단독] 베일 벗은 북한의 양정법 개정안... ‘판매’ 반영, 벌칙 조항 구체화(『NK경제(경제&산업)』, 2023.7.14)

- 북한은 2022년 12월 개정한 양정법에 ‘판매’를 추가하고, 벌금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정 사업의 제재 규정을 명확하게 함
- 양정법 개정은 양곡 수매, 가공, 공급,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지원하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구체화됨

- 양정법 내용의 변경으로 양곡 공급과 판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양정기관의 역할과 국가양곡종합계획 등도 수정되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
- 양정법 개정안에는 양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다수 포함되어, 양곡의 정확한 계량, 보관, 국가양곡공급안 작성 등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처벌과 처벌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됨
- 개정된 양정법은 양정 사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내용이 강화됨

■ 북한 기상수문법, 바다오염 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 개정(『NK경제(경제&산업)』, 2023.8.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의 수정보충을 심의하고 승인했음
- 기상수문법 개정은 기상수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통제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음
- 바다오염방지법과 배등록법 수정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 조사, 분석을 개선하고 배등록사업의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법 개정은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작성,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 생산물 처리질서 등 농업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수정하며,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와 관련한 내용도 변경되었음
- 가격법 수정은 지표별 가격 적용과 가격표 게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가격에 대한 규정을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 北, 농업법 개정…농업개혁 조치 손보고 제도 정비 나서(『Daily NK』, 2023.8.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농업법을 개정했음

- 농업법 개정으로 농업 관련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 수정된 내용에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 작성, 지력 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 질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독립채산제는 생산자가 추가 생산한 일정량의 생산물을 자체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산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분조관리제는 대규모 작업반을 줄이고 10~25명의 분조 단위로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협동농장 운영 형태로, 북한 농업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됨

■ 분조관리제 폐지? 되레 개인 도급제 도입해 생산 증대 피해(『Daily NK』, 2023.9.21)

- 북한은 최근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수정했으며, 이로써 대규모 작업반을 작은 분조로 축소하여 농산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잡았음
- 개정된 법률에서는 분조 안에서 개인 도급제를 허용하여 농장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식량 생산을 목표로 함
- 개인 포전담당제가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농장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소식통은 지적함
- 개인 영농제를 통해 농장원들의 근로 의욕이 상승했지만, 약속된 분배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식량 증대 효과가 미미함
- 북한은 농촌으로의 주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농업 현장의 공업화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 “세계는 새로운 생물경제시대에 들어설 것”(『NK경제(경제&산업)』, 2023.9.15)

- 북한 로동신문은 생물경제가 농업, 공업, 디지털경제에 이어 새로운 경제형태로 인정되며 전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9월 15일에 보도했음
- 생물경제는 과거에는 생물의약산업에 중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농업, 식품, 에너지, 재료, 효소, 화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로동신문은 생물경제의 기초인 생물기술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계속해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생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증가, 식품안전, 에너지 수요 증가,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지적되었음
- 해외에서는 생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며 생물기술위원회를 조직하여 생물기술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 北 내각 전원회의 열어 3분기 총화…“알곡 생산 목표 무조건 수행”(『Daily NK』, 2023.10.6)

- 북한 내각은 5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덕훈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각 성원 및 기관 등이 참석함
- 양승호 부총리가 맡은 보고에서는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발생한 일부 단위들의 결함과 편향이 분석되고 총화되었음
- 보고서는 모든 부문에서 과학적인 작전력과 실천력을 발휘해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고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음
-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의 식량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농업 부분에서의 향상된 전략과 대책이 강구되었음
- 회의에서는 정비보강전략, 육아정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등 다양한 정책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북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NK경제(경제&산업)』, 2023.10.6)

- 10월 5일에 개최된 내각 전원회의는 화상회의로 김덕훈 내각 총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정근, 양승호 내각부총리 등이 참가함
- 양승호 내각부총리는 3분기 동안 경제의 각 부문에서 올해의 목표를 생산과 창조를 통해 이룩했다고 밝혔음
- 회의에서는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발생한 결함과 편향이 자료적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총화하며 4분기와 연간 계획 수행이 강조되었음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정비보강전략 수행, 육아정책,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 등 중요정책 집행에 주력할 것이 강조되었음
- 특히 올해 5개년 계획 완수를 결정적 담보로 마련하며 농업부문에서는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고 알곡 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 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 “알곡 생산 목표 무조건 수행”(『YTN』, 2023.10.6)

- 북한이 어제(5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를 논의함
- 김덕훈 내각총리 주도로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식량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이에 따른 대책이 논의됐음
- 통신은 농업 부문에서 농기계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영농 작전과 지휘를 세밀하게 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는 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고, 강화된 대책이 강구됐음
- 보고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 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점령하며 4분기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대해 강조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4분기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대한 강조사항이 전해졌음

■ 북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서 식량 생산 목표 달성 논의(『경향신문』, 2023.10.6)

- 북한이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를 논의함
- 김덕훈 내각총리 주도로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대한 분석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대책이 토의됐음
-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 중 ‘알곡’을 첫 번째로 꼽아 식량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음
- 통신은 “농업 부문에서 농기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영농 작전과 지휘를 세밀하게 하여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고 전함
- 북한의 식량 상황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식량 수입을 증가시키고 보리나 밀 등의 추수가 상당히 진척돼서 식량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北 내각전원회의서 “알곡 생산목표 무조건 수행”(『파이낸셜뉴스』, 2023.10.6)

- 지난 5일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3분기 인민경제 계획 수행 실태를 논의함
- 회의에서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식량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과 관련 대책이 논의되었음
- 통신은 “보고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적인 작전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인민 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4분기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음
- 양승호 부총리가 맡은 보고에서는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나타난 일부 단위들의 결함과 편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음
- 통신은 “농업 부문에서 농기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영농 작전과 지휘를 세밀하게

하여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한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고 전함

■ 北 “연말까지 50여 일…경제발전 목표 무조건 점령”(『YTN』, 2023.11.7)

- 노동신문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5개년 계획의 완수가 결정적인 담보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가 강화되고 인민 생활에서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면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목표 중 12개 중요 고지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기적 창조의 근본 열쇠는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1년 초에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전력 등 12개 항목을 ‘중요 고지’로 정했음

■ 북한 교육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개정(『NK경제(경제&산업)』, 2023.11.12)

- 북한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등을 활용하여 주거 밀집 지역, 특히 아파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을 도입하고 있음
- 이 새로운 전력망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며, 국가가 에너지 분야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결과로 구성되었음
-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은 아파트 등 공동 주거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 주민 세대는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 가입비와 적산전력계 설치가 요구되며, 고정 기본 이용 요금과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함

- 국가 자연에너지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하며, 주민들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의 개선을 언급하며 특히 밤에 충전해 놓은 전지를 활용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해졌음

11. 지질과 지형

■ 북한,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2023 진행(『NK경제』, 2023.3.31)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이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진행됐다고 31일 보도함
- 이번 행사에는 지하자원탐사 및 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과 연관 부문의 일꾼, 박사원생(대학원생), 대학생 등이 참가했음
- 발표회에는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탐사 및 개발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과정에 연구된 150여건의 논문들이 제출됨

■ 북한 김책공대, 준설선 개발(『NK경제(경제&산업)』, 2023.4.9)

- 김형철 선박해양공학부 연구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해저 흙을 파서 간석지 제방건설용 준설선을 개발함
- 이 준설선은 간석지의 공사 속도를 높이고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작업을 할 수 있게 함
- 준설선은 선체와 후면 삽굴착기, 조구통, 벨트 컨베이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해저 흙을 파서 제방에 쌓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제방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준설선은 제방으로부터 30m 떨어진 위치에서 작업하며, 밀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운영방식을 취함
- 대학은 이 준설선이 해저 바닥이 드러나는 수역에서 간석지 제방과 조수력발전소 등을 효과적으로 쌓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북, 주민들에 “더 많은 땅에 피마주 심어라”(『RFA』, 2023.5.3)

- 북한이 피마주(피마자·아주까리) 심기를 사회적 운동으로 제시함
- 피마주를 많이 심어 경제 난국 극복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임
- 피마주를 심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당국의 경제제재 대응 방향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임
- 용천군과 자성군 등에서 피마주를 심기 위한 새 땅 찾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주민들은 피마주 대신 먹을 식량이 더 급하다고 주장함
- 피마주의 가꾸기에 따라 공업용 연료와 염화비닐, 종이와 인조섬유 등을 생산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기대하는 당국의 선전과 주민들의 우려 사이에 갈등이 있음

■ [단독] 북한, 올해 농사에 국가 총동원령 내려(『NK경제(경제&산업)』, 2023.6.21)

- 북한은 2023년 상반기 전략 문건을 통해 국가적으로 모든 당원, 군대적인 접근으로 농업 생산에 참여하여 농업 발전을 이루는 “농업 생산 총동원령”을 제시함
- 북한은 문건을 통해 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생산 확대를 통해 나라의 농업을 흥풍 없이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함
- 북한은 농업 생산 총동원을 위해 국가적으로 농사일을 지원하고, 농촌 실정에 맞춰 봄철부터 노력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조직해 농사 차비, 관개건설, 토지개량 등을 적극 지원하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북한은 문건을 통해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와 농촌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 농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관개체계 완성을 당정책의 정치 투쟁으로 규정함
- 북한은 올해 농업 발전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며,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하늘에서 본 북녘] 평남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 및 침수 피해(『Daily NK』, 2023.8.31)

-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간석지는 2020년 9월에 준공된 바닷가 조성지로, 최근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
- 안석간석지의 제방이 무너져 657ha의 농경지가 바닷물에 잠겨,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음
- 이 농경지는 염분이 높아 소금기를 제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 부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 강원도 안변군에서도 태풍과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해로 북한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번 여름의 재해로 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12. 토양

■ “최악의 환경” 올해 농사 결산 주민들에 ‘거름과 과학’ 되새긴 북한(『경향신문』, 2022.12.12)

- 북한이 올해 농사가 가뭄·냉해 등 이상 기후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고 회고했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양질의 거름 확보와 과학적 농사 기법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농사의 성패는 일군들의 각오와 실력이 결정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올해 농사를 총화(결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의 농사는 변덕스러운 자연과의 전쟁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신문은 “이른 봄철부터 가을까지 온 한해 가뭄과 큰물(홍수), 우박과 냉해를 비롯한 재해성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해비침물(일조율)이 대단히 낮았다”며 “특히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때 아니게 들이닥친 냉해는 태풍이 여러번 분 것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 한편, 북한은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북 주민 원성 부른 때 이른 ‘거름전투’(『자유아시아방송』, 2022.12.12)

- 북한당국이 연말부터 거름 생산 전투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새해농사 준비를 위해 당국의 지시로 거름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농민들은 탈곡장 북데기를 옮기고 소 오줌과 돼지분변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민들은 거름 생산에 참여하면서 아직 알곡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북한 “생태환경보호부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NK경제(경제&산업)』, 2023.4.23)

- 북한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의 발생을 지적함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적인 접근으로 각 부문별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환경감시측정수단 개발과 선진적인 환경오염방지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는 녹색생산과 유기농법 등 선진영농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원 절약과 오염배출량 감소에 노력해야 하며, 환경보호사업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지붕녹화와 입체녹화기술의 적용으로 도시녹지면적을 늘리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함
- 모든 지역에서 환경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기와 물오염 방지시설 운영과 각종 생태환경사업을 실천해야 하며,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2023년 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진행(『NK경제(생활&문화)』, 2023.5.6)

- 북한 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가 2023년 5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됨
-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상과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설계, 산업미술, 과학교육부문 등의 관련 분야 일꾼들, 과학자, 교원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음
- 토론회에서는 ‘하천관리와 경관조성’이 주제로 설정되었으며, 강하천 정리와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 경험, 결함 등에 대해 논의됨
- 또한, 설계 단계부터 국토관리정책과 건축미학사상을 반영하고 인민의 편의와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토론회에서는 사방야계공사와 강하천정리, 장마철 피해 대책, 치산치수 관련 녹화물 시청도 진행됨

■ 북한 김책공대, 다기능 준설선 건조(『NK경제(경제&산업)』, 2023.7.16)

-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선박해양공학부 연구진이 다기능화된 줄바가지식준첩선 설계와 건조를 7월 13일에 완료했다고 발표함
- 줄바가지식준첩선은 강하천 정비와 해안 정리 작업에 활용되며, 환경 보호와 홍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배로 소개됐음
- 연구진은 줄바가지식준첩선을 바가지식굴착설비, 사별설비, 세척설비, 선광설비, 하선설비, 계류설비, 승강설비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설계로 구현함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이 다기능화된 줄바가지식준첩선을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강하천을 정비하고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북한 “생태환경 보호 위해 지하공간 활용 중요”(『NK경제(경제&산업)』, 2023.9.12)

-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 건설이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하공간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여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도시의 녹색면적이 확대되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재해 발생 시 지하공간은 파괴될 확률이 낮아 일부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제물자와 필수공급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하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제적인 녹색도시 건설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북 각지에서 아스팔트 도로보수 재개(『RFA』, 2023.11.2)

- 최근 북한 지역에서는 아스팔트 도로 보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간부들이 전용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 보수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남
-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자력갱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간 경쟁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로 지역 자체 힘으로 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음
- 도로 보수는 도시미화사업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 향상보다는 간부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도로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주민들이 콩 자갈과 같은 물자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귀중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도로 보수 작업은 주로 간부들의 차량 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일반 주민들보다 간부들의 편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13. 한반도와 국토환경

■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은? [우리가 몰랐던 북한](『매일경제』, 2022.12.10)

- 최근 북한에서는 련포온실농장이 완공되어 10월 10일에 준공식을 가졌음
-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조금 떨어진 함주군에 위치한 련포온실농장은 북한 방송에 따르면 280정보의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갖춰져 있음
-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련포온실농장,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온실에서 신선한 야채를 생산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지만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상은 어떤 것일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생산된 야채를 어떻게 분배하여 실제 함경남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함

■ 로동신문, 올해 김정은 최고 업적 ‘건설’ 꼽았다(『아주경제』, 2022.12.12)

- 북한은 올해 ‘건설 최전성기’로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과시했음
-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2월 12일 자 1면에 ‘시련을 이겨내며 줄기차게 벌어진 거창한 건설대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주체111(2022)년은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졌다”고 밝힘
-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주민의 의식주를 챙기는 ‘애민지도자’임을 강조하는 의도로 풀이됨

■ “북, 김정은 집권 후 발전소 건설 중점 추진”(『자유아시아방송』, 2022.12.14)

-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발전소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평양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반시설 건설 사업 중 발전소 등의 비중은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양 지역의 건설사업이 전체 건설사업 관련 보도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건설 사업의 추진은 자원 동원을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며, 평양에서 시작된 육아원, 양로원, 양생원 등의 건설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음
- 이러한 건설 사업은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건설은 지방화 개발구 중 무봉국제관광구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개발 움직임을 보였음
- 시장에서 형성된 자본이 도시화와 도시 건설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음

■ “북 살림집 건설 활발…교통시설 취약 여전”(『자유아시아방송』, 2023.1.6)

- 지난해 북한에서는 살림집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교통운수 관련 시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 지난해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건설 관련 기사는 총 618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건설 사업 관련 기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평양 외부에서의 건설 사업 관련 기사는 증가했음
- 지역별로는 함경남도가 가장 많은 건설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고, 살림집 건설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운수 분야 건설에 대한 보도는 적었음
- 북한 내 살림집과 다른 시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운수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

며, 농촌에서는 교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살림집과 공장기업소, 학교, 시장과의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 당국은 농촌 살림집 건설을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 용이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농촌 살림집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북한 “지방공장 현대화 중요한 정책적 문제”(『NK경제』, 2023.1.9)

- 로동신문은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 것은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는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해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1월 8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지난해 김화군에 자기 지방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이 세워졌으며, 자체적인 힘으로 군내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꾸며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이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본보기와 표준이 되었다고 함
- 한편, 로동신문은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지역의 자립적발전과 국가의 균형적이며 동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 개성시 공장 생산 부문 개선 사업 진행(『NK경제』, 2023.2.15)

- 북한 로동신문은 개성시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2월 15일 보도했음
- 개성시 일꾼들은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계획에 기초해 공장 생산 부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개성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역량으로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흐름선화

를 실현하고 무균화, 무진화 수준을 제고했음

- 또 개성기초식품공장에서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北 김정은, ‘5만세대’ 평양 주택건설 현장 착공식 방문(『아주경제』, 2023.2.16)

- 김정은 위원장이 5만 세대가 계획된 평양 주택건설 현장과 강동온실농장 착공식을 연이어 방문했음
-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의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의 2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음
- 평양 주택건설사업은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021~2025년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1단계 사업 착공식과 2021년 3월 ‘송신·송화지구’ 착공식에도 참석한 바 있음

■ 김정은, 김주애와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식 참석(『YTN』, 2023.2.26)

-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공사에 동원된 청년들을 향해 기적 창조의 시각이 왔다고 본때를 보일 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한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이번이 7번째로, 군 관련 행사 이외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 관람 이후 이번이 2번째임

■ 평양 살림집 야간 준공식에 주민들 ‘쏟을’(『RFA』, 2023.4.17)

- 2023년 4월 16일,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 화성지구 1만호 준공식 테이프를 끊으며

화려한 축포가 쏘아올려진 야간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음

- 평양 살림집 건설사업은 김일성시대에서 시작해 김정일시대, 김정은시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야간 준공식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주민들은 야간에 축포를 쏘면서 살림집 준공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자재와 노력이 지방 주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주민 소식통들은 지방 주민들이 해마다 수도 시민들에게 살림집을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건설에 대한 비용과 노력 부담을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음
-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호 살림집 건설이 착공되어 건설자재와 노력이 지방 공장기업소와 주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침을 나타내고 있음

■ 40층 랜드마크 입주 시작한 북한 신도시 ‘화성지구’ 모습은?(『경향신문』, 2023.4.22)

- 북한 평양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외양의 대규모 신규 주택이 준공됨
- 입주자로는 수도관리소 직원, 교사, 전쟁 노병, 군인 가족, 제대 군인 등 군 관련 인원이 포함되며, 입주자들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임
- 북한은 2021년에 평양에 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계획하였고, 송화거리와 화성지구의 1단계에서 이미 일부 주택이 준공됨
- 화성지구는 평양 북동쪽 룡성구역에 위치하며,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이 인근에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북한의 뉴타운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는 화성지구의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임

■ 북한 “송이버섯다당차 함양 효과”(『NK경제(생활&문화)』, 2023.5.19)

- 조선의오늘은 평양대흥식품공장이 생산하는 천연건강음료인 송이버섯다당차를 소개하며, 송이버섯의 특이한 맛과 향기 그리고 약리작용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송이버섯은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영양 및 약용성분이 풍부하며 항암효과가 뚜렷하다고 전하며, 특이한 냄새와 향기뿐만 아니라 여러 항생물질도 함유되어 있어서 오늘날 향미제와 약재로도 사용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음
- 송이버섯다당차는 송이버섯을 주원료로 만든 새로운 천연건강음료로, 항종양, 항암, 항스트레스 작용이 강하며, 송이버섯에 암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특종의 다당성분들이 들어있다고 공장 관계자들이 밝힘
- 평양대흥식품공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진과 협력하여 첨단설비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최신 식품가공기술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송이버섯다당차를 개발했음

■ 농촌 살림집 건설 성과 선전하지만 실상은 자재 부족에 ‘난항’(『Daily NK』, 2023.6.26)

- 북한은 농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건설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재 부족으로 인해 건설 계획의 10% 정도만 수행된 상황임
- 북한은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통해 농촌 주거 개선을 강조하고 농촌 살림집 건설 사업을 진행했으나,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평양 살림집 건설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농촌의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평안남도의 순천세멘트공장이 자재 부족을 겪는 것은 다른 지역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방 자체적인 건설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북한 당국은 매체를 통해 주택 건설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계속된 자재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촌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하수처리 시설도 없는데 ‘9·9절까지 무조건 입사하라’ 강요(『Daily NK』, 2023.8.10)

- 황해북도 인민위원회가 새로 건설된 농촌 살림집으로 이사하기를 꺼리는 주민들에게 ‘노동단련대에 갈 각오를 하라’고 경고하면서 입주를 압박하고 있음
- 주민들은 하수처리 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아 살림집으로 입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웅덩이를 파놓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음
- 도 인민위원회는 9월 9일 전까지 무조건 살림집에 입주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들을 노동단련대에 보내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 주민들은 살림집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난방, 도배, 타일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로 바빠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음
- 살림집 배정은 시기가 빠르고 하수처리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평양 도심 재개발 속 시장 사라져 주민 불편(『RFA』, 2023.9.26)

- 모란봉 구역의 인흥시장은 평양에서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최근 주택건설로 인해 시장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시장으로 이동하여 필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당국은 새로운 종합상점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시장 없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 주변 구역의 시장들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데 반해, 인흥시장의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은 주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여겨지고 있음
- 평양시에는 다수의 시장이 존재하며, 시장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포지구 건설장에 청년 탄원 줄 잇는다더니...이탈자 속출(『Daily NK』, 2023.10.31)

- 북한의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 평양 서포지구의 새 거리 건설장에서는 참여율이 겨우 6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탈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행방을 찾아가는 일이 빈번하며, 부모들이 자식을 보호하여 이탈을 막는 경우도 있음
- 청년돌격대원들은 영양실조로 고통받으며, 하루 10시간 넘게 무거운 노동을 하면서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제공되지 않아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 제공되는 식사는 주로 강냉이밥과 된장국 또는 시래깃국에 염장무, 김치로 알려져 있으며, 부실한 식사로 영양실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청년들의 건설 참여를 애국심의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건설 참여율의 저조와 이탈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북한, 평양제약공장 준공(『NK경제(경제&산업)』, 2023.11.22)

- 평양제약공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시에 따라 생산된 현대적이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되었음
-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제약공장 건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발기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요소로 나타났음
- 21일에 개최된 평양제약공장의 준공식에는 전승국 내각부총리,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는 해당 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준공식에는 김정은 총비서를 대표로 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승국 내각부총리가 준송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였음
- 평양제약공장은 종합적인 의약품 생산기지로 설계되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북한의

의약품 산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북, 산간오지에 손전화 전파기지 건설(『RFA』, 2023.11.29)

- 북한 당국은 최근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골 농촌지역에 손전화 전파를 중계하는 기지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망을 확장하는 계획을 밝혔음
- 북한은 현재 ‘고려링크’와 ‘강성네트’ 등 두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주요 도시에 전파기지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관군 송남리와 은산군 재동탄광 등 산간 농촌지역에 전파중계기지를 증설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손전화 사용이 어려워 전파중계기지를 설치하여 통화 신호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전파중계기지 설치로 손전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가 징수하는 통신요금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일부 사람들은 전파중계 기지가 늘어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전파중계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관광 재개 만지작…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보장 지시(『Daily NK』, 2023.11.30)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무역계획에 건설 자재 반영을 목표로 내부 지시를 내렸음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금난과 자재 수입 차질로 완공이 지연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 또는 기업을 외국자본으로 유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대외경제성 일꾼들은 관광지구 건설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내부 분위기는 해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19 국면 종식을 맞아 관광지구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완공을 통해 본격적으

로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풀이됨

- 대외경제성과 중앙기관 무역회사들이 담당하는 관광지구 건설은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총역량 투입이 필요한 일이며, 이를 강조하는 내부 의견이 있음

14. 해양

■ 북 농민, 갯벌 갈게 잡이로 생계유지(『자유아시아방송』, 2023.3.10)

- 북한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갯벌에서 갈게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을 단속하고 있어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봄철에 들어서도 서해바다 갯벌에서 갈게를 잡아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출근하지 않고 농민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의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있음
- 서해바다와 연결된 압록강 하구 갯벌에서 갈게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이 많으며, 갈게 잡이는 한 철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어려워진다고 전해졌음
- 안전원이 갈게 잡이를 하는 농민들을 단속하려고 갯벌을 훑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안전원이 나타나면 숨고, 사라지면 다시 갈게를 잡고 있음
- 단속된 농민들은 사상투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이 식량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했음

■ 북 남양제염소 간부 ‘말실수’로 교화소행(『RFA』, 2023.6.19)

- 평안남도 속천군에 위치한 남양제염소에서 소금 생산을 담당하던 간부가 가뭄과 소금 생산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국가보위부에 붙잡혀 노동교화소에 수감됨
- 이 간부의 발언이 가뭄 조건하에서 소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었으나, 이것이 반당 행위로 해석되어 출당철회된 것으로 보임
- 남양제염소는 서해 바닷물을 활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는데, 전기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의 소금 수입이 중단되어 국내 소금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
- 국가보위부는 간부의 발언을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출당철회 시키고

노동교화소에 수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사건을 통해 북한 내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원 부족 문제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

■ 북한 연구진, 올해 초 방사능 오염수에서 세슘 제거 논문 국제학술지에 투고(『NK경제(IT과 학)』, 2023.8.3)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은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2023’에 세슘을 방사능 오염수에서 제거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 세슘은 방사능 물질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 연구진은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음
- 연구에서는 세슘 제거를 위해 칼륨 구리 헥사시아노철(II) 클리놉틸로라이트(KCuHCF CL) 복합물질을 사용하고 모의 폐수에서 세슘 흡착 실험을 수행하여 성과를 얻었음
- 이 연구는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됨
- 세슘 137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방사능 오염수의 관리와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 “농업개혁 등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23.8.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통해 농업법 개정을 심의하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 다양한 법률을 수정하고 승인했음
- 바다오염방지법의 개정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강화하고 오염 상태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바다오염방지 사업을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은 농업개혁의 핵심 요소인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를 수정함으로써 가족을 단위로 농업 생산을 관리하고 초과생산물의 자율적 처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 분조관리제는 가족농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독립채산제는 생산자가 초과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 법률 개정은 북한의 농업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며, 바다오염방지법의 개정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국방성, 군부대 소금 접수 사업 총화…미흡한 결과에 신랄 비판(『Daily NK』, 2023.9.1)

- 국방성은 각 부대에 1년치 소금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제로는 3~4개월치만을 채울 수 있었음
- 일부 군부대의 후방 일꾼들은 소금을 빼돌려 판매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으며, 국방성은 이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함
- 국방성은 올해부터는 더 이상 소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소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함
- 소금 접수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 행위들을 총화에서 지적하면서, 소금 부족 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방성은 일부 군부대에서 소금 접수에 참여한 후방 일꾼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 국정원 “북한, 국내 반정부세력에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 근거는?(『경향신문』, 2023.9.4)

-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계속하고 있음
- 국정원장 김규현의 발언이 북한의 대응과 분석의 불일치를 보여주며, 국정원은 김

의원의 질문을 자기 인식대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음

-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 가능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북·중·러 연합훈련의 공식 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김주애를 후계자로 여기기는 성급하며, 북한은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에 집착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음
-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및 인사보복에 대한 비판에 대해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수행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수사권을 잡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함

■ “北, 반정부세력에 日오염수 반대활동 지령”(『매일경제』, 2023.9.4)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반정부 세력과 지하망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음
-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북한의 활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국가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7월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해상연합훈련을 제의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보고되었음
- 북한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현재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김 원장이 밝혔음

■ 국정원 “北, 국내 반정부세력에 오염수 반대 지령”(『한국경제』, 2023.9.4)

- 국가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정원장은 김정은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쟁 시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을 선호하고 있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함
- 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분석하며, 북한이 외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술 핵무기와 함께 단기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국정원은 현재 일본 정보 기관과 협력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 국정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제한한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북한의 군사 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北 이번엔 오염수 투쟁 지령, 심상찮은 南 공조세력 행태[사설](『문화일보』, 2023.9.5)

- 북한은 남한 정치에 대한 개입이 ‘족집게’식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조세력과 지하망에 대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지령을 빈번히 내리고 있음
- 북한의 지령은 주로 ‘오염수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동요시키고, 반일(反日)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 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은 서울 도심에서 주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도의 집회를 조장하고, 서울광화문 광장과 일본 대사관 주변 등을 시위 장소로 선정하여 국내에서 반윤석열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정 단체들에 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조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등이 해당됨 지령은 윤석열 반대 투쟁과 단체 단결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남한 정치 개입이 총선과 연관하여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반국가 행위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강조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물고기 방사능 검사’ 지시(『Daily NK』, 2023.9.8)

- 북한 수산성은 물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조하며 각 수산사업소에 지시를 내렸음
- 수산성은 수산 부문 일꾼들에게 방사능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학습시키고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당부함
- 일부 수산사업소에서는 지시가 비난으로 받아들여지며, 선박 운영과 어획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 수산사업소 일꾼들은 자체적으로 검사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강원도 수산사업소는 연구기관의 도움을 요청함
- 일부 수산사업소 일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발생하면 남한을 거쳐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日 오염수 방류에 북한 수산물 밀매도 ‘비상’ 걸렸다(『Daily NK』, 2023.9.22)

- 중국 내 수산물 수요 감소로 북한의 수산물 밀거래가 위축되고 있음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수산물의 수요와 가격이 하락했음
- 북한 수산사업소가 중국에 제시하는 수산물 가격이 중국 시세보다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수산물의 경우 북한 수산사업소가 제시한 가격이 중국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민들의 해상 조업을 제한했으나 최근 서해에서 어업을 재개하였음

■ 북 수산사업소, 소형 안강망선으로 고기잡이 안간힘(『RFA』, 2023.10.11)

- 북한의 수산사업소가 서해에서 멸치와 꽃게잡이에 나섰지만, 소형 안강망선의 낚음과 연료부족으로 어획이 불안정함

- 안강망선이 낡아 안강망을 끌어올리는 데 부족한 마력으로 선원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음
- 소형 안강망선의 디젤유 부족으로 멸치를 운반선에 판매하고, 선박끼리 물물거래를 통해 연료를 조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낡은 안강망선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선원들은 출항 전에 끼니를 갖추지 못하고 출항하며 어획량이 부족한 상황임
- 여러 지역의 수산사업소에서 안강망선의 어획 부진과 디젤유 부족 등으로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함경북도 당국, 어부들에 “로씨야 영해 침범 마라”(『RFA』, 2023.10.24)

- 함경북도 어부들에게 낙지잡이가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로씨야 영해로 나가는 어부들이 많음
- 당국은 어부들에게 로씨야 영해로의 침범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단련대에 갈 각오를 하라는 엄포를 내리고 있음
- 어부들은 로씨야 영해 가까이에서 낙지잡이를 하면서, 어쩌다가든 로씨야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았음
- 최근에는 당국이 조직적으로 어부들에게 로씨야 영해 침범을 금지하고 노동단련대에 보낼 각오를 하라는 경고를 내리고 있으며, 로씨야 영해에서의 송환 시 일시적 감금도 예상됨
- 함경북도에서의 로씨야 영해 경고는 최근 김정은의 로씨야 방문 및 로씨야 외무상의 평양 방문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 [다큐] 한강새우를 아시나요? DMZ 뱃길로드에서 만난 사람들(『한겨레』, 2023.11.30)

- 한반도의 DMZ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비릇된 경계의 땅으로, 70년간 얼어 있는 그

고립된 지역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땅에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되고 있음

- 디엠지 일대 물길 105km를 따라가는 뱃길로드를 통해 DMZ에서 인간들이 꿈을 키우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DMZ가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DMZ 일대에서 한강 어부의 이야기부터 생태체험 마을, 장단면의 콩 농사, 한탄강 어업, 댕싸리공원, 그리고 울무두루미와 같은 다양한 지역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DMZ 일대의 생태와 지역 사회의 공존이 드러나고 있음
- 댕싸리공원과 같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혜를 발휘해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5. 환경 정보화 및 과학기술

■ 북한, 전국수의방역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수의약품전시회 진행(『NK경제』, 2022.12.3)

- 북한 로동신문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수의축산기술협회가 전국수의 방역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수의약품전시회를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했다고 12월 3일 보도했음
- ‘집짐승(가축) 및 가금병예방치료의 과학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는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열렸음
- 농업위원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위의 수의방역부문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꾼들이 참가한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풀 먹는 집짐승, 가금의 전염병 및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8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되고 수의약품들이 출품되었음

■ 북한 “과학농사가 살길...선진영농기술 무조건 도입해야”(『NK경제』, 2022.12.6)

- 북한 로동신문은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있는 오늘날 농업발전에서 선진영농 기술과 방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12월 6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다. 그런 만큼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널리 도입하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다”며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누가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의 농업생산 성과가 좌우된다”고 설명했음
- 한편, 로동신문은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낸 단위들의 경험 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공적인 단위들의 공통점이 일꾼들부터가 과학농사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도입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임

■ 북한, 정보화법 개정(『NK경제』, 2022.12.8)

- 북한이 정보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화법을 개정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12월 8일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정보화법과 건설감독법이 국가 관리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고 당과 국가의 건설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 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 운영,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김책공대, 국토환경정보서비스 SW ‘만년대계’ 개발(『NK경제』, 2023.1.18)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정보기술연구소 박찬일 실장 등 연구진이 지리정보체계기술을 기반으로 국토환경부문의 업무를 정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년대계’를 개발했다고 소개했음
- 김책공대는 만년대계가 개인용컴퓨터에서 토지, 산림, 도로, 강하천, 국경과 같은 여러 국토부문의 자료들에 대한 주제별 열람, 계측, 검색, 분석 및 통계, 편집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음
- 이 프로그램에서는 라스터 자료에 대한 3차원적인 시각화기술, 국토환경부문의 각종 주제별 대용량 벡터 자료 시각화를 위한 계층화, 토막화 기술을 실현했으며 지도상에서 길이, 면적 등 각종 계측기능과 다양한 방식의 검색기능, 기타 새로운 주제 대상에 대한 추가, 편집 및 반출입 기능을 구현했다고 함
- 이 프로그램은 국토환경자원관리에 필요한 지리공간자료관련 업무에서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며 종합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경제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함

■ 북한 지방에서도 과학기술선행 총력(『NK경제』, 2023.1.18)

- 북한의 지방에서도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 원칙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신문은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당 중앙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의 견인적 역할을 강화해 올해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월 17일 전했다
- 노동신문은 얼마 전 진행된 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틀어쥐고 당 결정 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 나갈 것에 대해 중요하게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의 해당 부서들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강력한 과학기술역량을 파견하고 그들이 현행생산과 정비보강계획수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3차원 건물모형 기반으로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NK경제』, 2023.2.12)

- 북한이 3차원(D) 건물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화재경보 및 소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정보과학 2022년 제68권 제4호에 ‘3차원 건물모형에 기초한 망봉사형 화재경보 및 소방체계에서 건물구조 자료의 분류와 제작’이라는 논문이 게재됐음
- 논문은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능 높은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한 여러 감시 및 관리체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화재경보 및 소방체계와 같은 경보체계에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을 도입한 실례는 많지 않다”며 “이전에 개발된 화재경보체계들은 대체로 화재수감부들과 화재감시반과 같은 장치들로만 구성돼 화재발생 장소의 구체적인 화재위험에 대한 평가와 소방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물의 3차원 모형에 기초한 망봉사형 화재경보 및 소방체계에서 건물구조자료의 분류와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북한 김책공대, 실시간 오존농도 측정기 개발(『NK경제』, 2023.2.21)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전자공학부 최철민 연구사 등 연구원들이 소독장의 오존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보여주고 측정값을 오존발생기 조종반에 RS-485(Modbus RTU) 통신으로 보내는 기능을 가진 실시간 오존농도측정기를 개발했다고 2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 대학은 오존농도측정방법에 화학적정법과 분광광도법, 자외선흡수법, 화학발광법과 화학형광법, 전기화학분석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 이 중 전기화학분석법은 수감부 내부에 있는 작업 전극에서 오존기 체성분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과정에 생겨나는 전류는 오존기체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패러데이 법칙에 기초함

■ 김정은 총비서 “농업과학기술발전 위한 사업 박력 있게 추진하라”(『NK경제』, 2023.3.2)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적 농업과 농업과학기술발전을 주문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3월 2일 보도했음
- 북한 언론들은 이번 행사에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째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규율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힘

■ 북한 김책공대, 제36차 과학기술축전 진행(『NK경제』, 2023.3.9)

- 북한 로동신문은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전국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2023을 3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3월 9일 보도했음
- 이번 발표회의 목적은 지하자원보호기간을 계기로 지하자원탐사 및 보호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지하자원보호부문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지하자원탐사 및 보호, 자연환경보호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는데 있다고 함
- 로동신문은 발표회에 지하자원탐사 및 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등과 이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꾼, 대학생, 기능공들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 또 원료와 연료, 동력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비롯해 지하자원개발 및 종합적 이용과 관련한 기술과 방법, 지하자원 채취율을 높이는 데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지하동굴, 광천자원을 비롯한 자연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연구 성과 등이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다고 소개했음

■ 북한, 제36차 과학기술축전 각 도에서 마무리(『NK경제』, 2023.3.19)

- 북한 로동신문은 제36차 과학기술축전이 각 도 직할시에서 진행됐다고 3월 18일 보도했음
- ‘과학기술의 견인력’을 주제로 진행된 축전에서는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이행을 위해 각지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추진하면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제출됐다고 함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에서는 과학기술성과발표와 전시, 과학기술연단 등을 조직해 축전장이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급속히 전파, 이전시키는 폭넓은 기술교류, 경험교환 마당이 되었다고 함
- 또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 있는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연구사, 기술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관철과 농산작업의 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 제안들을 선보였다고 함

■ 북한 “과학기술중시 운명으로 받아들여라”(『NK경제』, 2023.3.22)

- 북한 로동신문은 당이 과학기술 발전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이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음
-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그 혁신방향이 명시됐다”고 3월 22일 강조했다
-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야 난관을 딛고 일어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에서 백, 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비약적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로동신문은 당의 전략적 노선이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한편, 로동신문은 과학기술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자체의 과학기술인재역량을 강화하며 그 위력을 총폭발시킬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총비서 “정보화 시대 요구 맞는 농촌기술혁명” 지시(『NK경제』, 2023.3.22)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촌기술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로동신문은 농촌기술혁명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라고 3월 22일 소개했음
- 특히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 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힘

■ 북한 “과학농사중시기풍 확립돼야”(『NK경제』, 2023.3.23)

- 북한 로동신문은 “과학농사중시기풍이 확립돼야 과학농사열의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며 “지금 일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과학농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 있지 못해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시기의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는 언제 가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3월 23일 보도했음
- 로동신문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과학농사에 명줄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하늘만 쳐다봐서는 다수확을 낼 수 없으며 오직 과학으로 하늘의 변덕을 이겨내고 풍요한 작황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 로동신문은 “다수확을 내자면 과학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과학농사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임 사상적으로 발동된 사람은 과학농사를 중시하고 모든 농사일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낡은 경험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주장했음

■ 알곡 증산 목표 세운 북한 “과학농사열의 고조시키자”(『경향신문』, 2023.3.26)

- 알곡 증산을 올해 제1의 경제 목표로 내세운 북한이 과학 농사를 강조했음
- 로동신문은 26일자 1면에 ‘과학농사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해 분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음
- 신문은 “벼연구소에서는 지역별로 품종배치와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안과 대책안들을 안속(실속)있게 만들고 화상회의체계를 통해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고 소개했음

- 한편, 북한은 지난 연말 제8기 제6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달성해야 할 경제 분야의 12개 중요 고지를 정하고, 그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했음
- 이는 만성적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알곡 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줌

■ 북한 김책공대, 솔리드웍스로 기계 설계(『NK경제』, 2023.3.26)

- 북한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으로 기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3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명국 기계과학기술학부 실장이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기계설계도면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컴퓨터지원도면검도체계를 개발했다고 소개했음
- 대학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면에 내재된 치수와 겹면정결도, 기하학적공차오류를 빠른 시간에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체계는 크게 구조화부분, 해석부분, 후처리부분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짐

■ 북한 “노동자들부터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인재화해야”(『NK경제』, 2023.3.27)

- 북한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인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은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사업에서 노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위원장에 따라 전 주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든다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 주민들 중에서 노동자들을 우선 과학기술 인재를 만드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는 것임

■ 북한 농업과학연구기지 개건현대화공사 추진(『NK경제(경제&산업)』, 2023.4.3)

- 북한 농업연구원 본원지구와 각지 농업과학연구기지의 현대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농업연구기지건설 현장지휘조의 일꾼들은 대상공사들을 추진하기 위한 임무분담과 작전, 지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화성건설사업소는 벼연구소건설을 위한 골조공사를 최단 기간에 완료했음
- 탁아소건설과 양어장의 휴식터 공사를 위한 준비사업도 전개 중이며,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업과학연구기지 건설의 완공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음
- 함경북도 명간군은 강냉이연구소 명간강냉이연구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에서는 농업토지자원연구소의 공사를 일일 평균 1.2배로 끌어올리고 있음
- 노력과 자재,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현대화 공사에 참여하고 있음

■ 북한, 농업대학들 원격교육 강화(『NK경제(IT과학)』, 2023.4.6)

- 농업대학들은 원격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 근로자로 준비시키고 있음
- 강의시간 조절 및 과정안 개선, 강의편집물 제작 등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실무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원격교육을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리봉사기(서버) 설치 사업도 추진 중임
- 숙천농업대학에서는 원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학들의 경험을 수용하고, 농업근로자들의 학습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대학들의 노력으로 원격교육을 받는 농업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 전국지진 및 화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IT과학)』, 2023.4.8)

- 평안남도 농업대학들이 원격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강의시간 조절과 과정안 작성 등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 중임
- 학과별, 과목별 강의편집물 제작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격교육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리봉사기(서버) 설치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 숙천농업대학에서는 다른 대학들의 경험을 수용하여 강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으며 학과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북한 김책공대, 농약 살포용 농업용무인기 개발(『NK경제(IT과학)』, 2023.4.9)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3월 28일에 농업부문에 널리 이용 가능한 농업용무인기를 개발했음
- 농업용무인기는 다축무인기로 축전지의 동력을 이용하며, 농작물에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고 농작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무인기는 철 각체 구조를 이용하여 최대 15kg의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농업용무인기의 비행속도는 510m/초이며, 작업비행고도는 310m, 비행시간은 15~20분임
- 무인기의 작업능률은 사람이 할 때에 비해 100배로 높아 농업근로자들의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북한, 4월 10일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 시작(『NK경제(IT과학)』, 2023.4.11)

- 북한에서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개최됨
- 축전의 주제는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축전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당의 뜻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이룩한 성과들을 교류하고 전수, 통보하는 자리임
- 행사는 31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과학연구 성과들이 출품되고 있음
-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은 화상회의방식으로 발표되며 국가자료통신망 아침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음

■ 북한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비치용 아니다”(『NK경제(IT과학)』, 2023.4.18)

- 노동신문은 리 당위원회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농촌에 과학기술 중시와 과학농사 기풍을 확고히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은 농업분야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운영 방법과 총화형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농장원들의 과학기술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노동신문은 일부 농장들이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에 만족하거나 유지 관리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은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어 농촌 과학농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노동신문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을 통해 농촌에서의 과학농사 기풍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당부하고 있음

■ 북한, 농업과학기술 정보 제공 앱 황금열매 1.1 확산(『NK경제(IT과학)』, 2023.4.26)

- 농업과학기술봉사프로그램 ‘황금열매’는 농업부문에서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농업 과학기술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황금열매는 농업정보화연구소와 황해북도체신관리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기술제품으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농업 기술적 문제에 대한 먼거리 문답봉사와 정보 교류가 가능함
- 농업정보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에 황금열매 1.1을 설치하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개발은 농업 생산의 정보화에 기여하며, 농업부문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황금열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업부문의 농사 작업이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 농업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해짐

■ 북한, 오존발생기 확대 도입(『NK경제(경제&산업)』, 2023.4.30)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나노물리공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오존발생기는 나노복합사기재료를 활용하여 국산화되었으며, 생활용수 소독, 공기 소독, 물재자원화, 폐수무독화, 펄프 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 제품임
- 백운영 나노물리공학연구소 소장과 김정국 연구사 등의 과학자들은 나노복합사기재료를 활용한 오존발생기의 핵심부분인 오존발생관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했음
- 이 과정에서 기술경제적 지표들이 개선되고 원가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실리가 큰 오존발생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됨
- 오존발생기는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받아 과학 기술의 성과를 인정받음

- 이러한 다목적 오존발생기의 도입으로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고급스러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북한 “알곡생산목표 달성 위한 제일 전략 자원은 자금이 아니라 과학기술”(『NK경제(IT과학)』, 2023.5.8)

- 로동신문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당이 내세운 알곡생산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따라 과학연구부문, 특히 농업과학연구부문이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북한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농사추진조를 통해 선진농업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상수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협조하여 농작물의 성장 예측과 농업기상통보를 과학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봉사프로그램 활용 등의 대책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농업 관계자들 하느님 쳐다보지 말고 과학기술 공부하라”(『NK경제(IT과학)』, 2023.5.10)

- 로동신문은 농업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과학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생산의 안정과 발전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결정되며, 불리한 날씨 조건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과학농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지키며 농업생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제고하고 농장의 기술발

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리한 조건일수록 책을 들여다보면서 부지런히 배워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북한 올해 1월 법 개정...첨단기술 외국투자기업에 3년 세금면제(『NK경제(IT과학)』, 2023.5.13)

- 북한은 2023년 1월에 법을 개정하여 첨단기술과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함
- 개정된 법안은 첨단기술 부문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10%로 낮추고, 투자 기간에 따라 세금 면제와 감면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혜택과 취소에 대한 규정도 강화됨 기업소득세의 감면 및 면제는 투자활동의 확인과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적용된다고 함
- 북한은 IT, 나노산업, 생물산업, 새 재료산업, 우주산업, 해양산업 등을 포함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음
- 법 개정으로 외국투자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첨단기술분야에 진출할 동기를 부여하여 북한 경제의 성장과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북한 “지난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 모든 기관 의무적으로 참여했다”(『NK경제(IT과학)』, 2023.5.14)

- 2023년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과학기술 중시와 선행을 주제로 열렸으며, 30여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됨
- 올해의 축전은 과거와 달리 준비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모든 단위들이 지역별과학기술축전에 의무적으로 참가했음

- 축전에는 전국적으로 1,190여 개의 단체와 4,000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 일꾼, 교원, 학생, 근로자 등이 참가하였고, 4,10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가 제출되고 4,100여 종에 22,900여 점의 전시품들이 전시됨
- 이번 축전은 과학기술연단이 새롭게 마련되고 축전기간에는 학술토론회와 연구토론회, 기술 강의 등이 진행됨
-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남도와 교육위원회, 농업위원회, 국가과학원 등 여러 단위들이 이번 축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다시금 투시해보게 함

■ 북한, 가상전시회방식으로 제17차 국가발명전람회 개최(『NK경제(IT과학)』, 2023.5.16)

- 제17차 국가발명전람회는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가상전시회방식으로 개최되며, 주제는 ‘발명과 국산화, 재자원화’임
- 전람회는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실현하고 경제 여러 부문에서 현행 생산과 정비보강사업,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열림
-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고 보급 및 교류, 유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
- 전람회에는 최근 수년간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술들 중 기술봉사, 계약, 판매 등 유통이 가능한 대상들이 참가함
- 발표회 마당과 교류마당에서는 우수한 발명기술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내용 발표, 지적소유권 관련 법률 및 제품유통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되며, 지적제품전시장에서 는 발명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짐

■ 북한 김정은 총비서 “인재, 과학기술발전전략 전면적 부흥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라”(『NK경제(IT과학)』, 2023.5.18)

- 김정은 위원장이 인재전략과 과학기술발전전략을 북한 정부의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음

- 인재전략과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북한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실행과 성과를 담보해주는 관건적이고 선차적인 전략으로 강조함
-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의 존망과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으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루고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 속에서도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한 사례를 제시했음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인재전략과 과학기술발전전략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빛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음
- 북한의 인재전략과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다른 나라들의 전략이나 목적과 크게 다르며,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북한, 솔리드웍스 API로 프로그램 개발(『NK경제(IT과학)』, 2023.5.21)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진이 총괄표자동생성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총괄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하며 계산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5월 18일 홈페이지 발표).
- 이전에는 솔리드웍스(SolidWorks)로 설계를 진행한 후, 총조립도의 명세표를 엑셀 자료파일로 기억시키고 그것을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총괄표를 작성했으나, 이 방법은 품이 많이 들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총괄표자동생성프로그램은 솔리드웍스 API 함수를 활용하여 조립도 명세표로부터 부분품, 규격품, 부분조립 및 매듭의 자료를 읽어내고, 나무뿌리구조와 동일성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설비에 이용된 부품들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함
- 총괄표작성은 기존의 견본 화일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작성시 발생하는 일부 문제들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보여줌

- 총괄표자동생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총괄표 작성 시간은 이전의 48시간에서 단 12분으로 절약되었으며, 계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북한 “현재 전국 13만명 원격교육 받고 있다”(『NK경제(IT과학)』, 2023.5.22)

- 로동신문, 전국적으로 13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돼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체계의 발전으로 근로자들이 지식형 근로자로 키워지고 있다고 보도함
- 원격교육체계가 김정은 총비서의 뜻을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상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격교육법도 채택되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음
- 교육부문 일꾼들과 각지 단위의 일꾼들이 노동 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대학들은 원격교육의 학과수를 늘리고 교육내용을 생산현장의 요구에 맞게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있음
- 지능교수관리체계 도입으로 원격교육체계를 북한식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대학 원격교육학부에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로동신문은 모든 근로자들이 꾸준히 원격교육체계에 참여하여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MS 액세스 기반 동물화석 DB MySQL로 전환(『NK경제(IT과학)』, 2023.6.3)

- 북한 연구진은 동물화석 데이터베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Microsoft Access)에서 오라클 MySQL로 전환한 사실을 발표함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논문에서는 제4기 포유동물화석의 종정보자료기시설계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화석 표본 감정과 현대적인 분석 방법 적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었으

나, 북한 연구진은 My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환을 추진함

- MySQL은 미국 오라클(Oracle)이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으로, 북한 연구진은 이를 통해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이러한 동물화석 데이터베이스 전환은 북한 연구진의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관리 능력 강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지능형통합생산시스템 개발 중(『NK경제(IT과학)』, 2023.6.4)

- 북한 로동신문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통합생산체계를 개발 중인데, 이는 변화하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목적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자체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체계를 의미함
- 과거의 통합생산체계는 경험과 지식정보에 기반해 운용되어 왔지만, 다양한 생산 조건과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춘 통합생산체계가 필요하다고 로동신문은 주장함
- 주목할 만한 핵심 기술은 가상물리체계(CPS)로, 이는 사이버공간의 가상세계와 물리적 실체를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팩토리에서 널리 사용되며 최적화된 내용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한 후 실제 생산체계에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북한은 지능형통합생산체계의 도입으로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체계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에서 지능형통합생산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대규모 온실농장에서 농업 분야에 적합한 지능형통합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임

■ 북한 과학영화 ‘이동통신망에 의한 과학농사’ 창작(『NK경제(IT과학)』, 2023.6.16)

-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이동통신망에 의한 과학농사’, ‘염기전달성벼’, ‘보온식 온돌’ 등과 같은 농업과 농촌생활과 관련된 과학영화를 최근 제작하여 소개함
- 이러한 과학영화는 북한의 농업과 생산 분야에 대한 당의 과업과 노동자들의 현실 경험을 기반으로 간석지 논의 벼 재배, 농업 정보화, 농촌살림집 난방문제 등을 다루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음
- 로동신문은 과학영화 ‘이동통신망에 의한 과학농사’의 경우 연출가가 기술적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서도 일꾼들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였다고 보도함
- 과학영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며, 특히 보온식 온돌 제작을 위한 협력과정과 온돌 설치과정이 일꾼들의 현장 경험과 결부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과학영화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함
- 이와 같은 과학영화 제작은 북한의 농업과 농촌분야의 과학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현실적인 경험과 기술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임

■ [단독] 북한, 기술혁신 한 사람에 최고 혜택 주도록 제도화(『NK경제(IT과학)』, 2023.6.20)

- 북한은 2023년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확대하고 경제정책으로 공업부문 생산능력을 높이며 국가경제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함
-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에서 발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모든 노동자와 농민이 공유하고 정치적, 물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 북한은 방역정책을 강화하고 악성 바이러스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며, 의진자와 감염자의 즉각적인 격리와 관찰을 통해 전파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함
- 북한은 공업부문 생산능력을 키우고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국가 면모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북한은 발명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치적, 물질적 혜택을 제도화하는 계획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6.25)

-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과학기술발표회는 ‘더 좋은 생태환경과 건재의 국산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건설 분야의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건축대학, 평안남도설계연구소 등 다양한 건축 및 설계 관련 기관의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이번 발표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함
- 발표회에 제출된 150여건의 논문들은 자기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건재의 국산화를 추구함으로써 안정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함
-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들이 수여되고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창작경험발표회와 건설추세자료에 대한 녹화물 시청도 이뤄졌음
- 조선건축가동맹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건설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생태환경 보호와 국산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북한 “상반기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비판적 분석하라..일부 계수행 미달”(『NK경제(IT과학)』, 2023.7.14)

- 북한, 2023년 상반기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96.9% 추진 및 일부 기관에서 미달로 지적함

- 노동신문,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중요성 강조하며 모든 일꾼들에게 철저한 수행 필요성 강조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계획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되었음을 밝힘
- 일부 단위에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수행 미달을 비판하며 경제 개선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성과 중요성 강조함
- 농업위원회와 국가과학원, 교육부문의 노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 수행 앞당김을 강조하며 모든 일꾼들의 비판과 분석, 새로운 결의 필요성 주장함

■ 북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은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NK경제(IT과학)』, 2023.7.18)

- 북한, 과학기술인재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5개년계획 집행 중요성 강조함
- 노동신문, 과학기술인재 역할을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강조함
-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역량 중요성 강조함
-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 부문 성과를 극대화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 강조함
-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원리 강조함

■ 북한, 전국밀재배기술경험발표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8.4)

- 조선농산기술협회가 8월 2일과 3일에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밀재배기술경험발표회를 개최하였음
- 발표회에는 수십 개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현장일꾼이 참가하였으며, 기술 강의, 논문 및 경험발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음
-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밀 품종에 대한 재배기술과 경험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행사에는 40여 건의 논문과 경험자료가 제출되었으며, 밀 품종의 특성에 따른 재배기술과 경험자료가 평가받았음

- 조선농산기술협회의 이번 행사는 밀 재배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 북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도 과학기술위원회 있다”(『NK경제(IT과학)』, 2023.8.19)

- 로동신문은 각 도 과학기술위원회가 경제발전과 지방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몇몇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로동신문은 도 과학기술위원회들이 인재 관리와 인재 육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정책에 과학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로동신문은 각 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 “과학자, 기술자 수천 명 원격재교육 받는 중”(『NK경제(IT과학)』, 2023.8.22)

-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인민대학습당과 여러 대학에서 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한 원격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의 정책에 따른 것임
- 이러한 교육사업을 통해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로 발전하고 있음
- 인민대학습당과 대학에서는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하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해당 전공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강의안과 편집물을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 평양농업대학에서도 농업부문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원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도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북한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9.15)

- 9월 13일과 14일, 조선화학공업협회가 주최한 전국 화학공업 과학기술발표회가 순천 화학연합기업소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10여개의 기관에서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함
- 발표회는 탄소하나화학공업과 희토류응용기술 분야 그리고 기초 화학 및 비료공업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기술 제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 참가자들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화학공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관심을 가졌음
- 이번 발표회는 화학공업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며 북한의 화학공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였음

■ 북한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2023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9.20)

-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2023’이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음
- 북한 내 270개 단위의 가구와 마감건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 3대혁명소조원 등 10여개 단위의 전문가들이 참가함

- 690여 종에 2,000여점의 제품이 가구부문과 마감건재부문으로 나눠 출품되어, 이들 제품이 국산화,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의 성과를 보여주었음
- 전시회 기간 동안 참가 기관들 간에는 과학기술발표회, 선진과학기술보급 등의 다양한 기술 교류가 이뤄졌으며, 참관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었음
- 조립식 가구와 기능성 가구, 지방의 특성을 살린 타일, 석재, 칠감 등의 다양한 마감건재 그리고 건축조명과 조명 제품들이 참관자들의 주목을 받았음

■ 북한,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9.24)

- 평양건축대학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과학기술발표회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렸음
- 발표회에는 평양건축대학, 평성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 등의 기관에서 온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420여 건의 논문이 건설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의해 제출되었음
- 발표된 논문 중에는 살림집의 공간구성수법, 급배수설계에서의 건축정보모형화기술 응용, 일체식 벽체 시공의 새로운 휘틀시공방안과 같은 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화성지구와 검덕지구에서의 살림집 건설에 관한 경험발표와 세계건축성과자료에 대한 녹화물 시청도 이번 행사에서 이루어졌음
- 평안남도설계연구소, 도시경영성 중앙난방연구소 등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건축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농업 정보화’ 박차 가하는 北…어떤 프로그램들 있나 보니(『Daily NK』, 2023.9.27)

- 북한은 ‘황금열매’, ‘구슬땀’, ‘황금별’과 같은 다양한 농업 관련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여 농업 정보화 사업에 진력을 가하고 있음
- ‘황금열매’ 1.1은 농업과학원과 황해북도 체신관리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스마트

폰과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생육예보, 상식, 기술경험 등의 농업과학 기술 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화상 문답도 가능하게 함

-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6월에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1.1 버전이 보급 중이고 1.2 버전은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음
- 북한은 ‘구슬땀’과 ‘황금별’ 같은 프로그램과 농업과학기술 보급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농장에 보급하여 농업 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에는 ‘농업기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시간 기상자료 및 농작물생육 예보, 병해충 예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 북한,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진행(『NK경제(IT과학)』, 2023.9.29)

-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교육정보학회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정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학술토론회에 대해 노동신문이 보도함
- 발표회 및 토론회는 ‘교육방법과 교육정보화’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여 교육정보 부문의 과학기술성고를 공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지능화된 정보수단을 활용한 교육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 학술토론회에서는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수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으며, 참가자들 중 우수한 제안을 한 이들에게는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식도 개최되었음
- 이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대한 녹화편집물시청도 이루어졌으며, 교육정보화에 대한 토론과 제안을 통해 교육분야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북한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첨단과학지구에 위치”(『NK경제(IT과학)』, 2023.10.1)

- 로동신문은 10월 1일자 기사에서, 일명 과학도시와 같이 불리는 첨단과학지구가 과학 연구 및 교육기관, 기업체들이 집중되어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체화를 촉진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신기술 기업체의 창설과 발전을 위한 특수한 경제지대로 소개함
- 로동신문은 2022년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첨단과학지구에 위치하며, 기술 갱신주기가 빨라져 첨단과학지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함
- 로동신문은 과거 대규모 기업체가 우세했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재는 독점적인 지위의 약화와 함께 자금 부족 등으로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체 및 개별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혁신 능력이 증시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다양한 국가들이 첨단과학지구에서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로동신문은 언급함
- 로동신문은 첨단과학지구의 발전 방식이 종전의 대규모 산업화에서 가치높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혁신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 북한 최대 IT 행사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3’ 개막(『NK경제(IT과학)』, 2023.10.3)

- 북한의 가장 대규모 IT 행사인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3’이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해 가상전시회 방식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
- 이번 전람회는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와 정보화열풍’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보기술성과, 경험, 제품들을 널리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열렸음

- 전국 370여개 단위에서 출품된 1,200여건의 성과자료와 제품들이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해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 과학연구, 교육, 보건기관 등에서 제공되었음
- 로동신문에 따르면 컴퓨터와 휴대폰을 이용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람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가상적인 환경에서 전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기술교류와 평가가 가능하다고 소개되었음
- 전시회 기간에는 연구 성과와 경험에 대한 발표회, 컴퓨터바이러스(백신)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작성 경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기존 행사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열고 있음

■ 북한 “전자기파도 환경오염의 일종”(『NK경제(IT과학)』, 2023.10.6)

- 북한 로동신문에 따르면, 전자기파는 인체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의 일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북한, 전자기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해 경고함
- 10월 6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로동신문은 전자기파의 발생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오랜 시간 전자기파를 받으면 피로, 기억력 저하, 신경쇠약증상, 가슴 답답함, 시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전자기파가 누적되면 중추신경계통 문제, 암, 내분비계통 질병, 조기 노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도 파괴한다고 지적하며, 국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대폰의 전자기복사선이 곤충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하고 있음. 또한 전자제품의 끊임없는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전자기복사량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북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최(『NK경제(IT과학)』, 2023.10.20)

- 북한 로동신문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

술전시회 2023'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함

- 행사의 주제는 '나노기술에 기초한 공업창설추진'으로, 전시부문과 발표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의 나노기술 응용연구 성과가 소개됨
- 전시부문에서는 농업, 금속, 화학, 건축, 생물,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부문의 나노기술응용연구 성과 및 제품이 소개되며, 나노재료제조, 나노 및 마이크로 가공, 나노 측정 및 분석방법 연구 등이 포함됨
- 전시회에서는 나노기술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발표회와 강습도 진행됨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과 농업과학원 등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전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채색함

■ 북한, 최대 IT 행사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3 화두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NK경제(IT과학)』, 2023.10.22)

- 북한의 최대 IT 행사인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3에서는 10월 2일 개막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2023은 가상전시회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구름계산(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가상 환경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소개
-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의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 과학연구, 교육, 보건기관 등 370여 기관에서 제출한 1,200여건의 성과 자료 및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농업, 국가관리, 경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성과가 소개되었음
- 정보산업성은 전시회 기간 동안 인공지능 프로그램 경연과 정보기술자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음

■ 북한 '전국자동화부문, 자연에너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IT과학)』, 2023.10.27)

-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개최된 북한의 전국자동화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전국자연에너지부문 과학기술발표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자동화학회, 조선자연에너지협회 등이 주최하였음
- 발표회는 '경제발전과 자동화', '자연에너지의 효과적인 개발 이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자연에너지의 개발 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공과를 공유하고 흡수, 통보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행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국가과학원 등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여 여러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주요 주제로는 통합자동화체계, 무인운반차의 주행 일정 작성 방법, 풍력 및 태양빛발전 설비의 개발 방향 등이 소개되었음
-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 도입된 통합자동화체계 및 무인운반차의 도입 방법 등은 기술적 현대화를 이루어내었고, 풍력 및 태양빛발전 설비의 개발 제안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음
- 발표회에서는 수십 건의 기술제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음. 여러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국가과학원 등에서 참가한 다양한 기관과 인원들이 행사에 참여함

■ 북한, 전국농기계부문 연구토론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10.27)

- 10월 26일에 화상회의체계를 활용하여 개최된 전국농기계부문 연구토론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농기계기술협회 주최로 진행되었음
- 이번 연구토론회는 '주요농기계들의 이용률 제고'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농촌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 정책에 따라 농기계의 운영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토론회에는 농업위원회 농기계연구소, 청진농업대학, 숙천농업대학 등 1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농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제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작물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토양관리기계, 파종기, 모내는 기계 등의 제작과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음
- 논문들은 농기계의 제작과 이용률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 해결과정을 강조하며, 토론회는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함

■ 북한,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 진행(『NK경제(경제&산업)』, 2023.10.27)

-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는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버섯협회의 주최로 개최되었음
- 발표회는 전국의 버섯생산농장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이 당면한 과학기술적 과제 및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최자는 조선버섯협회로 밝혀졌음
- 발표회에는 중앙버섯연구소와 각 도의 버섯공장 등 총 20여개의 기관에서 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버섯 생산과 관련된 경험과 성과를 나눴음
- 행사에서는 실리적인 에너지 및 원가 절약형 버섯재배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맛 좋고 영양 높은 버섯 생산을 위한 기술과 경험이 공유되었음
- 발표회는 버섯재배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적 혁신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생산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조함

■ 북한 “모든 농업근로자들 낚은 경험수첩이 아니라 새 과학기술도서 보라”(『NK경제(경제&산업)』, 2023.11.5)

- 로동신문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낚은 경험수첩이 아닌 새로운 과학기술도서를 활용하여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강조하며, 농촌의 풍조 및 생활기풍에

이를 도모해야 한다고 11월 5일 전함

- 로동신문은 농업생산이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해 보장된다고 설명하며, 농업근로자들이 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영농실천에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농사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로동신문은 몇몇 농업근로자들이 구태의연한 농사방법에 의존하거나 우연에 기대며 새 과학기술도서를 장식품처럼 책장에 두는 현상을 비판하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따르기 위해 과학기술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 로동신문은 농업근로자들 중 일부가 시간 부족을 들어 과학기술도서를 보지 않는다는 변명을 했을 때 이는 결국 책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비판하며, 학습을 생활화하고 습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과학농사추진조 내년에도 과학농사 위해 준비”(『NK경제(경제&산업)』, 2023.11.19)

- 과학농사추진조는 다음 해에도 농사 전 과정에 과학기술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올해의 성과와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교훈과 원인, 극복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많은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다음해 과학농사 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한 토론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농업과학기술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 및 도입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올해 도입된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제품들을 심사하여 다음해 과학농사에 확대 도입할 수 있게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업과학원에서 진행된 검정시험과 발표회를 통해 중요한 제안들을 중점 선정하고 있음
- 재해성 이상 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담보가 과학농사지도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명심하며, 실질적인 조치들을 세우고 있음

■ 저자약력

강택구 (연구책임)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현)

tgkang@kei.re.kr

주요 연구실적

- 남북한 협력방식 변화의 논의와 통일교육에 함의 (2023)
- 중국의 일대일로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과 전망 (2022)

김진환

EC21R&C 선임연구원(현)

izen@ec21rnc.com

이영표

EC21R&C 선임연구원(현)

paul@ec21rnc.com

신소은

EC21R&C 선임연구원(현)

sonny@ec21rnc.com

이준호

EC21R&C 주임연구원(현)

james@ec21rnc.com

※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3년